

濟州島 마을[洞里]과 山岳 이름의 종합적 연구*

오 창 명**

목 차

I. 서 론

II. 본 론

1. 오름 이름[山岳名]

- 1) 제주시 2) 서귀포시
- 3) 북제주군 4) 남제주군

2. 마을 이름[洞里名]

- 1) 제주시 2) 서귀포시
- 3) 북제주군 4) 남제주군

III. 결 론

I. 서 론

이 연구는 제주도의 오름[山岳]과 마을[洞里] 이름을 언어학적으로 연구한 것이다. 특히 고유한 음상을 올바르게 밝혀내고 그 뜻은 무엇인가를 밝히는 것이 이 연구의 주목적이다.

종래의 연구는 주로 전설 또는 자연 지형과 연관시키거나 한자 지명 표기를 중시한 해석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지명에는 전설에 따라 붙인 것도 있고 자연 지형과 관련지어 붙인 것도 있지만 오늘날에 남아 있는 지명은 원래의 음상과 뜻과는 전혀 다르게 쓰이는 것이 많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이다. 애월읍 동귀리에 있는 破軍峰은 여몽연합군이 삼별초군을 크게 격파한 곳이라는 데서 한자화한 것(진성기, 1960:176 ; 김종철, 1995:214 ; 김기빈, 1996:128)이라는 것을 거의 정설로 믿고 있으나, 破軍은 한자의 훈과는 상관없는 '바구니' [簾]의 음가자 표기일 뿐이다. 지나치게 전설에 의존한, 잘못된 해석이다. 한림읍 명월리에 '개구리오름(국립지리원 발행의 5,000분의 1 지도를 비롯한 각종

* 본 연구 논문은 한국학술진흥재단의 '96 박사후 연수과정(Post-Doc.)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진 것임.

**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지도)·갯거리오름(김종철, 1995:3권.361)·갯골오름 / 皮文岳(김종철, 1995:3권. 364)·개꼬리오름 / 狗尾岳(진성기, 1960:166 ; 한림읍지, 1963 ; 김봉현, 1988:184)' 등으로 부르는 오름이 있다. 이 오름은 각종 옛 지도와 주변의 묘 비석에 새겨져 있는 皮文岳에 대한 한자 표기의 음상과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민간어원설에만 의존한, 잘못된 해독에서 나온 결과이다. 皮文岳은 '갯글오름 > 갯글오름' 또는 '갯그리오름 > 갯그리오름'¹⁾ 정도의 음상을 반영한 것이다. 이 오름은 두 개의 봉우리를 가지고 있는데 구불구불한, 긴 등성마루 양쪽에 반대 방향으로 누워 있다는 데서 '갯거리·갯거리·갯고로' [倒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다. 한림읍 상대리의 옛 이름은 '중구실, 중구술'로 알려지고 있으나, 옛 지도에 召隱貴林村, 召貴林村, 召貴林村 등으로 표기되었다. 이는 '존귀술마을 > 존귀술마을'²⁾의 차차 표기이다. 그러므로 '중구술'의 원 음상은 '존귀술 > 존귀술'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제주도 마을 이름과 산악 이름 중 새롭게 해독되어야 할 것들이 많이 있다. 이 글은 이러한 점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한 것이다.

연구 대상은 제주도의 오름과 마을 이름이다. 이름을 가지고 있는 오름 중(오름의 숫자는 조사 기관과 조사자마다 다르나, 대개 330여 개로 알려지고 있다.) 중복되는 것도 있고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될 것들을 제외한 270여 개의 오름, 그리고 행정동과 법정동·리를 중심으로 한 마을 이름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다. 마을 이름 중 일부는 자연 마을을 대상으로 한 것도 있다. 가령 삼양동에 속하는 '설개, 도련드르, 매돈지, 검은여, 지구리, 가물개' 등은 삼양동 항목에서 함께 다루었지만, 외도동의 '도벵디'와 이도2동의 '돌로리' 등은 항목을 달리하여 다루었다. 濟州島라는 제목을 붙였으므로, 언어권이 다른 추자면의 것은 논의에서 제외하였다.

가급적 민간에서 현재 부르고 있는 고유어 이름을 찾아 밝히고, 옛 지도와 문헌을 참고하여 사라져 버린 음상과 뜻을 찾아내려고 하였다. 원래의 음상과 뜻은 제주도방언과 중·고대국어의 대응 예를 찾

1) '오름'은 山이나 岳을 뜻하는 제주도방언으로, 오늘날 '오름'이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으나, 古老들은 대부분 '오름'(현평효, 1985:515)을 쓰고 있다. 옛 문헌인 『남사록』(권1)에 "사투리로...岳은 '오름(吾老音)'이라 한다(俚語...以岳爲吾老音).", 『탐라지』에 "岳을 '오름 > 오름(兀音)'이라 한다(以岳爲兀音)."고 하여 이른 시기부터 岳의 뜻으로 '오름·오름 > 오름'이 쓰였음을 알 수 있다. 원래 岳과 嶽은 그 뜻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으나(山 및 산 嶽 및부리 약 亦作岳 嶽 및봉오리<훈몽-초, 상:2>), 제주의 '오름'을 지칭할 때는 큰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기문(1991:179)에서 吾老음을 '오름'으로, 兀음을 '오름'으로 읽고 '오름'이 '오름'보다 古形인 듯한 점이 주목된다고 했다. 양주동(1942:584)에서 향가인 <현화가>에 나오는 岳音(오름)의 岳은 '오름'의 훈독자 표기, 품은 말음 'ㅁ'의 음차로, '오름'은 '오르-' [上·登]의 명사형이라 했다. 최범훈(1980:18 ; 1993:186)도 '오름'은 중세어 '오르-'의 명사형 '오름'의 변이형이라 하고, 몽고어 oroi(山頭·頂上), urghuho(登·昇), ula(山) 등과 계통론적으로 관련이 있을 것이라 했다. 중세어 '오르-'와 '오로-'가 같은 시기에 나타나므로 이의 명사형 '오름'과 '오름'도 같은 시기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재구형 오름 이름에는 고로들이 사용하는 '오름'으로, 현대화한 오름 이름에는 '오름'으로 표기한다.

2) 里 또는 村 등으로 표기된 '마을'의 제주도방언은 '마을'과 '마을·마을'로 나타나고, 중세어는 '마을 > 마을 > 마을 > 마을'의 과정을 밟으므로, 마을 이름의 재구형에는 '마을'로, 현대어 이름에는 '마을'로 표기한다.

아서 밝힘은 물론 한자 표기의 올바른 해독을 통해서도 밝히려고 하였다. 특히 한자 표기의 해독은 차자 표기의 해독 방법을 이용해야 하는데, 차자의 해독 방법과 차자에 대한 용어는 남풍현(1981:11-15)에 따랐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지명이 한자 표기로 정착하는 과정에서 이름이 어떻게 잘못 알려지게 되었는가, 그리고 과거의 연구들에서의 잘못은 무엇인가 등을 논의하여, 새로운 견해를 밝혔다. 현재로서 밝히기 어려운 것들은 미제로 남겨두었다.³⁾

II. 본 론

본론에서의 논의 순서는 자연 지명인 오름을 앞세우고 마을 이름은 다음에 둔다. 이를 행정구역별인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의 것으로 나누고, 다시 북제주군과 남제주군은 읍과 면 단위로 나누어 논의를 진행한다.

1. 오름 이름[山岳名]

1) 제주시

(1) 元堂岳[웬당오름·원당오름] > 元堂峰(원당봉)

삼양동에 있는 '원당오름'은 『신증동국여지승람』 등에 元堂岳, 「탐라지도」 등에 大元堂, 元堂峰, 「제주지도」 등에 元堂峰으로 표기하였고, 민간에서는 '웬당오름 > 원당오름, 원당봉'이라 부른다. 元은 '원' 또는 제주도방언 '웬'의 음독자 표기, 堂은 '당'의 음독자 표기, 岳은 '오름'의 훈독자 표기, 峰은 岳을 달리 표기한 것이다. 元堂이라는 이름은 원나라 奇皇后가 왕자를 얻기 위해 바닷가에서 三疊七峰을 이루는 이곳에 元堂寺라는 절을 지어 소원을 빌었다는 데서 붙인 것이라고 한다.

(2) 奉蓋岳[봉개오름], 赤岳[붉은오름] > 봉개오름·붉은오름

봉개동에 있는 '붉은오름'은 「탐라순력도」 등에 奉蓋岳, 「탐라지도」 등에 赤岳, 오늘날의 지도에 '붉은오름'으로 표기하였다. 현지인들은 '봉아오름, 봉아름', '붉은오름'이라고 한다. 奉蓋는 '봉개'의 음가자 표기로, 그 뜻은 확실하지 않다. 민간에서는 奉哥(봉가 > 봉개) 선비가 살았다는 데서, 또는

3) 본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훌륭한 지도와 조언을 해주신 제주대 국어국문학과 강영봉 교수께 감사드린다.

儀仗의 한 가지인 蓋를 받든 형국이라는 데서 붙인 것이라고 하나, 모두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赤은 '붉은' > '붉은'의 혼독자 표기로, 赤이 붉다는 데서 붙인 것이라고 한다. '봉아름'은 '봉아오름'의 준말이고, '봉아'의 '아'는 '봉개'의 '개'가 변한 것이다. '개'가 '아'로 변했는데, '오'은 '물개' > '물애'의 과정에 나타나는 유성마찰음으로, [ㄱ] 음가를 가진 것이라 할 수 있다. 특이한 것은 중세국어의 유성마찰음 '오'은 ʔ, ㄹ, ㄴ과 모음 사이에 존재하는데, 이 경우에는 '오'과 모음 사이라는 것이다.

(3) 葛岳·七峰[칠오름] > 칠오름

봉개동에 있는 '칠오름'은 『신증동국여지승람』 등에 葛岳, 「제주지도」와 주변의 묘 비석에 七峰 등으로 표기하였다. 민간에서는 '칠오름'이라고 한다. 葛은 '츄' > '츄' (葛 츄 갈 葛草 又葛藤 츄너출 <훈몽-초, 상:4>)의 제주도방언 '칙' 또는 '칠'이 혼독자 표기이다. 일반적으로 '츄'에 대응하는 제주도방언은 '칙'과 '꼭'이 자주 사용된다. 대개 오름 이름에는 '꼭'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칙' 또는 '칠'을 많이 쓰는데, 방언에서의 '칠'이 '꼭' 또는 '칙'보다 이른 시기의 형태로 보인다. 七은 '츄'의 후대 음인 '츄'의 제주도방언 '칠'의 음가자 표기, 岳과 峰은 '오름'의 혼독자 표기이다. 葛岳은 '칙오름·칠오름'의 표기로, 이 오름에 '츄'이 많았다는 데서 붙인 것이다.

(4) 明道岩[명도암], 明道岳[명도(암)오름] / 兄峰[성오름], 弟峰[아시오름] > 명도(암)오름 / 안세미오름, 밭세미오름

봉개동에 있는 '명도암오름'은 두 개의 봉우리 사이에 '조리세미(또는 '조로세미')'라고 하는 샘[泉]이 있기 때문에 '조리세미오름'이라고도 하며, 이 샘을 기준으로 하여 마을 안쪽에 있는 것을 '안세미오름', 바깥쪽에 있는 것을 '밭세미오름'이라고도 한다. '세미'는 '샘[泉]'의 제주도방언이고, '밭'은 '밭'의 제주도방언이다. 「탐라지도」 등에 明道岩, 「제주삼현도」 등에 明道岳, 「제주지도」에는 兄峰, 弟峰, 주변의 묘 비석에 兄弟峰, 明道菴峰 등으로 표기하였다. 明道岩은 '명도암'의 음독자 표기로, 이곳에 살았다는 金晉鎔 선생의 호라고 한다. 그렇다면 이 이름은 후대의 이름이라 할 수 있다. 明道岳은 '명도암오름'의 표기이다. 마을 사람들은 이 오름이 '성제' ('형제'의 제주도방언)와 같다는 데서, '성제오름'이라 하고, 다시 '성오름', '아시오름'으로 나누어 부르기도 한다. 兄은 '형'의 구개음화한 제주도방언 '성'의 음독자 표기, 弟는 '아우'의 제주도방언 '아시'의 음독자 표기이다.

(5) 呂難止·如卵旨[여란지] > 열안지오름

봉개동에 있는 '여란지·열안지'는 「탐라지도」 등에 呂難止, 「제주지도」(승실대)에 屯止, 「제주지도」에 如卵旨, 주변의 묘 비석에는 列雁旨, 燕卵旨, 燕卵峰, 列雁峰, 列雁旨岳, 列雁趾岳, 抱卵旨, 오늘날의 지도에 '열안지오름'으로 표기하였다. 呂難止·如卵旨은 '여란지'의 음가자 표기로, 그 뜻은

에는 寺水岳, 丹羅岳 등으로 표기하였고, 민간에서는 '절물오름, 대나오름[큰대나, 족은대나], 다나오름' 등으로 부른다. 踏은 '답' (踏 밧을 답<훈몽-초, 하:12>)의 음가자, 印은 '인' (印 인 汎稱印信<훈몽-초, 상:18>)의 음가자 표기로 보이는데, '답인[다빈]'의 음가자를 민간에서 확인하기 어렵고, 그 뜻도 확실하지 않다. 大는 '대'의 음가자 표기, 川은 '내' 또는 유사음 '나'의 훈가자 표기, 乃는 '내'의 음가자 표기, 丹霞는 '단하[다나]'의 음가자 표기, 丹羅는 '단라 > 단나[다나]'의 음가자 표기이다. 이들은 민간에서 부르는 '대나'와 음상이 서로 비슷한데 무슨 뜻인지 확실하지 않다. 오름 남동쪽으로 큰 내인 'ㄷ릿내[橋來川]·앞내[前川]'가 흐른다는 데서 '대내오름'이라 했고, 이것이 한자 大川, 大乃 등으로 표기되고, 丹霞와 丹羅는 '대내' 정도의 음상을 반영한 음가자 표기가 아닌가 한다. 그러나 이때의 '대내'와 앞의 踏印을 바로 대응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小는 '작은'의 제주도방언 '족은'의 훈독자 표기, 寺는 '절'의 훈독자 표기, 水는 '물>물'의 훈독자 표기, 岳은 '오름'의 훈독자 표기이다. 踏印岳은 '답인오름', 大川岳·大乃岳·丹霞岳·丹羅岳 등은 '대내오름'의 표기이다. 小丹霞는 '족은 단하-[다나]'의 표기이다. 寺水岳은 '절물오름'의 표기로, '절물'이 있는 오름이라는 데서 연유한다.

(10) 表岳[글워리오름], 竝五里岳·竝五里[굴오리오름·굴오리], 竝岳[굴오리오름] > 개월오름

봉개동에 있는 '굴오리오름 > ㄹ오리오름'은 세 개의 봉우리로 이루어져 있다. 『탐라지』에 表岳, 『탐라순력도』에 竝五里·竝五里岳, 『제주삼읍전도』에 竝岳·並岳, 주변의 묘 비석에는 秋月峰, 犬月岳, 大開月伊, 開月伊峰, 오늘날의 지도에 '개월오름, 犬月岳'으로 표기하였다. 민간에서는 '개오리오름, 가오리오름, 개워리오름, 개월오름' 등으로 부르고 있다. 表는 '글월' 또는 '글워리'의 훈가자 표기, 竝·并·並은 '궂(竝)의 훈가자 표기, 五里는 '오리' 또는 '올이'의 음가자 표기이다. '궂'은 모음 '오'와 결합하여 '궂오 > ㄹ오'로 변한다. 秋는 'ㄹ울 > ㄹ울'의 훈가자 표기, 月은 둘째 음절 '올'의 유사음 '월'의 음가자 표기, 犬은 '개'의 훈가자 표기, 月은 '월'의 음가자 표기이다. 이런 시기의 표기인 竝五里 또는 竝五里岳을 고려하면 '굴오리오름 > ㄹ오리오름' 또는 '가오리오름'이 원래 이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가오리'는 제주도방언에서 '개오리'라고도 한다. 并岳·並岳·竝岳은 모두 竝五里岳에서 五里(오리)를 생략하여 표기한 것이다. '굴오리오름 > ㄹ오리오름 > 가오리오름'이 말하는 사람에 따라 약간의 음운변동을 초래하였고, 이것을 한자로 고치는 과정에서 秋月岳, 犬月岳 등으로 표기되면서, 원래의 이름과 뜻과는 멀어져 버렸다. 竝岳 등의 표기를 중시한다면 竝을 훈독자로 보고, '굴오리오름', 즉 '고른' [竝] 오름, 곧 쌍둥이 오름으로 볼 수 있다. 혹자는 주봉을 가오리 머리, 나머지 두 봉우리를 가오리 꼬리와 닮았다는 데서 '가오리오름'이라고도 한다. 개가 달을 보고 짚는다는 데서 '개월오름'이라고 한다는 것은 잘못된 한자 표기인 犬月岳에서 비롯된 민간어원설에 불과하다.

(11) 長兀岳·長兀里岳[장오리오름], 水長兀岳·水長兀[물장오리오름] > 물장오리

봉개동에 있는 '물장오리' > '물장오리'는 『신증동국여지승람』에 長兀岳, 『남사록』에 長兀岳, 水長兀, 『탐라지』에 長兀岳, 『남천록』에 長兀岳, 水長兀, 『탐라순력도』에 長兀里岳, 『제주삼읍도총지도』에 水長兀岳, 『제주삼읍전도』에 水長兀, 『제주지도』에 水嶂兀, 오늘날의 지도에 '물장울'로 표기하였다. 水는 '물' > '물'의 혼독자 표기, 長兀·長兀里·嶂兀 등은 '장울·장올리'→'장오리'의 음가자 표기이다. '장울·장오리'의 뜻은 확실하지 않다. '장울·장오리'가 '둘러서 있는 오름'(김종철, 1994:권3,63), '올·오리'가 '비탈·고지(高地)(배우리, 1994:215)'의 뜻이라 하는 사람이 있다. 만약 '올·오리'가 '오름[岳]'의 뜻을 갖고 있다면 兀과 岳의 중첩 표기에 대한 설명이 곤란하다. '물-장울', '테역-장울', '살손-장울'의 구성으로 보면 '장(長)도 명사성의 어휘인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장울·장오리'는 복합명사나 단일명사가 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로서는 쉽게 구명할 수 없는 어휘이다. '물이 있는 장오리'라는 뜻에서 붙인 것이다.

(12) 草長兀[테역장오리] > 테역장오리

봉개동에 있는 '테역장오리'는 『남사록』 등에 草長兀로 표기하였다. 草는 '떼'의 제주도방언 '테역'의 혼독자 표기, 長兀은 '장오리'의 음가자 표기이다. '넓은 테역밭(떼밭)이 있는 장오리'라는 데서 붙인 것이다.

(13) 險長兀[힘흔장오리], 沙孫長兀岳·沙孫長兀·莎嶂兀[살손장오리오름·살손장오리] > 쌀손장오리

봉개동에 있는 '살손장오리'는 『남사록』 등에 險長兀, 『탐라순력도』에 沙孫長兀岳, 『제주삼읍도총지도』에 沙孫長兀岳, 『제주삼읍전도』에 沙孫長兀, 『제주지도』에 莎嶂兀, 오늘날의 지도에 '쌀손장오리, 쌀손장오름' 등으로 표기하였다. 沙·莎는 '화살'을 뜻하는 '살'의 음가자 표기로, 말음 '리'이 생략된 표기, 孫은 '손'[射]의 중세국어인 '손'의 음가자 표기, 險은 '힘흔' > '힘한'의 음독자 표기로 보인다. 長兀·嶂兀 등은 '장울/장올리'→'장오리'의 음가자 표기이다. '살(화살)을 쏘던 장오리'라는 데서 붙인 것이다.

(14) 火長兀[불튼장오리], 佛吞大岳·火燒竹·燒坵[불탄데오름·불탄데] > 불칸디오름

봉개동에 있는 '불탄장오리' 또는 '불칸데오름·불칸디오름'은 『남사록』 등에 火長兀, 『탐라순력도』에 佛吞大岳, 『제주삼읍전도』에 火燒竹, 『제주지도』에 燒坵, 오늘날의 지도에 '불칸디오름'으로 표기하였다. 佛은 '불' > '불'의 음가자 표기, 火는 '불(火 불 화<훈몽-초, 하:15)>'의 혼독자 표기, 吞은 '툰' > '탄'의 음가자 표기, 燒는 '툰-'의 관형사형 '툰'의 혼독자 표기, 大는 '대'의 유사음 '데·

4) 嶺間도 툰디 아니 툰며=불不焚燒^하며<능엄 9:108>, 불에 툰 죽은 거시라(火燒死)<증무원 3:42>

디'의 음가자 표기, 竹은 '대'의 유사음 '데'의 훈가자 표기, 長兀은 '장오리'의 음가자 표기, 岳은 '오름'의 훈독자 표기이다. '불탄장오리'는 '불탄 장오리'의 뜻이고, '불탄데 > 불탄데' 또는 '불칸디 > 불칸디'는 '불탄 곳'(불이 나서 탔던 곳)의 제주도방언이다.

(15) 申山岳[신산오름] > 돌오름

아라동에 있는 '돌오름'은 『탐라순력도』 등에 申山岳, 오늘날의 지도에 '돌오름'으로 표기하였다. 민간에서는 '신선오름, 돌오름'이라고도 한다. 申은 '신'의 음가자 표기인데, '신(神)'의 뜻으로 보인다. 山은 '산'의 음가자 표기인데, '서다[立]'의 제주도방언 '사다'의 관형사형 '산'의 뜻으로 보인다. 岳은 '오름'의 훈독자 표기이다. '신선오름'은 '神이 선[立] 오름'이라는 뜻이다. 오름 정상에 큰 바위가 서 있다는 데서 '신산오름, 신선오름'이라 했고, '돌오름'이라고도 했다.

(16) 土赤岳[흙붉은오름], 赤岳[붉은오름] > 흙붉은오름

아라동에 있는 '흙붉은오름·붉은오름'은 『탐라순력도』 등에 土赤岳, 『제주삼읍전도』에 赤岳, 오늘날의 지도에 '흙붉은오름'으로 표기하였다. 土는 '흙'의 훈독자 표기, 赤은 '붉은 > 붉은'의 훈독자 표기, 岳은 '오름'의 훈독자 표기이다. 土赤岳은 '흙붉은오름 > 흙붉은오름', 赤岳은 '붉은오름 > 붉은오름'의 표기이다. 흙이 붉다는 데서 붙인 것이다.

(17) 別刀岳[벨도오름], 禾北岳[벧뒤오름] > 禾北岳, 別刀峰

화북동에 있는 '벨도오름'은 『신증동국여지승람』에 別刀岳, 『탐라지』에 禾北岳, 『제주읍지』에 化北岳, 『제주지도』에 別刀峰, 오늘날의 지도에는 큰 봉우리를 禾北峰, 작은 봉우리를 別刀峰이라 표기하였다. 別은 '벨'의 제주도방언 '벨'의 음가자 표기, 刀는 '도'의 음가자 표기이다. 別刀는 '벨도'의 음가자 표기로, 그 뜻은 확실하지 않다. 한편 '벨도개'의 한자 표기로 別刀浦가 나타나지만 특이하게 星梁浦(제주삼읍도총지도)가 나타난다. 星은 '별'의 제주도방언 '벨'의 훈가자, 梁은 '도'의 훈가자 표기이다.⁵⁾ 星梁浦는 '벨도개'의 한자 표기라 할 수 있다. 禾는 '벼'의 훈가자, 北은 '뒤'의 훈가자 표기로, 복합어가 되면 '벧뒤(벧뒤)'가 되어 음상이 '벨도'와 유사하다. 처음에는 '벨도오름[別刀岳]'이라고 하다가 나중에 禾北嶺이 들어서면서 '벧뒤오름[禾北岳]'과 혼용되어 쓰였다. 化北岳은 禾北岳을 잘못 표기한 것이다. 別刀峰은 岳을 峰으로 표기한 것이다. 오늘날은 마을 이름이 禾北으로 굳어지면서 禾北岳이 主峰의 이름으로 정착되고, 작은 봉우리는 別刀峰으로 부르고 있다. 박용후(1992:43)와 김

5) 別 別 星 辰 別 日 月 會 次 又 北 辰 北 極 也 …(훈몽-초, 상:1)

梁을 '도'로 읽는 것은 『삼국유사』와 『삼국사기』에 보이고, 제주도지명 표기에도 여럿 보인다.

梁 讀 云 道 或 作 涉 亦 音 道(삼국유사)(권1, 신라시조 혁거세왕).

종철(1995:3권.87)에서 '베리오름'이라 하고, '베리'는 바닷가의 낭떠러지를 뜻하는 '벼루'가 변한 말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別刀나 禾北, 星梁 등의 음상은 '베리'와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18) 沙羅岳·紗羅岳·沙羅峰·紗羅峰[사라오름] > 沙羅峰(사라봉)

건입동에 있는 '사라오름'은 『신증동국여지승람』에 沙羅岳, 『남사록』에 沙羅峰, 『탐라지』에 紗羅岳, 『탐라순력도』에 沙羅, 『탐라지도』에 沙羅峰, 『제주삼읍전도』에 紗羅峰, 『제주지도』에 紗羅峯, 오늘날의 지도에 沙羅峰으로 표기하였다. 沙羅와 紗羅는 '사라'의 음가자 표기로, 그 뜻은 확실하지 않다. '사라'는 해질녘의 햇빛에 비친 산등성이가 마치 황색 비단을 덮은 듯하다는 데서 붙인 것이라고 하나, 이것은 '얇고 깐깐한 여름 옷감의 비단'의 뜻을 가진 한자 紗羅에 견인된 민간어원설이라 할 수 있다. 또 '동쪽·동쪽땅'이라는 설과 神域의 뜻으로 쓰이는 '술'에서 기원한다는 설(이은상의 '제주기행문'), 몽고어 '달' [月]의 뜻이라는 설 등이 있다. 그런데 제주도 전역에 '사라'라는 말이 붙은 지명이 많다. 제주시 삼도동의 '서사라', 도평동의 '사라리',⁶⁾ 남원을 하례리 '사라오름'의 '사라'가 그것이다. 이들의 분포를 보면, 단순히 '동쪽·동쪽땅'이라고 하기도 문제가 있다. 巫俗의 '조상본풀이(고대장본)', '영감놀이' 등에는 신성한 지역으로 나타난다.⁷⁾ 도평동의 '사라리'에는 1530년 이전에 逝川庵이라고 하는 큰 절이 있었다. 이 절에서 승 慧日이 쓴 시도 전해진다. 남원을 '사라오름' 정상에 산 정호 주변은 옛날부터 제6대의 陰宅血 중 제1명당으로 손꼽히는 곳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의 예로 보아, '사라'는 '神聖한 곳·神聖한 지역'이라는 뜻으로 볼 수도 있다. 한편 몽고어에서 '달(月)'을 뜻하는 말이 'sara/saran(사라/사란)'⁸⁾인데, 이에 대응하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 峰은 岳을 달리 표기한 것이다.

(19) 反月岳[반돌오름] > 들레오름

아라동에 있는 '돌레오름'은 『제주지도』에 反月岳, 주변의 묘 비석에 '月坪峰, 月來岳, 月下岳, 들레오름' 등으로 표기하였다. 反은 '반'의 음가자, 月은 '돌'의 훈독자, 坪은 '드르' > '들'의 훈독자 표기이다. 反月은 '반돌'의 표기로, 반달 모양의 들이라는 뜻으로 보인다. 月坪은 '돌드레' 또는 '돌드르'의

6) 제주시 도평동과 애월읍 광령리에 걸치는 '사라리'는 '도근내(都近川)'에 동서로 인접한 마을인데, 지금 이 내를 경계로 하여 제주시 도평동과 애월읍 광령리로 나누어졌다. 그래서 도평동의 '사라리'는 동쪽에 있다고 해서 '동사라리', 광령리의 '사라리'는 서쪽에 있다고 해서 '서사라리'라 한다.

7) 현용준(1980), 『濟州島巫俗資料事典』, 신구문화사.

... 그 뒤으로 紗羅峰은 등댓불(燈臺火) 알로 禾北 일대(一帶) 갯갯 연변(海邊沿邊) 노닐을 할시던 어진 조상님, ... (p. 481)

... 눈물을 흘려가며 祝願의 말씀을 올렸더니, 沙羅峰 上峰으로 주먹만한 먹정 꺾은 구름이 솟아 올라 청청 뭉뚱 하는 우(上)을 뒤더끄더니, ... (p. 815)

8) 月兒 돌 ○ 사라(몽해, 上:17), 月蟲 돌 그무다 ○ 사라 연 하구침 | 열(몽해, 상:37)

표기로, 역시 달 모양의 들판의 뜻으로 보인다. '돌드레'가 '돌레'로 줄고 '돌레'는 다시 '들레'로 바뀐 것이 오늘날 남아 있는 음상으로 보인다.

(20) 棼等生岳·棼朶生岳[오드싱오름] > 棼等岳[오드싱오름] > 棼登峰(오등봉)

오라동에 있는 '오드싱오름'은 『탐라순력도』에 棼等生, 『탐라지도』 등에 棼朶生岳, 『제주삼읍전도』에 棼等岳, 『제주지도』에 棼鳳岳, 오늘날의 지도에 棼登峰으로 표기하였다. 棼와 棼은 '오'의 음가자 표기, 等은 음이 '등'이지만 'ㄷ' > '드'의 음가자 표기, 生은 '생'의 유사음 '싱'의 음가자 표기이다. 朶은 棼의 약체자다. '오드싱'의 뜻은 확실하지 않다. 生을 생략하여 棼等岳이라 하다가 한때 棼鳳岳이라 하기도 하고, 마을 이름이 棼等生里 > 棼等里에서 棼登里로 바꾸어 부르면서(19세기말 경) 오름 이름도 棼登峰이라 하였다.

(21) 所山岳·小山峰[소산오름] > 소산오름 > 솟은오름

아라동에 있는 '소산오름 > 소산오름'은 『탐라지도』 등에 所山岳, 『제주삼읍전도』 등에 宵産岳, 『제주지도』에 小山峰, 주변의 묘 비석에 宵産峰, 蘇山, 오늘날의 지도에 小山峰으로 표기하였다. 所山·小山·宵産·蘇山 등은 모두 '소산' 또는 '소산'의 음가자 표기이다. '소산'은 '소산·소산 > 솟은' [窠]의 뜻이다. 所山岳·小山峰·宵産岳 등은 모두 '소산오름 > 소산오름'의 표기이며, 이는 땅에서 솟아오른 오름이라는 뜻에서 붙인 것이다.

(22) 三義讓岳·三義壤岳·三義陽岳·三義孃岳[세미양오름] > 삼의양오름

아라동에 있는 '세미양오름'은 『탐라지』에 三義讓岳, 『탐라순력도』에 三義壤岳·三義陽岳·三義孃岳, 『제주삼읍도총지도』에 三每陽岳, 『제주삼읍전도』에 三義陽岳·三每陽岳, 『제주지도』에 三陽峰, 주변의 비석에 三義岳·思味岳, 오늘날의 지도에 '삼의양오름'으로 표기하였다. 三義의 현대 한자음은 '삼의(또는 연결되어 '사미')'이지만, 이는 '샘' [泉]의 제주도방언 '시미 > 세미'의 음가자 표기, 三每도 '시미 > 세미'의 음가자 표기, 讓·壤·陽·孃은 '양'의 음가자 표기로, 생략되기도 하는데, '양'의 뜻은 확실하지 않다. 三義讓岳·三義壤岳·三義陽岳·三義孃岳·三每陽岳 등은 '세미양오름 > 세미양오름'의 음가자 표기이다. 三義岳은 '세미오름 > 세미오름'의 표기로, 讓을 생략한 표기이다. 三陽峰은 三義陽峰에서 義를 생략한 표기이다. 마을의 古老도 원래 '샘'이 있었다는 데서 '세미오름'이라 했다고 한다. 그러나 '양'이 붙은 이유는 확실하지 않다.

(23) 悅安止岳[열안지오름], 呂亂止岳[여란지오름], 呂難止[여란지], 悅安岳[열안오름] > 列雁地(열안지)

오라동에 있는 '열안지오름'은 『탐라지』에 悅安止岳, 『제주삼읍도총지도』에 呂亂止岳, 『제주삼현

도」에 呂難止, 「제주삼읍전도」에 悅安岳, 「제주삼읍전도」에 列蘭地, 「제주지도」에 如卵嶺, 주변의 묘비석에 列雁地岳, 列雁岳, 燕卵地, 오늘날의 지도에 列雁地로 표기하였다. 悅安止·列雁地 등은 '열안지'의 음가자 표기, 呂難止·呂亂止·如卵嶺 등은 '열안지'가 연철된 '여란지'의 음가자 표기, 列蘭地는 '열란지'의 음가자 표기이다. 이들은 止가 생략된 列安·呂亂 등으로 표기되기도 한다. 그 뜻은 확실하지 않다. 봉개동에 있는 '열안지오름'과 동일한 음상과 뜻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대개 나지막하고 둥근 등성으로 이루어진 오름을 일컫는다.

(24) 野來岳[들레오름], 狼嶺[??ㄹㄹ] > 들레오름

오라동에 있는 '들레오름'은 「탐라순력도」에 野來岳, 「제주지도」에 狼嶺, 오늘날의 지도에 '들위오름'으로 표기하였다. 野는 '드르'들의 훈가자 표기, 來는 '래' 또는 유사음 '레'의 음가자 표기이다. '들레'의 뜻은 확실하지 않다. 狼의 훈은 '일히(狼 일히 랑<훈몽-초, 상:12>) > 일희(狼 일희 形似狗而尾長毛厚<한청 14:5>) > 이리'인데, 제주도방언의 음상은 확실하지 않다. 혹 앞의 '들래·들레'의 음상을 가지지 않았나 생각한다. 嶺은 '산마루'의 뜻인 'ㄹㄹ > ㄹㄹ'의 훈독자 표기이다.

(25) 菱花峯[능화오름] > 능화오름

오라동에 있는 '능화오름'은 「제주지도」에 菱花峯, 오늘날의 지도에 '능하오름'으로 표기하였다. 민간에서는 '능하오름, 능하름'이라고 한다. 菱花는 '능화'의 음독자 표기로 보인다. 菱花는 '마름꽃'을 이르는데, 제주도방언은 '물망쉬'이다. 지형이 菱花처럼 생겼다는 데서 붙인 것이라고 하나 확실하지 않다. '능하오름'은 '능화오름'의 변음이며, 다시 '능하름'으로 줄여서 실현되기도 한다.

(26) 斗里碓[두리바위], 斗里峯[두리오름], 斗里峯[작은두리오름] > 큰드레오름, 작은드레오름

연동에 있는 '큰드레오름'과 '작은드레오름'은 「탐라순력도」에 斗里碓, 「제주삼읍도총지도」에 大斗里, 「제주삼읍전도」에 斗里碓, 小斗里, 「제주지도」에 斗里峯, 小斗里峯, 오늘날의 지도에 '큰두레왓, 작은두레왓'으로 표기하였다. 斗리는 '두리'의 음가자 표기로, '둥글다'의 뜻인 '두리(圓 두리 원<천자-광, 35>)의 표기로 보인다. 大는 '큰'의 훈독자, 小는 '작은'의 제주도방언 '족은'의 훈독자, 碓는 '바위' 정도의 훈독자 표기, 峯은 '오름'의 훈독자 표기이다. 곧 둥그스름한 오름이라는 데서 '두리오름'이라 하고, 다시 '큰' 것과 '작은' 것으로 나누어 부른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의 '드레'는 '두리'의 변음으로 보인다. 김종철(1995:3권,156)에서 '드레'는 '들판'의 뜻으로 보았으나, "화구 없는 圓頂岳(김종철, 1995:3권,156)"를 이루므로 재고의 여지가 있다. '두레왓'의 '왓'은 '밭'의 제주도방언인데, 오름 이름에 '밭'을 붙인 것이 특이하지만, 이곳은 赤松地帶로 넓은 밭과 같다는 데서 붙인 것으로 보인다.

(27) 蔴頭峰[연두봉] > 삼각봉

아라동에 있는 '삼각봉'은 『탐라순력도』 등에 烟臺, 「제주지도」에 烟台, 『한라산기행』(이은상)에 蔴頭峰, 민간에선 '삼각봉'이라 한다. 烟臺와 烟台는 '연대'의 음독자 표기로, 「탐라지도」의 표기와 그림으로 볼 때 '연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오늘날 그 터를 확인할 수 없다(실제 연대는 '삼각봉' 남서쪽에 있는 '왕관바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 여기에 '연돌'이라는 속칭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옛 지도에 표기된 九峯岩이 '왕관바위'를 지칭하는 것이 맞다면 '연대'는 그 밑에 있었으므로 지금의 삼각봉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연대가 일제시대에 蔴頭峰으로 표기되고, 그 후에 이름이 삼각형 모양이라는 데서 '삼각봉'이라 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28) 長鼓項[장고목] > 장구목, 장구목오름

아라동에 있는 '장고목오름' > 장구목오름은 「제주삼읍도총지도」 등에 長鼓項, 오늘날의 지도에 '장구목'이라 표기하였다. 長鼓는 '장고'의 음독자 표기로, 오늘날의 '장구'를 말한다. 項은 '목'(項 목 항<유합>)의 혼독자 표기로, 다른 곳으로는 빠져나갈 수 없는, 중요한 통로의 좁은 곳의 뜻으로 볼 수도 있고, '어떤 물건의 목에 해당하는 부분'의 뜻으로 볼 수도 있다. 곧 '장고목' > 장구목은 '장구의 목'과 같이 잘록한 부분이라는 데서 붙여졌다. '장고목'은 북봉과 남봉 사이가 장구의 목과 같이 잘록하다고 해서 붙여진 것이다. 북봉을 '장구목오름'이라고도 부른다.

(29) 九峯岩[아홉봉바위?] > 왕관바위, 왕관릉

아라동에 있는 '왕관릉' 또는 '왕관바위'는 「탐라지도」 등에 九峯岩, 오늘날의 지도에 '왕관릉'으로 표기하였다. 九峯은 '아홉봉' 정도의 혼독자 표기로 보인다. 峯은 '바위'의 혼독자 표기이다. 봉우리가 아홉 개가 솟아 있는데, 그 형상이 왕관과 같아서 나중에 '왕관바위'라 불렀던 것이고, 그 일대의 능선을 王冠稜이라 한 것이다. 옛 지도에는 九峯岩 외에도 入先岩, 靑莊岩 등의 표기가 나타나는데, 어디인지 확실히 알 수 없다.

(30) 別豆里岳[베두리오름], 明岳[붉은오름] > 베두리오름

연동에 있는 '베두리오름'은 지금의 三無公園을 말한다. 「탐라지도」 등에 別豆里岳, 「제주삼읍전도」에 明岳, 주변의 묘 비석에는 星斗峴, 星斗洞 등으로 표기하였다. 別은 '벨'의 제주도방언 '벨'의 음가자 표기, 星은 '벨'의 제주도방언 '벨'의 혼가자 표기, 豆리는 '두리(圓)'의 음가자 표기, 斗는 '두'의 음가자 표기이다. '벨'의 뜻은 확실하지 않지만, '두리'는 '둥글다'는 뜻이다. 「제주삼읍전도」의 明岳은 '붉은오름'의 표기인데, 민간에서는 '붉은오름' > 밝은오름의 음상을 확인할 수 없다.

(31) 可沙只岳[가삿기오름] > 가삿기오름

오라동에 있는 '가삿기오름'은 「제주삼읍도총지도」 등에 可沙只岳, 「제주삼읍전도」에 可沙, 주변의 묘 비석에는 可沙岳, 加沙峰, 佳紗峰 등으로 표기하였다. 可沙只는 '가삿기'의 음가자 표기, 可沙는 可沙只의 只[기]를 표기에 반영하지 않은 표기이다. '가삿기'의 '가'는 중세국어 '가히·쟝(狗는 가히라<삼강, 충:13>)'의 둘째 음절 또는 말음을 탈락시킨 '가'의 표기이고, '삿기'는 중세국어 '삿기(猯 삿기 예...삿기 미<훈몽-초, 상:10>)'에 대응되는 표기로, 말음 'ㅅ'은 표기에 반영되지 않았다. 可沙只는 '가삿기 > 개삿기 > 개새끼'의 표기, 可沙只岳은 '가삿기오름'의 표기, 可沙도 '가삿기(오름)'의 표기이다. 加紗·佳紗도 모두 可沙와 동일한 음을 표기한 것이다. 곧 개의 새끼와 같은 형국이라는 데서 붙인 것이라고 한다.

(32) 小禿岳[족은뿔오름]·文岳[뿔오름] > 민오름

오라동에 있는 '족은뿔오름·뿔오름'은 「탐라지」에 小禿岳, 「제주삼읍도총지도」 등에 文岳, 「제주지도」에 敏岳 등으로 표기하였다. 小는 '작-'(小 자글 쇼<백련 11>)에 관형사형 어미가 붙은 '작은'작은'의 제주도방언 '족은'의 훈독자 표기이다. 禿은 '뿔-'(禿 뿔 독 俗呼禿廡 머리 뿔 놈<훈몽-초, 상:15>), 脫頂 압 뿔다<한청 5:48>에 관형사형 어미가 붙은 '뿔 > 뿔 > 민'의 훈독자 표기, 文과 敏은 '뿔 > 뿔 > 민'의 음가자 표기이다. 小禿岳은 '족은뿔오름'의 표기이다. 봉개동의 '뿔오름'에 대비되는 이름이다. 文岳·敏岳도 '뿔오름'의 표기이다. 옛날에 오름이 민둥산이었다는 데서 이런 이름을 붙인 것이다.

(33) 道內山岳[도내미오름], 木密岳[남짓은오름] > 남짓은오름

연동에 있는 '도내미오름' 또는 '남짓은오름'은 「탐라순력도」에 道內山, 道內山岳, 「제주삼읍도총지도」 등에 木密岳, 「제주삼읍전도」 등에 木塚岳, 「제주지도」에 木塚岳, 오늘날의 지도에 '남조순오름, 南朝峰'으로 표기하였다. 현지인들은 주로 '도노미'(또는 애월읍의 '도노미(서도노미)와 대비해서 '동도노미'), '남짓은오름'이라고 부른다. 道內는 '도내'의 음가자 표기, 山은 '뿔'의 제주도방언 '미·메'의 훈가자 표기이다. 道內山·道內山岳은 '도내미·도내미오름(민간에서는 '도노미·도노미오름'이라 함.)'의 표기로, '남짓은오름'의 옛 이름이다. '도노'는 '도내'의 변음이다. '도내미'는 '도+넘·남-(越 너를 뿔<유합-송광사본>)+이'의 구성이다. '도'는 '문' 또는 '입구'를 뜻하는 제주도방언이고, '내미'는 '남이'의 현실음이다. 곧 '도를 넘는 오름'이라는 데서 '도내미'라 하고 이것이 민간에서 '도노미'로 변한 것이다. 이때 '도'는 '검은오름' 동쪽에 있었던, 목장 출입구를 말한다. 「탐라지도」와 「제주삼읍도총지도」에 門 巨文梁이라는 표기가 나오는데, 이는 '문 검은도'의 표기이다(梁을 '도'로 읽는 것에 대해서는 '오라동'의 설명을 참고할 것). 木은 '남·나모'(木 나모 목<백련 14>), 樹

나모 슈(백련 22)의 제주도방언 '남·낭'의 혼독자 표기, 密은 '깃-'(鬱密은 기순 양지오<남명, 하:35>)의 제주도방언 '깃-'의 혼독자 표기, 琢은 '죗-'(琢 졸 탁<동아 한한대사전>)의 혼독자 표기, 啄은 '죗-'(啄 디조솔 탁<신합, 상:13>)의 혼독자 표기, 岳은 '오름'의 혼독자 표기이다. 木密岳은 '남짓은오름', 木琢岳·木啄岳은 '남죗은오름'의 표기이다. 이 오름은 옛날부터 '남[木]'이 우거져 있었다고도 하고, 새가 나무를 쪼으며 벌레를 잡아먹는 듯한 飛鳥啄木形의 명당이 있는 오름이라는 데서, '남짓은오름, 남죗은오름'이라 했다고도 한다. 전자가 오래된 이름인지 후자가 오래된 이름인지 확실하지 않다. 전자가 앞선 기록으로 나타난다.

(34) 光列岳·廣列岳[광렬오름] > 광이오름

연동에 있는 '광렬오름'은 「제주삼읍도총지도」 등에 光列岳, 「제주삼읍전도」에 廣列岳, 주변의 묘 비석에는 肝列岳, 肝血峰, 오늘날의 지도에 '광이오름'으로 표기하였다. 光列과 廣列은 '광렬' 또는 '광열'의 음가자 표기이다. 肝列과 肝血은 '광렬'의 변음을 반영한 것이다. 그 뜻은 확실하지 않다. 민간에서는 '켁이오름, 광이오름'이라 하고, '광이, 쁘이'('광이'의 방언)와 닮았다는 데서, 또는 두 肝葉 형상이라는 데서 붙인 것이라고 하나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35) 靈通岳[영통매], 念通岳[염통매], 尙惠岳[상혜오름] > 상여오름

연동에 있는 '영통매·염통매'는 「탐라지」 등에 靈通岳, 「탐라순력도」 등에 念通岳, 「제주삼읍전도」에 尙惠岳, 주변의 묘 비석에는 令通岳, 心通岳, 오늘날의 지도에는 '상여오름'으로 표기하였다. 靈通은 '영통'의 음가자 표기, 念通은 '염통'의 음가자 표기, 尙惠는 '상혜'의 음가자 표기, 岳은 '오름'의 혼독자 표기이지만, '-매'가 확인되므로 山을 岳으로 표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민간에서는 간 옆에 붙어 있는 '염통'의 형상이라는 데서 '염통매', '상여'와 닮았다는 데서 '상여오름'이라 한다고 하나, '간열악(?)'의 '간'이 肝이 음독자인지 의심스럽다. 尙惠의 음상도 근대국어인 '상여, 상여(喪輿)'는 물론 제주도방언 '상이, 생이'와도 차이가 있다. 혹 尙惠가 '상여'의 뜻이라면 靈通을 달리 표현한 것이라 할 수도 있다.

(36) 臥岳[누운오름·누운오름] > 누운오름

해안동에 있는 '누운오름·누운오름'은 「제주삼읍도총지도」 등에 臥岳, 주변의 묘 비석에 臥岳, 臥雲岳, 臥平岳, 臥牛岳, 臥牛岳, 臥虎岳, 오늘날의 지도 등에 '누운오름'으로 표기하였다. 臥는 '눕-'(臥 누을 와<훈몽-초, 하:12>, 누을 와<신합-나손본>)에 관형사형이 붙은 '누운' 또는 '누운'의 혼독자 표기, 雲은 '누운'의 둘째 음절 '운'의 음가자 표기, 平은 '운'의 혼가자 표기, 虎는 '호'의 음가자 표기, 牛는 '운'의 불완전한 음가자 표기, 午는 '운'의 불완전한 음가자 표기, 岳은 '오름'의 혼독자 표기이

다. '누운오름' 또는 '누운오름'은 나지막이 누워있는 오름이라는 데서 붙인 것이다. 그러므로 臥虎岳만 혼독자로 해석하여 범이 누워있는 형태(김종철, 1995:권3.49)라고 해석하는 것은 민간어원설이다. '누운오름'은 제주도방언으로 '눈오름'이라고도 한다.

(37) 矚勿岳(금물오름), 巨門岳·巨文岳(검은오름) > 검은오름

연동에 있는 '금물오름' 또는 '검은오름'은 『신증동국여지승람』에 矚勿岳, 『탐라순력도』 등에 巨門岳, 『제주삼현도』에 巨文岳, 주변의 묘 비석에는 矚岳, 矚岳, 巨文峰, 오늘날의 지도에 '거문오름'으로 표기하였다. 矚勿은 음이 '금물'이지만, '금물' 또는 '거물 > 검을'의 음가자 표기로, '검-[黑]의 뜻이다. 巨門·巨文은 '검은'의 음가자 표기, 岳은 '오름'의 혼독자 표기이다. 矚·矚은 음이 '금'이지만 矚勿에서 관형형어미를 생략한 표기라고 할 수 있다. '검은오름'은 보기에 검다는 뜻인지 神聖의 뜻인지 '검·검'에 관련된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

(38) 勞老客岳(노로손이오름), 獐遜(노로손이) > 노로손이오름

연동에 있는 '노로손이오름'은 『탐라지』에 勞老客岳, 『탐라순력도』에 獐遜, 獐遜岳, 『남환박물』에 勞老客, 『제주삼읍도총지도』 등에 獐孫岳, 주변의 비석에 獐岳, 魯老客峰, 獐手岳, 노리손이, 오늘날의 지도에 '노루생이'로 표기하였다. 勞老·魯老是 '노로'의 음가자 표기이고, 獐은 '노로'의 혼독자 표기이다.⁹⁾ '노로'는 '노루'의 중세국어이다. '노리'는 '노로'의 음운변이형으로, 지금 제주도방언이다. 客과 手는 '손'의 혼가자 표기, 孫·遜은 '손'의 음가자 표기이다. '손'은 동사 '소다·쁘다'의 어간에 관형사형어미 '-니'이 붙은 것이다.¹⁰⁾ 이 오름 주변에는 옛날부터 노루가 많아서, 노루를 쏘면서 사냥하던 오름이라는 데서 '노로손이오름'이라 했다고 한다. 勞老客岳·獐孫岳·獐遜岳·獐岳 등은 모두 '노로손이오름'의 표기다. 곧 '노루를 쏘는 오름'이라는 뜻이다. '노로손이'의 '-이'는 명사형성접사이고, '노리손이'는 '노루손이'의 음운변이형이다.

(39) 傑始岳·傑時岳(걸시오름) > 걸시오름

연동에 있는 '걸시오름'은 『제주삼읍전도』에 傑始岳, 『제주지도』에 傑時岳, 『제주지도』에 傑始岳, 주변의 묘 비석에 傑豺岳 등으로 표기하였다. 傑始·傑時·傑始·傑豺은 '걸시'의 음가자 표기이다. '걸시'는 '걸쇠'의 옛말 '걸쇠 > 걸새'¹¹⁾의 제주도방언이다. 傑始岳·傑時岳·傑始岳·傑豺岳

9) 노로 爲獐<훈민-원, 해례:24>, 獐 노로 장<신합, 상:13>
 10) 客은 손이라<월석 13:25>, 손 爲手<훈민-원, 해례:25>, 孫 손즈 손<유합-송광사본>, 遜 검은 손<신증-나손본>, 彈은 솔 씨라<월석 14:61>, 射 풀 샷<백련 15>
 11) 쇠 걸쇠는 門關을 열오져 ㅎ낫다<鐵鎖欲開關><두해-초, 11:50>, 쇠 걸새는 門關을 열오져 ㅎ낫다<鐵鎖欲開關><두해-중,

은 모두 '걸시오름'의 표기이다. 오름의 형태가 '걸쇠'와 같다는 데서 붙인 것이다.

(40) 洞山[골미], 谷頭·骨頭[골머리] > 골머리, 골머리오름

연동 '아흔아홉골'에 있는 '골머리'와 '골머리오름'은 『탐라지』에 洞山, [탐라지도]에 谷頭, 「제주삼읍도총지도」에 骨頭 등으로 표기하였다. 洞은 '골' (洞 골 동<백련-동, 21), 峒 및 골 동 俗稱山峒通作洞<훈몽-초, 상:2>의 혼독자 표기, 山은 '뫼'의 제주도방언 '미' 또는 '메'의 혼독자 표기이다. 谷은 '골' (谷 골 곡<훈몽-초, 상:2>)의 혼독자 표기, 骨은 '골'의 음가자 표기, 頭는 '마리' (頭 머리<훈몽-초, 상:13>) > 머리'의 혼독자 표기이다. 골짜기의 머리에 해당한다고 하여 '골머리', 또는 '골머리오름'이라 한 것이다.

(41) 御乘生岳[어스싱이오름] > 御乘生岳

노형동에 있는 '어스싱이(오름)'은 『탐라지』 등에 御乘生岳, 『탐라순력도』에 御乘生, 「제주지도」에 御乘峯으로 표기하였다. 御乘生은 한자의 뜻 그대로 '임금이 타는 말이 났' (…謠傳 此岳之下 出御乘馬 故名『탐라지』)기 때문에 붙인 것이라면, 음독자로 '어승생'의 표기라 할 수 있는데, 민간의 '어스승이, 어스싱이' 등을 고려하면 음가자라 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석주명(1947)은 '어스솨'의 몽골식 지명으로, 이은상(1936)은 '올시심' [神聖-]의 표기로 보기도 했다. 필자도 음가자 표기로 보지만, 그 뜻은 확실하지 않으므로 미제로 남겨 둔다.

(42) 道道里山[도도리매], 道道里岳[도도리오름], 道圓岳·道頭峯[도두리오름] > 道頭峯[도두봉]

도두동에 있는 '도도리오름·도두리오름'은 『세종실록지리지』에 道道里山, 「신증동국여지승람」에 道道里岳, 『탐라지』에 道圓岳, 『탐라순력도』에 道道望, 「탐라지도」에 道頭望, 「제주삼읍도총지도」에 道道峰, 「제주지도」에 道頭峯, 오늘날의 지도에 道頭峰으로 표기하였다. 민간에서는 '도돌오름, 도돌오름'이라고 한다. 道는 '도'의 음가자, 道里는 '도리'의 음가자, 圓은 '두리'의 혼독자 표기이다. '도'의 뜻은 확실하지 않지만, '도리'와 '두리'는 圓의 뜻이다. 道道는 道道里에서 리가 생략된 표기, 道頭는 道頭里에서 리가 생략된 표기이다. '도두(道頭)'는 예전에 島頭[섬머리]라고 했다는 데서 '섬의 머리' 마을이라는 뜻(김봉현, 1988:130), '한길의 머리'라는 뜻(박용후, 1992:159), '도+돌[石] 혹은 '돌은(숫아난)'의 뜻(배우리, 1994:2권.287)에서 붙인 것이라고 하나, 모두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한자 표기 道道里, 道道, 道頭 / 道圓 등은 '도도리' 또는 '도두리'의 표기로,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분석할 수 있다. 하나는 동사어간 또는 동사어간에 관형사형어미가 붙은 형태이다. 곧 중세국어의 '도도록'

11:50), 釘鑄 걸새<동해, 상:35> 釘 걸새 료<왜어, 상:32>

다(峰) 또는 '도돌-(循)에 대응하는 뜻이다.¹²⁾ 두 번째는 '도+도리(두리)'로 분석할 수 있다. '도리(두리)'는 '돌리(돌레)'라고도 하는데, '둥글다(圓)'의 뜻이다. 한자 표기에서 음가자로 '-道理(-도리)', 혼독자로 '-圓[두리]'으로 표기한 것이다. 제주도방언의 '도리방석·돌레방석, 돌레떡, 도레물(廻水)'과 '돌레박'의 '도리·돌레, 도레, 돌레'가 중세국어 '두리(圓 두리 원<천자-광, 35>), 둘에(匪, 輪), 두레(釐), 둘애 > 도래(圓)' 등에 대응하는 것이다. 제주도방언에도 '도도룩하게 내밀거나 드러나다'의 뜻인 '도도룩하다'가 쓰인다. 김종철(1995:54)은 '도들오름은 도도룩이 도드라진 모습'에서 붙인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道道里(도도리)의 里가 '리' 표기를 반영한 것이라면 '도돌' 정도의 음상을 반영한 것이고, 里가 '리'를 반영한 것이라면 '도도리'의 음상을 반영한 것이다. 그런데 '리' 표기는 주로 乙로 나타나기 때문에 里가 '리' 표기라고 하기 어렵다. 그러면 道道里는 '도(?)+도리(圓)'의 구성일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 마을 이름이 道頭里로 정착하면서 오름 이름도 道頭峰이 되었다.

(43) 明岳 [붉은오름], 赤岳 [붉은오름] > 밝은오름

해안동에 있는 '붉은오름'은 주변의 묘 비석에 明岳, 赤岳, 5,000분의 1 지도에 '밝은오름'으로 잘못 표기하였다. 明은 '붉->밝-'(明 불굴 명<백련-동경본 25>)에 관형사형어미가 붙은 '붉은 > 붉은 > 밝은'의 혼독자 표기, 赤은 '붉-(赤 불글 적<유합-철장사본>)>붉-'에 관형사형어미가 붙은 '붉은 > 붉은 > 붉은'의 혼독자 표기, 岳은 '오름'의 혼독자 표기이다. '붉은오름 > 밝은오름' 또는 '붉은오름 > 붉은오름'은 오름이 밝게 보인다는 데서, 또는 흙이 붉다는 데서 붙인 것이다.

2) 서귀포시

(1) 頭無岳·豆毛岳[두무오름·두모오름], 圓山[두리메], 圓嶠山, 釜岳[가메오름], 耽羅山, 漢擎山, 瀛州山 > 漢擎山

『고려사』에 “漢擎…一口頭無岳 又云圓山(한라산을… '두무오름'이라고도 하고, 또 '두리메'라고도 한다).”, 『세종실록지리지』에 耽羅山, 『제주풍토록』에 “…又山峰之頂 必凹如鑊 陷成泥潦 峯峯皆然故謂之頭無岳(… 또 산봉우리가 오로지 오목하여 가마솥과 같이 움푹 패서 진창을 이룬다. 봉우리마다 모두 그러하므로 두무악이라 이른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漢擎山…其口漢擎者 以雲漢 可擎引也 一云頭無岳 以峯峯 皆平也 一云圓山 以穹窿而圓也…(한라산은 …, 그것을 漢擎라고 하는 것은 은하수, 곧 하늘을 잡아 끌 수 있기 때문이다. '두모오름'이라 하기도 하는데, 봉우리마다 모두 평평하기 때문이다. '두리메'라고도 하는데, 활 모양으로 되어 가운데가 가장 높고 사방 주위는 차차 낮아진 형상으

12) 사름 둔녀 시냇 흙이 모다 도도룩흔 쫓 흙을 프러(取千步峯泥 사름 둔녀 시냇 흙이 모다 도도룩흔 쫓 흙)<구간 3:55>

洞陰에 桴頭는 머리 도도룩리로다(洞陰 桴頭는 머리 도도룩리로다)<洞陰 桴頭는 머리 도도룩리로다>(두해-초, 16:62)

로 둥글기 때문이다.)”, 『남사록』에 “一云豆毛岳 以山之連絡者非一 而峰頭 皆有池 似貯水器也(‘두모오름’이라고도 하는데, 산의 연결이 가지런하지 않으나, 봉우리에 모두 못이 있어서 물을 저장하는 그릇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탐라지』에 “漢拏山…一云釜岳 以山之頭 皆有池 似貯水器也(한라산은 …, 가메오름’이라고도 한다. 정상에 모두 못이 있어, 물을 저장하는 그릇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東巫小峽 古記云 漢拏山 一名圓山 卽圓嶠山 其東乃東巫小峽 神仙所居 又其東北有瀛洲山 故世稱耽羅 爲東瀛洲(동무소협 : 옛 기록에 한라산을 ‘두리메’, 곧 ‘원교산’이라 하였다. 그 동쪽에 ‘동무소협’이 있는데 신선이 산다. 또한 그 동북쪽에 ‘영주산’이 있으므로 세상에서 ‘탐라’를 ‘동영주’라고 일컫는다.)”라 하였고, 『탐라지』에는 “…故世稱耽羅 爲瀛洲山(…그러므로 세상에서 ‘탐라’를 ‘영주산’이라 일컫는다.)”고 하였다. 이외에도 仙山, 瀛洲山, 浮羅山, 穴望峰, 女將軍 등의 별칭이 있다.

漢拏山은 ‘한라산’의 음독자 표기로, 하늘을 잡아끌수 있을 만큼 높은 산이라는 데서 붙여진 것으로 보인다. 頭無는 ‘두무’의 음가자 표기이다. 옛 기록에는 음독자로 보고, 산봉우리가 가마솔과 같이 음푹 패서 머리가 없는 것같이 보인다는 데서 붙여졌다고 하였다. 양주동(1943:108-109)에서 頭無는 ‘둠’ 또는 ‘두무’의 표기로 圓의 뜻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두무’는 단순히 圓의 뜻이 아님이 옛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중세국어 ‘뉘 > 두멍’¹³⁾은 물을 담아두고 쓰는, 큰 가마를 뜻하는데, ‘두무’는 바로 이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뒤에 설명하는 圓山과 釜岳도 이와 관계가 있는 것이다. 豆毛는 ‘두모’의 음가자 표기로 ‘두무’의 변음을 반영한 표기라 할 수 있다. ‘두무’는 정상이 날카롭지 않고 둥글다는 뜻의 고유어로 보인다. 圓山은 ‘두리메’의 혼독자 표기이다. 圓은 ‘두리’(圓 두리 윈<천자-광 35>)의 혼독자, 山은 ‘뫼’의 제주도방언 ‘메’ 또는 ‘미’의 혼독자이다. ‘두리’는 ‘둥근 그릇’(던 업 슌 두리 낫 錚盤에 물 못은 筍을 ㄴ득 담아 니고<교시조 2578-24>)을 뜻하는 말이다. 곧 앞의 ‘두무’와 같은 뜻이다. 이는 옛 기록을 보아도 알 수 있다. 圓嶠山은 ‘원교산’의 음독자 표기이다. 곧 ‘둥글고 높은 산’ 또는 ‘둥근 산마루를 가진 산’이란 뜻이다. 釜岳은 ‘가메오름’의 표기이다. 釜는 ‘가마’(鑊 솔 확 又 가마 확…釜 가마 부<훈몽-초, 중:6>)의 제주도방언 ‘가메’의 혼독자, 岳은 ‘오름’의 혼독자 표기이다. 耽羅山은 ‘담라메’의 표기이다. 耽은 ‘담’의 음가자, 羅는 ‘라’ 또는 현실음 ‘나’의 음가자, 山은 ‘메’의 혼독자 표기이다. 耽을 ‘담’으로 읽는 것은 韻書의 聲韻 표기로 알 수 있다. ‘담라[담나]’의 뜻은 ‘둥근 땅’(양주동, 1943:108), ‘높은 곳’(현평효, 1985:303)이라는 설 등이 있으나, 확실하지 않다. 耽羅에 있는 산이라는 데서 붙인 것이다. 瀛洲山은 신선이 사는 산이라는 뜻에서 붙인 것이다.

13) 덜듬기 또한 豆毛니라(陶盆亦可)<자초방 19>, 豆毛 두멍 水鐵大鼎之貯水者 謂之豆毛<행용이문>
初年備藏 水鐵頭毛四 水鐵釜四<평양지>(2, 학교)

(2) 靈泉岳[영세미오름] > 靈川岳

영천동에 있는 '영세미오름'은 『신증동국여지승람』에 靈泉川, 『탐라지』 등에 靈泉岳, 『탐라순력도』에 靈泉, 『탐라지도』와 『제주삼읍전도』 등에 窺川岳, 『제주지도』에 永川峰, 『정의지도』와 오늘날의 지도에 靈川岳으로 표기하였다. 靈·窺은 '영'(靈 령홀 령<신합, 하:47>, 녕홀 령<천자-광, 19>)의 음독자 표기, 泉은 '심(泉 심 천<훈몽-초, 상:3>)> 샘'의 제주도방언 '세미·새미'의 혼독자 표기, 川은 '내(川 내 천 衆流注海 爲川<훈몽-초, 상:2>)의 혼독자 표기, 岳은 '오름'의 혼독자 표기이다. 靈泉은 주변에 '절세미·절새미' 또는 '절물'이라는 샘이 있는 것으로 보아, '영세미'의 혼독자 결합 표기이다. 靈泉川은 靈泉寺와 靈泉館¹⁴⁾과 관련하여 오래 전부터 신령스런 샘이 있는 내(川)라는 데서 '영세미내'¹⁵⁾라고 불렸고, 靈泉岳은 이 샘 근처에 있는 오름이라는 데서 붙인 것이다. 그러다가 '영세미'는 한자어 靈泉, 또는 靈泉川에서 泉을 생략한 靈川으로 표기되고 '영천'으로 불리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는 것이다. 靈泉岳은 '영세미내오름' 또는 '영세미오름'의 표기이고, 靈川岳·窺川岳은 靈泉川岳에서 泉을 생략한 표기이다. 永川岳은 靈川岳의 靈을 永으로 잘못 표기한 것이다.

(3) 葛岳[척오름·칠오름] > 칠오름

영천동에 있는 '척오름·칠오름'은 『탐라순력도』 등에 葛岳, 『제주지도』에 葛山, 『정의지도』에 葛峰, 『증보 탐라지』에 '葛岳, 갈오름', 오늘날의 지도에 '칠오름'으로 표기하였다. 현지인들은 '척오름·칠오름' 또는 '꼭오름'이라고 한다. 葛은 '츄(葛 츄 갈 葛草 又葛藤 츄너츄<훈몽-초, 상:4>)> 칠'의 제주도방언 '척·꼭·칠'의 혼독자 표기, 岳은 '오름'의 혼독자 표기이다. '갈오름'이라 한 것은 한자 표기에 견인된 것이다. 葛岳은 '척오름·꼭오름·칠오름' > 칠오름'의 표기이다. 葛山과 葛峰은 葛岳의 岳을 山과 峰으로 바꾸어 표기한 것에 불과하다. '칠'이 많았다는 데서 붙인 것이라고 한다.

(4) 月羅山·懸蘿山[돌라미] > 月羅岳

효돈동에 있는 '돌라미' > ㄷ라미'는 『신증동국여지승람』에 月羅山岳, 『탐라지』에 懸蘿山, 『제주삼읍도총지도』 등에 月羅山, 『제주읍지』에 月羅岳, 『정의군지도』에 舍利岳, 주변의 묘 비석에 月羅峰, 오늘날의 지도에 月羅岳으로 표기하였다. 현지인들은 'ㄷ라미'라고 한다. 月은 '돌(爲月<훈민-원, 해례:26>)'의 훈가자 표기, 懸은 '돌(懸 돌 현<신합, 하:46>)'의 훈가자 표기, 羅와 蘿는 '라'의 음가자 표기, 山은 '뫼'의 제주도방언 '미·메'의 훈가자 표기, 岳은 '오름'오름'의 혼독자 표기이다. '돌'과 '라'가 결합하면서 발음상 '돌'의 '리'은 탈락되기도 한다. 月羅山岳은 '돌라미오름'의 표기, 月羅山

14) 靈泉館 在靈泉川西岸 與靈泉寺 東西相對 / 영천관은 '영세미내' 서쪽 언덕에 있다. '영세미절'과 동서로 서로 대치하고 있다. <탐라지>

15) 오늘날의 25,000 분의 1 지도 등에 孝敦川으로 표기되어 있다.

은 岳을 생략한 '돌라미오름'의 표기, 懸蘿山은 岳을 생략한 '돌라미오름'의 표기, 月羅岳은 月羅山岳의 山을 생략한 표기, 月羅峰은 月羅岳의 岳을 峰으로 바꾸어 표기한 것이다. 月羅山은 '돌라미 > ㄷ라미'의 음가자 표기이다. 'ㄷ라미'는 '박쥐'를 달리 일컫는 중세국어이자 제주도방언이다. 『사성통해』(상, 36ㄴ)에 '鼯似鼠 ㄷ라미 一口飛生鼠 似蝙蝠 又五技鼠 螻蛄也'라는 기록이 보이는데, 飛生鼠('박쥐'의 판 이름)를 'ㄷ라미'라고 하였다. 근대의 표기로 'ㄷ람이(鼯 ㄷ람이 <왜어, 하:23>)'도 문헌에 보인다. 실제 오름의 형세가 박쥐가 날개를 펼친 형상과 같다. 『정의군지도』에 舍利岳[사리오름]으로 표기된 것으로 보아, 이렇게도 불렸던 것으로 보인다.

(5) 米岳[솔오름] > 米岳山

서흥동에 있는 '솔오름'은 『탐라지도』 등에 米岳, 『증보 탐라지』에 '米岳, 쌀오름', 주변의 묘 비석에 米岳, 米岳山, 오늘날의 지도에 米岳山으로 표기하였다. 현지인들은 '솔오름 > 쌀오름'이라 한다. 米는 '쌀(米 쌀 미<유합-영장사본>)·솔(米 솔 미<유합-칠장사본>)' > 쌀 > 쌀의 혼독자 표기이다. 岳은 '오름'의 혼독자 표기이다. 米岳은 '솔오름'의 표기이다. 米岳山은 米岳에 다시 山을 덧붙인 것에 불과하다. 오름 형태가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고, 나무들이 거의 없는 민둥산이어서, 마치 바닥에 쌀이 수북하게 쌓여 있는 모양이라는 데서 붙인 것이다. '솔오름'을 몽고식 지명(석주명, 1947:169)이라고 하거나 '솔'이 神域의 뜻(이은상, 1937:144)이라는 이도 있다.

(6) 貯卽岳[저즈기오름], 貯左只[저좌기] > 제지기오름

보목동에 있는 '저즈기오름'은 『탐라지도』 등에 貯卽岳, 『제주삼읍도총지도』 등에 貯左只, 『제주지도』 등에 儲積岳, 『증보 탐라지』에 '寺岳, 절오름', 오늘날의 지도에 '제지기오름'으로 표기하였다. 현지인들은 '제지기오름'이라고 한다. 貯와 儲는 '더(貯 더덕 더<신합, 하:43>, 儲 더룩 더<신합-나손본>)' > 저'의 음가자 표기, 卽·積·左只은 모두 '즈기·저기·좌기' 정도의 음상을 표기한 음가자 표기이다. 貯卽은 '저즈기'의 음가자 표기, 貯左只은 '저좌기'의 음가자 표기, 儲積은 '저저기'의 음가자 표기이다. 모두 하나의 음상을 반영한 것인데, 한자 표기로 변하면서 약간의 변동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현지인들은 이 오름에 과거 절(寺)이 있었고, 절을 지키는 '절지기'저지기가 있었다는 데서 '저지기오름·제지기오름' 또는 '절오름'이라 한다고 하나,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그 뜻은 확실하지 않다. 貯卽岳·貯左只·儲積岳은 모두 '저즈기오름·저좌기오름·저저기오름' 정도의 음상을 표기한 것으로, 모두 동일한 음상의 변음을 반영한 표기에 불과하다. 그 뜻에 대해서는 좀더 논의해야 할 것 같다.

(7) 三每陽岳·三梅陽岳[삼매양오름] > 三每峰[삼매오름] > 三梅峰

서호동에 있는 '시미양오름 > 세미양오름'은 『세종실록』(지리지)에 三每陽, 『신증동국여지승람』에 三每陽岳, 『탐라지』에 三梅陽岳, 『제주읍지』에 三每陽岳, 『제주읍지』에 三每讓峰, 『탐라순력도』에 三梅陽望, 『제주지도』에 三每峰, 『증보 탐라지』에 三梅峰, 주변의 묘 비석에 三梅峰, 三美峰, 紗帽山, 오늘날의 지도에 三梅峰으로 표기하였다. 三每·三梅는 오늘날 한자음이 '삼매'이지만 '시미 > 세미' [泉]의 음가자 표기, 三美도 오늘날 한자음이 '삼미'이지만 역시 '시미 > 세미' [泉]의 음가자 표기로 보인다. 紗帽도 오늘날 한자음이 '사모'이지만 '세미'의 표기로 보인다. '심 > 샘[泉]'의 제주도방언은 '세미'인데, 이른 형태로 *'시미'를 가정할 수 있다. 곧 '샘'이 있는 오름이라는 데서 붙인 것이다. 陽과 讓은 '양'의 음가자 표기인데, 그 뜻은 확실하지 않다. 三每陽岳·三梅陽岳은 '시미양오름 > 세미양오름'의 표기인데, 陽과 讓은 생략하기도 한다. 아라동의 '시미양오름 > 세미양오름[三義讓岳·三每壤岳]'과 동일한 음상과 동일한 뜻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19세기 말에 三每峰으로 표기하였고, 그 이후에 다시 三梅峰이라 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8) 氏岩·妻岩[각씨바위], 溪岩[쌍계바위?] > 角秀岩[각수바위] > 각시바위

호근동에 있는 '각씨바위'는 『탐라지도』 등에 氏岩, 『제주삼읍도총지도』에 溪岩, 『제주지도』에 妻岩, 『정의지도』에 角秀岩, 『증보 탐라지』에 '角秀岳, 각수바위', 오늘날 지도에 '각수바위'로 표기하였다. 氏는 '각시' (氏 각시 시<훈몽-상, 32ㄴ>)의 제주도방언 '각씨'의 혼독자 표기, 妻는 '각씨'의 혼독자 표기, 岩은 '바위, 바위'의 혼독자 표기이다. '각씨바위'라는 이름은 한 '각시'가 떨어져 죽은 바위라는 데서 붙인 것이라고 한다. '각씨바위'는 민간 표기로 角秀岩·角首岩[각수바위], 鶴首岩[학수바위] 등으로도 나타난다. 溪岩은 '쌍계바위(?)'의 표기로 민간에서는 음상을 확인할 수 없다. 봉우리가 쌍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와 관련된 이름이다.

(9) 藪岳[쉬오름·술오름·수오름] > 雄岳[수오름] > 시오름

서호동에 있는 '쉬오름·수오름'은 『탐라지도』에 藪岳, 『증보 탐라지』에 '雄岳, 솟오름', 오늘날의 지도에 '시오름'으로 표기하였다. 민간에서는 주로 '시오름 > 시오름'이라 한다. 藪는 '숲(叢林은 모다 난 수히오<월석 10:69>·습(藪 습 수<훈몽-초, 상:3>) > 숲'의 제주도방언 '술' 또는 변음 '쉬·수'의 혼독자 표기, 雄은 '수(雄 수 웅<훈몽-초, 하:3>·슌(雄<두해-초, 16:70>)'의 변음 '시'의 혼독자 표기, 岳은 '오름'의 혼독자 표기이다. 대부분 분화구가 없는 오름이라는 데서 '수오름' 또는 '솟오름, 수컷오름'이라 하던 것이 '시오름'으로 변한 것이라 하나, 藪의 표기로 볼 때 숲을 이룬 오름이라는 데서 '슌오름·쉬오름'이라 하고 민간에서 '수오름, 솟오름'이라 하면서 한자 표기로 雄岳이라 했고, '수오름'은 다시 '시오름'으로 변한 것으로 보인다.

(10) 砧岳(방에오름) > 방에오름(웃방에오름, 방에오름, 알방에오름)

동홍동에 있는 '방에오름·방에오름'은 세 개의 봉우리로 이루어져 있다(웃방에오름, 방에오름, 알방에오름). 「탐라지도」 등에 砧岳, 5,000분의 지도에는 '방에오름'과 '윗방에오름'으로 표기하였다. 민간에서 '방에오름'이라 한다. 砧은 '방하(砧 방하돌 침<유합-칠장사본>, 방하돌 침<신합, 상:24>)' 방아'의 제주도방언 '방에·방에'의 혼독자 표기, 岳은 '오름'의 혼독자 표기이다. '방에오름'은 '웃방에오름, 방에오름, 알방에오름'으로 나뉜다. 가운데에 있는 오름이 '방에'와 같이 야트막하게 꽤 있다는 데서 붙인 것이다.

(11) 孤根山(고근산) > 古公山·古空山(고공산) > 孤根山

서호동에 있는 '고근산'은 「탐라지」 등에 孤根山, 「탐라순력도」와 「제주삼현도」 등에 古近山, 「제주삼읍전도」에 古公山, 「제주지도」에 古空山, 오늘날의 지도에 孤根山으로 표기하였다. 孤根山과 古近山은 '고근산'의 표기, 古公山·古空山은 '고공산'의 표기다. 일찍부터 '고근산'이라 불렀고 민간에서의 음상도 '고근산'으로 남아 있다. 그 뜻은 확실하지 않다. '고공산'은 '고근산'의 변음으로 보이고, 古公山·古空山은 그 변음을 한자 표기에 반영한 것이다. 민간에서도 '고공산'이라 하는 사람이 많다.

(12) 浦涯嶽·浬羅岳·甫羅岳·鋪羅岳(볼레오름), 尊者岳(존자오름)·尊者庵(존자암) > 볼레오름

하원동에 있는 '볼레오름'은 「탐라지」에 浦涯嶽, 「탐라지도」에 浬羅岳, 尊者岳, 「제주삼읍도총지도」에 浬羅岳, 尊者, 「제주삼읍전도」에 甫羅岳, 尊者庵, 「제주지도」에 鋪羅岳, 민간에서는 佛來岳, 오늘날의 지도에는 '볼레오름'으로 표기하였다. 浦涯는 음이 '포애'이지만 '볼레·볼래'의 불완전한 음가자 표기, 浬羅도 '볼레'의 음가자 표기이다. 浬는 '볼'의 음가자 표기, 羅는 '래'의 유사음 '레'의 음가자 표기이다. 浦涯와 甫羅, 鋪羅는 '볼레'의 불완전한 음가자 표기이다. '볼레'는 사람에 따라 '볼래'라고도 표기하는데, '보리수(나무)'의 제주도방언이다. 佛來도 '볼레'의 음가자 표기인데, 이는 尊者庵과 관련시킨 표기라 할 수 있다. 尊者岳은 '존자오름', 尊者庵은 '존자암'의 음독자 표기로, 오름 이름으로도 쓰였음을 알 수 있다. 일부 옛 지도에 尊者庵과 浬羅岳이 함께 오름 이름으로 표기된 것으로 보아, 이때의 '존자암'은 '족은볼레오름'을, 浬羅岳·甫羅岳은 큰 '볼레오름'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탐라지도」와 「제주삼읍전도」 등에는 동쪽에 '볼레오름', 서쪽에 '존자오름'으로 표기하였으나, 「제주삼읍도총지도」에는 동쪽에 '존자오름', 서쪽에 '볼레오름'을 표기하였다.). '볼레오름'은 '볼레낭(보리수나무)'이 많다는 데서 붙여진 이름인지 확실하지 않다. '존자암'은 '존자암'이 있었던 오름이라는 데서 붙인 것이다.

(13) 小鋪羅岳[족은볼레(오름)] > 족은볼레오름

하원동에 있는 '족은볼레오름'은 「탐라지도」에 尊者岳, 「제주삼읍도총지도」에 尊者, 「제주삼읍전도」에 尊者庵, 「제주지도」에 鋪羅岳 서쪽에 小鋪羅로 표기하였다. 小鋪羅는 '족은볼레(오름)'의 표기이다. 小는 '작은'의 제주도방언 '족은'의 혼독자 표기, 鋪羅는 '볼레'의 불완전한 음가자 표기이다. 인근에 '볼레낭'(보리수나무)이 많았다는 데서 '볼레오름'이라 했는지 확실하지 않다. 서쪽의 낮은 오름을 '족은볼레오름'이라 하였는데, 되찾아야 할 오름 이름이다.

(14) 瀛室·긔室·瀛谷[영실] > 五百將軍[오백장군] > 오백장군

하원동에 있는 '오백장군'은 바위군이다. 「탐라지」 등에 瀛室, 「지영록」에 瀛谷, 五百將軍洞, 千佛峯, 行道洞, 靈峯, 「제주삼읍도총지도」에 긔室, 「제주삼읍전도」에 五百將軍으로 표기하였다. 瀛室과 긔室, 瀛谷은 '영실'의 표기이다. 瀛과 긔은 뜻 그대로 신선이 사는 곳 또는 신령스러운 곳이란 뜻이고, 谷은 '실'의 혼독자 표기이다. 室은 고유어 '실'의 음가자 표기로, 谷 또는 洞의 뜻으로 쓰였다. 五百將軍은 '오백장군'의 음독자로, 서 있는 기암괴석들이 오백이나 되는 장군과 같다는 데서 붙인 것이다. 이외에도 五百羅漢 또는 千佛峰 등으로도 불리는데, 이는 尊者菴과 같이 불교와 관련된 이름이다.

(15) 법정이·법정오름 > 法井岳

하원동에 있는 '법정'은 「증보 탐라지」와 「원대정군지」 등에 法井岳으로 표기하였다. 민간에서는 주로 '법정'이라고 한다. 法井은 '법정'의 음독자 표기이다. 옛날 이곳에 法正寺라는 절이 있었는데, 이 절이 있는 오름이라는 데서 '법정오름'이라고 했다고 한다.

(16) 丫岳[거린오름], 丫鹿岳[거린사슴오름] > 거린사슴

색달리에 있는 '거린오름'은 「탐라지」에 丫岳, 「제주삼읍도총지도」 등에 丫鹿岳, 「제주삼읍전도」 등에 鹿岳, 주변의 묘 비석에는 '거린사슴, 巨仁岳', 오늘날의 지도에는 '거린사슴'으로 표기하였다. 민간에서는 '거림오름, 거림사슴오름, 거린사슴' 등으로 부르고 있다. 丫岳은 '거린오름'의 표기이다. '거리-'(槎 거림 차 丫枝<훈몽-초, 하:2>)에 관형사형어미 '-니'이 붙은 것으로, '거린'의 혼독자 표기, 岳은 '오름' > '오름'의 혼독자 표기이다. '거린오름'은 '봉우리가 두 개로 갈린 오름'이라는 뜻이다. 실제로 봉우리가 갈려 있다. 丫鹿岳은 '거린사슴오름'의 표기이다. 丫는 '거린'의 혼독자 표기, 鹿은 '사슴(사슴 爲鹿<훈민-원, 해례:25>)' > '사슴'의 훈가자 표기, 岳은 '오름'의 혼독자 표기이다. 한 자로는 鹿으로 표기되었고, 한글 이름으로 '사슴 > 사슴'이 쓰였는데, 鹿이 '사슴'의 혼독자로 쓰인 것인지 불확실하다. 이 오름 서남쪽에 '녹하지오름'[鹿下旨岳]이 있는데, 이때의 鹿이 음독자로 쓰였다면, 인근에 있는 오름 이름에서 한쪽은 혼독자로, 한쪽은 음독자로 표현한 것이 이상하다. 더 논의해

불 문제다. 鹿岳은 '사슴오름 > 사슴오름'의 표기로, Y鹿岳[거린사슴오름]에서 '거린'[Y]이 표기에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巨仁岳은 '거린오름'의 표기로, 巨仁은 '거린'의 음가자 표기이다.

(17) 弓山[활미] > 弓岳[활오름]

도순동에 있는 '활미'는 『탐라지』 등에 弓山, 『원대정군지』 등에 弓岳, 오늘날의 지도에는 弓山으로 표기하였고, 민간에서는 주로 '활오름'이라고 한다. 弓은 '활(활 爲弓<훈민-원, 해례:21>)'의 혼독자 표기, 山은 '뫼'의 제주도방언 '미'의 혼독자 표기, 岳은 '오름'의 혼독자 표기로, 山을 달리 표기한 것이다. 弓山은 '활미'의 혼독자 표기, 弓岳은 '활오름 > 활오름'의 표기이다. 오름이 형태가 활처럼 생겼다는 데서 붙인 것이다.

(18) 居玉岳[거옥오름] > 龜岳[거북오름] > 窟山峰·屈山峰[굴산오름] > 拘山峰[구산봉]

하원동에 있는 '거옥오름' 또는 '거북오름'은 『세종실록』(지리지) 등에 居玉岳, 『탐라지』에 龜岳, 『탐라순력도』에 龜山望, 『제주삼현도』에 龜山峰, 『탐라지도』 등에 窟山峰, 『제주삼읍전도』에 屈山峰, 『대정군지도』에 龜岳, 오늘날의 지도에는 拘山峰으로 표기하였다. 居玉은 '거옥'의 음가자 표기로, '거북'의 방언 표기로 보인다. 龜는 '거북(龜 거북 귀 俗呼烏龜<훈몽-초, 상:10>) > 거북(龜 거북<시해, 물명:17>)'의 혼독자 표기이다. 居玉岳은 '거옥오름', 龜岳은 '거북오름·거북오름'의 표기이다. 龜山은 龜岳을 달리 표기한 것이다. 龜山峰은 龜山에 다시 峰이 덧붙은 것이다. 窟山과 屈山은 '굴산'의 음가자 표기인데, 居玉岳 또는 龜山이 '굴산'으로 변한 이유가 확실하지 않다. 혹 龜山이 민간에서 '구산'으로 불리고 이것이 '굴산'으로 변하고 이를 음가자로 표기한 것이 窟山·屈山이 아닌가 한다. 민간에서는 蜆이 있었다는 데서 주로 '망오름, 망세오름, 망조수' 등으로 부를 뿐, '거옥오름, 거북오름, 구산, 굴산' 등의 음상은 확인하기 어렵다. 오름의 형세가 거북을 닮았다는 데서 이런 이름을 붙인 것으로 보인다.

(19) 鹿下止·鹿下旨[녹하지] > 鹿下旨岳

회수동에 있는 '녹하지' 또는 '녹하지오름'은 『제주삼읍도총지도』 등에 鹿下止, 『제주지도』에 鹿下旨, 『증보 탐라지』에 鹿下岳, 『원대정군지』에 鹿下岳, 鹿下旨岳, 오늘날의 지도에 鹿下旨岳으로 표기하였다. 일찍부터 鹿下止 또는 鹿下旨 등으로 표기되었고, 민간에서도 '녹하지'라 부르고 있다. 동북쪽에 있는 '거린사슴'과 비교해 볼 때, '사슴 녹린 마르', '사슴 녹리는 마르' 정도의 고유어가 남아 있을 듯 하나, 전설상으로만 남아 있고, '녹하지'란 음상만 남아 있는 것이 특이하다. 그러므로 鹿이 실제 '사슴 > 사슴'과 관련된 것인지, 止는 음가자인지 旨[마르 > 마루]의 誤記인지 확실하지 않다.

(20) 川西岳[넛서오름] > 帽羅伊岳

색달동 '넛서왓'에 있는 '넛서오름'모라이오름은 「제주지도」에 川西岳, 「증보 탐라지」 등에 帽羅伊岳, 주변의 묘 비석에 帽羅岳, 帽羅峯, 毛羅岳, 오늘날의 지도에 帽羅伊岳으로 표기하였다. 川西岳은 '넛서오름'의 표기이다. 川은 '내'의 혼독자 표기, 사잇소리는 생략, 西은 '서'의 음독자 표기, 岳은 '오름 > 오름'의 혼독자 표기이다. 이 오름 아래쪽에 川西洞[넛서왓마을]이라는 마을이 있다. '중문내' 서쪽에 있는 지역이라는 데서 '넛서왓'이라고 했다는 설과 중문천과 예래천과의 사이에 있다고 하여 '넛새왓'이라고도 했다는 설이 있다. '넛서왓'은 오늘날 川西洞을 이른다. 최근에 '모라이' 또는 '모라이오름'이 많이 알려졌다. 帽羅·毛羅와 帽羅伊는 '모라이'의 음가자 표기로 보이거나 그 뜻은 확실하지 않다.

(21) 牛夫岳, 牛俯岳[우부오름], 牛伏岳[우복오름] > 牛步岳

색달동 '굿낭케'에 있는 '우보름' 또는 '우부오름·우보오름'은 「탐라순력도」 등에 牛夫岳, 「제주지도」 등에 牛俯岳, 「대정군지도」에 牛伏岳, 「증보 탐라지」와 오늘날의 지도 등에 牛步岳, 주변의 묘 비석 등에 牛峰, 牛伏岳 牛俯岳, 우보름' 등으로 표기하였다. 민간에서는 '우부름, 우보름' 등으로 부른다. 牛夫와 牛俯는 '우부'의 음가자 표기이다. 牛는 '우'의 음가자 표기, 夫와 俯는 '부'의 음가자 표기이다. '우부'는 후대에 牛伏(우복), 牛步[우보] 등으로 표기되었다. 이 후대의 한자 표기에 의지해서, 소가 엮드린 형국 또는 소가 걸어가는 모습이라는 데서 牛俯岳 또는 牛步岳이라고 했다는 것은 민간어 원설에 불과하다. '우부'의 뜻은 확실하지 않다. 다만 소[牛]와 관련된 이름은 아닌 듯하다.

(22) 星川岳[베릿내오름]

중문동에 있는 '베릿내오름·벼로넛오름'은 「제주삼읍도총지도」 등에 星川岳, 고문서 등에 卞限川·卞希川, 別老川岳·別老岳·邊老川岳 등으로 표기하였다. 星은 '별(별 爲星<훈민-원, 해례:26>)'의 제주도방언 '벨'의 혼가자 표기로, 연철되면 '베리·벼로'로 나타난다. 卞限·卞希와 別老·邊老 등은 모두 '베리·벼로'의 음가자 표기이다. 川은 '내'의 혼독자 표기이다. 현지인들은 '베릿내오름·벼로내오름' 등으로 부른다. '베리·벼로'는 중세국어의 '비레·비러 > 비레·벼로'[崖]¹⁶⁾에 대응하는 표기이다. 星川岳은 '베릿내오름·벼로넛오름'의 표기이다. 가파른 계곡 곁에 있는 오름이기 때문에 이런 이름을 붙인 것이라고 한다.

16) 비레에 두라 집 지어쇼미 곧도나(懸崖置室率)<두해-초, 9:38>, 비러엿 뿌른 소나못 고지 닉고(崖密松花老)<두해-초, 21:34> 머리 도라혀 두 비레를 바라노라(머首望兩崖)<두해-중, 6:46>, 峯崖 벼로 ... 懸崖 두결흔 벼로<한청 1:39>, 崖 빛언덕 애<훈몽-예산문고본>

(23) 加加岳[더더오름], 加岱岳[더데오름] > 加加岳

상예동 '가가약동'에 있는 '더더오름 > 더데오름'은 「제주삼읍도총지도」 등에 加加岳, 『원대정군지』 등에 加加岳, 加岱岳 등으로 표기하였다. 현지인들은 '더데오름 · 더디오름 · 더더오름'이라고 한다. 加는 '더(加 더홀 가<유합-송광사본>)'의 훈가자 표기 또는 '데'의 불완전한 훈가자 표기, 岱는 '대 / 데'의 음가자 표기이다. 岳은 '오름'의 혼독자 표기이다. 加加岳은 '더더오름 · 더데오름'의 표기, 加岱岳은 '더데오름 · 더디오름'의 표기이다. '더더' 또는 '더데'의 뜻은 확실하지 않다. 오름 주변에 여러 언덕들이 겹겹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데서 붙인 것이라고 하나,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24) 於点伊岳[어점이오름] > 於點伊岳

대천동에 있는 '어점이오름'은 『증보 탐라지』에 於点伊岳, 『원대정군지』와 오늘날의 지도 등에 於點伊岳으로 표기하였다. 於点伊와 於點伊는 '어점이'의 음가자 표기이다. 그 뜻은 확실하지 않다.

(25) 城山[자스름], 城山岳[자스름]

상예동에 있는 '자스름'은 「대정군지도」와 「제주삼읍전도」 등에 城山岳으로 표기되어 있다. 민간에서는 주로 '자스름'이라고 한다. 곧 'жат+오름 > 잣+오름'의 결합하여 변한 것이다. 城은 'жат'의 혼독자 표기, 山은 岳을 달리 표기한 것, 그 뒤의 岳은 덧붙은 것이다. 오름의 형세가 'жат'과 같다는 데서 붙인 것으로 보인다.

3) 북제주군

(1) 구좌읍

① 只末山 · 指尾山 · 地尾山[지미메] > 地尾峰(지미봉)

종달리에 있는 '지미메 · 지미오름'은 『세종실록』(지리지)에 只末山, 『신증동국여지승람』(봉수)에 只末山,¹⁷⁾ 『탐라지』에 指尾山, 『지영록』에 指尾峯, 『제주읍지』에 地尾山, 오늘날의 지도에 地尾峰으로 표

17) 『세종실록』(권151, 지리지, 정의현)에 “木山 北准只末山 又准濟州笠山(‘물미’는 북쪽의 ‘지말메’에 응한다. 또한 제주의 ‘입산’에 응한다.)”, 『신증동국여지승람』(권38, 전라도, 정의현, 산천)에 “只末山 在縣東二十五里(‘지말메’는 정의현 동쪽 35리에 있다.)”고 표기하였다. 『세종실록』(권151)과 『신증동국여지승람』(권38)의 ‘정의현, 산천’조에 只末山으로, ‘제주목, 봉수’조에 只末山으로 표기되어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은 『세종실록』(지리지)의 기록을 옮긴 것으로 보이므로, 『세종실록』(권151) ‘제주목, 산천’조의 기록이 잘못된 것인지, ‘정의현, 산천’조의 기록이 잘못된 것인지 쉽게 파악하기 어렵다. 민간에서 ‘지미오름’이 우세하므로 只末山이 온전한 표기로 보인다.

그러나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시흥리의 ‘말미’를 ‘末山’, 종달리의 ‘지미메’를 只末山으로 표기하고 있기도 하므로, 원래

기하였다. '지'의 표기로 只·指·地 등이 쓰이는 것으로 보아, 이는 '땅(地)'의 뜻을 갖는 혼독자 표기로 보기 어렵다. 모두 음가자 '지'의 표기이다. 未와 尾는 '끝(未은 그티라<석보 9:2>, 尾 꼬리 미<백련 76>> 끝'의 표기가 아니라, '미'의 음가자 표기로 보인다. 결국 只未山·指尾山·地尾山, 指尾峰·地尾峰은 모두 '지미메' > 지미오름'의 표기로 보인다. 최근의 연구물들에서 地尾를 중시하고 이를 '땅끝(제주목의 동쪽 끝)'의 혼독자 표기라 한 것은 모두 건강부회식 논의라 할 수 있다(김봉천, 1988:258 ; 오성찬, 1992:70 ; 김중철, 1994:권1.115). 그러므로 오늘날의 지도에 표기된 地尾峰은 단순히 '지미오름'의 음가자 결합 표기라 할 수 있다.

② 凌達岳[능다리오름] > 隱月峰[은ㄷ리오름]

종달리에 있는 '능다리오름' 또는 '은다리오름'은 「정의군지도」에 凌達岳, 주변의 묘 비석에 隱月峰, 凌達岳, 오늘날의 지도에는 隱月峰으로 표기하였다. 민간에서는 '은ㄷ리오름, 은드리, 눈드리, 윤다리오름, 윤드리, 눈드리' 등으로 부른다. 凌達은 '능다리'의 음가자 표기, 隱月은 '은ㄷ리'의 표기이다. '능다리' 또는 '은ㄷ리', '윤다리'인지 '은드리', '윤드리'인지 정확한 음상과 뜻을 알 수 없다. 혹 '누운 들'(김중철, 1995:110)의 뜻이라면 '눈드리' 정도의 음상을 확인할 수 있으나, 확실하지 않다. 일부의 한자 표기를 중시하여 달이 숨어 있는 형상(진성기, 1975:77)이라는 것은 민간어원설에 불과하다.

③ 多郎時岳·大朗秀岳·多浪秀岳·月朗秀岳[ㄷ랑쉬오름] / 小月郎岫[아끈ㄷ랑쉬]·坐多浪秀[아진다랑쉬] > 月郎峰

세화리에 있는 'ㄷ랑쉬오름' 또는 '다랑쉬오름'은 『신증동국여지승람』에 多郎時岳, 『탐라지』에 大朗秀岳, 『제주지도』에 多浪秀岳, 坐多浪秀, 주변의 비석에 月朗秀岳, 月朗岫, 月郎岫, 月郎峰, 大郎秀, 月郎岳, 小月郎岫, 오늘날의 지도에는 月郎峰으로 표기하였다. 민간에서는 'ㄷ랑쉬' 또는 '다랑쉬'라고 한다. 바로 동쪽에 '아끈ㄷ랑쉬오름(또는 '아진다랑쉬')'이 있다. 多郎·大郎·多浪·月郎 등은 모두 'ㄷ랑' 또는 '다랑, 대랑'의 표기이다. 'ㄷ랑' 또는 '다랑, 대랑'을 '높다(山·高)'는 뜻의 고구려어 達(달)과 관계가 있는 것(현평효, 1990:40 ; 김중철, 1995:권1.37-38)으로 보기도 하나, 그 뜻이 확실하지 않다. 산봉우리가 달처럼 둥글게 보인다는 데서 月郎[ㄷ랑]이라 했다는 것(진성기, 1975:70)은 건강부회식 해석이다. 時와 秀, 岫, 岫 등은 음이 '시' 또는 '수'이지만 '숲[叢]'를 뜻하는 제주도방언 '쉬·시'의 음가자 표기이다. 小는 '작은'의 뜻을 가진 제주도방언 '아끈'¹⁸⁾의 혼독자 표기, 坐는 '앉은'의 제주도방언 '아진'의 혼독자 표기이다. 多郎時岳·大朗秀岳·多浪秀岳·月朗秀岳 등은 모두

¹⁸⁾ '지말메' 또는 '지숫메'의 표기일 수도 있다. 그래서 오창명(1996)에서는 '지숫메'라고 했다가 이글에서는 후대의 음상을 중시하여 '지미메'라고 하였다.

18) '아끈'은 '적다'의 뜻을 가진 중세국어 '얕다'(微 아출 미<백련-동경 17>)의 관형사형 '아촌'에 대응하는 어휘이다.

'ㄷ랑쉬오름' 또는 '다랑쉬오름'의 표기이고, 小月郎秀는 '아끈ㄷ랑쉬'의 표기로 '작은 다랑쉬'라는 뜻이고, 坐多浪秀는 '아진ㄷ랑쉬'의 표기로, '낮아서 앉은 것 같은 다랑쉬'라는 뜻이다.

④ 龍遊岳[용논이오름], 龍眼岳·龍臥岳[용눈이오름] > 용눈이오름

종달리에 있는 '용논이오름·용눈이오름'은 「탐라지도」와 「제주삼읍도총지도」 등에 龍遊岳, 「제주지도」에 龍眼岳, 주변의 묘 비석에는 龍臥岳, 龍臥峰, 오늘날의 지도에는 '용눈이오름'으로 표기하였다. 龍은 '룡(龍 룡 룡<신합, 상:14>)'의 어두음 '용'의 혼독자 표기, 遊는 '노니-(遊 노닐 유<신합, 하:7>)'에 관형사형어미와 명사형성접사가 붙은 '논이'의 혼가자 표기이다. 眼은 '눈(眼 눈 안<백련 40>)'의 혼가자 표기, 臥는 '눕-(臥 누을 와<유합-칠장사본>)'의 혼독자 표기이다. 龍遊岳은 '용논이오름'의 표기, 龍眼岳·龍臥岳은 '용눈이오름'의 표기, 龍臥峰은 岳을 峰으로 바꾼 표기이다. 오름의 형세가 용들이 놀고 있는 모습이라는 데서 '용논이오름'이라 했을 수도 있고, 용이 누워 있는 모습과 같다는 데서 '용눈이오름'이라고 했을 수도 있다. 후자가 더 타당한 것으로 보이지만, 전자가 이른 시기의 지도에 나온다는 점이 후자의 뜻이라고 하기도 어렵다. '용눈이오름'을 한역화하는 과정에서 龍眼岳으로도 표기하였다.

⑤ 孫岳[손지오름] > 孫子峰(손지봉)

종달리에 있는 '손지오름'은 「제주삼읍전도」에 孫岳, 주변의 묘 비석에 孫岳, 孫枝岳, 孫支岳, 孫子峰, 오늘날의 지도에는 孫子峰으로 표기하였다. 孫은 '손자'의 제주도방언 '손지'의 혼독자 표기, 孫枝·孫支는 음독자 '손'과 음가자 '지'의 결합 표기, 孫子是 '손자'의 제주도방언 '손지'의 음독자 표기이다. '손지오름'은 산의 지세가 한라산과 닮아서, 그 손자뿔에 해당하는 작은 오름이라는 데서 붙인 것이라고 한다.

⑥ 屯止岳[둔지오름] > 屯地峰(둔지봉)

덕천리에 있는 '둔지오름'은 「탐라순력도」에 屯止, 「제주삼읍도총지도」 등에 屯止岳, 「제주지도」에 屯池岳, 주변의 묘 비석에는 屯地, 屯地, 屯地峰, 屯地岳, 오늘날의 지도에는 屯地峰으로 표기하였다. 屯止·屯地·屯池·屯地·屯地 등은 모두 '둔지'의 음가자 표기, 岳은 '오름'의 혼독자 표기이다. '둔지'는 '평지보다 조금 높은 곳'을 가리키는 말이라 하기도 하나 확실하지 않다. 김석익의 『심재집』(「탐라지」)에 "屯地岳 岳下衆峰起伏 形如屯陣('둔지오름'의 아래는 여러 봉우리가 起伏하고 있어, 형상이 마치 屯陣과 같다.)"라고 하였는데, 민간의 비석에도 '屯地 東 前陣岳(둔지 동쪽), 前陣員, 屯地 戰陣, 屯地 戰屯'이라 표기하기도 하였다. 이는 민간어원설로 보인다.

⑦ 猪岳[뚫오름] > 뚫오름

평대리에 있는 '뚫오름'은 『신증동국여지승람』 등에 猪岳, 「제주지도」에 玃峯, 주변의 묘 비석에 猪岳, 오늘날의 지도에는 '뚫오름'으로 표기하였다. 민간에서는 '뚫오름, 도너리오름'이라고 한다. 猪는 '돌·돈(猪 돈 데<훈몽-초, 상:10>)> 돼지'의 제주도방언 '뚫'의 혼독자 표기이다. 玃은 '돌'의 음독자 표기이다. 玃은 '뚫'을 '돌'로 잘못 인식하여 표기한 것으로, 민간에서 부르는 '도너리'와 관계된 표기로 보인다. 猪岳은 '뚫오름'의 표기이다. 오름 모양의 '뚫' [猪]의 몸체와 비슷하게 생겼다는 데서 이런 이름이 붙여졌다고 한다. 민간에서 부르는 '도너리'는 '뚫너리'('돼지가 내려온')의 변음이 아닌 가 한다.

⑧ 坐岳[안진오름], 坐置岳[안친오름] > 안친오름

송당리에 있는 '안진오름' 또는 '안친오름'은 「제주지도」에 坐岳, 주변의 묘 비석에는 坐岳, 坐置岳, 座置岳, 坐雉岳, 雅親岳, 安置岳, 左置岳, 오늘날의 지도에는 '안친오름'으로 표기하였다. 민간에서는 '아진오름·안진오름' 또는 '아친오름·안친오름'으로 부른다. 坐는 '앉은'의 제주도방언 '아진' 또는 '안진'의 혼독자 표기, 坐置와 座置는 '안친'의 제주도방언 '아친' 또는 '안친'의 혼독자와 음독자의 결합 표기이다. '안진'의 격음화한 음이 '안친'이다. 坐雉와 雅親, 安置도 '아친' 또는 '안친'의 표기이다. 左置는 坐置의 誤記라 할 수 있다. 오름의 형세가 마치 사람이 다리를 벌리고 앉아있는 것과 같다는 데서 붙인 것이라고 한다.

⑨ 巨文岳[검은오름], 東巨文岳[동검은오름] > 동거문오름

송당리에 있는 '검은오름'은 동쪽에 있는 '검은오름'이라는 데서 '동검은오름'이라고도 하는데, 조천읍 선흥리에 있는 '서검은오름'과 대비되는 이름이다. 「제주삼읍도총지도」 등에 巨文岳, 「제주지도」에 東巨文岳, 「증보 탐라지」에 東巨文伊岳, 주변의 묘 비석에는 東巨文岳, 東巨門岳, 東巨門伊岳, 蛛岳, 오늘날의 지도에는 '동거문오름'으로 표기하였다. 민간에서는 '검은오름, 검은이오름' 등으로 부르며, 일부에서는 '거미오름'이라고도 한다. 巨文과 巨門은 '검은'의 잘못된 현실음 '거문'의 음가자 표기, 東은 '동'의 음독자 표기, 巨門伊와 巨文伊는 '검은이'의 연철음 '거문이'의 표기로, '검은+이(명사파생접사)'의 구성이다. 蛛는 '거미'의 혼독자 표기인데, '검은'을 '거미'로 잘못 이해한 표기이다. 오름이 검게 보인다는 데서 붙여진 것이고, 혹 거미와 같은 형상을 하고 있다는 데서 '거미오름'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거미오름'이라 하는 것은 민간어원설에 불과하다.

⑩ 堂岳[당오름] > 당오름

송당리에 있는 '당오름'은 『탐라순력도』 등에 堂岳, 「증보 탐라지」에 '堂岳, 당오름'으로 표기하였

다. 堂은 '당'의 음독자 표기로, 神堂의 뜻이다. 岳은 '오름'의 혼독자 표기이다. 堂岳은 '당오름'의 표기이다. 옛날부터 '당'이 있었던 데서 붙여진 것이다. 지금도 오름 서쪽에 松堂 本郷堂이 있다.

⑪ 高岳[높은오름] > 높은오름

송당리에 있는 '높은오름'은 『탐라순력도』 등에 高岳, 오늘날의 지도에는 '높은오름'으로 표기하였다. 高는 '높-'(高 노플 고<백련 5>)에 관형사형어미 '-니'이 붙은 '높은'의 혼독자 표기, 岳은 '오름'의 혼독자 표기이다. 오름이 주변 오름보다 유난히 높다는 데서 붙인 것이다.

⑫ 狎岳·前岳[얹오름] > 아부오름

송당리에 있는 '얹오름'은 『지영록』에 狎岳, 『제주삼읍도총지도』 등에 前岳, 일제시대 지도(1918)와 『증보 탐라지』(1954) 등에 阿父岳, 주변의 묘 비석에는 南岳, 鴨岳, 亞保岳, 오늘날의 지도에는 '아부오름'으로 표기하였다. 狎은 '얹'의 음가자 표기, 前은 앞(前 앞 전<훈몽-초, 하:15>)·얹·얹 > 앞'의 혼독자 표기이다. 南은 '얹'(南 앞 남<천자-광 28>)의 혼독자 표기, 鴨은 '얹'의 유사음 '압'의 음가자 표기이다. 여기서의 '얹'은 '앞'이란 뜻보다 '남쪽(南 앞 남<천자-광 28>)의 뜻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방위 상으로 송당 마을은 북쪽에 있으면서 아래쪽에 있고, 이 오름은 남쪽에 있으면서 높은 쪽에 있기 때문이다. 阿父岳은 '아부오름', 亞保岳은 '아보오름'의 표기와 오늘날의 지도에 표기된 '아부오름' 등은 모두 '얹오름'의 '얹'과 '오'의 연철과 관련된 변음을 반영한 음상에 불과하다. 前岳은 '얹오름' > 앞오름'의 표기이다. 오름이 마을 남쪽에 있다는 데서 붙인 것이다.

⑬ 笠山岳[입산오름] > 立山峰[입산봉]

동김령리에 있는 '입산오름'은 『세종실록』(지리지) 등에 笠山, 『신증동국여지승람』에 笠山岳, 주변의 묘 비석에 笠山峯, 立傘峯, 笠傘峯, 오늘날의 지도에는 立山峰으로 표기하였다. 민간에서는 '입오름' 또는 '입산봉'이라 한다. 笠은 '입(笠 갓 립 俗呼笠笠 산갓 又曰斗篷<훈몽-초, 중:8>)'의 음가자 표기, 山은 '산'의 음가자 표기로, '선[立]의 제주도방언 '산'의 표기로 보인다. 岳은 '오름'의 표기이다. 일찍부터 笠山峰(입산봉)으로 불렸으나, 笠山岳이 이른 시기의 각종 지도에 나오므로 '입산오름'이라 할 수 있다. '갓산오름'(김종철, 1995:1권.69) 또는 '갓'이 선 것과 같다는 데서 '갓산오름' > 갓산오름' 정도의 음상도 고려할 수 있으나 민간에서 확인할 수 없다.

⑭ 高山[고살미], 高山岳[고살미오름] > 고살미·귀살미

서김령리에 있는 '고살미'는 『탐라순력도』에 高山, 『제주삼읍도총지도』에 高山岳, 『제주지도』에 高山峯, 주변의 묘 비석에 猫山, 猫岳 / 花山, 花山岳, 오늘날의 지도에는 '묘산오름, 猫山峯'으로 표기하

였다. 현지인들은 주로 '고살미' 또는 '괘살미'라 부른다. 다른 지명 연구자들도 '괴살메'(김종철, 1995:1권.24), '괴살미'(오성찬, 1992:63)로 표기하였다. 그러나 고지도에 高山, 高山岳, 高山峯으로 표기하였고, 현지인들이 '고살미'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괴살메, 괴살미'보다 '고살미'가 오래된 음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괴살메, 괴살미'는 한자어 猫山 또는 猫山岳의 표기를 중시한 음상임에 틀림 없다. '고'('고이'의 불완전한 말) 또는 '괘'는 '고양이'의 제주도방언으로, 중세국어의 '괴'(猫 괴묘<훈몽-초, 상:10>, 猫兒 괴...猫走仰 괴 흘레<역해, 하:32-33>)와 대응한다. '살'은 '살다'[生]의 관형사형으로 보이며, '미'는 '뫼[山]의 제주도방언이다. 고양이가 사는 오름이라는 데서, 또는 오름 형상이 고양이가 굽은 형태여서 붙인 것이라고 한다.

⑮ 魚岱岳[어대오름] > 어대오름

덕천리에 있는 '어대오름'은 「제주삼읍전도」에 魚岱岳, 「제주지도」에 德泉岳, 주변의 묘 비석에 御帶岳으로 표기하였다. 민간에서는 '어대오름' 또는 이의 준말인 '어드름·어두름'이라고 부른다. 魚岱와 御帶는 '어대'의 음가자 표기로, 그 뜻은 확실하지 않다. 德泉은 '덕세미'의 표기로, '덕세미' 옆에 있는 산이란 뜻이다. 德은 '덕'의 음가자로 '바위너설'의 뜻이고, 泉은 '샘'의 제주도 방언 '세미·새미'의 혼독자 표기이다.

⑯ 鼓岳[북오름] > 북오름

덕천리에 있는 '북오름'은 「제주삼읍전도」에 鼓岳, 「제주지도」에 報母岳, 주변의 묘 비석에 鼓岳, 婦岳, 오늘날의 지도에는 '북오름'으로 표기하였다. 鼓는 '뽕(鼓 뽕 고 又稱 비브른 거슬 皆曰鼓兒<훈몽-초, 중:14>·뽕 > 북'의 혼독자 표기이다. 婦는 '북'의 'ㄱ'이 탈락한 불완전한 음가자 표기이다. 報母岳의 報母도 유사한 음상을 반영한 표기로 보인다. 鼓岳·婦岳은 '북오름'의 표기이다. 오름이 마치 북과 같이 배부른 형상을 하고 있다는 데서 붙인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북오름'의 '북'을 '높다'[高]는 뜻으로 보기도(김종철, 1995:권1.63) 하는데 어색하다.

⑰ 北曲[뒤굽은이], 北曲岳·後曲岳[뒤굽은이오름] > 뒤굽은이

송당리에 있는 '뒤굽은이(오름)'은 「탐라지도」에 北曲岳, 「제주삼현도」에 北曲, 「제주삼읍전도」 등에 後曲岳, 주변의 묘 비석에는 '뒤굽은이, 後弓岳, 后弓岳, 後弓凹'로 표기하고, 오늘날의 지도에 '뒤굽은이오름' 또는 '뒤굽은이'라고 잘못 표기하였다. 민간에서는 '뒤굽은이, 뒤굽은이오름', 또는 '뒤굽은오름, 뒤굽은이'라고도 한다. 北은 '뒤(北 뒤 북<훈몽-초, 중:2>)의 혼독자 표기, 後는 '뒤(後 뒤 후<훈몽-초, 하:15>)'의 혼독자 표기, 曲은 '굽은(曲은 고불 씨라<석보 11:6>)·굽은'¹⁹⁾의 혼독자 표기

19) 道는 本來 平하며 곧거늘 닳을 브러 굽는니=道는 平坦直거늘 因妄而曲호는니<능엄 1:44>

이다. 後曲岳은 '뒤굽은오름·뒤굽은오름'의 표기이다. '굽은이·굽은이'의 '-이'는 명사형성접사이다. 오름의 뒤가 구부러져 있다는 데서 붙인 것이라고 한다.

⑱ 上氏近岳[웃씨근이오름], 下氏近岳[알씨근이오름] > 알식은이, 뒤식은이

덕천리에 있는 '식은이오름'은 「제주삼읍전도」에 上氏近岳, 下氏近岳, 「제주지도」에 大息彦岳, 小息彦岳, 주변의 묘 비석에 時根伊岳, 甍近岳으로 표기하였다. '웃식은이'와 '알식은이' 두 봉우리로 되어 있다. 민간에서는 '씨근이' 또는 '알씨근이, 웃씨근이'라고 한다. 上은 '웃'의 혼독자 표기, 下는 '알'의 혼독자 표기, 大는 '큰'의 혼독자 표기, 小는 '작은'의 제주도방언 '죽은'의 혼독자 표기, 氏近은 '식은'의 현실음 '시근'의 경음화된 '씨근'의 음가자 표기, 息彦은 '식은'의 변음 '식언'의 음가자 표기, 甍近과 時根伊는 '시근' 또는 '시근이'이지만 '식은' 또는 '식은이'의 음가자 표기이다. '식은이'는 '식은+-이(명사파생접사)'의 구성으로, '죽은 땅' [死地], 곧 맥이 식은 땅이라는 데서 붙인 것이라고 한다.

⑲ 帖岳[체오름], 箕岳[체오름], 体岳[체오름] > 체오름

덕천리에 있는 '체오름'은 「신증동국여지승람」 등에 箕岳, 「탐라순력도」에 帖岳, 「제주삼읍도총지도」 등에 箕山, 「제주지도」에 体岳, 주변의 묘 비석에 '체岳, 體岳, 体岳' 등으로 표기하였다. 帖은 음이 '뎃'이지만, 고문서에서 '체' (帖 體 帖紙 테지 見公私文書<신자전>)로 읽히는 음가자 표기, 箕는 '기(箕 키 기 俗稱簸箕<훈몽-초, 중:6>)'의 제주도방언 '체'의 혼독자 표기, 体和 體는 '체'의 음가자 표기, 岳은 '오름'의 혼독자 표기이다. 箕岳·体岳·體岳은 '체오름'의 표기, 箕山은 箕岳(체오름)의 岳을 山으로 표기한 것이다. 오름의 형태가 밑으로 패서, 마치 '푸는 체'나 '물체'와 같다는 데서 붙인 것이다.

⑳ 荒岳[거친오름], 巨親岳[거친오름] > 거친오름

송당리에 있는 '거친오름'은 「제주삼읍전도」에 荒岳, 「제주지도」에 巨親岳, 주변의 묘 비석에 巨体岳 등으로 표기하였다. 荒은 '거칠-' (荒 거칠 황<유합-송광사본>)에 관형사형어미 '-니'이 붙은 '거친'을 나타내는 표기, 巨親은 '거친'의 음가자 표기, 岳은 '오름'의 혼독자 표기이다. 오름이 거칠다는 뜻에서 붙인 이름인지 '견힌' 오름이라는 데서 붙인 이름인지 확실하지 않다.

㉑ 石岳·突岳[돌오름] > 돌오름(안돌오름, 밧돌오름)

송당리에 있는 '돌오름'은 「제주삼읍도총지도」에 石岳, 「제주삼읍전도」에 突岳, 「제주지도」에 大磗峯, 小磗峯, 주변의 묘 비석에는 磗岳·石岳, 外磗岳·外石岳, 內磗岳·內石岳, 文石岳, 月虎岳, 月後

落, 月後岳, 오늘날의 지도에는 '밖돌오름, 안돌오름'으로 표기하였다. '안돌오름'과 '밖돌오름' 두 봉우리가 있다. 石은 '돌·뿔'(石 돌 석<백련 57>, 石은 돌히오<석보 9:24>)의 혼독자 표기, 𪎐은 '돌'의 음독자 표기, 突은 '돌'의 음가자 표기, 岳은 '오름'의 혼독자 표기, 內는 '안'의 혼독자 표기, 外는 '밖'의 혼독자 표기, 大는 '큰'의 혼독자, 小는 '작은'의 혼독자 표기, 文은 '뵤' > 민 [禿]의 음가자 표기, 月은 '돌'의 잘못 이해된 음 '뿔'의 음가자 표기이다. 虎와 後의 표기는 '돌ㅎ'의 'ㅎ' 종성을 표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돌호름' 정도의 음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石岳·𪎐岳·突岳은 '돌오름', 大𪎐岳은 '큰돌오름', 小𪎐岳은 '작은돌오름', 內石岳·內𪎐岳은 '안돌오름', 外石岳·外𪎐岳은 '밖돌오름', 文石岳은 '뵤돌오름' > 민돌오름'의 표기이다. 민간 표기에서 月後落, 月後岳, 月後岳 등 잘못된 표기도 나타난다. '돌오름'은 '큰돌오름, 작은돌오름' 또는 '밖돌오름, 안돌오름'으로도 불렸다. '밖돌오름' 정상에 돌무더기가 많이 박혀 있고 잡목이 거의 없어서, '돌오름' 또는 '뵤돌오름' 등으로 불렸다. '안돌오름'에는 돌무더기가 거의 없다. 특이한 것은 송당 마을 쪽에서 볼 때 가까운 오름이 '밖돌오름' 이고 먼 오름이 '안돌오름' 이라는 것이다. 한라산 쪽에 있는 것은 '안' 쪽에 있고, 바다 쪽에 가까운 것을 '바깥'에 있는 것으로 인식한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

② 三美岳·泉味岳·泉岳[세미오름] > 세미오름

송당리에 있는 '세미오름'은 '거스세미오름'이라고도 한다. 『신증동국여지승람』 등에 三美岳, 「제주삼읍도총지도」 등에 泉味岳, 「제주삼현도」에 泉岳, 주변의 묘 비석에는 '세미오름, 泉岳', 오늘날의 지도에 '쌔미오름'으로 표기하였다. 三美는 '쌔[泉]을 뜻하는 제주도방언 '시미' > 세미'의 음가자 표기, 泉味도 '시미' > 세미'의 표기이다. 三美岳·泉味岳·泉岳 등은 모두 '시미오름' > 세미오름'의 표기이다. 오름 서쪽 기슭에 쌔미가 있는데, 바다 쪽이 아닌, 한라산 쪽으로 거슬러(逆) 흐른다는 데서 '거스세미오름'이라고도 한다.

③ 漆岳·葛岳[칠오름] > 칠오름

송당리에 있는 '칠오름'은 「탐라지도」에 葛岳, 「제주삼읍전도」에 漆岳, 「제주지도」에 葛山, 오늘날의 지도에 '침오름'으로 표기하였다. 漆은 '침'의 제주도방언 '칠'의 음가자 표기이다. 葛은 '쑤(葛 쑤 갈 葛草 又葛藤 쑤 너출<훈몽-초, 상:4>) > 침'의 혼독자 표기이다. 葛山은 葛岳의 岳을 山으로 표기한 것에 불과하다. 민간에서는 '칠오름'이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쑤'는 제주도방언에서 '출' > 칠'의 과정과 '꼭'의 과정을 거쳐서, 두 개의 방언이 공존했다고 할 수 있다. 오름에 '침' 또는 '침덩굴'이 많다는 데서 붙인 것이라고 한다.

㉔ 先造只[선조기] > 선족이

송당리에 있는 '선족이·선조기'는 「제주삼읍도총지도」 등에 先造只, 주변의 묘 비석에는 '선족이, 先造只, 先造基岳·先足伊岳·仙足岳·善族岳, 玄烏基, 玄烏基岳, 仙跡岳' 등으로 표기하였다. 민간에서는 '선조기, 선조기마르'라고 한다. 先造只는 '선족이'의 현실음 '선조기'의 음가자 표기이다. 只는 음이 '지'이지만 '기' 또는 말음 '기'의 음가자 표기이다. 先造基·先足伊·仙足·善族 등도 '선족이'의 현실음 '선조기'의 음가자 표기이다. '선족이'의 뜻은 확실하지 않다.

㉕ 民岳·敏岳·文岳[민오름] > 민오름

송당리에 있는 '민오름'은 주변의 묘 비석에 民岳·敏岳, 文岳, 美岳 등으로 표기하였다. 民과 敏은 '뽕(禿 뽕 독 俗呼禿廡 머리 뽕 놈<훈몽-초, 상:15>, 禿山 뽕 뽕<역보 5>)'에 관형사형어미가 붙은 '뽕 > 민'의 음가자 표기, 文도 '뽕 > 민'의 음가자 표기, 美는 관형사형어미 '-니'이 붙지 않은 '뽕 > 미'의 음가자 표기이다. 곧 오름이 민동산이라는 데서 붙인 것이다.

㉖ 回山 [돌리미], 玆伊尾·玆利尾 [돌리미] > 작은돌임이오름

송당리에 있는 '돌리미'는 「제주삼읍도총지도」에 回山, 주변의 묘 비석에는 '돌리미, 玆伊尾·玆利尾, 突伊尾岳, 玆林岳·突林岳, 玆尾岳', 오늘날의 지도에는 '작은돌임이오름'으로 표기하였다. 민간에서는 '돌리미'라고 부른다. 回는 '도르-(回 도로혈 회<신합, 하:44>)' > 돌이-'의 혼독자 표기, 山은 '뽕'의 제주도방언 '미'의 혼독자 표기, 玆은 '돌'의 혼독자로, 한국 한자, 突은 '돌'의 음가자 표기, 伊는 '이'의 음가자 표기로, 관형격조사 '의'의 표기, 利는 '리'의 음가자 표기, 尾는 '미'의 음가자 표기로, '뽕'의 제주도방언 '미'의 음가자 표기, 林은 '림'이지만 '리미'의 불완전한 음가자 표기이다. 玆尾는 '돌리미'의 불완전한 표기이다. '돌리미'는 곧 '돌의 뽕', '돌산'의 뜻이다. 오름 정상에 돌무더기가 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일 수도 있고, 김종철(1995:1권.66)의 해독처럼, 등성이가 둥그렇게 둘러져 있어 '도리미, 돌린 미'일 가능성도 있다. 이른 표기인 回山을 고려하면 후자가 더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 지도의 '작은돌임이오름'이라는 이름은 '돌리미' 정도로 바꾸어 표기해야 한다.

㉗ 橫山[빗치미], 橫岳[빗치미오름] > 빗치미오름

송당리에 있는 '빗치미 > 빗치미'는 「탐라지도」 등에 橫山, 「제주삼읍전도」에 橫岳, 「제주지도」에 飛雉岳, 주변의 묘 비석에 飛雉山, 飛雉岳, 飛尾岳, 오늘날의 지도에는 '빗치미오름'으로 표기되어 있다. 橫山은 '빗치미'의 표기이다. 현실음은 '비찌미, 비치미'로 변한다. 橫은 '빗기-(橫 빗길 횡<백련-동, 17>)' > 빗씨-(橫 빗썰 횡<천자-석, 25>)' > 비끼-'의 제주도방언 '빗지-'의 혼독자 표기, 山은 '뽕'의 제주도방언 '미'의 혼독자 표기이다. '빗기 > 빗씨'는 현실음이 '비끼'가 되는데, 이 '비끼'가

구개음화하여 '비찌'가 되고, 다시 격음화하여 '비치'로 변한다. 곧 '빗기미' > '빗지미'는 옆으로 비스듬히 늘어진 산이란 뜻이다. 실제 산이 서남쪽에서 북동쪽으로 비스듬히 늘어서 있다. 橫岳은 橫山의 山을 岳으로 바꾸어 표기한 것에 불과하다. 19세기 말에 와서 '빗기미' > '빗지미'의 현실음인 '비찌미'의 격음화한 현실음 '비치미'의 한자 표기로 飛雉岳으로 표기하였다. 飛雉는 '비치'의 음가자 표기이다. 雉는 雉(치)의 속자이다. 이후에 이 한자 표기에 견인되어 꿩이 나는 형국이라는 데서 '비치미'라고 풀이하는 설(진성기, 1975:72 ; 한글학회, 1986:409 ; 오성찬, 1992:68 ; 김종철, 1995:1권.64)이 생겼는데, 이는 건강부회식 해석이다.

㉘ 成佛岳[성불오름], 成仏岩·成佛岩[성불바위] > 성불오름

송당리에 있는 '성불오름'은 『탐라지』에 成佛岳, 『제주삼읍도』에 成佛, 『제주삼읍도총지도』에 成仏岩, 『제주삼읍전도』 등에 成佛岩으로 표기하였다. 민간에서는 '성불암' 또는 '성불오름'이라고 부른다. '성불암'은 현실음이 '성보람'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成佛과 成仏은 '성불'의 음독자 표기, 岳은 '오름'의 혼독자 표기, 岩은 '암'의 음독자 표기이다. 산의 지세가 중이 엽불하는 모양과 같다는 데서 붙인 것이라고 한다. 『탐라지』의 기록과 같이, 오름 안쪽 자락에 성불샘[成佛泉]이 있다. 이 샘 일대를 '성불암'이라 한 것으로 보이고, 이것이 오름 이름으로까지 불리게 된 것으로 보인다.

㉙ 感恩岳[감은이오름], 巨文岳[검은오름] > 감은이오름

송당리에 있는 '감은이오름'은 『탐라지』에 感恩岳, 『제주삼읍도총지도』에 巨文岳, 주변의 묘 비석에 加文岳·佳門岳·加汶岳·甘雲峰이라고 표기하였다. 민간에서는 '감은이오름'이라고 부른다. 感恩은 '감은'의 혼독자 표기로, '검은'과 같은 말이다. 巨文은 '검은'의 현실음을 표기한 음가자이다. 甘雲도 '감은'의 불완전한 표기, 加文과 佳門, 加汶은 '감은'의 현실음 '가문'의 불완전한 표기이다. 오름이 검게 보인다는 데서 붙인 이름이다. 실제 모양은 오름이라기 보다는 완만한 구릉이라고 할 수 있다.

(2) 조천읍

① 西山岳[서메오름] > 犀牛峰[서우봉]

함덕리에 있는 '서메오름'은 『신증동국여지승람』에 西山岳, 『탐라지』에 西山, 『제주지도』에 犀牛峯, 주변의 묘 비석에는 西山, 西山峰, 犀山, 犀牛山, 西牛峯, 오늘날의 지도에는 犀牛峰으로 표기하였다. 민간에서는 '서모, 서모봉, 서우봉, 망오름'이라고 한다. 西山岳은 '서메오름'의 표기이다. 西는 '서'의 음가자, 山은 '뫼'의 제주도방언 '메'의 음가자, 岳은 '오름'의 혼독자 표기이다. 西山이 '서메'의

표기라고 하는 것은 무속에 남아 있는 '서모오름, 서무오름' (현용준, 1980:424,691)과 민간에 남아 있는 '서모(서모오름), 남서모' 등에서 알 수 있다. '서메'의 뜻은 확실하지 않다. '서메오름'은 西山峯, 西山望과 같이 岳을 생략하여 표기하면서 西山으로 굳어졌고, 민간에서도 '서모오름'보다 '서모'가 많이 알려졌다. '서모, 서무'는 '서메'가 변한 말이라 할 수 있다. '서모'는 주로 남쪽의 큰 산봉우리를 가리키고, 북쪽의 작은 산봉우리는 '남서모' 또는 '삿기봉 > 새끼봉' (紗只峯:조그만 오름이라는 데서), '망오름 > 망오름(望이 있었다는 데서)'이라 한다. 오늘날 부르는 '서우봉(犀牛峰)'의 표기는 「제주지도」에 처음 나타나는데, 이는 큰 산봉우리와 작은 산봉우리로 이루어진 형상이 물에서 기어 나오는 물소의 형상과 같다는 데서 붙여진 것이라 하는데, 민간어원설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② 破糜只岳·夜漠只(바매기오름), 上夜漠只(웃바매기), 下夜漠只(알바매기) > 알바매기, 웃바매기
 선흘리에 있는 '바매기오름'은 「신증동국여지승람」에 破糜只岳, 「탐라순력도」에 夜漠只, 「제주삼읍도총지도」에 上夜漠只, 下夜漠只, 「제주삼현도」에 上夜漠只, 下夜漠只, 「제주지도」에 上卣, 下卣, 비석에 所磨其岳, 오늘날의 지도에는 '알밤오름, 윗밤오름'으로 잘못 표기하였다. '알바매기'와 '웃바매기' 두 봉우리가 있다. 上은 '웃' (上 웃 상<신합, 상:2>)의 혼독자, 下는 '알'의 혼독자, 破는 '파' > '바'의 음가자, 夜는 '밤'의 혼가자, 糜는 '마' 또는 음운변이 된 '매'의 음가자, 漠은 '막' 또는 음운변이 된 '맥'의 음가자, 只는 '기'의 음가자 표기로 이두나 향찰에서 '기' 또는 '기' 표기로 자주 사용되는 표기, 岳은 '오름'의 혼독자 표기이다. 卣는 현대 음과 혼이 '수레의 굴대 뉴'인데, 어느 쪽을 借字한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 김종철(1995:3권,237)에 '알밤오름, 웃밤오름'으로 표기하고, 오름이 밤알 모양으로 생겼다는 데서 유래했다고 하나, 이는 실제 '밤' [栗]과 관련이 없는 민간어원설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매기'는 제주도지명 여러 곳에 나타나는 지명접미사로,²⁰⁾ 주로 산이나 언덕·등성이를 이루는 지역에 붙는다. 그 뜻은 확실하지 않다. 비석 등에 栗岳, 下栗岳으로 잘못 표기하면서 '밤'과 관련된 오름인 것으로 알려졌다.

③ 牛眞岳(우진오름), 牛眞貯岳(우진제비오름) > 우진제비

선흘리에 있는 '우진제비'는 「제주삼읍도총지도」에 牛眞岳, 「제주삼읍전도」에 牛眞貯岳, 「제주지도」에 牛振接, 오늘날의 지도에는 '우진제비'로 표기하였다. 牛는 '우'의 음가자, 眞과 振은 '진'의 음가자, 貯는 '저'의 음가자, 接은 '접'의 유사음 '저비, 제비'의 음가자 표기이다. 한자 표기나 민간의 음상을 고려할 때 '우진저비, 우진제비' 정도의 음상을 가진 것인데, 그 뜻은 확실하지 않다.

20) 제주시 용강동 '마매기', 회천동 '마매기왓', 월평동 '마매기동산', 노형동 '마매기', 조천읍 대흘리의 '마매기', 남원읍 위미리 '마매기' 등이 그것이다.

④ 時連岳·是連岳[시려니오름], 巨文岳[검은오름], 西巨文岳[서검은오름] > 검은오름

선흘리에 있는 '검은오름'은 서쪽에 있는 '검은오름'이라는 데서 '서검은오름'이라고도 한다. 「탐라순력도」에 時連岳, 「제주삼읍도총지도」에 是連岳, 「제주삼읍전도」에 巨文岳, 「제주지도」에 西巨文岳, 주변의 묘 비석에 巨文岳, 西巨門岳 등으로 표기하였다. 時連과 是連은 '시려니'의 음가자 표기인데, 그 뜻은 확실하지 않다. 巨文은 '검은'의 현실음의 음가자 표기, 西巨文은 '서검은'의 현실음 표기이다. 처음에 '시려니'라고 하다가 검게 보인다고 '검은오름'이라 한 것으로 보인다.

⑤ 斧大岳·夫大岳·浮大岳·扶大岳[부대오름] > 扶大岳(부대악)

선흘리에 있는 '부대오름'은 「제주지도」(승실대)에 斧大岳, 「제주삼읍도총지도」 등에 夫大岳, 「제주삼읍전도」에 浮大岳, 주변의 묘 비석에 扶大岳·夫大岳·富帶岳·富大岳, 부대오름, 오늘날의 지도에 扶大岳으로 표기하였다. 斧大·夫大·浮大·扶大 등은 모두 '부대'의 음가자 표기이다. '부대'의 뜻은 확실하지 않다. 김종철(1995:3권,220)에서는 평안도방언으로 火田 또는 개간지의 뜻인 '부대기' 또는 '부대알'의 준말인 '부대'로 추정하였으나, 인근에 있는 '부소오름'의 '부소'에 대한 뜻은 알지 못한다고 하였다.

⑥ 紗縞岳·沙冑岳[사위오름], 紗帽岳[사모오름], 夫小岳[부소오름] > 부소오름

선흘리에 있는 '사위오름' 또는 '부소오름'은 「탐라순력도」에 紗縞, 「제주삼읍도총지도」에 沙冑山, 「제주삼현도」에 紗帽岳, 「제주삼읍전도」에 夫小岳, 「제주지도」에 帽峯, 주변의 묘 비석에 沙冑岳, 紗帽峰, 沙馬峰, 삼읍岳 등으로 표기하였다. 민간에서는 주로 '부소오름'이라 하고 '새물메(?)'라는 음상도 확인할 수 있다. 紗縞·沙冑는 모두 '사위'의 음가자 표기이다. 紗帽는 '사모'(紗帽 사모<두해-초, 10:31>)의 음독자 표기, 帽는 '사모'(帽 감토 모, 사모 모<신합, 상:31>)의 훈독자 표기, 夫小는 '부소'의 음가자 표기이다. 이른 시기의 고지도에서 '사위'라는 음상을 확인할 수 있고 그 후의 지도에서 '사모'라는 음상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음상이 달라질 수 있을까? 민간에서 이러한 음상을 확인할 수 없다. 원래의 음상이 '사위, 새위'('새우'의 제주도방언:오름 형상이 마치 새우의 등과 같음.)이고, 이것을 한자로 표기한 것이 紗縞와 沙冑이고, 이 한자 표기의 縞와 冑를 帽와 冑로 잘못 인식하고 '사모'(紗帽)라 한 것은 아닌지? 또 이 오름이 '사위' 모양과도 같고, 벼슬아치의 예모인 '사모'(紗帽)와도 같다는 데서 그렇게 표기한 것은 아닌지? 紗縞와 沙冑는 '사위'의 음가자 표기, 紗帽는 '사모'의 음독자 표기이다. 실제 오름 형상도 이들과 너무도 유사하다. 그러면 민간의 '새물메'의 '새물'은 '사모'의 변음이라 할 수 있다. 김종철(1995:3권,214)은 '새물메'는 '생물메'의 변음으로, 풋말을 놓아 먹이면서 길을 들이던 산이라고 풀고 있으나, 옛 지도의 표기와는 거리가 있다. '부소오름'이라는 이름은 인근에 있는 '부대오름'과의 대비에서 지어진 이름으로 보인다.

⑦ 堂岳[당오름] > 당오름

와산리에 있는 '당오름'은 『탐라순력도』 등에 堂岳으로 표기하였다. 현지인들도 '당오름'이라고 한다. 堂은 '당'의 혼독자 표기로, 神堂의 뜻이다. 岳은 '오름'의 혼독자 표기이다. 실제 神堂이 있었던 데서 '당오름 > 당오름'이라 하였다. 지금은 신당이 없다.

⑧ 思美岳·思未岳·泉味岳[세미오름] > 세미오름

대흘리에 있는 '세미오름'은 『탐라지』에 思美岳, 『제주삼읍도총지도』에 思未岳, 『제주지도』에 泉味岳, 오늘날의 지도에 '쌔미오름'이라 하였다. 思美·思未·思米는 '쌔[泉]을 뜻하는 제주도방언 '치미 > 세미'의 음가자 표기, 泉味도 '치미 > 세미'의 표기이다. 泉은 '심[泉 爲泉<훈민-원, 해례:26>]'의 혼독자 표기, 味는 '치미 > 세미'의 말음 '미'의 음가자 표기이다. 思美岳·思未岳·思米岳·泉味岳 등은 모두 '치미오름 > 세미오름'의 표기이다. 곧 쌔미 있는 오름이라는 뜻이다.

⑨ 巨口里岳[것구리오름], 倒轉岳·倒顛岳·倒賞岳[것구리오름], 鶯岳[것구리오름] > 것구리오름·것고리오름

대흘리에 있는 '것구리오름·것고리오름'은 『신증동국여지승람』에 巨口里岳,²¹⁾ 『탐라지』 등에 倒轉岳, 『제주읍지』에 倒顛岳, 『제주삼읍전도』 등에 倒顛岳, 『제주지도』에 鶯岳, 주변의 비석에는 鶯岳·鶯峰 또는 普門岳·寶文岳·保門岳, 오늘날의 지도에 '궤꼬리오름'이라고 잘못 표기하였다. 巨口리는 '것구리'의 음가자 표기, 巨는 '것'의 말음 'ㅈ'이 탈락한 표기, 倒는 '갓굴->가솔->갓굴->갓골-(倒 가솔 도<백련 22>, 갓골 도<백련 81>, 갓골 도<신합, 하:16>)'의 혼독자 표기,²²⁾ 轉은 '그울->구울-(轉 그울 전<유합-송광사본>, 구울 던<신합, 하:37>)'의 혼독자 표기, 顛은 轉의 뜻으로 잘못 표기된 훈가자 표기(顛 업더덜 던<신합, 하:17>), 鶯은 '거구리·것고리'의 훈가자 표기이다. 鶯의 중세국어의 훈은 '궤고리'²³⁾이고, 제주도방언으로는 '궤꼬리'이다. 鶯이라 표기한 것은 '것고리' 또는 '것구리'를 '궤꼬리'로 인식하여 잘못 표기한 것이다. 岳과 峰은 '오름'의 혼독자 표기이다. 곧 巨口里岳·倒轉岳·倒顛岳·鶯岳·鶯峰 등은 모두 '것구리오름'의 표기이다. 곧 산이 거꾸로 엮어져 있는 형상이라는 뜻이다. 倒顛岳·倒轉岳·倒顛岳 등도 산이 엮어져 있다는 뜻의 '것구리오름'의 표기인데, 굳이 중세국어로 해독한다면 '갓ㅈ로 업더던 오름' 정도가 될 것이다. 그런데 최근의 연구자들은 鶯岳·鶯峰의 표기를 중시하여 '궤꼬리오름(김충철, 1995:권3.183-187)'으로 해석하고 있고, 각종 지

21) 普門寺 在巨口里岳北 『新增東國輿地勝覽』(濟州牧, 佛宇)

22) 紫鳳 1 업더디며 갓고로디어 더른 오새 누비엿도다(紫鳳顛倒在短襪)<두해-중, 1:6>

및 그름재 브레 것구러더시니 고기 뒷부리에서 봄놀오(山影倒 江魚躍岫)<백련-동경 4>

23) 鶯 궤고리 잉<백련 7>, 鶯 궤고리 잉 亦作鶯 俗呼黃鶯黃鳥<훈몽-초, 상:9>, 鶯 궤고리 잉<신합, 上:111>

도에도 '괴꼬리오름'으로 잘못 표기하고 있다. 이 오름 주변의 碑石 등에서 普門岳이라고 표기한 것도 있는데, 이는 이곳에 普門寺라는 절이 있었던 데서 유래한 것이다. 寶文·保門(보문) 등은 普門(보문)의 다른 음가자 표기이다.

⑩ 大川岳[큰내오름], 大川伊岳[대천이오름] > 대천이오름

선흘리에 있는 '큰내오름'은 민간에서는 '대천이오름'으로 많이 알려졌다. 『탐라순력도』 등에 大川岳, 주변의 묘 비석에는 大川岳, 大川伊岳 등으로 표기하였다. 大는 '큰' 또는 '한'의 훈독자 표기, 川은 '내'의 훈독자 표기이다. 大川岳은 '큰내오름' 또는 '한내오름'의 표기이고, 大川伊岳은 '큰내오름' 또는 '한내오름'의 한역 표기인 大川에, 다시 명사에 붙는 '-이'의 음가자 표기인 -伊가 덧붙은 표기이다. 후대에 한자 표기를 그대로 음독하게 되면서 '대천오름' 또는 '대천이오름'으로 바뀐 것이다. 현지조사를 통해서 확인한 결과, '큰내오름' 또는 '한내오름'이라고도 했다고 한다.

⑪ 文岳·敏岳[뮌오름] > 민오름

선흘리에 있는 '뮌오름'은 「제주삼읍도총지도」 등에 文岳, 「제주지도」 등에 敏岳, 주변의 묘 비석에도 文岳, 敏岳 등으로 표기하였다. 文은 '뮌'의 유사음 '뮌 > 민' 민(禿 黓 獨 俗呼禿廡 머리 뮌 늬<훈몽-초, 상:15>, 脫頂 압 뮌다<한청 5:48>)의 음가자 표기. 敏은 '뮌 > 민 > 민'의 음가자 표기, 岳은 '오름'의 표기이다. 文岳·敏岳은 모두 '민오름'의 표기이다. 옛날에 나무가 없고 풀밭으로 덮인 민둥산이라는 데서 붙인 것이다.

⑫ 方叟岳[방에오름] > 방에오름

교래리에 있는 '방에오름'은 「제주지도」에 方叟岳으로 표기하였다. 方은 '방'의 음가자 표기, 叟는 '예'의 유사음 '에·애'의 음가자 표기이다. '방에·방애'는 '방야'의 제주도방언이다. 方叟岳은 '방에오름'의 표기이다. 오름 형상이 '방야'와 같이 생겼다는 데서 붙인 것이다.

⑬ 山 嶽 夫里岳[산굼부리오름], 山九音浮里·山窟[산굼부리] > 산굼부리

교래리에 있는 '산굼부리'는 오름 정상에 약 120미터 땅 속으로 들어간 '굼부리'가 있다. 『탐라순력도』에 山 嶽 夫里岳, 「제주삼읍도총지도」와 「제주삼읍전도」에 山九音浮里, 「제주지도」에 山窟, 주변의 묘 비석에는 山穴, 山凹 등으로 표기하였다. 山은 '산'의 음독자 표기, 嶽·九音은 '굼'의 음가자 표기, 浮은 '굼'의 말음 'ㅍ'의 음가자 표기, 夫里·浮里는 '부리'의 음가자 표기, 窟은 '굼·굼부리'의 훈독자 표기이다. '굼부리'는 '굼'과 '부리'로 분석할 수 있다. '굼'은 중세국어의 '굼·구무' [穴·窟·窟]에 대응하는 표기이다.²⁴⁾ '부리'는 '뿔부리'의 뜻이다.²⁵⁾ '굼부리'는 '산 정상에 있는, 우묵하게

팬 곳'을 뜻하는 고유어다. 山 嶽 夫里岳은 '산굼부리오름', 山九音浮리는 '산굼부리', 山窟도 '산굼부리'의 표기이다. 山穴·山凹도 '산굼부리'의 한역 표기이다.

⑭ 𪛗極羅只岳[갓그라기오름] > 까끄래기오름

교래리에 있는 '갓그라기오름'은 『탐라순력도』에 𪛗極羅只岳, 주변의 묘 비석에 '各其來其, 各齣洛伊岳, 가기낙이', 오늘날의 지도에는 '까끄래기오름'으로 표기하였다. 𪛗極羅只은 '갓그라기'의 음가자 표기, 各其來其는 '가끼래기'의 음가자 표기, 各齣洛伊는 '마스라기'의 음가자 표기이다. 이는 제주도방언 '마스락·마시락'에 해당하는 중세국어 '마스라기[芒子] > 마스라기·마으라기 > 가스라기',²⁶⁾ 현대어 '까끄라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에는 의심가는 것이 많다. 오름 자체는 완만하고 정상에는 분화구가 있다. 특이한 것은 동남쪽으로 오름이 패서 조그만 골을 이룬다는 것이다. 김종철(1995:권3,168)은 제주도방언 '마끄다·마꾸다·마끼다'('소나 말을 들에 놓아 살피면서 먹이다'의 뜻을 가진 동사)에서 온 말로 추정하였다. 그래서 오름 이름도 '마끄래기오름'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필자는 중세국어 '작다'(>깎다. 削) 갓설 삭<유합-영장사본>, 갓굴 삭<신합-나손본>) 또는 이의 피동형인 '갓기다' > 깎이다. 削]에 해당하는 제주도방언 '가끄다' 또는 '가끼다'의 관형사형[가끌-]에 '작다[小]는 뜻을 가진 접미사 '-애기'가 붙은 '가끄래기'로 본다. 이는 오름 정상의 동남쪽이 부분적으로 무너져서 조그만 골을 이루고 있는 것과도 상통한다고 본다. 이른 시기의 표기인 𪛗極羅只의 음상이 '갓그라기'임도 상기할 필요가 있다. 各齣洛伊는 후대의 표기로, 방언 '마스락'을 생각한, 잘못된 표기이다. 𪛗은 '갓'의 음가자, 極은 '극'에서 '기'이 탈락한 '그'의 음가자, 羅는 '래'의 음가자, 只는 '기'의 음가자이다.

⑮ 机岳·俎岳[돔베오름] > 돔베오름

교래리에 있는 '돔베오름'은 『탐라순력도』 등에 机岳, 「제주지도」에 俎岳, 오늘날의 지도에는 '돔베오름'으로 표기하였다. 机는 '도마'(机 도마 궤 机案<훈몽-초, 중:6>)를 뜻하는 제주도방언 '돔베'의 혼독자 표기, 俎는 '도마'(俎 도마 조<동안 한한대사전>)의 제주도방언 '돔베'의 혼독자 표기, 岳은 '오름'의 혼독자 표기이다. 机岳·俎岳 등은 모두 '돔베오름'의 표기이다. 오름 형태가 '도마'와 비슷하다는 데서 붙인 것이다.

24) 窟은 굼기라<월석, 월인석보 서:21>, 孔 구무 궁 又姓 穴 구무 혈 窟 구무 굴<훈몽-초, 하:8>

25) 山 뫼 산 嶽 뫼 부리 약 亦作 岳 … 岫 뫼 부리 슈 山有穴曰岫<훈몽-초, 상:2>

26) 마스라기를 더러 버리니 벗 나치 볍도다<除芒子粒粒><두해-초, 7:18~19>, 마으라기를 더러 버리니<除芒子><두해-중, 7:18>, 궂보리를 마스라기 업시호고<皮麥去芒><신구황 8>

⑩ 文士乃岳·叟川岳[그스네오름] > 그스네오름

와홀리에 있는 '그스네오름' 또는 '구그네오름'은 『신증동국여지승람』에 文士乃岳, 「탐라지도」와 「제주삼읍도총지도」 등에 叟川岳, 주변의 묘 비석에는 「그시네오름, 箕薪岳」, 오늘날의 지도에 「기시네오름」으로 표기하였다. 文은 '글'에서 '리'이 탈락한 '그'의 훈가자 표기, 士는 '스(士 豆스 스, 선비 스<신함, 상:17>)'의 유사음 '스'의 음가자 표기, 乃是 '내'의 유사음 '네'의 음가자 표기이다. 文士乃是 '그스네' > 그스네'의 음가자 표기이다. 叟의 중세국어 훈은 '그스다·그스다·쓰스다·쓰스다' > 그오다 > 굶다²⁷⁾이다. 곧 '끓다·끓다[뉘]'의 뜻으로, '그스-·그스-'의 혼독자 표기이다. 川은 '내'의 유사음 '네'의 훈가자 표기이다. '그스네'는 아궁이의 재 따위를 긁어내는 제주도방언 기시네·구그네'의 앞선 형태이다. 箕薪은 한자음이 '기신'이지만 '기시네'를 표기한 것이다. 곧 箕薪岳은 '기시네오름'의 표기이다. 文士乃岳은 '그스네' > 그스네'의 표기이다. 叟川岳은 '그스네오름·그스네오름'의 표기이다. 오늘날은 '그시네오름·기시네오름·구그네오름'으로 불리고 있다. 곧 오름이 표준어 '고무래'와 같다는 데서 붙인 것이다. 실제 오름 형태가 원추형 고무래와 유사하다.

⑪ 盤凝岳·盤應岳·飯凝岳[바능오름], 針山·針岳[바늘오름] > 바능오름

교래리에 있는 '바능오름'은 「탐라지」에 盤凝岳, 「제주삼읍도총지도」 등에 針山, 「제주지도」(송실대)에 盤應岳, 「제주삼읍전도」에 飯凝岳, 「제주지도」에 針岳, 오늘날의 지도에 '바늘오름'으로 표기하였다. 盤凝·飯凝·盤應 등의 현대 한자음은 '반응' [또는 연결되어 '바늘']이지만, '바늘' [針·鍼]을 뜻하는 제주도방언 '바늘'과 유사음을 표기한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針은 바늘(鍼 바늘 침 俗作針<훈몽-초, 중:7>)'의 제주도방언 '바늘'의 훈가자 표기, 岳은 '오름'의 혼독자 표기이다. 盤凝岳·飯凝岳·盤應岳은 '반응오름[바늘오름]'이고, 針岳은 모두 '바늘오름'의 표기이다. 이 오름은 둥근 형태이고 '굵부리'가 돌 있다는 특징이 있을 뿐, '바늘'과 같이 날카로운 인상이 없다. 다만 오름 북·동·서쪽 기슭이 가시덤불을 이루고 있어서 오르기 어려울 뿐이다. 이 때문에 '바늘오름'이라고 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렇지만 盤凝·飯凝·盤應 등의 표기는 단순히 '바늘'을 표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반응'이라는 음상은 나중에 제주도방언의 '바늘'을 연상하게 되었고, 급기야 針岳으로까지 표기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⑫ 之奇里岳·只其伊岳[지기리오름], 智古里岳[지고리오름], 止九里[지구리] > 지기리오름

교래리에 있는 '지기리오름' 또는 '지고리오름'은 「탐라지」에 之奇里岳, 「탐라순력도」에 智古里岳, 「제주삼읍도총지도」에 止九里, 「제주지도」에 只其伊岳, 주변의 묘 비석에 '지그리, 職基里 織機伊岳,

27) 술 醉코 게으른 추를 뒤 서르 자마 그스논고(酒酣懶 舞誰相拽)<두해-초, 21:40>

醴酒 돛논 짜해 옷기슬 글 그오고(曳裙溫體地)<두해-중, 2:41>

織峰, 地奇里' 등으로 표기하였다. '큰지거리'와 '족은지거리(오름)' 두 봉우리가 있다. 之·智·只·止·地 등은 '지'의 음가자 표기, 織·職 등은 '직'의 음가자 표기, 奇·基·機·其 등은 모두 '기'의 음가자 표기, 九는 '구'의 음가자 표기, 里·伊 등은 '리' 또는 '이'의 음가자 표기이다. 之奇里·只其伊·地奇里는 '지거리', 智古里는 '지고리', 止九里는 '지구리', 織機伊·職基里는 '직거리', 織峰은 '직거리오름'의 둘째와 셋째 음절을 생략한 음가자 표기이다. 이들은 모두 '지거리' 또는 이와 유사한 음상, 변한 음상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의 뜻은 확실하지 않다.

⑲ 늣서리

교래리에 있는 '늣서리'는 주변의 묘 비석에 '늣서리오름, 립설이, 晩霜峰' 등으로 표기하였다. 음상도 확실히 파악하기 어렵고 그 뜻도 확실하지 않다. 晩霜峰[늣서리오름]은 '늣서리'의 유사음 '늣서리'의 훈가자(晩 느즐 만<훈몽-초, 상:1>, 霜 서리 상<훈몽-초, 상:1>)의 결합 표기로 본 것이다. '립·늣·늣'의 음상은 '늣-' [ㄹ]의 변음이 아닌가 한다. *설' 또는 '서리·설이'는 확실하지 않다.

⑳ 水城岳[물жат오름], 勿左叱岳[물жат오름] > 拒文岳[검은오름] > 검은오름

교래리에 있는 '물жат오름 > 물жат오름'은 『신증동국여지승람』에 水城岳, 『탐라순력도』에 勿左叱岳, 『제주읍지』에 水城岳, 『제주지도』에 水城峰, 『증보 탐라지』에 拒文岳으로 표기하였다. 水는 '물 > 물'의 훈독자 표기, 言은 '말'의 훈가자 표기, 勿은 '물 > 물'의 음가자 표기,²⁸⁾ 城은 'жат'의 훈독자 표기,²⁹⁾ 左叱은 'жат'의 유사음 'жат'의 음가자 표기, 岳은 '오름'의 훈독자 표기이다. 이때의 'жат'은 단순히 城을 뜻하는 말이 아니고, 제주도방언의 '우жат'의 'жат'과 같이 '밭' 또는 '들판'의 뜻으로도 볼 수 있다. 水城岳·勿左叱岳 등은 모두 '물жат오름 > 물жат오름'의 표기이다. '물жат오름'은 음운의 격음화에 의해 '물жат오름'으로 발음된다. 勿左叱岳은 '물жат오름'의 변음 '물жат오름'의 표기이다. 言城岳은 '말жат오름'의 표기이다. '물жат오름' 또는 '물жат오름', '말жат오름'은 옛 기록과 같이 정상에 물이 있고 돌이 잣[城]과 같이 쌓여있다는 데서 붙인 이름일 수 있다.(山巔聚石如城中有大池『신증동국여지승람』) 지금 '물жат오름'은 잊혀지고 있다. 拒는 '거'의 음가자 표기, 文은 '검은'의 연결된 둘째 음절 '문'의 유사음 '문'의 음가자 표기이다. 지금은 '검은오름'이라는 이름이 우세하게 쓰인다.

㉑ 訖能岳[말жат오름], 言城岳[말жат오름] > 말жат오름

교래리에 있는 '말жат오름 > 말жат오름'은 『탐라순력도』에 訖能岳, 『탐라지도』에 言城, 『제주삼읍도 총지도』에 言城岳, 『제주삼읍전도』에 言城, 『제주지도』에 斗城峰 등으로 표기하였다. 馬는 '마'의 음

28) 水 爲水<훈민-원, 해례:25>

29) 城 жат 성 俗稱城了<훈몽-초, 중:5>, 訖 訖 영<유합-송광사본>

가자 표기, 乙은 '말'의 말음 '리'의 음가자 표기로, 𪎮은 '말'의 음가자 표기이다(𪎮을 '말' [馬]의 표기로 보기(김종철, 1995:3권.172)도 한다.). 言과 斗는 '말'의 훈가자 표기이다. 左는 '좌'의 음가자 표기, 𪎮은 '짓'의 유사음 '젯'의 말음 '스'의 음가자 표기로, 𪎮은 '짓'의 유사음 '젯'의 음가자 표기, 城은 '짓'의 훈가자 표기이다. 岳은 '오름'의 훈독자 표기이다. 峰은 岳을 달리 표기한 한 것에 불과하다. '말жат오름'을 현실음에서 '말чат오름'으로도 나타난다. '말жат오름' 또는 '말чат오름'에서 '말'은 '말의 방북장'의 뜻이고, 城은 '재' [嶺·山]의 옛말로 보는 경우(김종철, 1995:3권.172)도 있다. '말жат'은 '말젯'으로도 나타나는 제주도방언으로, '세째의', '작은'의 뜻으로 쓰인 것일 수도 있다.(서남쪽의 '물жат오름'과 비교하여 작은 오름이라는 데서.)

㉒ 孤片岳·古片里岳·高片岳(궤편이오름) > 괴편이오름

교래리에 있는 '궤편이오름'은 『탐라순력도』에 孤片岳, 『제주삼읍도총지도』에 古片里岳, 『제주지도』에 高片岳, 오늘날의 지도에는 '괴편이오름'으로 표기되었다. 민간에서는 '궤편이' 또는 '궤편이오름, 궤편이오름'으로 불린다. 孤와 高, 古는 한자음이 '고'이지만 '궤'의 음가자 표기, 片은 '편'이지만 제주도방언 '편'의 음가자 표기, 里는 '리' 또는 '이'의 음가자 표기이다. '궤편이'는 '궤편리'로도 불렸던 것으로 보인다. '궤'는 '바위굴'을 뜻하는 제주도방언이고, '편'은 표준어 '편'의 뜻으로 보인다. 곧 굴이 편 오름이라는 뜻이다.

㉓ 廣巨伊(넙거리(오름)) > 넙거리오름

교래리에 있는 '넙거리'는 민간에서 '넙거리' 또는 '넙거리오름'으로 알려진 오름이다. 『제주지도』에 廣巨伊로 표기하였다. 廣은 '넙(廣 너블 광<천자-광, 20>)'의 훈독자 표기이다. 巨伊는 '거리'의 음가자 표기이다. '거리'는 중세어 '거리다'의 영접사 파생어인 '거리' [岐]로 보인다. 곧 넓게 갈래진 형상이어서 붙인 것이다.

㉔ 魚岳(어후름)·御後岳(어후오름) > 어후오름

교래리에 있는 '어후오름'은 『제주지도』에 魚岳, 『증보 탐라지』에 御後岳, 어후리오름'으로 표기하였다. 민간에서는 '어후름, 어후오름' 등으로 부른다. 魚와 御는 '어'의 음가자 표기, 後는 '후'의 음가자 표기이다. 魚岳은 '어후오름'의 불완전한 표기이다. '어후'의 뜻은 확실하지 않다.

(3) 애월읍

① 萬水同山·晚水同山[만수동산] > 만수동산

광령리에 있는 '만수동산'은 「제주삼읍도총지도」에 萬水同山, 「탐라지도」와 「제주삼읍전도」 등에 晚水同山으로 표기하였다. 민간에서는 '만수동산, 만세동산'이라고 하는데, '만세'는 '만수'의 잘못으로 보인다. 萬水와 晚水는 '만수'의 음가자 표기로, 그 뜻은 확실하지 않다. 同山은 '동산'의 음가자 표기로, 나지막한 언덕을 뜻하는 말인데, 이 오름에 걸맞는 말인지 의문이다. 한편 '망동산'이라고도 부르는데 마소를 모는 테우리들이 여기에 올라 망을 보았다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② 웃세오름·윗세오름 > 윗세오름

광령리에 있는 '웃세오름·윗세오름'은 오늘날의 지도에 '윗세오름'으로 표기하였다. '웃세오름' 또는 '윗세오름'은 '웃(또는 '윗':上)+세오름'의 구성으로, 아래쪽에 있는 '세오름'의 위쪽에 있다는 데서 붙인 것이다. 곧 위쪽에 있는 '세오름'이라는 뜻이다.

③ 새재비오름 > 새재비오름

광령리에 있는 '새재비오름'은 주변의 묘 비석에 표기된 烏接[새접이→새접이]은 '새재비' 정도의 음상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김종철(1995:권2,232)에서는 '새잡이(새매)'를 닮은 형상인 데서 붙인 것이라고 하나, 확실하지 않다.

④ 川西岳[천서오름] > 쳇망오름

광령리에 있는 '천서오름'은 「탐라지도」 등에 川西岳, 오늘날의 지도에는 '망체오름'으로 표기하였다. 민간에서는 주로 '쳇망오름'이라고 부른다. 川은 '천'의 음독자 표기, 西는 '서'의 음독자 표기, 岳은 '오름'의 훈독자 표기이다. 川西는 '천서'의 표기로, '내 서쪽에 있는'의 뜻이다. '천서'는 '넷서'라고 했을 법도 한데 확인할 수 없다. 이 '내'는 '무수천'을 뜻하며, 이 오름 동쪽 일대가 '무수천' 발원지이다. '천서오름'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쳇망오름'으로 바뀌었다. '쳇망'은 '천망(川望)'의 변음으로 보인다. 김종철(1995:권2,279)에서는 '천망'은 '쳇망'의 와전이라고 하였다. '쳇망'은 川西의 川과 '망오름'의 '망'을 조합한 것일 수도 있고, '쳇바퀴'의 뜻일 수도 있다. 이후 다시 '망체오름'으로 바뀌어 오늘날의 지도에도 이 이름으로 표기되어 있다. '망체'는 '쳇망'을 뒤바꾸어 놓은 것으로 보인다.

⑤ 伊士郎岳·伊士良岳[이스랑오름] > 이스렁오름

광령리에 있는 '이스랑오름'은 「제주삼읍도총지도」에 伊士郎岳, 「제주삼읍전도」에 伊士良岳, 오늘

날의 지도에는 '어슬렁오름'으로 표기하였다. 민간에서는 주로 '이스렁오름'이라고 한다. 伊士郎은 '이스랑'의 음가자 표기이다. 伊는 '이'의 음가자, 士는 '스(士 도스 사, 선비 스<신합, 상:17>)'의 음가자 표기, 郎은 '랑'의 음가자 표기이다. 伊士良의 良도 음이 '랑'이지만 유사음 '랑'의 음가자 표기이다(필자는, '良'은 '郎'을 옮기는 과정에서 ㅂ를 뺀 것으로 봄.). '이스랑'의 뜻은 확실하지 않으나, 특별한 뜻을 가진 어휘로 보인다. '이스렁'은 '이스랑'의 변음으로 보이며, '어슬렁'은 잘못 표기한 것이다.

⑥ 赤岳[붉은오름], 佛近岳[불근오름] > 붉은오름

광령리에 있는 '붉은오름'은 『탐라지』에 赤岳, 『제주삼읍도총지도』 등에 佛近岳, 『탐라지도』 등에 赤岳으로 표기하였다. 赤은 '불근(赤 불근 적<신합, 상:57>)' > 붉은'의 혼독자 표기이다. 佛近은 '불근 > 붉은'의 현실음 '불근'의 음가자 표기이다. 赤岳·佛近岳은 '붉은오름 > 붉은오름'의 표기이다. 오름의 흙이 붉다는 데서 붙인 것이다.

⑦ 活泉岳·生泉岳[산세미오름] > 산세미오름

광령리에 있는 '산세미오름'은 『탐라지』에 活泉岳, 『탐라순력도』 등에 活泉岳, 『제주지도』에 生泉岳, 주변의 묘 비석에는 '산샘의봉, 三心岳, 山心岳', 오늘날의 지도에는 山心峰으로 표기하였다. 活은 '산(活 사를 활<백련-동경 27>)의 혼독자 표기이다. '산'은 '살아 있는'의 뜻으로 물이 솟아난다는 뜻이다. 生은 '산'의 혼독자 표기, 泉은 '샘 > 샘'의 제주도방언 '세미'의 혼독자 표기이다. '산세미'는 땅 속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生水라는 뜻으로, 그런 '산세미'가 있는 오름이라는 데서 붙여졌다. 活泉岳·生泉岳은 '산세미오름'의 표기이다. 민간의 표기들은 모두 잘못된 것이다.

⑧ 眞木岳[츠남오름·츠낭오름] > 천아오름

광령리에 있는 '츠남오름·츠낭오름'은 『제주삼읍도총지도』 등에 眞木岳, 주변의 비석에 '츠나오름, 天娥岳, 天娥峰, 天女岳', 오늘날의 지도에는 '천아오름'으로 표기하였다. 민간에서는 '츠나오름, 츠남오름' 등으로 부른다. 眞은 '츄(眞 츄 진<신합, 하:18>)' > 참'의 혼독자 표기, 木은 '나무'의 제주도방언 '남·낭'의 혼독자 표기이다. '츠남·츠낭'은 비음의 반복에 의한 'ㅁ'의 탈락으로 '츠남·츠낭'으로 실현된다. '츠남·츠낭'은 '상수리나무'의 제주도방언으로, '츠남'이 많은 오름이라는 데서 붙인 이름이다. 민간의 한자 표기를 증시하여 산 모양이 선녀(天娥)와 같다는 데서, 풍수지리상 천녀등공형(天女登空形)이라는 데서 붙인 것이라는 것은 민간어원설이다.

⑨ 獐嶽·鹿岳·獐岳[노로오름] > 노로오름

장전리에 있는 '노로오름'은 『탐라지』에 獐嶽, 「제주지도」에 鹿岳, 「증보 탐라지」에 老路岳, 주변의 묘 비석에 獐岳, 老路岳, 오늘날의 지도에는 '노로오름'으로 표기하였다. 鹿은 '사슴(사슴 爲鹿<훈민-원, 해례:25)> 사슴'의 뜻이지만, '노로 > 노루'의 뜻으로 쓴 혼독자 표기이다. 獐은 '노로(노로 爲獐<훈민-원, 해례:24)> 노루'의 혼독자 표기, 老路는 '노로'의 음가자 표기이다. 오름 형상이 '노로 > 노루'와 같다는 데서 붙인 것이라고 한다.

⑩ 석오름, 석성제오름 > 세형제오름

금덕리에 있는 '석오름 > 세오름' 또는 '세성제오름'은 『탐라지』에 三長洞, 「탐라지도」 등에 三長山, 「제주지도」에 一峯, 二峯, 三峯, 오늘날의 지도에는 三兄弟岳으로 표기하였다. 민간에서는 '석오름, 세성제오름[三兄弟山·三兄弟岳]', 또는 주봉을 중심으로 '큰오름, 셋오름, 작은오름' 등으로 부른다. 三長山은 음으로 '삼장산'의 표기인지, 훈으로 '세진오름(세+긴+뫼/오름)의 표기인지 확실하지 않다. 「제주지도」의 一峯, 二峯, 三峯도 특이한 표기이다. '석'은 '세 [三]의, '성제'는 '형제'의 제주도방언이다. 세 오름이 형제와 같이 연이어 있다는 데서 '석오름' 또는 '석성제오름'이라고 했다.

⑪ 閑大峯[한대오름] > 한대오름

소길리에 있는 '한대오름'은 「제주지도」에 閑大峯, 민간에서는 漢大岳·漢岱岳으로 표기하였다. 閑大와 漢大, 漢岱는 모두 '한대'의 음가자 표기이다. '한'은 大의 뜻을 가진 고유어로 보이며, '대'는 '곳·장소'를 뜻하는 '대'로 보인다. 곧 '넓은 곳'의 뜻이다. 실제 주위가 넓은 濕原으로 이루어져 있다.

⑫ 破軍山[바군미], 破軍峯[바군미오름] > 바군미오름

하귀리에 있는 '바군미오름'은 「제주삼읍도총지도」 등에 破軍山, 「제주지도」에 破軍峯, 오늘날의 지도에 破軍峰으로 표기하였다. 민간에서는 주로 '바군미오름'이라고 한다. 破軍은 오늘날 음이 '파군'이지만 원래는 '바구니' 또는 이의 제주도방언 '바굼지'의 약차 표기에 불과하다. '바구니'를 '바군+이'로 인식하고 명사형성접사로 인식한 '이'를 생략한 표기일 수도 있다. '바구니'의 제주도방언은 '바굼지'이다. 破가 '바'의 표기에 쓰인 예는 조천읍 선흘리에 있는 '바메기오름[破糜只岳]에서 볼 수 있고, 破軍이 '바구니'의 표기로 쓰였다는 것은 안덕면 사계리의 '바군미오름[破軍山]에서도 볼 수 있다. 이의 한자 표기를 그대로 믿고서 여몽연합군이 삼별초를 크게 격파한 데서 붙여졌다고 설명하는 것은 지나친 천착임에 틀림없다(지금까지 나온 대부분의 글에서 그렇게 설명되어 있다.). 山은 '뫼'의 제주도방언 '미' 또는 '메'의 혼독자 표기이다. 원래는 '바군미' 또는 '바굼지미'가 줄어서 '바군미'로 불리다가, 山이 岳으로 표기되면서 '바군미오름'이 된 것이다. 破軍岳과 破軍峯은 '바군미오름'의 다른 표기이다.

름'의 표기이다. 이 '바굼지'를 '박쥐'의 뜻을 가진 아이누어 '바구미'가 변한 것이라는 설명(박용후, 1992:55-56)은 고쳐져야 한다. 오름이 '바굼지(바구니)'처럼 생겼다는 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⑬ 水山岳[물미오름·물메오름] > 수산봉

수산리에 있는 '물메오름'은 『신증동국여지승람』에 水山岳, 『탐라지』에 水山, 오늘날의 지도에는 水山峰으로 표기하였다. 水는 '물 > 물'의 혼독자 표기, 山은 '피'의 제주도방언 '메' 또는 '미'의 혼독자 표기, 岳은 '오름'의 혼독자 표기이다. 水山岳에 봉수가 있어 水山峰으로 불리다가 水山峰이라 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오름 남동쪽에 물(수산 저수지)이 있다는 데서 붙인 것이다.

⑭ 極落岳[극락오름] > 극락오름

고성리에 있는 '극락오름'은 『탐라순력도』 등에 極落岳, 『제주삼읍전도』에 極樂岳, 주변의 묘 비석에 極樂岳, 極樂山, 極樂峰으로 표기하였다. 極落과 極樂은 '극락'의 음가자 표기로 보이는데, 지금까지의 연구자들 대부분은 한자어 極樂의 뜻으로 풀이하고 있다. 그러나 이른 시기의 고지도에 極落으로 표기된 것으로 보아 그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처음부터 한자식 이름을 가졌다고 할 수 없다. 그 뜻은 확실하지 않다.

⑮ 今勿德岳[금물데기오름], 感恩德岳[감은데기오름], 可文岳·感恩岳[감은오름], 黑岳[감은오름], 黑德岳[감은데기오름] > 금오름

유수암리에 있는 '금물데기오름·감은데기오름'은 『신증동국여지승람』에 今勿德岳, 『탐라지』에 感恩德岳, 『탐라순력도』에 可文岳·黑岳, 今勿德岳, 『탐라지도』와 『제주삼현도』에 感恩岳, 今勿德, 『제주삼읍도총지도』에 黑德岳, 『제주삼읍전도』 등에 流水岩, 오늘날의 지도에는 '금오름'으로 표기하였다. 今勿은 '거믄(黑은 거믄 씨오<월석 1:22>)' 또는 '가믄(玄 가믄 현<훈몽-초, 중:14>)'의 유사음 '금을'의 현실음 '금물'의 음가자 표기,³⁰⁾ 德은 '돌 언덕'의 뜻인 제주도방언 '덕'(데기'는 '덕+-이(명사형성접사)'가 다시 '이'모음 역행동화를 겪은 형태)의 음가자 표기, 感恩은 '감은'의 제주도방언인 '감은'의 음가자 표기, 可文은 '감은'의 현실음인 '가믄'의 유사음 '가문'의 음가자 표기, 黑은 '감은'의 혼독자 표기이다. 今勿德岳은 '금물데기오름'의 표기, 感恩德岳과 黑德岳은 '감은데기오름'의 표기, 感恩岳과 可文岳은 感恩德岳과 可文德岳에서 德을 뺀 표기이다. 이 오름이 검게 보인다는 데서 붙여진 것이다. 가끔 神聖의 뜻을 가진 '감·곰'과 관련있는 것으로 보기도 하는데, 지나친 천착으로

30) 今勿어 黑과 대비되는 표기는 『삼국사기』(지리지)에도 여러 개가 확인된다. 黑壤郡 一云 黃壤郡 本高句麗 今勿奴郡 景德王 改名 今鎮州(삼국사기)(권35, 잡지4, 지리2). 今勿奴郡은 黑壤郡과의 대비에서 今勿과 黑, 奴와 壤의 대응이 성립된다. 今勿은 黑을 뜻하는 단어로, 중세어 '거믄'과 일치한다. 今의 중국 상고음과 중고음이 kiam이다.

보인다. 1872년의 「제주삼읍전도」 등에 流水岩으로 표기한 것이 특이하다. 19세기 후반에 마을 이름의 한자 표기가 今德으로 굳어지면서, 주변의 묘 비석에 今德岳(峰), 今岳 등으로 표기하고, 급기야 오늘날의 지도에 '금오름' 으로까지 표기하게 되었다.

⑩ 怪水岳[켓물오름] > 켓물오름

금덕리에 있는 '켓물오름' 은 「제주삼읍도총지도」에 怪水岳, 주변의 묘 비석에 橫水岳 등으로 표기하였다. 민간에서는 '켓물, 켓물오름' 으로 부른다. 怪는 음이 '괴' 이지만, 제주도방언 '괘' 의 음가자 표기, 橫는 '괘' 의 음가자 표기, 水는 '물' > '물' 의 혼독자 표기, 岳은 '오름' 의 혼독자 표기이다. '괘' 는 '땅 속으로 팬 조그만 바위굴' 을 뜻하는 제주도방언이다. '켓물 > 켓물' 은 곧 '괘에서 솟아나는 물' 의 뜻이다. '켓물' 이 있는 오름이라는 데서 붙인 것이다.

⑪ 高古山[놉고메], 高丘山[놉구메], 鹿高山[녹고메], 鹿高岳[녹고오름] > 큰놉고메, 작은놉고메

금덕리에 있는 '놉고메오름' 은 「탐라지」에 高古山, 「탐라순력도」 등에 高山, 「탐라지도」 등에 高丘山, 「제주삼읍도총지도」에 鹿高山, 「제주지도」에 大鹿高山, 小鹿高山, 「중보 탐라지」(산천)에 鹿高岳, 주변의 묘 비석에 '鹿高岳, 큰놉고오름, 큰놉고매오름', 오늘날의 지도에는 '큰오름, 작은오름' 으로 표기하였다. '큰놉고메' 와 '작은놉고메' 두 봉우리가 있다. 高는 '놉(巍巍는 놉고 클 씨라<월석 1:1>)·늑(高 노플 고<백련 5>)' 의 혼독자 표기, 古는 '고' 의 음가자 표기, 丘는 '구' 의 음가자 표기이다. 鹿高는 '놉고' 의 변음 '녹고' 의 표기로, 후대의 변한 음을 반영한 것이다. 곧 '놉고' 가 후대에는 '녹고', 또는 연철되어 '노꼬' 가 된 것이다. 그 뜻은 확실하지 않다. 山은 '뫼' 의 제주도방언 '메' 의 혼독자 표기이다. 高古山은 '놉고메' 의 표기이고, 高山은 高古山에서 古가 탈락한 표기, 高丘山은 '놉구메' 의 표기로, '고' 와 '구' 의 '오/우' 는 제주도방언에서 수의적으로 변화한다. 鹿高山은 '놉고메' 의 후대음 '녹고메' 의 표기이다. 곧 大鹿高山은 '큰놉고메', 小鹿高山은 '작은놉고메' 의 표기이다. '큰놉고메' 는 '큰오름', '작은놉고메' 는 '작은오름' 이라고도 부른다. '놉고메' 의 '놉고' 의 뜻은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高古山을 高山으로도 표기한 것으로 볼 때, '놉' 은 '높다[高]' 의 어간 형태로 보인다.

⑫ 鉢山[바리메], 鉢峰[바리오름], 安川岳[안천이오름] > 바리메(큰바리메, 작은바리메)

어음리에 있는 '바리메' 는 「탐라지」에 鉢山, 「탐라순력도」 등에 鉢山, 「제주삼읍도총지도」에 角氏慕, 「제주지도」에 鉢峰, 安川岳, 「중보 탐라지」에 發伊岳, 오늘날의 지도에는 '밭이오름' 으로 표기하였다. 鉢은 '바리' (鉢 바리 발 俗呼僧家飯器 口鉢盂<훈몽-초, 중:10>)의 혼독자 표기, 發伊는 '바리' 를 '밭이' 로 인식한 음가자 표기, 山은 '뫼' 의 제주도방언 '메' 의 혼독자 표기이다. 鉢山은 '바리메', 鉢峰은 '바리오름', 發伊岳은 '바리오름' 의 표기이다. '바리메' 를 '큰바리메' 라 하고, '큰바리메' 동쪽

에 이웃한 오름을 '족은바리매' 라고 하는데, 「제주삼읍도총지도」의 角氏慕의 표기로 볼 때, '각시묘 [각씨묘] 라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영록」에 보이는 角氏岳[각씨오름]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오름 곁에 '각시물[각씨물]' 이 있다. 한편 「제주지도」에 安川岳[안천이오름]이라 표기하였고, 주변의 묘 비석에도 '安川峯, 안천이' 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족은바리매' 는 '안천이오름' 으로 불렸음을 알 수 있다. 산 정상에 팬 굽부리의 형태가 '바리매' 와 같다는 데서 붙인 것이다.

⑩ 月羅峯[ㄷ래오름] > 다래오름

봉성리에 있는 '다래오름' 은 「제주지도」에 月羅峯, 「증보 탐라지」에 '多栗岳, 다래오름', 주변의 묘 비석에 月峰·月羅峰, 多栗岳, 오늘날의 지도에는 '다래오름' 으로 표기하였다. 月은 '돌' 의 훈가자 표기이다. 羅는 음이 '라' 이지만 유사음 '래' 또는 '레' 의 음가자 표기이다. 月羅는 '돌래' 또는 'ㄷ래·ㄷ레' 의 표기로, '다래' 를 뜻한다. 곧 'ㄷ래 > 다래' 가 많았다는 데서 붙여진 것이다. 이 'ㄷ래' 의 '돌' 을 고구려어 達에 비긴 해석이 있는데, 지나친 천착이다.

⑪ 빈네오름 > 빈네오름

봉성리에 있는 '빈네오름' 은 주변의 묘 비석에 釵岳·簪岳 등으로 표기하였고, 민간에서는 '빈네오름' 또는 '빌레오름' 이라고 한다. 釵는 '빈혀(金釵子 金 빈혀 玉釵子 玉 빈혀<역해, 상:44>)' > 비녀' 의 제주도방언 '빈네' 의 훈독자 표기, 簪도 '빈혀(簪 빈혀 簪 禮服用 漢俗音 잔 簪子 弁 빈혀 계 女用<훈몽-초, 중:12>)' > 비녀' 의 방언 '빈네' 의 훈독자 표기이다. 곧 오름 형상이 '빈네' 와 같다는 데서 '빈네오름' 이라고 하였다. '빌레' (바위 너설)가 많았다는 데서 '빌레오름' 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

⑫ 東物岳·東水岳·同物岳[동물오름] > 동물오름

봉성리에 있는 '동물오름' 은 「탐라지」(동경대본)에 東水岳, 「제주지도」에 東物岳, 주변의 묘 비석에는 東水岳·同物岳 등으로 표기하였고, 오늘날의 지도에 '괴오름' 으로 잘못 표기하였다. 민간에서는 '동물오름, 동물오름' 이라고 한다. 東과 同은 '동' 의 음가자 표기, 物은 '물' 의 음가자 표기, 水는 '물' > '물' 의 음가자 표기이다. 東物과 東水·同物은 모두 '동물 > 동물' 의 음가자 표기이다. '동물' 은 '샘' 이나 '물웅덩이' 를 뜻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확실하지 않다. 오늘날의 지도와 조사된 자료의 대부분에서 지형이 '괴' [貓]와 같다는 데서 '괴오름[貓岳], 괴미오름(한글학회, 1986:429 ; 오성찬, 1992:82 ; 김종철, 1995:권2,184) 으로 표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민간인들이 그 옆 오름을 잘못 인식하여 제보한 결과로 보인다.

② 高美岳[궤미오름], 槐水岳[궤물오름] > 궤미오름

봉성리에 있는 '궤미오름' 또는 '궤물오름'은 『탐라지』(동경대본)에 高美岳, 「제주지도」에 槐水岳, 『증보 탐라지』에 猫岳, 궤오름, 주변의 묘 비석에 高美岳, 高妙岳, 古尾岳, 猫尾岳 등으로 표기하였다. 민간에서는 '궤미오름, 궤오름'이라고 한다. 高는 음이 '고'이지만 '궤'의 불완전한 음가자, 美는 '미'이지만 '물'의 변음으로 보인다. 槐는 '궤'의 음가자 표기로, '바위 굴'을 뜻하는 제주도방언이다. 水는 '물' > '물'의 혼독자 표기이다. 북동쪽 냇가에 찬 웅달샘이 있는데, 이를 '궤물'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궤물오름'은 민간에서 '궤미오름'으로 변하고 다시 '궤오름'으로 변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 민간에서는 일반적으로 '궤미오름'이라고 하는데, 오늘날의 지도에는 이웃한 '동물오름'에 '궤오름'이라고 표기해 놓았다. '궤미오름'의 '궤미'는 '고양이' [猫]를 뜻한다고 하나, 민간어원설로 보인다. '궤미오름'을 달리 '북돌아진오름'이라고도 하는데, 북이 달려 있는 것 같다는 데서 붙인 것이라고 한다.

③ 二達岳·二達峯[이달오름] > 이달오름

봉성리에 있는 '이달오름'은 「제주삼읍도총지도」에 二達岳, 「제주지도」에 二達峯, 주변의 묘 비석에는 二達岳, 二達峰, 利達山, 狸達峰, 猊達峰으로 표기하였다. 오늘날의 지도에 猊達峰으로 잘못 표기하였다. 二는 '이'의 음가자, 達은 '달'의 음가자다. 達은 山을 뜻하는 고구려어 '달'과 같은 것으로 보기도 하나, 단순히 '달'의 음가자 표기로 보인다. '이달'은 두 개의 봉우리로 된 산이라는 뜻으로 보는 경우가 많으나, '이달'에 다시 岳이 덧붙은 것, 한자어 '이'와 고구려어 '달'이 결합한 것, 그리고 민간에서 利達·狸達峰·猊達 등으로 표기한 것 등을 고려할 때 그러한 해석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 뜻은 확실하지 않다.

④ 曉星呑呑[새별오름], 曉別岳[새별오름], 曉星岳·新星岳·晨星岳[새별오름] > 새별오름

봉성리에 있는 '새별오름·새별오름'은 『이문』에 曉星呑呑, 「신증동국여지승람」에 曉別岳, 「탐라지」에 曉星岳, 「제주지도」와 비석 등에 新星岳·晨星岳·鳥飛岳, 오늘날의 지도에 '새별오름'으로 표기하였다. 曉와 晨의 중세국어 혼은 '새배' (曉 새배 효...晨 새배 신<신합, 상:3>)이다. 곧 曉와 晨은 혼 '새배'의 어두음 '새'의 혼독자 표기이다. 新은 '새(新은 새라<세훈민 2>)'의 혼독자 표기, 鳥는 '새'의 훈가자 표기, 星은 '별'의 제주도방언 '빌·벨'의 혼독자 표기, 別은 '별'의 유사음 '빌·벨'의 음가자 표기, 飛는 '빌'의 표기로, '리'이 탈락한 '비'의 음가자 표기, 岳은 '오름'의 혼독자 표기이다. 曉星呑呑·曉別岳·曉星岳·新星岳·晨星岳·鳥飛岳은 '새별오름·새별오름'의 표기이다.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새별오름·새별오름'이 '셋별'에 비유된 이름(김종철, 1995:권2,238)이라는 데에 큰 이의를 달지 않고 있다.

㉕ 高內岳[고내오름] > 高內峰

고내리에 있는 '고내오름'은 『신증동국여지승람』을 비롯한 각종 지도에 高內岳으로 표기하였다. 高內는 '고내'의 음가자 표기로 보인다. 탐라국 시대부터 한자화했을 뿐만 아니라 '고내' 이외의 다른 음상을 확인할 수 없다. 그 뜻은 확실하지 않다. 望이 있었으므로 '망오름'이라고도 한다. 오늘날의 高內峰은 高內岳의 岳을 峰으로 표기한 것이다.

㉖ 郭支岳[곽지오름], 郭岳[과오름] > 과오름

곽지리에 있는 '곽지오름'은 『신증동국여지승람』 등에 郭支岳, 『탐라순력도』 등에 郭岳, 오늘날의 지도에 '과오름'으로 표기하였다. 민간에서도 '곽지오름, 과오름'이라고 한다. 郭支는 '곽지'의 음가자 표기, 郭은 郭支의 支를 생략한 표기이다. 한자 표기를 중시하여 해석하려는 경향이 많으나, '곽지'는 음가자로 보인다. 그 뜻은 확실하지 않다. 일찍부터 한자화하였을 뿐 아니라 '곽지'에 대응되는 뜻을 찾기가 어렵다. 민간의 '과오름'은 郭支岳의 준말인 郭岳에서 나온 것이다.

㉗ 道內山[도내미], 於道峰[어도오름] > 어도오름

봉성리에 있는 '도내미오름'은 『탐라순력도』 등에 道內山, 『제주삼읍전도』에 道內峰, 『제주지도』 등에 於道峰, 오늘날의 지도에 '어도오름'으로 표기하였다. 민간에서는 '도래미, 도노미' 등으로 부른다. 道內山은 '도내미'의 표기이다. 道는 '도'의 음독자로, '길목, 어귀, 입구'를 뜻하는 제주도방언이다.³¹⁾ 內는 '내'의 음가자 표기, 山은 '뫼'의 제주도방언 '메' 또는 '미'의 훈가자 표기이다. '내미'는 '나미(車踰 술위나미<용가 5:33-34>·너미[越])·넘이'의 변음 '내미'의 표기이다. 곧 '도내미오름'은 '도를 넘는 오름'의 뜻이다. 『제주삼읍도총지도』에 '도내미' 위쪽에 '門 光南梁'이라고 표기하였는데, '도'는 이 곳을 가리킨다. '도내미'는 마을 이름으로도 불렸는데, 18세기 중엽에 마을 이름이 道內山[도내미오름]에서 於道內山里[어도내미오름:<탐라방영총람>]로 바뀌면서, 오름 이름도 於道內山[岳]어도내미오름으로 바꾸어 불렀다. 於道內山[岳]은 표기 과정에서 內山을 줄이고 岳을 峰으로 바꾸어 於道峰(19세기 경)이라 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道內山'에 갑자기 於를 덧붙인 것은 마을 구별의 과정에서 제주시 오라동의 정실마을의 '도노미'와 구별하기 위한 것이다. 민간에서는 주로 '동도노미'와 '서도노미'라 하여 구별하지만, 於를 덧붙여 구별한 것은 '어름비[氷非:'어음'의 옛 이

31) '도'는 신라어의 잔영이다. 『삼국유사』(권1, 진한)에 "沙梁等[羅人方言 讀:梁音 爲道 故今或作沙梁 梁亦讀道](신라사람의 방언에 梁을 '도'라 읽는다. 그러므로 지금 沙梁을 沙梁으로도 쓰는데, 梁은 역시 '도'라 읽는다.)", 같은 책(권1, 신라시조 혁거세왕)의 "沙梁部[梁讀云道 或作 梁音道]沙梁部の 梁은 '도'로 읽는다. 혹은 梁으로 쓰는데 역시 음이 '도'이다.", 『삼국사기』(권44)에 "廟檀梁 城門名 加羅語 謂門爲梁云(廟檀梁은 성문 이름이다. 가라말로 門을 '도'라고 한다.)"의 기록이 그것을 말해준다.

름] 곁에 있는 '도내미' 라는 뜻에서다. 道內烽과 於道烽의 烽은 烽燧가 있었기 때문에 붙인 것이다. 나중에 於道烽이라 하였다.

(4) 한립음

① 靄岳[눈오름] > 누운오름

금악리에 있는 '눈오름' 은 「증보 탐라지」에 靄岳, 주변의 묘 비석에 靄岳, 臥岳, 오늘날의 지도에 '누운오름' 으로 표기하였다. 靄은 '눈'의 음가자, 臥는 '누' 또는 '누운'의 혼독자 표기, 岳은 '오름'의 혼독자 표기이다. 오름이 나지막하여 누워있는 것 같다는 데서 붙인 것이다.

② 井水岳·正物峯[정물오름] > 정물오름

금악리에 있는 '정물오름 > 정물오름' 은 「탐라순력도」 등에 井水岳, 「제주지도」에 正物峯, 「증보 탐라지」에 汀水岳, 주변의 묘 비석에 淨水岳·汀水岳 등으로 표기하였다. 井과 正, 汀은 '정'의 음가자, 水는 '물 > 물'의 혼독자 표기이다. 井水와 淨水·汀水는 모두 '정물 > 정물'의 표기로, 오름 가까이 '정물'이라는 샘이 있기 때문에 '정물오름'이라 한 것이다.

③ 歙勿呑呑[금물오름], 黑岳[검을오름·검은오름] > 금오름

금악리에 있는 '금물오름·검은오름' 은 「이문」에 歙勿呑呑, 「신증동국여지승람」과 「탐라순력도」 등에 黑岳, 「제주지도」에 歙岳, 「증보 탐라지」에 歙岳, 黑岳, 오늘날 지도에는 '금오름'으로 표기하였다. 歙勿은 음이 '금물'이지만 중세국어 '거물' [黑]의 유사음 '금을'의 음가자 표기, 黑도 '검을'의 혼독자 표기이다. '금을오름'은 한자 표기 과정에서 歙岳으로 생략 표기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때의 歙을 神聖의 뜻인 고대어 '감·검'에 대응하는 표기라는 것은 지나친 천착으로 보인다.

④ 常時畚里[상시사리(오름)], 相時岳[상시오름] > 초남오름, 천아오름

상대리에 있는 '상시사리' 또는 '초남오름' 은 「신증동국여지승람」에 常時畚里, 「탐라지」 등에 相時岳, 주변의 묘 비석에 天娥岳, 오늘날의 지도에는 '천아오름'으로 표기하였다. 常時畚리는 '상시사리'의 음가자 표기, 常時畚는 '상시사리'의 불완전한 음가자 표기, 相時は '상시사리'에서 '사리'를 반영하지 않은, 불완전한 음가자 표기이다. 오늘날은 잊혀진 이름이다. 그 뜻은 확실하지 않다. 天娥는 '천아'의 음가자 표기인데, '초남' ('상수리나무'의 제주도방언)에서 말음 '모'이 탈락한 '초나 > 처나'를 반영한 것이다. '상시사리'에서 '초남오름'으로 바뀐 이유는 확실하지 않다.

⑤ 皮文岳(갓글오름·갓그리오름) > 거꾸리오름

명월리에 있는 '갓글오름' 또는 '갓그리오름'은 『신증동국여지승람』과 『탐라순력도』 등에 皮文岳, 『증보 탐라지』에 狗尾岳, 개골이오름, 주변의 비석 등에 皮文岳, 狗尾岳, 盖去伊岳, 오늘날의 지도에 '개구리오름'으로 표기하였다. 皮는 '갓·갓(皮 갓 피 生口皮<훈몽-초, 하:5), 영의 갓 爲狐皮(훈민-원, 해례:18), 衣面 옷 갓...皮衣料 갓 아니 올린 옷<한청 11:6)>> 겹' 또는 '갓·갓'의 음가자 표기, 文은 '글'(文 글월 문<유합><신합>)의 훈가자 표기, 岳은 '오름' 오름'의 훈독자 표기이다. 皮文岳은 '갓글오름' 또는 '갓그리오름'의 표기이다. 이 이름은 후대의 비석 등에서 狗尾岳(개꼬리오름)으로 잘못 표기되면서 誤讀하는 경우가 많았다. 오늘날까지도 '개(狗)'와 관련지어, '개꼬리오름'(<한림읍지>, 1963) 또는 '개구리오름'(각종 지도), '갓거리오름'(오성찬, 1992:135) 등으로 잘못 기록하는 경우가 있다. 한편 狗尾가 '곰'이 표기로, '곰 계(현평효, 1990:35)라고도 하고, 皮文은 '산기슭'을 뜻하는 '갓골'(김종철, 1994:권3.364)이라고 하기도 하나, 모두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갓글·갓글' 또는 '갓그리·갓그리'는 중세국어의 '갓그다[倒]의 관형사형 '갓글'(倒 가술 도<백련 22>, 갓글 도<백련 81>, 갓글 도<유합-송광사본>, 갓그리 도<유합-영장사본>), 부사 '갓마리·갓마로·갓고로·갓그리' > 거꾸로[倒] 등에 대응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이는 "이 오름은 현실적으로 몸은 하나인데, 상·하반 신 형태로 형성돼 있으며, 구불구불 긴 등성마루 양단에 각각 반대 방향으로 벌어진 복합형 화구를 가졌다."(김종철, 1994:권3.363)의 설명에 부합되고, 제주도방언 '거꾸로'의 변이형태인 '거꾸로·가꾸로'와도 음상이 비슷하다. 곧 형태가 거꾸로 된 오름이라는 데서 '갓글오름·갓그리오름'이라 부르게 된 것이다.

⑥ 세미소오름 > 새미소오름

금악리에 있는 '세미소오름'은 주변의 묘 비석에 泉味岳, 泉味水, 細味水, 四美所岳, 牛尾泉岳 등으로 표기하였다. 泉은 '심 > 샘'의 제주도방언 '세미' 또는 '새미'의 훈독자, 味는 '세미'의 둘째 음절 '미'의 음가자, 所는 '소'(潭 소 담 水深處 爲潭<훈몽-초, 상:3>, 淵 소 연<신합, 상:5>)의 음가자, 水는 '소'의 유사음 '수'의 음가자, 岳은 '오름'의 훈독자 표기이다. '세미소오름'은 넓은 '세미소'가 있는 오름이라는 데서 붙인 것이다.

⑦ 晩里(느조리), 晩早·晩照(느조리(오름)), 晩注(느주리) > 느지리오름, 망오름

상명리에 있는 '느조리오름' 또는 '느지리오름'은 『탐라지』에 晩里, 『탐라순력도』에 晩早望, 『제주읍지』에 晩注, 『제주지도』에 晩照峰, 『증보 탐라지』에 晩早岳, 느지리오름, 오늘날의 지도에 '망오름'으로 표기하였다. 민간에서는 주로 '느지리오름, 망오름'이라고 한다. 晩은 '늦'(晩 느즐 만<훈몽-초, 상:1>)의

훈가자 표기, 무와 照는 '조'의 음가자 표기, 注는 '조'의 변음 '주'의 음가자 표기, 里는 '리'의 음가자 표기이다. '느조리, 느지리'의 뜻은 확실하지 않다. 望이 있었기 때문에 '망오름' > '망오름'이라고도 한다.

⑧ 가재, 비양오름 > 비양봉

비양리(비양도)에 있는 '가재' 또는 '비양오름'은 飛揚島에 있는 오름이므로 飛揚峰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간에서는 '가재' 또는 '암메' 등으로 알려지고 있기도 하다. '가재'라는 말의 뜻은 확실하지 않으나,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 오름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고, 또 오름 이름이 아니라 마을 북서쪽 바닷가에 있는 두 개의 바위를 일컫는 이름이라고도 한다. 곧 큰 바위를 '큰가재' (큰 가재), 작은 바위를 '작은가재' (작은 가재)라고 한다는 것이다. '암메'는 '암메창'이라고도 한다. 오름 위에 두 개의 분화구, 곧 '굼부리'가 있는데, 큰 굼부리를 '큰암메' 또는 '큰 암메창'이라고 한다. 민간에서는 분화구를 '오름창아리'라 하고, 큰 분화구를 '큰암창아' 또는 '큰암', 작은 분화구를 '작은창아' 또는 '작은암'이라고도 부른다. '암메'는 '암+메'의 구조로, 분화구를 가진 오름이라는 데서 연유한 것으로 보인다.

(5) 한경면

① 馬中岳[마중이오름] > 마중오름

저지리에 있는 '마중이(오름)·마중이(오름)'은 『증보 탐라지』에 馬中岳, 민간에서는 '마중오름, 마중악' 등으로 부르고, 주변의 묘 비석에는 馬踪岳·馬蹤岳, 馬中岳, 오늘날의 지도에는 '마중오름'으로 표기하였다. 오름이 馬踪峯이라는 데서(진성기, 1975:160), 또는 등에 안장을 진 말이 북쪽을 향해 누워 있는 형국이라는 데서 붙인 것이라고 하나, 모두 한자 표기에 견인된 해석으로 보인다. 그 뜻은 확실하지 않다.

② 마오름 > 마오름

저지리에 있는 '마오름'은 민간에서는 '마오름'이라 하며 주변의 묘 비석에는 馬岳·馬峰[마오름]으로 표기되어 있다. 한자 표기에 견인되어 '말오름'이라 해석하는 사람이 있으나, 그 뜻은 확실하지 않다.

③ 송아오름·송와오름 > 송아오름

저지리에 있는 '송아오름'은 주변의 묘 비석에는 松岳 또는 松花岳 등으로 표기하였다. 민간에서는 '송아오름·송와오름'이라고도 부른다. 松은 '송'의 음가자 표기, 花는 '화'의 음가자 표기로, '송화' 또는 '송와'의 뜻은 확실하지 않다.

④ 堂嶺[당막르 > 닥막르], 楮嶺岳[닥막르오름] > 저지오름

저지리에 있는 '닥막르오름'은 지금 '저지오름'으로 많이 알려졌다. 『탐라순력도』에 堂嶺, 「제주삼읍도총지도」 등에 猪嶺岳, 「제주삼읍전도」 등에 楮嶺岳으로 표기하였다. 堂은 '당·닥'의 음가자 표기, 楮는 '닥(닥 爲楮<훈민-원, 해례:26>, 楮 닥 더 葉有瓣而皮斑 曰楮<훈몽-초, 상:5>)'의 혼독자 표기, 嶺는 '막르 > 막르'의 혼독자 표기이다. 猪는 楮의 유사음을 달리 표기한 것에 불과하다. '저지오름'으로 불리기 전 '새' 형상을 한 오름이라는 데서 '새오름'으로 불렸다고도 한다(진성기, 1975:160).

⑤ 이계오름 > 이계오름

저지리에 있는 '이계오름'은 주변의 묘 비석에 離鷄岳·二鷄岳 등으로 표기하였다. '이계'의 뜻은 확실하지 않다. 민간에서는 한자 표기에 견인되어 '새' 또는 '닭'과 관련지어 해석하고 있으나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⑥ 釜岳[가메오름] > 가마오름

청수리에 있는 '가메오름'은 「탐라지도」와 「제주삼읍도총지도」 등과 주변의 묘 비석에 釜岳, 오늘날의 지도에는 '가마오름'으로 표기하였다. 釜는 '가마(釜 가마 부<훈몽-초, 중:6>) > 가메 > 가마'의 제주도방언 '가메'의 혼독자 표기이다. 岳은 '오름 > 오름'의 혼독자 표기이다. 釜岳은 '가메오름'의 표기이다. '가메' 곧 '가마'와 같은 형상을 하고 있다는 데서 붙여졌다. '가메'를 '곰' [神·神聖]으로 보는 것은 지나친 해독으로 보인다.

⑦ 草岳[새오름], 새신오름 > 新西岳

산양리에 있는 '새오름'은 「지영록」과 「탐라순력도」 등에 草岳, 「증보 탐라지」와 주변의 묘 비석에 鳥巢岳, 오늘날의 지도에는 新西岳으로 표기하였다. 민간에서는 '새신오름' 등으로 부른다. 草岳은 '새오름'의 표기이다. 草는 '새(草堂 새집<두해-초, 7:2>)'의 혼독자 표기, 岳은 '오름 > 오름'의 혼독자 표기이다. 곧 '새' [茅]가 많은 오름이라는 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새신오름'은 '새[草]가 있는[有] 오름'의 뜻인 '새 + 신('시다'의 관형사형어미가 붙은 형태.) + 오름'의 표기로 보인다. '새신오름'을 '새[鳥]가 있는[有] 오름'의 뜻(김종철, 1995:3권, 325)으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민간어원설에 불과하다. 鳥巢岳도 민간에서 새[鳥]를 고려한 표기이지만, 새[草]를 새[鳥]로 잘못 인식한 표기이다. 오늘날의 지도에는 新西岳으로 표기되었는데, 이는 신성동 서쪽에 있는 오름이라는 데서 붙여진 것으로 보인다. 이도 민간어원설에 의한 것이다. 이를 '새서오름'으로 읽고 '새신오름'의 변음을 한자로 표기한 것이라 할 수 있으나, 어색하다.

⑧ 굽은오름 > 구분오름

조수리에 있는 '굽은오름'은 오늘날의 지도에는 '구분오름'으로 표기하였다. 오름이 '붉은뭇'이 있는 조수리 신성동(新成洞) 마을 쪽으로 굽어 있다는 데서 '굽은오름'이라고 했다. 주변의 묘 비석에는 狗奔岳[굽은오름] 등으로 표기되었는데, 이를 한자 훈으로 해석하여 '개가 뒤를 돌아 보는 격'(진성기, 1975:161)이라고 하는 것은 전형적인 민간어원설이다. 오늘날의 지도에 표기되어 있는 '구분오름'의 '구분'은 '굽은'의 현실음을 반영한 것이므로 '굽은'으로 바꾸어야 한다.

⑨ 板浦岳·板浦山·板乙浦岳[널개오름] > 널개오름

판포리에 있는 '널개오름'은 『세종실록』(지리지)에 板浦岳·板浦山, 『신증동국여지승람』에 板乙浦岳, 『탐라지』 등에 板浦岳, 오늘날의 지도에 '판포오름'으로 표기하였다. 板은 '널'(널 爲板[훈민-원, 해례:25], 板 널 판[훈몽-초, 중:8])의 훈독자 표기이다. 板乙도 '널'의 표기로, 훈독자 板과 음가자 乙이 결합한 표기이다. 乙은 '널'의 말음 '르' 표기이다. 浦는 '개'의 훈독자 표기이다. 岳은 '오름'의 훈독자 표기이다. 板乙浦岳·板浦岳은 '널개오름'의 표기이다. '널개' 가까이 있는 오름이라는 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널개오름'은 널[板]과 같은 개[浦] 가까이 있는 오름이라는 데서 붙여졌다 고도 하나, 넓은 개[浦] 가까이 있는 오름이라는 데서 붙여졌다.

⑩ 遮歸岳[자귀오름], 堂山[당산·당오름] > 堂山岳[당산오름] > 唐山岳

고산리에 있는 '자귀오름' 또는 '당오름'은 『세종실록』(지리지) 등에 遮歸岳, 『탐라지』에 遮歸岳, 堂山, 『탐라순력도』 등에 堂山, 『호남전도』(제주목)에 堂山岳, 『제주지도』에 唐山, 『대정군읍지』(『대정군지도』)에 遮歸岳, 오늘날의 지도에는 唐山岳으로 표기하였다. '자귀오름[遮歸岳]'은 일찍부터 불린 것으로 보인다. 『신증동국여지승람』(권38, 대정현, 사묘)의 "城隍祠 一名遮歸堂 俗祀蛇鬼…遮歸字 卽蛇鬼字之誤…"('성황사'는 일명 '차귀당'이라고 한다. 세속에서 뱀귀신을 제사지낸다.…遮歸자는 곧 蛇鬼자의 잘못이다. …)라는 기록을 고려하면, 遮歸는 蛇鬼를 다르게 표기한 것일 수도 있다. 한편 지금의 '당산악' 남동쪽에서 남서쪽으로 흐르는 조그마한 내를, 민간에서 '자귀내' 또는 '자구내'라고 하는데, '자귀' 또는 '자구'는 『탐라지도』에 보이는 遮歸川[자귀내·자구내], 『제주삼읍도총지도』에 보이는 蛇鬼川[사귀내]의 음차 표기로 보인다. 그러므로 遮歸를 '차귀'라 읽는 것은 오늘날의 한자음으로 읽은 것이고, 민간의 '자귀내'를 고려할 때 '자귀'로 읽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의 '자구'를 '자구낭(자귀나무)'과 관련시키는 설(김종철, 1995:3권.343)도 있으나, 확실하지 않다. 이 오름에 遮歸堂이 설치되면서 堂山[당오름]이라고도 불렀다. 堂山은 岳이 덧붙어 堂山岳[당산오름]이라 하다가 19세기 말에 唐山으로도 표기되었고, 오늘날은 唐山에 岳이 덧붙어서 唐山岳[당산오름]으로 표기되고 있다. 唐山岳[당산오름]의 唐은 堂으로 고쳐 표기해야 한다.

① 高山[놉구메], 高丘山[놉구메], 놉고물오름 > 水月峰[수월이오름]

고산리에 있는 '놉구메'는 『탐라순력도』 등에 高山, 『호남전도』(제주목) 등에 高丘山, 『증보 탐라지』에 水月峰, 오늘날의 지도에 水月峰으로 표기하였다. 옛부터 민간에서 불리는 이름은 '놉고물오름·노꼬물오름·눅고물오름' 또는 '물누리오름·무니리오름'이다. 옛 지도에 高山 또는 高丘山으로 표기되었는데, 이는 '고산' 또는 '고구산'의 음독자 표기가 아니라, 옛부터 불리는 '놉고물오름'의 표기로 보인다. 곧 '놉고물'의 '놉-'(高 노플 고<백련-동경대본 5>)과 '구'의 음가자 '丘', '뫼'의 제주도 방언 '메'를 뜻하는 '山'을 결합시켜 高丘山이라 한 것이 아닌가 한다. 그리고 高丘山에서 丘를 생략한 표기가 高山으로 보인다. 민간의 '놉고물오름'의 '고'는 '구'의 변음이고, '물'은 '메' 또는 '미'가 변했거나, 오름 서쪽에 샘이 솟아나기 때문에 그 샘물이 있는 오름이라는 데서 붙여진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의 水月峰은 '수월이오름'의 표기로, '수월' 또는 '수월'은 五衛將軍을 지낸 水月公 高智男의 승모비가 후손에 의해 1910년에 세워질 때, 비석에 그의 호를 따서 水月峰이라 새기면서부터 연유한다(『고산 향토지』)는 이야기도 있고, '눅고'와 '수월이' 남매의 전설에서 '눅고물오름' 또는 '수월이오름'이라 했다(『고산 향토지』)는 이야기도 있다. 전자와 후자 모두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4) 남제주군

(1) 성산읍

① 食山岳[밥미오름] > 食山峰

오조리에 있는 '밥미오름'은 『탐라순력도』에 食山岳, 食山, 『제주지도』에 息山峯, 『증보 탐라지』(산천)에 食山峯, 오늘날의 지도에는 食山峰으로 표기하였다. 현지인 古老들이 '바오름' 또는 '바우오름'이라 하는 것으로 보아, 食山岳은 *밥미오름' 정도의 한자 표기로 보인다(그러나 '식산봉'이라는 이름이 절대적으로 우세하게 쓰이고 있다.). 원래는 *밥미오름' 또는 *밥미' 정도로 불렸던 것이 나중에 '바오름'으로 불렸던 것으로 보인다. 食山은 岳이 생략된 표기이다. 근대에 와서는 '밥미오름'은 한자음인 '식산오름'으로 굳어졌다. 息山峯의 표기가 그것인데, 息山은 '식산'의 음가자와 음독자의 표기이고, 峰은 岳을 달리 표기한 것이다. 오늘날은 食山峰으로 굳어졌다. 食은 밥(食은 바비라<월석 2:17>, 食籜 밥고리<훈몽-초, 중:6>)의 훈가자 표기이다. 息은 食(식)을 달리 표기한 음가자 표기, 山은 '뫼'의 제주도방언 '미'의 훈독자 표기, 岳은 '오름 > 오름'의 훈독자 표기이다. 峰은 岳을 달리 표기한 것이다. '밥미오름 > 바오름'은 옛날 바위로 이루어진 오름이라는 '바우오름'에서 '우'가 탈락한 것이라는 설(오성찬, 1992:43 ; 김종철, 1995:2권.43)과 왜구의 침입에 대비해서, 이 오름에 '늑탐지(띠로 엮은 닭개)'로 덮어 왜구의 눈에, 많은 군사들이 먹을 군량미로 보이게 했다는 데에서 나온 이름

이라는 설(오성찬, 1992:44 ; 김종철, 1995:2권,46) 등이 있으나 확실하지 않다.

② 城山(성산)

성산리에 있는 城山은 『신증동국여지승람』 등의 옛 문헌과 지도에 모두 城山이라 하였다. 城山은 '갓메' (城 갓 성 俗稱城子<훈몽-초, 중:5>)³²⁾ 정도로 불렸을 듯하나, 민간에서는 절대적으로 '성산' 이라는 음상만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일찍부터 '성산' 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것으로 보인다. 城山은 산 모양이 성과 같다는 데서 붙인 것(似城居 故名『신증동국여지승람』, 自然如山城 古稱城山者以此也『남사록』, 石壁峭立 環如城子『탐라지』)으로 보인다.

③ 末山·斗山[말미·말메] > 斗山峰

시흥리에 있는 '말미·말메' 는 『신증동국여지승람』에 末山, 『탐라지』 등에 斗山, 『제주읍지』에 斗山岳, 『제주지도』에 馬岳, 주변의 비석에는 斗山, 斗山峰, 頭山峰, 오늘날의 지도에는 斗山峰으로 표기하였다. 민간에서는 '말미, 멀미, 말미오름, 멀미오름' 등으로 불린다. 末과 斗은 '말(斗 말 두<백련 77)의 음가자 표기이다. 馬는 '몰 > 말' 의 훈가자 표기이다. 山은 '뫼' 의 제주도방언 '미·메' 의 혼독자 표기이다. 末山과 斗山은 '말미' 의 표기이다. 여기에 岳이 덧붙기도 하고, 山 대신 岳이 쓰이기도 한다. 민간에서 쓴 頭山峰은 '두산봉' 의 표기이다(이를 '멀미오름' 의 혼독자의 결합 표기로 볼 수도 있다. '멀' 은 '마리 > 머리' 의 준말로 보인다.). '말' 의 뜻은 '몰(馬) 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말' 은 '마랏' [잡] 또는 '마리 > 머리' [首], '말 / 말(概말 鬮<훈몽-초, 중:9), 概은 말히라<능엄 8:85)과 관계있는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 민간에서는 頭山峰이라 하기도 하나, 이는 斗山の 음가자 표기인데, 형세가 호랑이 머리라는 데서 붙인 것이라고 하는, 건강부회의 해석도 있다.

④ 全伊山[전이미] > 전이미

시흥리에 있는 '전이미' 는 『제주삼읍도총지도』 등에 全伊山, 『제주지도』에 戰臨岳, 주변의 묘 비석에 帝臨岳, 오늘날의 지도에 '전이미' 로 표기하였다. 全伊는 '전이' 의 음가자 표기이다. '전이' 의 뜻은 확실하지 않다. 山은 '뫼' 의 제주도방언 '미' 의 혼독자 표기이다. 戰臨은 '전이미' 의 분철표기인 '전임이' 의 '전임' 을 표기한 음가자 표기, 帝臨岳의 帝臨은 全伊山[전이미]의 변음 '제임' 을 표기한 음가자 표기에 불과하다. 全伊山은 '전이미' 의 표기이다. 『해동지도』(『제주삼현도』)에는 '金甲山' 으로 표기되었는데, 이는 全伊山을 잘못 적은 것이다. 근처의 '왕이메' 가 '왕[王]의 메[山]' 의 구성이라면, '전이미' 도 '전(?)의 미[山]' 의 구성일 가능성이 있다.

32) …其山嶺 日城山 갓외 …<용가 1:52>

⑤ 王伊山[왕이미] > 大王伊山[큰왕이미] > 大王山, 小王伊山[작은왕이미] > 大王山, 小王山

수산리에 있는 '왕이미·왕이메'와 '작은왕이메'는 「탐라지도」에 王伊山, 「제주지도」에 旺伊岳, 小旺伊, 「증보 탐라지」에 大王山, 주변의 묘 비석에 王尾, 大王山·大旺山, 小王山·小旺山, 小王伊山, 오늘날의 지도에 大王山, 小王山이라 표기하였다. 王伊·旺伊는 '왕이'의 표기인데, '왕의'의 뜻으로 보인다. 王은 '왕'의 혼독자 표기, 伊는 '이'의 음가자 표기이다. 山은 '뫼'의 제주도방언 '미' 또는 '메'의 혼독자 표기이다. 王伊山은 '왕이메'의 표기, 旺伊岳은 '왕이미'의 '미[山]'를 岳으로 표기한 것에 불과하다. 小旺伊는 '작은왕이메'의 표기이다. 大王山은 '큰왕이메'라는 뜻의 한자 표기, 小王山은 '작은왕이메'라는 뜻의 한자 표기로, 오늘날에는 이 이름으로 굳어졌다. '왕이메'는 산이 형세가 王자 모양으로 생겼다는 데서, 또는 근처에 王자 모양의 형국이 있다는 데서 불려졌다고 하나 확실하지 않다. 이 설이 사실이라면 '왕이메'의 '이'는 속격 '의'의 변음일 가능성이 있다. 곧 '왕의 산'이라는 뜻이다.

⑥ 水山[물미], 小水山[작은물미] > 大水山峰, 小水山峰

수산리에 있는 '물미·물메'는 '큰물미'와 신양리에 있는 '작은물미'가 있다. 「세종실록」(지리지)과 「신증동국여지승람」 등에 水山, 「탐라지」 등에 首山, 같은 책(정의현, 봉수)에 小首山, 「제주지도」에 水山峯, 오늘날의 지도에는 大水山峰, 小水山峰으로 표기하였다. 水는 '물 > 물'의 혼독자 표기이다. 山은 '뫼'의 제주도방언 '미·메'의 혼독자 표기이다. 水山은 '물미'의 표기이다. 首山은 '물미'의 한자 표기인 水山の 水를 首로 표기한 것이다(이를 '마리미' 또는 '이의 준말인 '말미'의 혼독자 표기로 볼 수도 있으나, 민간에서 그런 음상을 확인할 수 없다.). 이들 표기에 峰을 붙여 표기하기도 하였다. 산 이름은, 이 산에 샘물이 있었는데 송나라 胡宗禹이 와서 水脈을 끊어 버린 이후에 샘물이 말랐다고 전해지는데, 이런 전설과 관련된 이름인지 확실하지 않다. 오늘날은 水山으로 굳어졌다. 「정의군지도」에 赤岳[붉은오름]으로도 표기되었다.

⑦ 木过岳[남꺾오름·낭꺾오름], 木花岳[남꽃오름] > 南擧峰

수산리에 있는 '남꺾오름·낭꺾오름'은 「제주삼읍도총지도」 등에 木过岳, 「증보 탐라지」에 南花岳, 남꺾오름, 주변의 묘 비석에 南擧峰·南巨峰, 南擧岳, 南擧山 / 木花峰·木花岳·南花岳, 南邊岳·木邊岳, 오늘날의 지도에는 南擧峰으로 표기하였다. 민간에서는 '남꺾오름, 남꺾오름'이라고 부른다. 木은 '나무·남 > 나무'의 제주도방언 '남·낭'의 혼독자 표기이다. 南은 '남[木]'의 음가자 표기이다. 过과 邊은 '又(邊 又 변 又邊塞<훈몽-초, 중:4>)'의 훈가자 표기이다. 花는 '꽃(花 꽃 화<훈몽-초, 하:2>)'·'꽃'의 훈가자 표기이다. 擧는 '又, 窠'에서 '시'이 탈락한 유사음 '거'의 음가자 표기이다. 木过岳은 '남꺾오름, 낭꺾오름'의 표기이다. '남꺾, 낭꺾'은 '남꺾', 곧 '나무 숲'의 뜻이다. 木

花 / 南花는 '남꽃'의 유사음 '남곳·남꽃'의 표기이다. 南學는 '남꽃'에서 '스'이 탈락한 유사음 '남거'의 표기이다. 오늘날은 南學峰으로 표기되고 있다. 원래의 이름에서 상당히 멀어진 이름이다. 민간에서 부르는 '낭끼오름'은 '낭궤오름'에서 '궤'이 '끼'로 변한 것이고, '남케오름'의 '케'도 원래의 음에서 변한 것이다.

⑧ 立石[선돌], 姪伊尾[돌리미] > 姪山[돌미]

수산리에 있는 '돌리미'는 「제주지도」에 立石, 주변의 묘 비석에 姪伊尾, 오늘날의 지도에 姪山으로 표기하였다. 立은 '선'의 혼독자 표기, 石은 '돌'의 혼독자 표기이다. 姪은 '돌'의 한국 한자로, 음독자 표기이다. 伊는 '이' 또는 연철음 '리'의 음가자 표기, 山은 '뫼'의 제주도방언 '미'의 혼독자 표기이다. 立石은 '선돌'의 표기, 姪伊尾는 '돌리미'의 표기, 姪山은 '돌미'의 표기이다. '돌리미'의 '돌[石]의 미[山]'의 구성이다. 곧 돌무더기가 오름 정상에 있다는 데서 붙인 것이다.

⑨ 弓大岳·弓帶岳[궁대오름] > 弓帶岳

수산리에 있는 '궁대오름'은 「제주삼읍도총지도」 등에 弓大岳, 주변의 묘 비석에는 弓帶岳, 오늘날의 지도 등에는 弓帶岳으로 표기하였다. 弓은 '궁'의 음가자 표기이다. 大와 帶는 '대'의 음가자 표기이다. 弓大岳·弓帶岳 등은 '궁대오름'의 표기이다. '궁대'의 뜻은 확실하지 않다. 산이 마치 활 모양으로 길게 늘어져 있다는 데서 붙인 것이라고 한다.

⑩ 九分岳[굽은오름], 後曲岳·後弓岳[뒤굽은이] > 後曲岳

수산리에 있는 '굽은오름' 또는 '뒤굽은이'는 「제주삼읍도총지도」 등에 九分岳, 「증보 탐라지」에 後曲岳, 주변의 묘 비석에는 後俯岳, 後弓岳, 後弓凹, 后弓, 오늘날의 지도에는 後曲岳으로 표기하였다. 九分은 '구분 > 굽은'의 음가자 표기이다. 曲과 俯는 '고분 > 굽은, 구분 > 굽은(曲은 고불 씨라 <석보 11:6>, 俯 구불 부<유합-칠장사본>)'의 혼독자 표기이다. 後는 '뒤'의 혼독자 표기, 岳은 '오름 > 오름'의 혼독자 표기이다. 九分岳은 '구분오름 > 굽은오름', 後曲岳과 後俯岳은 '뒤구분오름 > 뒤굽은오름'의 표기이다. 後弓岳과 後弓凹 등도 '뒤굽은이'의 한자 표기이다. 後弓은 활의 뒤쪽과 같이 구부러져 있다는 뜻이다. 오름 뒤쪽(북쪽)이 활과 같이 구부러져 있다는 데서 붙인 이름이다.

⑪ 나시리오름·나스리오름 > 나시리오름

난산리에 있는 '나시리오름'은 주변의 묘 비석에 羅時里岳, 羅時岳, 羅瑟伊岳, 羅瑟岳·'罽瑟岳, 羅瑟伊, 羅仕伊岳, 羅仕岳·羅沙岳, 螺施岳, 나시리, 나시리산, 오늘날의 지도에는 '나시리오름'으로 표기하였다. 羅時里는 '나시리'의 음가자 표기, 羅時·螺施는 '나시리'에서 '리'를 생략한 표기, 羅瑟伊

는 '나시리'의 변음 '나스리'의 음가자 표기이다. 羅仕伊도 '나스리'의 변음 '나사리'의 음가자 표기이다. 岳은 '오름' > '오름'의 표기이다. '나시리' 또는 '나스리'의 뜻은 확실하지 않다.

⑫ 伊只乃·伊其川[이기내오름] > 유건에오름

난산리에 있는 '이기내오름'은 「탐라지도」 등에 伊只乃, 「제주삼읍전도」에 伊近岳, 「제주지도」에 儒巾岳, 「정의지도」에 狸近岳, 「정의군지도」에 伊近乃岳, 주변의 묘 비석에 伊其川岳, 伊近岳, 오늘날의 지도에 '유건에오름'으로 표기하였다. 伊只乃·伊其川은 '이기내'의 표기이다. 伊는 '이'의 음가자 표기, 只와 其는 '기'의 음가자 표기, 乃是 '내'의 음가자 표기, 川은 '내'의 훈가자 표기이다. 伊近乃岳은 '이그내오름'의 표기로, '이기내오름'의 변음을 반영한 것이다. 伊近·狸近은 '이근·이근애'의 음가자 표기로, '이기내'(이근애)의 '이근'의 변음인 '이근'의 한자 표기이다. 儒巾도 '이기내'의 변음 '유건·유건애'의 음가자 표기에 불과하다. 川은 '내·내'의 훈가자 표기이다. 伊只乃(岳)·伊其川은 '이기내오름·이기내오름'의 표기이다. 그 뜻은 확실하지 않다. 伊近乃岳·伊近岳·狸近岳은 '이기내오름'의 변음 '이그내오름'의 표기이다. 儒巾岳도 '이기내오름'의 변음 '유건내오름·유건애오름'의 표기이다.

⑬ 毛骨[모골·모고리], 毛古里[모고리], 毛古岳[모고리오름], 母狗岳·毛狗岳[모구리오름] > 모구리오름

난산리에 있는 '모구리오름'은 『신증동국여지승람』에 毛骨, 「탐라지도」에 毛古里, 「제주삼읍전도」에 毛古岳, 「정의지도」에 母狗岳, 「탁락국서」에 母狗岳, 毛骨, 「증보 탐라지」에 母狗岳, 주변의 묘 비석에 母狗岳, 毛狗岳, 오늘날의 지도에 '모구리오름'으로 표기하였다. 毛古리는 '모고리'의 음가자 표기, 毛古도 '모고리'의 불완전한 음가자 표기이다. 母狗와 毛狗는 '모구' 또는 '모구리'의 음가자 표기, 毛骨은 '모고리'의 불완전한 음가자 표기이다. '모구리' 보다는 '모고리'가 앞선 음상임을 확인할 수 있으나, 그 뜻은 확실하지 않다. '모구리오름' 바로 남쪽에 조그만 '알오름'이 있는데, 이 '알오름'을 새끼로 보고, 새끼를 끼고 있는 어미개의 형상이라는 데서 '모구리오름'이라 했다는 것(진성기, 1975:86)은 한자 표기에 의한 견강부회식 해석이다.

⑭ 桶岳[통오름] > 통오름

난산리에 있는 '통오름'은 「제주삼읍전도」 등에 桶岳, 오늘날의 지도에 '통오름'으로 표기하였다. 桶은 '통(桶 통 통 俗稱水桶<훈몽-초, 중:9)>' > '통'의 훈독자 표기이다. 岳은 '오름'의 훈독자 표기이다. 桶岳은 '통오름' > '통오름'의 표기이다. 오름 형태가 물통과 같이 움푹 팬 형태라는 데서 붙인 이름이다.

⑮ 岳沙只[오름삿기], 呑音沙只岳[오름삿기오름] > 獨子 > 獨子峰

신산리에 있는 '오름삿기오름'은 『세종실록』(지리지)에 岳沙只, 『신증동국여지승람』에 呑音沙只岳, 『탐라지』에 獨子, 『탐라순력도』 등에 狒子峰, 獨子峰, 『증보 탐라지』에 獨子峯, 오늘날의 지도에는 獨子峰으로 표기하였다. 岳은 '오름' > '오름'의 훈독자, 呑音은 '오름' > '오름'의 음가자, 沙只는 '삿기'이지만 '삿기(狒 삿기 예 獅之子... 麋 삿기 미 鹿之子... 羔 삿기 고... 獾 삿기 흰<훈몽-초, 상:10>)' > '새끼'의 음가자 표기이다. 岳沙只는 '오름삿기' > '오름새끼'의 표기, 呑音沙只岳은 '오름삿기오름' > '오름새끼오름'의 표기이다. '오름삿기오름'은 달리 狒子峰 / 獨子峰으로도 불렸는데, 이는 '독조오름' 또는 '독자봉'의 음독자 표기이다. 지금 '오름삿기오름' > '오름새끼오름'이라는 이름은 잊혀졌다. 주로 '독자봉'이라 한다. 과거에 燧臺가 있었고 望을 보았었기 때문에 '망오름'이라고도 한다.

⑯ 本地岳[본지오름] > 본지오름

삼달리에 있는 '본지오름'은 『증보 탐라지』에 本地岳으로 표기하였다. '본지오름'의 '본지'는 '노박덩굴'의 제주도방언 '본지방' 또는 '본지굴'을 뜻한다. 곧 '본지'가 많았다는 데서 붙인 이름이다.

⑰ 南山[남산], 南山峯[남산봉] > 南山峰[남산봉]

신평리에 있는 '남산'은 『탐라지』 등에 南山, 『제주삼읍도총지도』 등에 南山峯으로 표기하였다. 南山은 일찍부터 '남산'으로 불려왔다. 水山이 '물미·물메'의 한자 표기로 쓰였듯이, 山이 '미' 또는 '메'의 훈독자로 쓰였을 듯 하나, 민간에서 그 자취를 확인할 수 없다. 南도 음독자 '남' [木]의 표기인지 음가자 '남'의 표기인지 확실하지 않다.

2) 표선면

① 閑佐甫山[한좌보미] > 閑坐岳[한좌오름] > 左甫山[좌보미] > 좌보미

성읍리에 있는 '좌보미'는 『신증동국여지승람』에 閑佐甫山, 『탐라지』에 閑坐岳, 『탐라순력도』 등에 左甫山, 『제주삼읍전도』 등에 左釜岳, 『제주지도』에 左輔岳, 『증보 탐라지』에 左甫岳, 주변의 묘 비석에는 左輔山, 左釜岳, 左付尾, 오늘날의 지도에 '좌보미'로 표기하였다. 閑佐甫山은 '한좌보미'의 표기이다. 閑은 '한'의 음가자 표기, 佐甫는 '좌보'의 음가자 표기, 山은 '되'의 제주도방언 '미'의 훈독자 표기이다. '한좌보'의 뜻은 확실하지 않다. '한좌보미'는 '보'를 생략하여 『탐라지』에 閑坐岳으로 표기하였다. 18세기 초부터 '한좌보미'의 '한'을 생략하여 左甫山으로 표기하였다. 오늘날 민간에서도 '좌보미' 또는 '좌부미'라는 음상만 확인할 수 있다. 19세기에 '좌보미'의 변음을 반영한 표기도 나타난다. 左甫·左輔는 '좌보'의 음가자 표기이고, 左釜·左付는 '좌보'의 변음 '좌부'의 음가자 표

기이다. '좌보'의 뜻은 확실하지 않다. 尾는 '미'의 음가자 표기이다. 左甫山·左輔山·左付尾은 '좌보미' 또는 '좌부미'의 표기이고, 左輔岳은 山은 岳으로 표기한 '좌보미'의 표기, 左釜岳은 '보'를 '부'로, '미'를 岳으로 표기한 것에 불과하다.

② 開亦岳[개역이오름] > 百藥峰·百藥岳[백약이오름] > 백약이오름

성읍리에 있는 '백약이오름'은 「제주삼읍도총지도」 등에 開亦岳, 「탐라지」(남만리본)에 百藥岳, 「제주지도」에 百藥峯, 「증보 탐라지」에 '百藥岳, 세미오름', 주변의 묘 비석에 百藥伊岳·百藥岳 등으로 표기하였다. 민간에서는 '백약이오름'으로 불린다. 開亦岳은 '개역오름' 또는 '개역이오름'의 표기이다. 開亦은 '개역' 또는 '개여기'의 음가자 표기로 보이는데, 그 뜻은 확실하지 않다. 오늘날은 '백약이오름'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는 '개역이오름'의 와전, 또는 '개역이오름'의 다른 이름으로 보인다. 百藥岳·百藥伊岳·百藥峰은 '백약오름' 또는 '백약이오름'의 음독자 표기이다 百藥(백약)은 온갖 약초가 나는 오름이라는 데서 붙여졌다고 한다(藥草多産於此 故名「탐라지」(남만리본)). 실제 온갖 약초가 많이 난다. 그러나 開亦岳이 어떻게 百藥岳으로 바뀌었는지 확실하지 않다. 「증보 탐라지」(산천)의 '세미오름'의 기록으로 보아, '세미오름'이라고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

③ 蓋岳·蓋峰[개오름] > 개오름

성읍리에 있는 '개오름'은 「제주삼읍도총지도」 등에 蓋岳, 「제주지도」에 蓋峯, 「증보 탐라지」에 狗岳, 개오름'으로 표기하였다. 蓋岳은 '개오름'의 표기이다. 蓋峰은 蓋岳의 岳을 峰으로 바꾼 표기에 불과하다. 蓋는 蓋의 약자로, '개'의 음가자 표기이다. 狗岳도 '개오름'의 표기이다. 狗는 '개'의 음가자 표기이다. 민간에서도 '개오름'이라 부른다. 蓋岳과 狗岳의 표기를 존중해서, 오름의 형상이 사발 뚜껑(진성기, 1975:96; 오성찬, 1992:54)이나 양산 따위의 '덮개'와 같이 생겼다는 설과 개 모양이라는 데서 생겼다는 설 등의 민간어원적인 해석이 나왔다. '개'의 뜻은 확실하지 않다.

④ 弓山[활미] > 활미

성읍리에 있는 '활미'는 「탐라순력도」에 弓山, 弓山村 「제주삼읍도총지도」 등에 弓山村, 「제주지도」에 弓山, 弓山里 등으로 표기하였다. 弓山은 '활미'의 표기이다. 弓은 '활'의 혼독자 표기, 山은 '뫼'의 제주도방언 '미'의 혼독자 표기이다. '활미'라는 이름은 한글학회(1986:396)에 마을 이름으로만 나와 있을 뿐, 지도에 표기되지 않았다.

⑥ 瀛旨[영머리], 瀛洲山(영주산) > 瀛洲山(영주산)

성읍리에 있는 '영머리' 또는 '영주산'은 「신증동국여지승람」에 瀛洲山, 瀛旨, 「탐라지」 등에 瀛洲

山, 『탐라순력도』 등에 瀛洲山岳, 瀛洲山 등으로 표기하였다. 瀛은 '녕ㅎ-·령ㅎ-(瀛 녍ㅎ 녍<천자-광 19), 령ㅎ 령<신합, 하:1), 有靈의 녍ㅎ 이<동해, 상:22)의 '녕·령'의 혼독자 표기이다. 滄는 'ㄹㄹ(滄 ㄹㄹ 지<신합, 하:59) > ㄹㄹ'의 혼독자 표기이다. 민간에서는 주로 '영머리'라고 한다. '영ㄹㄹ > 영ㄹㄹ'의 변음이다. 瀛滄을 나중에 瀛洲로 바꾼 것으로 보인다. 瀛洲는 '령주 > 영주'의 음독자로, 전설상으로 '영한 사람(神仙)이 사는 곳'이란 뜻에서 붙인 것이다. 瀛州는 瀛洲의 洲를 州로 표기한 것에 불과하다. 瀛滄은 '령ㄹㄹ > 영ㄹㄹ'의 표기이고, 瀛洲山, 瀛洲山岳은 '영주산, 영주산오름'의 표기로, '신선이 사는 산'이라는 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현지인들은 '바우오름'이라고도 한다. 지금처럼 나무가 우거지기 전에 산이 온통 바위로 뒤덮여 있었다는 데서 이렇게도 불렀다.

⑦ 達山[달산] > 達山峯

하천리에 있는 '달산'은 『신증동국여지승람』 등에 達山, 『정의군지도』와 오늘날의 지도 등에 達山峰으로 표기하였다. 일찍부터 達山을 '달산'으로 불러왔기 때문에, 민간에서 다른 원래의 이름을 확인할 수 없다. 특히 주변에서 山은 '피'의 제주도방언 '미' 또는 '메'로 부르고 있는데, 이 산과 그 위쪽에 있는 南山 등은 '산'으로 부르고 있다. 일찍부터 한자화하여 고유어 이름을 잃어버린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일단 한자음으로 읽어 두기로 한다. 達山峯은 達山에 峯이 덧붙은 것이다. '달'은 고구려어 達[山 또는 高의 뜻]과 같은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

⑧ 鷹巖山[매바우메] > 鷹巖岳[매바우오름] > 鷹岩[매바우] > 鷹岳[매오름] > 매오름

세화리에 있는 '매바우메' 또는 '매오름'은 『신증동국여지승람』에 鷹巖山, 『탐라지』에 鷹巖岳, 『탐라지도』 등에 鷹岩, 『제주지도』 등에 鷹岳, 『증보 탐라지』에 鷹峯, 오늘날의 지도에 '매오름'으로 표기하였다. 鷹은 '매(鷹 매 응<훈몽-초, 상:8)의 혼독자 표기, 巖과 岩은 '바회(巖은 바회라<석보 6:44) > 바위'의 제주도방언 '바우'의 혼독자 표기이다. 鷹巖山은 '매바우메', 鷹岩은 '매바우', 鷹巖岳은 '매바우오름', 鷹岳은 鷹巖·鷹岩에서 巖·岩이 생략된 표기로 '매오름'의 표기이다. 산의 형세가 매와 같다는 데서 붙인 이름이다.

⑨ 遯止岳·無止岳·毋止岳[무지오름·뫼지오름] > 모지오름

성읍리에 있는 '무지오름·뫼지오름'은 『탐라순력도』 등에 遯止岳, 『정의군읍지』에 無止岳, 『제주지도』에 毋止岳, 『증보 탐라지』에 毋地岳, 주변의 묘비에는 毋地岳·毋旨岳·茂枝岳. 母子岳 母地岳, 오늘날의 지도에 '모지오름'으로 표기하였다. 민간에서는 '무지오름, 뫼지오름' 등으로 부른다. 遯止岳은 '무지오름'의 표기이다. 遯은 음은 '두'이지만, '무'의 혼가자 표기(遯 무지 두<신자전)이다. 止는 '지'의 음가자 표기이다. 岳은 '오름' > 오름의 혼독자 표기이다. 無止岳·毋止岳도 '무지오름'의

표기이다. 無止와 毋止는 모두 '무지'의 음가자 표기이다. '무지'는 '섬[石]이 차지 않은 곡식의 양[量]을 뜻하는 고유어의 뜻인지 확실하지 않다. '무지'가 이 뜻이라면, '부족한 오름'이라는 뜻이다. 실제 오름 동쪽이 서쪽으로 음쪽 들어간 형세로 되어 있다. 곧 오름 북동쪽이 크게 벌어진 형세이다. 이 형세를 염두에 두고, 거기에 '무지'의 음가자 표기인 '母地'를 혼으로 해석하여 어머니가 아이를 안은 형체(진성기, 1975:96 ; 오성찬, 1992:54 ; 김종철, 1995:271)라는 데서 '모지오름(母地-)'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으나, 이는 민간어원설에 불과하다.

⑩ 多羅非[따라비], 多羅非岳[따라비오름] > 따라비

가시리에 있는 따라비(오름)는 『탐라순력도』 등에 多羅非, 「제주삼현도」에 多羅非岳, 「제주지도」에 地祖岳, 주변의 묘비에는 '地祖岳, 地翁岳, 따래비', 오늘날의 지도에 따라비로 표기하였다. 多羅非는 음이 '다라비'이지만 민간에서 '따라비'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따라비'의 음가자 표기이다. 그 뜻은 확실하지 않다. 地祖岳은 '따라비오름'의 표기이다. 地는 '따(따 爲地<훈민-원, 해례:21), 地 따 디<훈몽-초, 상:1)> > 땅'의 훈가자 표기, 祖는 '할아버지'의 근대국어 형태인 '하나비(祖 하나비 조 俗稱祖公<훈몽-초, 상:16)/ 한아비(翁 한아비 웅<신합, 상:17), 祖公 한아비 祖父 上순<역해, 상:56)> > 하라비(翁 하라비 웅<왜어, 하:33)>의 '라비'의 훈가자 표기이다. 곧 '땅할아버지'로 인식하고 표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민간에서는 물론이고 『가시리지』(1988)에서도 주변의 '무지오름, 장자오름, 새끼오름' 등을 거느린 형태의 오름인 '땅하라비'라는 데서 '따라비' 또는 '따래비'라 했다고 적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이전의 多羅非라는 표기의 음상과는 거리가 있다. 김인호 박사는 多羅非를 '다라비'의 음가자로, '다라(달·고구려어 高의 뜻)+비(山: '미'의 변음을 반영한 것)'의 구성(김종철, 1995:3 권.262-263)으로 파악하였으나, 지나친 천착으로 보인다.

⑪ 長子岳[장자오름] > 장자오름

성읍리에 있는 '장자오름'은 『증보 탐라지』와 주변의 묘 비석에 長子岳으로 표기하였다. '모지오름'의 큰아들 격이라서 '장자오름'이라 했다는 설이 있으나, '모지오름'이 '무지오름'의 잘못이라고 하면 이러한 해석에도 재고의 여지가 있다. 민간어원적인 해석으로 보인다.

⑫ 所訖岳·所訖岳·所屹岳[소홀오름] > 설오름

가시리에 있는 '소홀오름'은 『탐라순력도』에 所訖岳, 「제주삼읍도총지도」 등에 所訖岳, 「증보 탐라지」에 西月岳, 주변의 묘 비석에는 鋤乙岳, 鋤岳, 鉏乙岳, 鉏岳, 西乙岳, 西月岳, 所屹岳, 오늘날의 지도에는 '설오름'으로 표기하였다. 所訖·所訖은 '소홀·솔'의 음가자 표기이다. 그 뜻은 확실하지 않다. 鋤乙·鉏乙은 '설'의 음가자 표기이고, 鋤·鉏는 '설'의 '리(乙)을 생략한 음가자 표기이다. 西月

은 '서월'의 음가자 표기이다. 所訖岳·所佐岳·所屹岳은 '소홀오름·솔오름'의 표기이다. 鋤乙岳·鉏乙岳·鋤岳·鉏岳과 西乙岳은 '설오름'의 표기이다. 鋤(鋤 호미 서<훈몽-초, 중:8>)와 鉏(鉏 鋤 호미 서<신합 상:28>)의 표기를 상정하여, 산이 '호미'처럼 생겼다는 데서 붙여졌다고 하나, 후대의 민간어원설에 불과하다. 오히려 오름이 형세가 텐트를 친 모습이고, 양쪽 끝 봉우리가 약간 솟아오른 데다 남쪽 봉우리는 울퉁불퉁 바위들이 박혀있어서(김종철, 1995:권3,292) '씨레'³³⁾와 같다는 데서 이런 이름을 붙인 것으로 보인다. 所訖岳·所佐岳·所屹岳의 '소홀'은 모두 '서흐레 > 씨흐레 > 씨레'의 음가자 표기로 보인다. 오늘날의 '설오름'은 '서흐레오름, 설레오름'에서 중간 음절이 생략된 것으로 보인다.

⑬ 率岳[솔오름] > 소소름

토산리에 있는 '솔오름'은 「탐라지도」 등에 率岳, 「제주삼읍도총지도」에 松川, 주변의 묘 비석에 牛岳, 所乙岳, 松岳, 오늘날의 지도에 '소소름'으로 표기하였다. 率은 '솔'의 음가자 표기, 松은 '솔'의 훈가자 표기이다. 牛는 '쇠'의 훈가자 표기이다. '솔내'(오늘날 松川) 동쪽에 인접해 있는 오름이라는 데서 '솔오름'이라고 했던 것이다. '솔'의 뜻은 확실하지 않다. 그런데 민간에서는 '췌[牛]가 누워 있는 형국이라는 데서 '췌오름'이라 했고, 이것이 나중에 '소소름'(한글학회, 1986:398 ; 오성찬, 1992:57 ; 김종철, 1995:297)으로 실현되었다고 하나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⑭ 番板岳[번널오름] > 번널오름

가시리에 있는 '번널오름'은 「제주삼읍전도」 등에 番板岳, 민간의 비석에 番乙岳으로 표기하였다. 番板岳은 '번널오름'의 표기이다. 番은 '번'의 음가자 표기, 板은 '널'의 훈가자 표기, 乙은 '을'의 음가자 표기이다. 사람에게 따라 오름이 벌어진 형세라 하여 '벌른오름'이 변한 것이라 하기도 하고 '널뺀지'를 벌여 놓은 형상이라는 데서 '번널오름'이라 한다고도 하였으나, 확실하지 않다.

⑮ 安佐岳·安坐岳[안좌오름] > 屏花岳[병꽃오름] > 병꽃오름

가시리에 있는 '병꽃오름·병꽃오름' 또는 '안좌오름·안좌름'은 「신증동국여지승람」에 安佐岳, 「탐라지」에 安坐岳, 「탐라순력도」에 安坐岳, 屏花岳, 「제주삼읍도총지도」에 屏花岳, 安坐岳村, 「제주지도」에 鳳飯巢岳, 주변의 묘 비석에 '並花岳, 並高岳, 兵庫岳, 병꽃오름', 오늘날의 지도에는 '병꽃오름'으로 표기하였다. 安佐岳과 安坐岳은 '안좌오름'의 표기이다. 민간에서 '안좌름'이라고도 하는데,

33) 杷 서흐레 과 農器 又俗呼鐵杷 소시랑<훈몽-초, 중:9>, 杷 씨흐레<한청 10:7>, 杷肥 씨흐레<물보, 경농>, 木斫 鄉名 所訖羅<農家集成>(農事直說, 種麻), 木斫 鄉名 所訖羅<大東韻府群玉>(19, 入聲, 藥)

‘안좌오름’의 준말이다. ‘안좌’의 뜻은 ‘앉은[坐]’의 뜻인지 확실하지 않다. 屏花岳은 ‘벵긋오름’의 표기이다. 屏은 ‘벵’의 제주도방언 ‘벵’의 음가자 표기, 花는 ‘긋’의 훈가자 표기이다. ‘벵긋 > 벵긋’의 ‘긋’은 ‘숲’을 뜻하는 말로 보인다. 민간에서는 ‘안좌오름’과 ‘벵긋오름’이 같은 오름을 일컫는 이름이라고 한다. 『탐라순력도』 이전에는 安坐岳으로만 표기되었다. 『탐라순력도』에 오름 이름으로 屏花岳, 마을 이름으로 安坐岳里(안좌오름마을:표선면 가시리의 한 주변 마을의 옛 이름)이 함께 표기된 이후 오름 이름은 주로 屏花岳으로 표기되었다. 19세기 말 한때 鳳飯巢岳[봉긋소오름]으로 표기되었는데, 이는 봉황새가 보금자리로 돌아오는 형국(飛鳳歸巢形)이라는, 민간의 풍수지리설에 의한 한자 표기로 보인다.

⑯ 甲先岳[갑선이오름] > 갑선이오름

가시리에 있는 ‘갑선이오름’은 『탐라순력도』 등에 甲先岳, 『증보 탐라지』에 甲旋岳, 주변의 묘 비석 등에 甲蟬岳, 甲旋岳, 오늘날의 지도에 ‘갑선이오름’으로 표기하였다. 甲先·甲蟬·甲旋은 ‘갑선·갑선이’의 음가자 표기로, 그 뜻은 확실하지 않다. 민간의 한자 표기에 견인되어 굽병이와 같은 데서 붙여졌다고 하는 설(진성기, 1975:93 ; 오성찬, 1992:53)이 있으나, 민간어원설에 불과하다. 甲先岳·甲蟬岳·甲旋岳은 ‘갑선이오름’의 표기이다.

⑰ 加沙岳·可沙岳[가사오름] > 加時岳[가시오름] > 가세오름

가시리에 있는 ‘가사오름’은 『탐라지도』에 加沙岳, 『제주삼읍도총지도』에 可沙岳, 『제주읍지』에 加時岳里, 『제주지도』에 加時岳, 주변의 묘 비석에 可沙岳, 加沙峰, 오늘날의 지도에는 ‘가세오름’으로 표기하였다. 민간에서는 ‘가세오름, 가시오름’이라고 한다. 加沙와 可沙는 ‘가사’의 음가자 표기이다. 加時は ‘가시’의 음가자 표기이다. ‘가사’는 ‘ㄱ세(가위)’의 뜻이라고 한다. 곧 오름의 형세가 ‘ㄱ세(가위)’처럼 두 갈래로 갈라졌다는 데서 붙여졌다고 한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加沙와 可沙는 ‘가위’의 제주도방언 ‘ㄱ세’의 음가자 표기라 할 수 있다. 加時(가시)는 ‘가사’의 변음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18세기 중반부터 加時岳, 加時岳里 등의 표기가 나타난다.

⑱ 兎山·兎山, 망오름 > 兎山岳

토산리에 있는 ‘토산’은 『세종실록』(지리지) 등에 兎山, 『정의군지도』 등에 兎山峰, 오늘날의 지도에 兎山岳으로 표기하였다. 일찍부터 ‘토산’으로 불렸기 때문에 兎山이 ‘토산’의 혼독자인지 음독자인지, 아니면 음가자인지 확실하지 않다. 山은 주변에서 ‘메’ 또는 ‘미’의 혼독자로 쓰이기 때문에, ‘토미’ 정도의 음상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데, 확인할 수 없다. 그러므로 兎山의 兎는 음가자, 山은 음독자로 읽어둔다. 兎山望이 있었기 때문에 ‘망오름 > 망오름’이라고도 한다. 지형이 토끼와 비슷하다

는 데서 붙여졌다는 설(진성기, 1975:98 ; 오성찬, 1992:57)은 한자 표기에 견인된 것으로 보인다. 兎山岳은 兎山에 다시 岳이 덧붙은 것에 불과하다.

①9 鹿山[사스미], 大鹿山[큰사스미], 小鹿山[작은사스미] > 大鹿山, 小鹿山

가시리에 있는 '사스미'는 『탐라순력도』에 鹿山, 大鹿山, 小鹿山, 「제주삼읍도총지도」 등에 鹿山, 「제주지도」에 大鹿山, 小鹿山, 「증보 탐라지」에 大鹿峯, 주변의 묘 비석에는 鹿山 / 大鹿山, 小鹿山 / 大鹿峰, 小鹿峰 등으로 표기하였다. '큰사스미'와 '작은사스미' 두 개의 봉우리가 있는데, 이를 아울러 일컬을 때 '사스미'라고 한다. '사스미'의 한자 표기가 鹿山인 것이다. 큰 것은 '큰사스미[大鹿山]', 작은 것은 '작은사스미[小鹿山]'라고 한다. '사스미'는 '사슴 + 미[山]'의 결합 표기로, 오름이 사슴과 같다는 데서 붙인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때의 '사슴'이 鹿의 뜻인지는 의문이다.

②0 九斗里·九斗里岳·九斗岳[구두리오름], 狗頭岳[구도리오름] > 구두리오름

가시리에 있는 '구두리오름'은 『탐라순력도』에 九斗里岳, 「제주삼읍도총지도」 등에 九斗里, 「제주삼읍전도」에 九斗岳, 「제주지도」에 狗頭岳, 「증보 탐라지」와 주변의 묘 비석에 狗頭岳 등으로 표기하였다. 九斗里는 '구두리'의 음가자 표기이다. 그 뜻은 확실하지 않다. 고유어의 음상 표기로 보인다. 九斗는 九斗里[구두리]에서 里가 생략된 표기이고, 狗頭도 '구두' 또는 '구두리'의 음가자 표기에 불과하다. 狗頭는 음이 '구두'이지만 '구도리'의 음가자 표기라 할 수 있다. 음상이 '구두리'임에도 이 음상을 달리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 진성기(1975:95)는 민간인의 한자 표기를 중시하여 오름이 개의 머리와 같다는 데서 붙여졌다고 했고, 심지어는 '개머리오름[狗頭岳]'이라는 이름까지 만들어내고 있다(오성찬, 1992:53). 현평효(1990)는 狗頭는 '곰'의 표기로, '곰'과 같은 것(이러한 해석은 김종철, 1995:3권.253-254)에서도 소개되고 있다.)으로 보았으나, '구두리' 또는 '구두'의 확인으로 새로이 해석해야 할 것이다.

②1 𪛗近岳·𪛗斤岳[불근오름], 赤岳[붉은오름] > 붉은오름

가시리에 있는 '붉은오름' 또는 '붉은오름'은 『탐라순력도』에 𪛗近岳, 「제주삼읍도총지도」에 斤岳, 「제주지도」에 赤岳, 주변의 묘 비석에 赤岳·朱岳, 赤岳峯 등으로 표기하였다. 𪛗은 '불'의 훈가자인 件(件記 불기<吏文>)과 '리'의 음가자 표기인 乙의 결합 표기로, '불'의 표기이다. 近과 斤은 '붉은'의 연철음인 '불근'의 둘째 음절 '근'의 음가자 표기이다. 𪛗近岳·𪛗斤岳은 '불근오름'의 표기이다. 赤과 朱는 '붉-(赤 불글 적 <유합-칠장사본>, 朱 불글 주 <유합-칠장사본>)'에 관형사형 어미가 붙은 '붉은 > 붉은'의 훈독자 표기이다. 赤岳은 '붉은오름 > 붉은오름'의 표기이다. 오늘날의 '붉은오름'은 '불근오름 > 밝은오름, 붉은오름 > 붉은오름'의 과정을 거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흠이

붉다는 데서 붙인 것이라고 한다.

㉒ 感恩岳[감은오름], 巨文岳·黑岳[검은오름] > 거문오름

가시리에 있는 '검은오름'은 『탐라지』에 感恩岳, 『탐라순력도』에 巨文岳, 『제주삼읍도총지도』 등에 黑岳으로 표기하였다. 민간에서는 '검은오름, 검은이오름, 감은이오름' 등으로 부른다. 感恩은 '감은'의 음가자 표기, 巨文은 '검은'의 연철된 현실음 '거문'의 음가자 표기이다. 黑은 '검은'의 혼독자 표기이다. 岳은 '오름 > 오름'의 혼독자 표기이다. 巨文岳과 黑岳은 모두 '검은오름'의 표기이다. 오름이 검게 보인다는 데서 붙여졌다고 한다. 이때의 '검은'을 神聖의 뜻인 '검·감'의 대응어로 보는 것(김종철, 1995:3권.255)은 지나친 천착으로 보인다.

㉓ 젓망오름 > 젓망오름

가시리에 있는 '젓망오름'은 주변의 묘 비석에 川望岳으로 표기하였다. 川望은 '젓망'의 음가자다. 오름의 모양이 '젓망(젓바퀴)'처럼 생겼다는 데서 유래했다(진성기, 1975:95; 오성찬, 1992:54; 김종철, 1995:3권.257)고 한다.

㉔ 如云永我里岳·乾盈岳·乾灵岳·如云灵謁[염은영아리오름], 瀛謁伊[영알이] > 영아리

가시리에 있는 '영아리' 또는 '염은영아리'는 『탐라순력도』에 如云永我里岳, 『제주삼읍도총지도』 등에 乾盈岳, 『제주삼읍전도』에 乾灵岳, 『제주지도』에 如云灵謁, 『정의지도』에 瀛謁伊, 『증보 탐라지』에 崑峨岳, 주변의 묘 비석에는 靈娥岳, 龍臥岳, 靈阿岳, 靈阿里岳, 오늘날의 지도에 '영아리'로 표기하였다. 如云은 '염은'의 불완전한 음가자 표기이다. '염다'은 '읍다'로도 나타나는데, '곡식 알이나 땅 등이 마르고 단단하다'의 뜻으로 쓰이는 제주도방언이다. 乾은 '염은'의 혼독자 표기다. 永我리는 '영아리'의 음가자 표기이고, 盈과 崑 灵謁, 瀛謁伊 등도 '영아리'의 생략 표기 또는 다른 표기임을 알 수 있다. '영아리'의 뜻은 확실하지 않으나, 고유어 음상으로 보인다. 이를 靈+alin(만주어, 山)의 구성으로 보는 사람도 있으나, 지나친 천착으로 보인다. 또 민간의 한자 표기를 중시하여 신령같은 여인이 머리를 풀고 앉아 있는 모양이라는 데서 붙인 것이라는 설(진성기, 1975:94; 오성찬, 1992:53), 신령스러운 산이라는 설 등도 있으나 모두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3) 남원읍

① 餘叱結岳·餘結岳[옛저리오름] > 如節岳

신흥리에 있는 '옛저리오름' 또는 '여찌리오름'은 『신증동국여지승람』에 餘叱結川, 『탐라지』에 餘

다. 여기서 蒲는 후대의 紫蒲의 표기로 보아 '줄피 > 잘포'의 혼독자 표기로 보인다. 紫蒲는 '줄피 > 잘포'에서 '리'이 탈락한 '즈포'의 음가자 표기이다. 索은 '줄'의 혼가자 표기, 紫는 '줄'에서 '리'이 탈락한 '즈'(紫 불글 ㄱ<백련 18))의 음가자 표기, 子와 資·自도 '즈(子 아들 ㄱ<신합, 상:10), 資 ㄱ
 슝 ㄱ<신합, 하:28), 自 스스로 ㄱ<백련 13))'의 음가자 표기, 紫蒲의 蒲는 '피 > 포'의 음가자 표기이다. 𪎏는 '피'의 변음 '베 > 배·베'의 음가자 표기이다. 資盎·子盎·自盎 등은 '줄피·잘포'의 변이음 '자배·즈베'의 음가자 표기이다. 資輩, 雌輩 등은 '즈배·즈베'를 달리 표기한 것에 불과하다. 이제까지 '줄피오름 > 즈배오름'의 '즈배·즈베'의 뜻을 '즈배→자배(즈배낭)'의 뜻(김종철, 1995:1권.83)으로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蒲岳, 紫蒲岳의 표기를 '즈배(남·낭) 괴는' 관련시킬 수 없다고 본다.

⑤ 勿永我里岳·水盆岳·水靈岳·水龍岳·水龍謝伊(물영아리오름) > 水靈山

수망리에 있는 '물영아리'는 『탐라순력도』에 勿永我里岳, 『탐라지』와 『제주삼읍도총지도』에 水盆岳, 『제주읍지』에 水靈岳, 『제주삼읍전도』에 水靈岳, 『제주지도』에 水龍謝伊, 『정의지도』에 水龍臥伊, 오늘날의 지도에 水靈山으로 표기하였다. 勿은 '물 > 물'의 음가자 표기, 水는 '물 > 물'의 혼독자 표기이다. 永我리는 '영아리'의 음가자 표기이다. 그 뜻은 확실하지 않다. 龍謝伊는 '영알이 / 영아리'의 음가자 표기, 龍臥伊는 '영아리'의 유사음 '용와리'의 음가자 표기이다. 盆과 靈, 龍은 모두 '영'의 음가자로, '영아리'의 불완전한 음가자 표기이다. 오름 정상에 화구호가 있고, 비가 많이 오면 물이 고인다. '물영아리'의 '물'은 이와 관계된 것이다. '영아리'의 뜻은 확실하지 않으나, 靈과 관계된다는 것은 민간어원적인 해석이다.

⑥ 文岳·敏岳(민오름) > 敏岳

수망리에 있는 '민오름'은 『탐라순력도』에 文岳, 『제주지도』와 오늘날의 지도에 敏岳, 『증보 탐라지』에 敏岳山으로 표기하였다. 文과 敏은 '민 > 민'의 음가자 표기, 岳은 '오름 > 오름'의 혼독자 표기이다. '오름 > 오름'은 나무가 없는 '민' 오름이라는 데서 붙여졌다. 敏岳山은 敏岳에 山이 덧붙은 것이다. 지금은 나무가 심어져 있다.

⑦ 車路岳(거린오름)·巨仁岳(거린오름) > 巨人岳

한남리에 있는 '거린오름'은 『제주삼읍전도』에 車路岳, 『제주지도』에 巨仁岳, 『정의군지도』에 車路峙, 오늘날의 지도에 巨人岳으로 표기하였다. 車路는 음이 '거로'이지만, 유사음 '거린'의 음가자 표기로 보인다. 巨仁과 巨人是 한자음이 '거인'이지만 유사음 '거린'의 음가자 표기이다. '거린'은 '거리-'[岐]에 관형사형 어미가 덧붙은 것으로, '거리-'는 길이나 산 따위가 두세 개로 갈라져 있다는 뜻이다. 실제 오름

이 세 개의 봉우리로 이루어져 있음은 물론 갈려 있다. 車路峙로 '거린동산' 정도의 한자 표기로 보인다.

⑧ 馬体岳[머체오름] > 馬体岳

한남리에 있는 '머체오름'은 「제주읍지」와 오늘날의 지도 등에 馬体岳, 주변의 묘 비석에 馬体·馬體로 표기하였다. 민간에서는 '머체' 또는 '머체오름'이라고 한다. 馬体는 한자음이 '마체'이지만, 한자음에 '머'가 없기 때문에 '머'와 유사한 馬를 차차하여 표기한 것이다. '머체'는 '머세'라고도 하는데, 돌이나 잡나무 등이 영기정기 있는 구릉지대를 뜻하는 제주도방언이다. '머체오름'을 나중에 한자 표기 馬体·馬體[머체]로 표기한 것이다. 이를 '마체오름'으로 읽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 '머체'로 이루어진 오름이라는 데서 연유한다.

⑨ 西流岳[스류니오름], 四連岳·思連岳[스려니오름] > 사려니

한남리에 있는 '스려니·스려니오름'은 「제주삼읍전도」에 西流岳, 「정의군지도」에 四連岳, 「제주지도」에 思連岳, 주변의 묘 비석에는 栖鸞, 似蓮岳, 오늘날의 지도에 '사려니'로 표기하였다. 민간에서는 주로 '스려니' 또는 '스려니오름'이라고 한다. 西流는 음이 '서류'이지만 '스려니' 또는 '스류니'의 불완전한 음가자 표기, 四連과 思連은 '스려니'의 음가자 표기이다. 似蓮과 栖鸞도 '스려니'의 불완전한 음가자 표기이다. 처음에는 '스류니' 또는 '스려니' 정도의 음상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그 뜻은 확실하지 않다.

⑩ 廣巨伊[넙거리], 廣街岳[넙거리오름] > 넙거리

한남리에 있는 '넙거리'는 「제주지도」에 廣巨伊, 주변의 묘 비석에 廣街岳으로 표기하였다. 廣은 '넙-'의 제주도방언 '넙-'의 훈가자 표기, 巨伊는 음이 '거이'이지만 '거리'의 음가자 표기, 街는 '거리'(街 거리 개<훈몽-초, 중:5>)의 훈가자 표기이다. 오름이 두 개의 봉우리로 갈려 있는데, 오름이 넓죽스름하게 갈려 있다는 데서 '넙거리'라고 한 것으로 보인다.

⑪ 古里岳·古里峯[고리오름] > 高伊岳

한남리에 있는 '고리오름'은 「탐라지도」에 古里岳, 「제주지도」에 古里峯, 「증보 탐라지」와 오늘날의 지도에 高伊岳, 주변의 묘 비석에 高伊岳, 古利岳, 古狸岳 등으로 표기하였다. 민간에서는 주로 '고리오름'으로 불리고 있다. 古里는 '고리'의 음가자 표기이다. 高伊는 음이 '고이'이지만 '고리'의 음가자 표기이다. '고리'의 뜻은 확실하지 않다. 高伊를 한자음 그대로 '고이'로 읽고 '고이오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는 잘못이다. 김종철(1995:1권.144)은 '고이오름'이 본디의 이름이고, '고리오름'은 와전으로 간주하였다. 그리고 '고이'를 '고양이'를 뜻하는 방언으로 보고, '고양이'와 닮았다는

데서 유래한다고 하였으나,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⑫ 成吉峯[성길리오름] > 生氣岳

신례리에 있는 '성길리오름'은 「제주지도」에 成吉峯, 「증보 탐라지」에 生吉岳, 오늘날의 지도에는 生氣岳으로 표기하였다. 成吉은 '성길이'의 음가자 표기, 生吉은 '생길이'의 음가자 표기, 生氣는 '생길이'의 불완전한 음가자 표기로 보인다. '성길이'가 '생길이'보다 앞선 음상으로 보인다. 그 뜻은 확실하지 않다.

⑬ 걸세오름 > 傑瑞岳

하례리에 있는 '걸세오름' 또는 '걸세오름'은 「제주지도」에 小永川峯, 「증보 탐라지」와 오늘날의 지도에 傑瑞岳으로 표기하였다. '동걸세'와 '서걸세' 두 봉우리가 있다. 민간에서는 '걸시오름, 걸세오름'이라고 한다. 傑瑞는 음이 '걸서'이지만 '걸쇠'의 제주도방언 '걸췌'의 음가자 표기로 보인다. '걸시' 또는 '걸세'는 '걸쇠' [鎖, 釘]의 제주도방언이다. 小永川峯은 '족은영세밧내'의 한자 표기로, 지금의 靈川岳보다 작은 오름이라는 데서 붙여진 것이다. 小는 '작은'의 제주도방언 '족은'의 혼독자 표기, 永은 靈의 음가자 표기, 川은 '내'의 혼독자 표기이다. 이를 '족은영천봉'으로 읽고, '영천봉'은 靈泉岳 > 靈川峰의 음가자 표기로 볼 수도 있다. 곧 산 모양이 문을 잠그는 걸세와 같이 ㄷ자 모양으로 생겼다는 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실제 오름 형태가 동북쪽의 큰봉우리와 남서쪽의 작은 봉우리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두 봉우리를 기반으로 하여 북서쪽은 낮고 동남쪽은 높게 형성되어 있다. 한편 '걸세'의 '걸' (槩 걸 거 <천자-광 32>)은 '개울·도랑'의 뜻이고, '세'는 '새'의 변음으로, '새'는 '사이'의 준말로 보는 경우도 있다. 곧 두 개의 개울(동쪽의 '췌기내-지금의 하례천', 서쪽의 '췌돈내-지금의 효돈천') 사이에 있는 오름이라는 것이다.

⑭ 水頂岳[?], 水岳[물오름] > 물오름

수망리에 있는 '물오름'은 「탐라지」와 「제주지도」에 水頂岳, 「제주삼읍전도」 등에 水岳, 「제주지도」 등에 水峯, 오늘날의 지도에 '물오름'으로 표기하였다. 水는 '물' > '물'의 혼독자 표기, 岳과 峰은 '오름' > '오름'의 혼독자 표기이다. 水頂岳은 '물뎡바기오름'(頂 뎡바기 頂 頭上顛 <훈몽-초, 상:13>)의 표기인지 확실하지 않다. 水岳·水峰은 모두 '물오름' > '물오름'의 표기이다. '물오름'이라고는 하지만 물이 고이는 화구호도 없고 물도 없다. 일종의 '물이 없는 오름(無水岳)인 셈이다.

⑮ 水岳·水峰[물오름] > 東水岳

한남리에 있는 '물오름·동물오름·물신오름'은 「신증동국여지승람」과 「탐라지」 등에 水岳, 「제주

지도」 등에 水峰, 오늘날의 지도에 東水岳으로 표기하였다. 민간에서는 '동수악(東水岳)' (한글학회, 1984:363 ; 오성찬, 1992:21) 또는 水岳[물오름]으로 부른다. 주변의 묘 비석에는 東水岳, 水岳, 有水岳 등으로 표기하였다. 水는 '물 > 물'의 혼독자 표기, 東은 '동쪽' 또는 '동쪽에 있는'의 뜻을 가진 음독자 표기, 有는 '있는'의 제주도방언 '신'의 혼독자 표기, 岳과 峰은 '오름 > 오름'의 혼독자 표기이다. 水岳·水峰은 '물오름 > 물오름'의 표기이다. 東水岳은 '동물오름[동쪽에 있는 '물오름'의 뜻]', 有水岳은 '물신오름['물'이 있는 '오름'의 뜻]의 표기이다. 이 오름 남쪽에 있는 水岳 또는 無水岳에 대비되는 오름이다.

⑩ 無水岳[물어신오름] > 水岳[물오름]

신례리에 있는 '물오름·물어신오름'은 「제주삼읍전도」 등에 無水岳, 「증보 탐라지」와 오늘날의 지도에 水岳으로 표기되어 있다. 無는 '없는'의 제주도방언 '어신'의 표기, 水는 '물 > 물'의 혼독자 표기, 岳은 '오름 > 오름'의 표기이다. 水岳은 '물오름 > 물오름'의 표기이고, 無水岳은 '물어신오름(물이 없는 오름이라는 뜻.)의 표기이다. 바로 북동쪽에 있는 有水岳[물신오름]과 대비되는 오름이다.

⑪ 論古岳[논고오름], 臥櫃岳[눈궤오름] > 論古岳

신례리에 있는 '눈궤오름'은 「탐라지도」와 오늘날의 지도 등에 論古岳, 「제주지도」에 臥櫃岳, 「정의군지도」에 論古里로 표기하였다. 論은 '논'의 음가자 표기, 臥는 '누운'의 제주도방언 '눈'의 혼독자 표기, 古里는 '괴'의 유사음 '궤'의 음가자 표기, 里는 '궤'의 말모음 'ㅣ'의 표기, 古는 '궤'의 유사음 '고'의 음가자 표기이다. 櫃는 '궤'의 음가자 표기이다. '궤'는 땅속으로 들어간 바위굴 따위를 뜻하는 제주도방언이다. 岳은 '오름 > 오름'의 표기이다. 論古岳은 '논궤오름', 論古里는 '논궤', 臥櫃岳은 '눈궤오름'의 표기이다. '눈궤오름' 또는 '눈궤오름'은 누워있는 형태의 '궤[바위굴]'와 같다는 데서 붙여진 것이다.

⑫ 牟岳[보리오름] > 保狸岳

신례리에 있는 '보리오름'은 「제주지도」에 牟岳, 주변의 묘 비석과 오늘날의 지도 등에 保狸岳으로 표기하였다. 牟는 '보리' (蘇 보리 稈 詩來牟 麩 보리 모 俗呼大麥<훈몽-중, 상:61>)의 훈가자 표기, 保狸는 '보리'의 음가자 표기, 岳은 '오름'의 혼독자 표기이다. '보리'의 뜻은 확실하지 않다. 牟岳·保狸岳은 '보리오름'의 표기이다.

⑬ 利乘岳[이승이오름]·利生岳[이생이오름] > 狸升岳

신례리에 있는 '이승이오름'은 「제주삼읍전도」 등에 利乘岳, 「제주지도」에 利生岳, 오늘날의 지도

에 狸升岳으로 표기하였다. 민간에서는 '이승이오름, 이생이오름' 등으로 불린다. 利乘과 狸升은 '이승이'의 음가자 표기, 利生은 '이승이'의 변음 '이생이'의 음가자 표기이다. '이승이'가 나중에 '이생이'로 변한 것으로 보이며, '이승이'의 뜻은 확실하지 않다. 狸升岳의 한자 표기에 견인되어 오름이 '삼'(삼괘이)과 닮았다는 데서 붙여졌다고 하는 사람(진성기, 1975:103 ; 김종철, 1995:권1.134)도 있으나,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㉑ 城板岳·成板岳(성널오름) > 성널오름

신례리에 있는 '성널오름'은 『신증동국여지승람』 등에 城板岳, 『탐라순력도』 등에 成板岳, 『제주지도』 등에 城板岳, 오늘날의 지도에는 '성널오름, 城板岳'으로 표기하였다. 城은 '성' > '성'의 음독자 표기, 成은 '성'의 음가자 표기, 板은 '널'의 훈독자 표기이다. 산의 지세가 성에 널을 세워놓은 것과 같다는 데서 붙인 것이라고 한다(石壁如城板 故名『신증동국여지승람』).

㉒ 舍羅岳·紗羅峰(사라오름) > 사라오름

하례리에 있는 '사라오름'은 『탐라순력도』 등에 舍羅岳, 『제주지도』에 紗羅峰, 오늘날의 지도에는 '사라오름'으로 표기하였다. 舍羅와 紗羅는 '사라'의 음가자 표기이다. '사라'의 뜻은 확실하지 않다. 이은상(1937:144)은 '사라'는 神域의 뜻인 '술'의 표기라 하였으나, 좀더 연구해봐야 할 어휘이다. '사라오름' 정상에는 산정호수가 있다.

㉓ 狐兒村 > 狐村 > 禮村峰 > 禮村望

하례리에 있는 '망오름'은 『세종실록』(지리지) 등에 狐兒村, 『탐라지』 등에 狐村, 『제주지도』에 禮村峰, 『증보 탐라지』에 狐村峰, 오늘날의 지도에 禮村望으로 표기하였다. 狐兒村은 '여수마을'의 한자 표기로 보이는데, 민간에서 그러한 음상을 확인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일단 한자음 '호야촌'으로 읽어 두기로 한다. 狐兒村은 兒가 생략 표기되어 狐村이라 하였다. 19세기 말에 狐村은 禮村으로 바꾸고, 여기에 峰을 덧붙여 禮村峰이라 하였다. 옛날에 봉수가 있었기 때문에 狐兒村烽燧라 했고, 나중에는 狐村望이라 하였다. 이 때문에 '망오름'으로 불리기도 했다. 狐村望은 다시 禮村望이라 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마을 이름의 변화에 따라 오름 이름도 변화했다.

(4) 안덕면

① 石峰·石岳·玆岳(돌오름) > 돌오름

상천리에 있는 '돌오름'은 『제주지도』에 玆峰, 『증보 탐라지』에 石岳, 주변의 묘 비석에 石岳, 玆岳,

오늘날의 지도에 '돌오름'으로 표기하였다. 石岳·甄岳·甄峰은 모두 '돌오름'의 표기이다. 石은 '돌'의 혼독자 표기, 甄은 '돌'의 음독자이다. 岳은 '오름'의 혼독자 표기, 峰은 岳을 달리 표기한 것이다. 돌이 많다고 하여 '돌오름'이라 했다고도 하고, 산등성이가 빙 둘러져 있어 '돌오름' [回-]이라고도 했다고 한다. 옛 지도나 비석 등에도 石과 관련된 것으로 표기되어 있다.

② 二敦岳·伊敦岳[이돈이오름] > 이돈이오름

광평리에 있는 '이돈이오름'은 『원대정군지』에 伊敦岳, 주변의 묘 비석에는 二敦岳, 伊敦岳 등으로 표기하였다. 민간에서는 단순히 '이돈이'라고도 한다. 伊는 '이돈이'의 불완전한 음가자 표기로 보인다. 二敦과 伊敦은 '이돈이'의 음가자 표기이다. 二와 伊는 '이'의 음가자 표기, 敦은 '돈'의 음가자 표기, 명사형성접사 '-이'는 표기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돈이'의 뜻은 아직 미상이다.

③ 靈謁岳[영아리오름] > 영아리오름

상천리에 있는 '영아리오름'은 『제주지도』에 靈謁岳, 『증보 탐라지』에 靈阿伊岳, 『원대정군지』에 靈阿里岳, 주변의 묘 비석에 龍臥岳, 龍口伊岳, 龍卵岳, 龍臥伊岳, 오늘날의 지도에 '영아리오름'으로 표기하였다. 민간에서는 '영아리오름, 용아리오름'이라 하고, 용이 누워 있는 지세라고 설명한다. 이러한 것은 묘 비석의 표기에도 반영된다. 靈은 靈의 속자로, '영'의 음가자 표기, 阿伊는 '아리'의 음가자 표기, 謁은 '알' 또는 '알'에 '-이'가 붙은 '아리'의 음가자 표기, 岳은 '오름'의 혼독자 표기이다. '영아리' 또는 '용아리'의 뜻은 확실하지 않다. 김인호 씨는 '영'은 靈山, 신령스러운 산의 뜻이고, '아리'는 만주어 alin(산, 산악)에 대응되는 것(『월간 문화 제주』, 92년 3월호)이라고 하였으나, 한자어 靈과 만주어 alin이 결합된 것 등을 합리적으로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④ 王伊山[왕이메], 旺耳岳[왕이오름] > 왕이메

광평리에 있는 '왕이메·왕이미'는 『제주삼읍도총지도』 등에 王伊山, 『제주지도』에 旺耳岳, 『원대정군지』에 王伊岳, 주변의 묘 비석에는 '王伊岳, 王臨岳·王林岳, 王伊山, 王岳, 小王岳, 왕이메, 왕이뵈 / 臥牛岳, 臥伊岳', 오늘날의 지도에는 '왕이메'로 표기하였다. 王伊山은 '왕이메·왕이미'의 표기이다. 王伊岳과 旺耳岳은 '왕이메'의 '메' [山]를 '오름' [岳]으로 바꾼 것에 불과하다. 王은 '왕'의 혼독자 표기, 伊와 耳는 음이 '이'이지만, 관형격조사 '의'의 음가자 표기로 보인다. 山은 '뵈'의 제주도방언 '메' 또는 '미'의 혼독자 표기이다. 王臨岳·王林岳, 王岳, 小王岳, 왕이메, 왕이뵈 등도 모두 '왕이메'의 다른 표기에 불과하다. 한편 사람에 따라 '와이오름, 와우오름'이라고도 하는데, 이의 반영이 臥牛岳, 臥伊岳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표기를 중시하여 산세가 소가 누워있는 형상이라는 사람도 있다. 전설에 의하면 탐라국 삼신왕이 이곳에 들어와 사흘동안 기도했다고 한다. 실제 산세가 움푹 팬 굴

부리를 중심으로 돌레에 여러 개의, 크고 작은 봉우리(그래서 王伊岳, 小王岳, 王林岳 西 卵峰 등이 표기가 보인다.)가 있는데, 마치 지세가 왕관과 같다.

⑤ 古小草岳·高秀峙岳[궤수치오름], 巨梳齒岳[거소치오름] > 궤수치오름

광평리에 있는 '궤수치오름'은 주변의 묘 비석에는 古小草岳, 高秀峙岳, 巨梳齒岳으로 표기하였다. 古와 高는 음이 '고', 巨는 음이 '거'이지만, 민간에서 '궤수치·궤소치'라고 하므로, 유사음 '궤'의 음가자 표기로 보인다. 小는 '수'의 유사음 '소'의 음가자 표기, 秀는 '수'의 음가자 표기, 草는 '치'의 유사음 '초'의 음가자 표기, 峙와 齒는 '치'의 음가자 표기, 岳은 '오름 > 오름'의 혼독자 표기이다. '궤'는 바위굴을 뜻하는 제주도방언이고, '수치'는 확실하지 않다.

⑥ 冬柏岳[돛박이오름·돛박이오름] > 돛박이오름

광평리에 있는 '돛박이오름·돛박이오름'은 「제주지도」에 冬柏岳, 주변의 묘 비석에는 '冬柏岳, 童泊岳, 同博伊岳, 桐白伊岳, 돛박이' 등으로 표기하였다. 冬柏은 음이 '동백'이지만, 제주도방언 '돛박·돛박'의 음독자 표기이다. 童泊은 '돛박·돛박'의 음가자 표기, 同博伊는 '돛박이·돛박이'의 음가자 표기, 桐白은 음이 '동백'이지만, 제주도방언 '돛박·돛박'의 음가자 표기이다. '돛박이·돛박이'는 '돛박·돛박 + 이(명사파생접사)'의 구성이다. 오름의 형태가 '동백'과 같다는 데서 붙인 이름이라고 한다.

⑦ 小大夫岳[작은대부오름], 玆近大妣[작은대비], 小近大妣[작은대비오름] > 朝根大妣岳

광평리에 있는 '작은대비오름'은 「제주지도」에 小大夫岳, 「증보 탐라지」에 朝近大妣岳, 주변의 묘 비석에 '玆近大妣, 小近大妣岳, 적은대비', 오늘날의 지도에는 朝根大妣岳으로 표기하였다. 小는 '작은'의 제주도방언 '족은'의 혼독자 표기이다. 小近은 '족은'의 혼독자 小에 연철된 둘째 음절 '근'의 음가자 近이 결합한 표기로, 역시 '족은'의 표기이다. 朝近은 '족은'의 연철된 음 '조근'의 음가자 표기이다. 大夫는 음이 '대부'이지만, 유사음 '대비'의 음가자 표기이고, 大妣는 '대비'의 음가자 표기이다. 오름이 작다는 데서 '족은' [小]이라 했고, '대비'는 명사로 보이나 그 뜻은 확실하지 않다.

⑧ 美岳·戊岳·無岳[미오름·뮌오름] > 戊岳

동광리에 있는 '미오름 > 뮌오름'은 「제주삼읍전도」 등에 美岳, 「증보 탐라지」에 戊岳, 주변의 묘 비석에 戊岳, 無岳, 오늘날의 지도에 戊岳으로 표기하였다. 美岳은 '미오름 > 미오름'의 음가자 표기 또는 '뮌오름'의 불완전한 음가자 표기이다. 戊岳과 無岳도 '미오름' 또는 '뮌오름'의 음가자 표기이다. 옛날에 나무가 없는 '뮌' 오름이라는 데서 이런 이름을 붙인 것이다. 혹자는 산이 형태가 누워있는 개

와 같은 형태라는 데서 '개오름', 한자로 戌岳이라 하기도 하나, 옛 지도에 美岳 등으로 표기된 것으로 보아 '원오름' 이 더 오래 된 이름으로 보인다.

⑨ 竝岳[굴온오름], 大並山[큰굴온오름], 小並山[작은굴온오름] > 並岳

상창리에 있는 '굴온오름·굴른오름'은 『신증동국여지승람』 등에 竝岳, 『제주지도』에 大並山, 小並山, 『대정군지도』에 並岳, 주변의 묘 비석에는 '같은오름, 竝岳' 등으로 표기하였다. '큰굴른오름[大並岳]' 과 '작은굴른오름[小並岳]' 의 두 봉우리가 있다. 竝 / 並은 '꺠-/굴온-'³⁵⁾의 혼독자 표기이다. 岳은 '오름 > 오름'의 표기이다. 山은 '피'의 제주도방언 '메·미'의 혼독자 표기이지만, 岳의 다른 표기로도 쓰인다. 大는 '큰'의 혼독자, 小는 '작은'의 제주도방언 '족은'의 혼독자 표기이다. 竝岳 / 並岳은 '굴온오름 > 굴른오름·굴른오름'의 표기이다. 大並山은 '큰굴온메'로 해독되지만, '큰굴온오름'의 표기이고, 小並山도 '작은굴온메'로 해독되지만, '작은굴온오름'의 표기이다. 크고 작은, 두 개의 오름이 쌍둥이처럼 나란히 있다는 데서 이런 이름을 붙인 것이다.

⑩ 甘山·紺山·柑山[감산] > 감산

감산리에 있는 '감산'은 『세종실록』에 甘山, 『탐라지』에 紺山, 『제주읍지』에 柑山, 『원대정군지』에 紺山, 神山, 주변의 묘 비석에 山岳, 신산, 神峰 등으로 표기하였다. 甘과 紺, 柑은 '감'의 음가자, 山은 '산'의 음독자 표기이다. '감'은 神으로도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감'은 神의 뜻을 가진 중세국어 '고마'의 이전형이라 할 수 있다. 민간에서는 神山에 岳이나 峰을 덧붙여 쓰기도 하고, '신산오름'이라고도 한다.

⑪ 仇山·屈山·堀山[굴메], 蠟山[굴메] > 군산

창천리에 있는 '굴메'는 『세종실록』(지리지)에 仇山, 『신증동국여지승람』에 屈山,³⁶⁾ 『신증동국여지승람』에 堀山烽燧, 『탐라지』에 蠟山, 『탐라순력도』 등을 비롯한 여러 고지도에 軍山, 『제주삼현도』 등에 軍山岳, 『조선강역총도』에 屈山, 『남환박물』에 蠟岳, 『대동여지도』에 蠟山, 『해동제국지도』 등에 豪山 등으로 표기하였다. 仇는 '굴'에서 '리'가 탈락한 '구'의 음가자 표기, 屈·堀은 '굴'의 음가자 표기, 蠟는 '굴'의 혼가자 표기, 豪는 蠟의 잘못된 표기, 山은 '피'의 제주도방언 '메'의 혼독자 표기, 岳은 '오름'의 혼독자 표기이다.³⁷⁾ 仇山·屈山·堀山·蠟山 등은 모두 '굴메'의 표기이다. '굴메'의 '굴'

35) 王羲之之後엔 百代옛 法을 뒤 굴올고(王後誰竝百代則)〈두해-초, 16:21〉, 蠟 굴올기 산 雙生子〈훈몽-초, 상:17〉

竝岳는 굴바 쓸 씨라〈세훈민 3〉

36) 임제의 『南溟小乘』에도 "而別過屈山 有九十九洞"이라는 기록이 있다.

37) 仇 원슈 구〈훈몽-초, 하:11〉, 屈 구필 굴〈신합-나손본〉, 堀 굴 굴〈동아 한한대사전〉, 蠟 石花 蠟 蠟黃 굴 蠟 蠟房 굴 겁질

은 '굴(窟) 또는 '굴(蟻·蟻)의 뜻이 아니라 '굴(谷·洞)³⁸⁾의 변음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99골이 있다.”는 기록이 그 증거이다. 실제로 동쪽에 있는 '굴메'와 서쪽에 있는 '돌라미' 사이에 골짜기를 이루고, '굴메' 서북쪽으로 유명한 '안덕계곡'이 있는데, '굴'은 이들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 지명에서는 '굴(谷)과 '굴(谷)을 혼용해서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다.³⁹⁾ 蟻岳은 蟻山岳에서 山이 탈락된 표기이다. 지금도 현지인들은 '굴메오름'이라고 하는데, 이 또한 원래 이름이 '굴메오름'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軍山은 '군메'의 한자 표기이다. 이는 '굴메(오름)의 '리'과 '미'이 음운동화에 의한 순음화로 '군미·군메'가 된 것이다. 현지인들이 '군메오름'이라고 하는 것도 '굴메오름'이 변한 것이다. 軍山岳은 軍山에 岳이 덧붙은 것이다. 이 산을 '달른메'(김종철, 1994: 권2.87)로 보는 경우가 있으나, 잘못된 해석으로 보인다.

⑫ 月羅岳·月乃岳(돌라미오름) > 月羅峰

대평리에 있는 '돌라미·돌라미'는 「탐라지도」에 月羅岳, 「제주삼읍도총지도」 등에 月乃岳, 「제주지도」에 月羅山, 오늘날의 지도에는 月羅峰으로 표기하였다. 月은 '달'(달 爲月<훈민-원, 해례:26))의 훈가자 표기, 羅는 '라'의 음가자 표기, 乃是 '라'의 '니' 모음 역행동화에 의한 음 '래'의 유사음 '내'의 음가자 표기, 山은 '미'의 제주도방언 '미'의 혼독자 표기, 岳은 '오름'의 혼독자 표기이다. '돌라미·돌라미'의 '돌라·돌래'를 열매인 '다래(다래)'로 보는 설도 있고, '높다'는 뜻의 고구려어 '달[達]과 같은 뜻이라는 설도 있으나, 모두 민간어원설로 보인다.

⑬ 논오름

감산리에 있는 '논오름'은 「원대정군지」에 畚岳, 주변의 묘 비석에는 論岳, 畚岳, 犛隱岳, 魯岳 등으로 표기하였다. 論은 '논'의 음가자 표기, 畚은 '논'의 훈가자 표기, 犛隱은 '논'의 음가자 표기, 魯는 '논'의 '니' 탈락한 '노'의 음가자 표기, 岳은 '오름'의 혼독자 표기이다. '논'의 뜻은 확실하지 않다. 옛날 논이 있었다는 데서 '논오름', 이곳에서 활을 쏘며 싸움했다는 데서 '노은오름→논오름'(진성기, 1975:134)이라 했다는 말은 민간어원설 또는 한자 표기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물보, 개충〉, 蟻蛤 굴 牡蛤 海上人說 牡蟻不能自生 每夏月有黃蝶群飛水上遺精 落水着物成蟻 故有牡之稱 古貴, 蟻全(물명 2:7), 蟻 爲山(훈민-원, 해례:25)

38) 谷 골 굴 又作 峽 峽 岳(훈몽-초, 상:2), 洞 골 동(백련 21), 洞 골 동(유합-나손본)

39) 성산읍 수산리의 '소생이굴'이라는 지명은 孝生伊谷·所松伊窟·孝生窟·孝生伊窟 등의 한자 표기로 나타나는 것이 그런 예이다.

⑭ 唐岳·堂岳[당오름] > 당오름

동광리에 있는 '당오름'은 「제주삼읍도총지도」 등에 唐岳, 「제주지도」에 堂岳, 주변의 묘 비석에 唐岳·堂岳으로 표기하였다. 唐岳과 堂岳은 '당오름'의 표기이다. 唐과 堂은 '당'의 음가자 표기이다. 岳은 '오름'의 혼독자 표기이다. 옛날부터 당(堂)이 있어서 무당은 물론 일반인들이 오르내리며 축원했다고 해서 '당오름' [堂岳]이라고 했다고 하나, 唐岳의 표기는 그것과 거리가 멀다. 실제 堂이 있었던 자리를 찾을 길도 없고, 다니는 사람도 없다. 唐岳을 나중에 堂岳으로 잘못 표기하면서 당(堂)과 관련 시킨 것이 아닌가 한다. 唐岳의 唐이 뜻하는 바는 미상이다.

⑮ 院水岳[원물오름] > 院水岳

동광리에 있는 '원물오름'은 「탐라지도」 등에 院水岳, 「제주지도」에 元帥岳, 주변의 묘 비석에 院水岳·阮水岳·元水岳, 오늘날의 지도에 '원수악(院水岳)'으로 표기하였다. 민간에서 '원물오름'이라 한다. 院水는 '원물'의 표기이다. 院은 '원(院 집 원<백련 11>)'의 음독자 표기, 水는 '물 > 물'의 혼독자 표기이다. 과거에 대정에서 제주로 가는 중간에 쉬어갈 수 있는 院이 있었는데, 이 주변에 그 院이 있었고, 院에서 이용하는 물이 이 오름에 있었다는 데서 이런 이름이 붙여졌다. 院帥는 院水[원물]가 한자음으로 전해지다가, 다른 한자인 院帥로 쓴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帥는 水를 달리 쓴 음가자 표기에 불과하다.

⑯ 回飛岳[도너리오름] > 돌오름

동광리에 있는 '도너리오름'은 「탐라지도」 등에 回飛岳, 「원대정군지」와 주변의 묘 비석에 道乙岳, 오늘날의 지도에는 '돌오름'으로 표기하였다. 민간에서는 '도너리오름' 또는 '도너리오름' 등으로 많이 알려졌다. 回飛는 '도너리'의 표기이다. 回는 '도로혀' (回 도로혈 회<신합, 하:44>)의 '도'를 표기한 혼독자, 飛는 '놀' (飛 놀 비<백련 7>)이 혼독자 표기이다. '도놀이'는 '도-'와 '놀-', 그리고 명사형성접사 '-이'가 결합한 것이고, '도놀이'가 연철되어 '도너리'가 되고 이것이 민간에서 '도너리'로 변한 것이다. '도너리'가 산의 지세가 돌아서 나는 모양이라는 데서 붙여졌는지 확실하지 않다. 정상 동북쪽에 있는 분화구를 '도리암메(동근 분화구)'라고 하는데, 이때의 '도리'는 圓을 뜻하는 중세국어이자 제주도방언이고, '암메'는 '굼부리'를 뜻하는 제주도방언이다. 이 역시 '도너리'의 '도'와 관계가 있는 것이다. 진성기(1975:132)는 '돛내린오름[道乙岳]', 박용후(1992:53)는 '돛내린오름[道乙岳]'이라 표기하고, 멧돼지가 내려온 오름이라고 설명했으나, 옛 지도에 나타나는 回飛岳과는 거리가 멀어 민간어원설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㉔ 南送岳·南松岳[남송이오름] > 南松岳[남송이오름]

서광리에 있는 '남송이오름'은 「제주삼읍도총지도」 등에 南送岳, 「제주지도」와 오늘날의 지도에 南松岳, 주변의 묘 비석에 南松岳, 南崧岳, 南星岳 등으로 표기하였다. 南送 / 南松은 모두 '남송 / 남송이'의 음가자 표기이다. 南崧과 南星은 '남송 / 남송이'의 유사음 '남송 / 남송이, 남성 / 남성이'의 음가자 표기이다. '남송 / 남송이, 남송 / 남송이, 남성/남성이'는 그 음상으로 볼 때 두 가지를 고려할 수 있다. 하나는 '남송이'('호랑가시나무'의 제주도방언)이고, 다른 하나는 '남생이'이다. '남생이'는 '남상(남상 爲龜<훈민-원, 해례:26>) > 남성(龜甲 남성의 등 겹질<탕액 2:6>) > 남상이 > 남성이(龜鑽卜之畜 남성이<물명 2:5>) > 남심이 > 남생이'의 변화를 거친다. 한편 '암소로기' 또는 '소로기출리'라는 말도 있으므로, '남소로기'의 표기로 볼 수도 있다. '남'은 '나무'의 제주도방언이고, '소로기'는 '소리개'(준말은 '술개')의 제주도방언이다. 그런데 '남'과 '소로기'의 결합인 '남소로기'는 확인할 수 없다. 필자는 '남생이'의 음가자 표기로 본다. 실제 오름의 형태가 얼굴을 내민 남생이와 같은 모습이다. 이런 모습을 하고 있어서 붙인 이름으로 보인다.

㉕ Y岳[거린오름], 傑人岳·巨麟岳·巨人岳[거린오름], 북오름 > 거린오름

동광리에 있는 '거린오름'은 「탐라순력도」 등에 Y岳, 「제주지도」에 巨仁岳, 「증보 탐라지」에 了岳, 주변의 묘 비석에 傑人岳, 巨麟岳, 巨人岳, 오늘날의 지도에는 '거린오름'으로 표기하였다. Y는 '거리-(岐) 거릴 기<훈몽-초, 상:3>, 杖 거릴 차 Y枝<훈몽-초, 하:2>')의 혼독자 표기, 傑人是 한자음이 '걸인'이지만 '거린'의 음가자 표기, 巨麟은 '거린'의 음가자 표기, 巨仁和 巨人是 한자음이 '거인'이지만 '거린'의 음가자 표기, 岳은 '오름 > 오름'의 혼독자 표기이다. Y岳은 '거린오름', 傑人岳·巨麟岳·巨仁岳·巨人岳 등도 모두 '거린오름'의 음가자 표기이다. 곧 오름이 연달아 있는데, 가운데가 양쪽으로 갈리어 있다는 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남북으로 두 개의 봉우리가 갈려 있는데, 민간에서는 남쪽의 오름을 '거린오름', 북쪽의 오름을 '북오름'이라 하여 따로 부르는 경우도 있다. 한편 Y岳을 了岳(「증보 탐라지」)으로 잘못 표기하는 경우도 있다.

㉖ 柿木岳·甘南岳[감남오름] > 감남오름

동광리에 있는 '감남오름'은 「탐라지」에 柿木岳, 「탐라지도」 등에 甘南岳, 「대정군지도」에 柿木岳, 주변의 묘 비석에는 柑木峰·監南峰·柿木岳 등으로 표기하였다. 柿는 '감(柿 감 시 俗呼乾峇口柿 餅正作 柿 <훈몽-초, 상:6>)'의 혼독자 표기, 木은 '남 / 나모 > 나무'의 제주도방언 '남 / 냥'의 혼독자 표기, 甘南은 '감남'의 음가자 표기, 岳은 '오름 > 오름'의 혼독자 표기이다. 柿木岳과 甘南岳은 모두 '감남오름'의 표기이다. '감나무'가 있는 오름이라는 데서 붙여졌다.

⑳ 仍邑居[넙케오름], 廣居岳·廣巨岳[넙케오름] > 廣蟹岳

서광리에 있는 '넙케오름'은 『탐라순력도』에 仍邑居, 『탐라지도』 등에 廣居岳, 『제주삼읍전도』에 廣巨岳, 『대정군지도』에 廣巨里, 『증보 탐라지』와 주변의 묘 비석, 오늘날의 지도에 廣蟹岳 등으로 표기하였다. 仍邑은 '넙'의 음가자 표기이다. 仍의 중세 한국 한자음은 '잉'이지만, 중국 상고 한자음은 ńiang이고, 중국 중고 한자음은 ńiang이다. 仍이 지명의 차자 표기로 쓰일 때는 '너·느·내·니' 등 蟹母 'ń'을 가진 음가자로 쓰인다. 邑은 '넙'의 말음 'ㅍ'의 표기이다. 廣은 '넙(廣 너블 광<천자-광 20>)'의 혼독자 표기이다. 居와 巨, 그리고 巨里는 모두 '케'의 음가자 표기이다. 巨里는 음가자 巨[거]와 음가자 里[리]의 말모음 'ㄹ'이 결합하여 '케'를 표기한 것이다. '케'는 나무나 잡풀들이 있는 일정한 지대를 뜻하는 제주도방언이다. 蟹는 '게'의 훈가자 표기로, 居·巨[케]의 후대음 표기이다. 蟹를 혼독자로 해독해서는 안된다. 오늘날의 지도에도 廣蟹岳으로 표기되었는데, 원래 이름인 '넙케오름'을 되찾아 주어야 한다. 乃邑居·廣居·廣巨·廣巨里 등은 모두 '넙케'의 표기이다. 곧 '넙은 케'라는 뜻이다. 여기에 '오름'의 뜻을 가진 岳이 덧붙어서 '넙케오름'이 된 것이다. 居·巨·巨里 등은 모두 '케'를 나타내는 한자가 없어서 평음을 가진 이들 한자를 차용한 것인데, 이것이 19세기 경에 廣蟹岳으로 한역되면서, '넙케오름'이라 하고 '게[蟹]'와 관련짓는 잘못된 해독이 생겨난 것이다. 오름 모양이 '게'와 같다는 데서 '넙케오름·넙케오름(한글학회, 1984:39; 김종철, 1995:2권.101; 남제주군, 1996:558)'이라고 하는 것은 민간어원설에 불과하다. 달리 '광청이오름·광청이오름'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서광리'의 옛 이름인 '광청이·광청이'에 있다는 데서 붙인 것이다.

㉑ 山房山[산방산] > 산방산

사계리에 있는 '산방산'은 『신증동국여지승람』에 山房山, 『탐라지』 등에 山房으로 표기하였다. 山房山은 '산방산'의 음독자 결합 표기이다. 山房은 한자의 뜻 그대로 '산에 있는 방'의 뜻으로, 山房窟寺의 뜻이다. 그러므로 山房山은 '山房'이라는 절이 있는 산이라는 뜻이다.

㉒ 把古山[바고니메], 篔山[바고니메], 破軍山[바구니메] > 篔山

사계리에 있는 '바고니메' 또는 '바곰지오름·바굼지오름'은 『신증동국여지승람』에 把古山, 『탐라지』에 篔山, 『탐라순력도』에 破軍山, 破軍山岳, 『조선강역총도』 등에 把古岳, 『팔도지도』(『호남방역도』) 등에 文篔山, 『해동여지도』 등에 文篔山, 『제주읍지』에 篔山, 『제주삼읍전도』와 오늘날의 지도 등에 篔山 등으로 표기하였다. 민간에서는 주로 '바곰지오름' 또는 '바굼지오름'이라고 부른다. 把古는 파고→바고(니)·바곤이'의 음가자 표기, 破軍은 파군→바군·바군이'의 음가자 표기, 篔는 '대바구니'를 뜻하는 '바고니·바곤이'의 혼독자 표기, 篔는 '삿자리·대자리'를 뜻하는 혼독자 표기, 山은 '뫼'의 제주도방언 '메·미'의 혼독자 표기, 文은 '뫼 > 민 [禿]의 음가자 표기이다.³⁰⁾ 把古山·篔山·

嶺山 등은 모두 '바고미' > '바군미' 또는 '바고니메' > '바구니메' 정도의 표기이고, 破軍山은 '바군미' 또는 '바군이메' > '바구니메' 정도의 표기이다. 破軍山岳은 破軍山[바구니메]에 岳[오름]이 덧붙은 것이다. 곧 지형이 '대바구니'를 얹어 놓은 것과 같다는 데서 붙여진 것이다. 文簾山과 文簾山 등은 '뽕바고니메' > '민바구니메'의 표기이다. 민간에서 부르는 '바굼지' 또는 '바굼지'도 '바구니'를 뜻하는 제주도방언이다. 그러나 박용후(1992:55-56)는 '바굼지'는 원래 '바구미'가 변한 것이고, '바구미'는 아이누말로 '박쥐'의 뜻이라고 하였다. 실제 오름 자체가 돌산으로 이루어져 있고 박쥐가 날개를 편 형상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옛 지도의 한자 표기를 보나 민간의 고로들의 설명(실제 고로들은 '바굼지'를 얹어놓은 모양이라는 설과 박쥐가 많다거나 박쥐의 형상이라는 설이 있다고 한다.)을 보나, '박쥐'와 관련시키는 것은 최근에 생긴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이 오름의 이름도 원래의 옛 이름을 찾아주어야 한다. 그 이름이 '바고미' > '바군미' 또는 '바고니메' > '바구니메' 정도로 말이다.

(5) 대정읍

① 貯里別伊·貯別利·佇別里·貯別伊·貯別[저리별이·저별이], 貯別岳[저별이오름], 松岳山[솔오름] > 松岳山

상모리에 있는 '저리별이오름' 또는 '저별이오름'은 '솔오름'[松岳山]의 옛 이름으로 알려지고 있다. 『세종실록』(지리지)에 貯里別伊, 『신증동국여지승람』에 松岳山, 貯別利, 『탐라지』에 松岳, 佇別里 『탐라순력도』에 松岳, 貯星, 『제주읍지』에 松岳, 貯別伊, 『제주대정정의읍지』에 松岳, 貯別岳, 『제주삼읍전도』 등에 貯別[저별이], 『대정군지도』와 오늘날의 지도 등에 松岳山 등으로 표기하였다. 貯里는 '더리' > '저리'의 음가자 표기, 貯와 佇는 貯里(더리 > 저리)의 里(리)가 탈락한 음가자 표기, 別은 '별'의 음가자 표기, 星은 '별'의 훈가자 표기,⁴⁰⁾ 利와 里는 명사형성접사 '-이'에 앞 음절 '리'이 연음된 '리'의 음가자 표기, 伊는 명사형성접사 '-이'의 음가자 표기이다. 松은 '솔'의 훈가자 표기, 岳은 '오름' > '오름'의 훈독자 표기, 山은 松岳에 덧붙은 말이다. 松岳[솔오름]은 '저벼리오름'이 한자화한 이름인데, '저벼리오름'과 松岳이라는 이름은 서로 대응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貯里別伊는 '더리별이' > '저리벼리'의 음가자 표기, 貯別利·佇別里·貯別伊는 '저별이' > '저별이·저벼리'의 음가자 표기이다. 貯星/貯別도 '저별이'의 표기이다. '저별이·저벼리'는 '절(물결)'이 운다는 뜻의 '절울이'(박용후, 1992:54)의 변음이라고 하나,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한자 표기로 볼 때, '더별이' > '저별이' 또는 '더리별이' > '더별이' > '저별이'의 변화 과정을 거친 것으로 보인다. '저별이 / 저벼리'는 구개음화한 뒤의 음상으로 보이는데, 그 뜻은 확실하지 않다.

40) 嶺 바고니 단(홍몽-초, 중:6), 嶺 산 명(신증, 상:24)

41) 貯 더적 더(신합, 하:43), 別 爲星(훈민-원, 해례:26)

② 毛瑟浦岳[모슬개오름], 毛瑟岳· 攀瑟岳[모슬오름] > 攀瑟峰

상모리에 있는 '모슬개오름'은 『세종실록』(지리지)에 毛瑟浦岳, 『신증동국여지승람』에 毛瑟岳, 『탐라지』 등에 攀瑟岳, 『탐라순력도』에 攀瑟·毛瑟, 『제주삼읍도총지도』 등에 攀瑟岳·攀瑟峰, 오늘날의 지도에는 攀瑟峰으로 표기하였다. 攀瑟·毛瑟은 모두 '모슬'의 음가자 표기이다. '모슬'은 '모래[沙]를 뜻하는 제주도방언 '모살'의 변이음이다. 곧 '모래'가 많은 지역이라는 데서 붙여진 것이다. '모슬개' 근처에 있는 오름이라는 데서 毛瑟浦岳·攀瑟浦岳이라 하였고, 여기서 蒲를 생략한 표기가 毛瑟岳·攀瑟岳·攀瑟峰이다. '모래'의 중세국어형이 '몰애 (>모러·몰래·모리 >모래)로 나타나는 것을 볼 때, 이의 제주도 방언형 '모슬·모살'은 일찍부터 특이하게 발달한 것으로 보인다.

③ 日課里·日果岳[날외오름], 栗木岳[밤남오름], 加是岳[가시오름] > 加時岳

동일리 '세미' 마을과 '홍물' 마을 사이에 있는 '가시오름'은 옛날에 '날외오름', '가시오름', '밤남오름'이라고도 했으나, 최근에는 '가시오름'으로 많이 알려졌다. 『탐라지』에 日課里, 『제주읍지』에 日果岳, 『탐라지도』에 加是岳, 『제주삼읍도총지도』 등에 栗木岳, 『제주삼읍전도』에 加是岳, 『대정군지도』에 日課岳, 『중보 탐라지』와, 오늘날의 지도에 加時岳 등으로 표기하였다. 『탐라지』의 日課里는 '날외마을(오름)'의 표기이다. 애초에는 日課里(岳)로 표기되었고, 나중에 里가 생략되어 日課岳으로도 표기되었다. 日은 '날'의 훈가자 표기이다. 果와 課는 '외'의 음상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데, '과'에서 어두음 'ㄱ'은 유성마찰음 'ㄴ'으로 발음되고 'ㄱ(ㄴ)'은 다시 'ㅇ'으로 변하여 '와'가 되고 '와'는 민간에서 '외'로 변한 음가자이다. 加是岳과 加時岳은 '가시오름'의 표기이다. 加是和 加時는 '가시'의 음가자 표기이고, 岳은 '오름'오름의 혼독자 표기이다. '가시나무가 많은 오름'이라는 데서 붙여졌다. 이때의 가시나무는 '물참나무'를 말한다. 栗木岳은 '밤남오름'의 표기이다. 栗은 '밤'의 혼독자 표기, 木은 '나무'의 제주도방언 '남·낭'의 혼독자 표기, 岳은 '오름'의 혼독자 표기이다. 여기서 '참나무'는 너도밤나무과의 낙엽 활엽 교목인 '물참나무'를 이른다.

④ 龍木岳[용남오름] > 農南峰[농남오름]

신도리에 있는 '녹남오름'은 『탐라순력도』 등에 龍木岳, 『중보 탐라지』와 오늘날의 지도 등에 農南峰, 주변의 묘 비석에는 樟木岳, 鹿南岳 등으로 표기하였다. 龍은 '녹'의 변음 '농'의 유사음 '용'의 음가자 표기, 農은 '녹'의 변음 '농'의 음가자 표기, 樟은 '녹나무'의 '녹'을 뜻하는 혼독자 표기, 鹿은 '녹'의 음가자 표기, 木은 '나무'의 제주도방언 '남·낭'의 혼독자 표기, 南은 '나무'의 제주도방언 '남'의 음가자 표기이다. 龍木岳·農南峰·樟木岳·鹿南岳 등은 모두 '녹남오름·농남오름'의 표기이다. '녹남오름'은 발음상 '농남오름'으로 나타난다. 옛날부터 '녹나무'가 많았었다는 데서 이런 이름이 붙여졌다고 한다. 지금은 '녹나무'를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일제시대와 4·3사태 때 베어지

거나 불타버렸다고 한다.

⑤ 보로미 > 보르미

무릉리에 있는 '보로미 > 보르미'는 주변의 묘 비석에는 望山, 望月峰, 오늘날의 지도에는 '보름이오름'으로 표기하였다. 민간에서는 주로 '보름이'라고 한다. 옛날에 '옛고오름'으로 불린 적이 있다(진성기, 1775:7)고 하며, 옛날에 '망'을 봤던 곳(오성찬, 1992:26)이라고 하여 '보름이오름, 望山', 보름달같이 둥글고 낮다 하여, 또는 이곳에 올라 보름달을 바라본다(김종철, 1995:권I.212)고 하여 '보름이, 望山, 望月峰'이라 했다고 한다. 이러한 설명에는 어느 정도 수궁이 있지만, '보름(보름달의 뜻)+이(명사형성접사)'의 구성으로 보는 것 같아서 재고의 여지가 있다. 민간에서의 '보름이'는 한자 표기(望 보랄 망<백련 80>, 望 보름 망 月待日光有照 半照爲弦 全照成望 又瞻望<훈몽-초, 상:1>, 月半 보름<역해, 상:3>)로 볼 때 '보로미' 또는 '보라미' 정도의 고유어 표기로 보인다. '보로미'는 '보름[望]+미[山]', '보라미'는 '보래[望]+미[뫼]의 제주도방언'의 구성으로 볼 수 있다. 그 뜻이 '보름달'과 같은 산이라는 데서 붙여졌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⑥ 敦臺山·敦岱山[돈대미], 敦頭岳[돈두미오름] > 敦頭岳[돈두미오름]

영락리에 있는 '돈대미'는 『탐라지』에 敦臺山, 『탐라지도』 등에 敦岱山, 『제주삼읍전도』에 敦臺山, 『증보 탐라지』에 敦道岳. 주변의 묘 비석에 敦道岳, 頓頭岳, 墩臺山, 오늘날의 지도에는 敦頭岳으로 표기하였다. 敦岱와 敦臺·墩臺는 '돈대'의 음가자 표기, 敦頭와 頓頭는 '돈두'의 음가자 표기, 敦道는 '돈도'의 음가자 표기이다. '돈대·돈두·돈도'는 모두 동일한 음상의 변이음들이다. 山은 '뫼'의 제주도방언 '미'의 혼독자 표기이다. 岳은 나중에 山 대신에 쓰인 것이다. 박용후(1992:55)는 산 모양이 조금 높고 평평하여 돈대(墩臺)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돈대미'라 하였고, 나중에 '돈두미, 돈도미' 또는 '오름'이 더불어 '돈도미오름, 돈두미오름'이 되었다고 했다. 그러나 '돈돌오름'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돈대+미'의 구성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본다. 그리고 한자어 '돈대(墩臺)'에 고유어 '미'가 덧붙은 것도 이상하다. 좀더 연구되어야 한다. 원래는 '돈대미'였는데, 나중에 '돈대미'가 '돈도미·돈두미'로 음이 변하고, 다시 '오름'이 덧붙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원래 이름인 '돈대미'를 되살려 주어야 한다.

2. 마을 이름(洞里名)

1) 제주시(19개 행정동, 40개 법정동)

(1) 一徒[일니 > 일도], 二徒[이니 > 이도], 三徒[삼니 > 삼도]

『고려사』와 『신증동국여지승람』 등에 一都, 二都, 三都,⁴²⁾ 『탐라지』와 『남한박물』 등에 一徒, 二徒, 三徒라 하였다. 표기상에 都[니 > 내]와 徒[니 > 내]간에 차이가 있다. 이형상의 『남한박물』에 “徒자는 都의 잘못이며, 방언으로 都는 乃라고 한다.”⁴³⁾고 하였다. 중세국어의 한자 혼과 음을 보면, 徒는 ‘물도<신증>〈훈몽〉’, 都는 ‘모돌 도<유합-영장사본〉, 도읍 도 又모들 도<훈몽〉’, 乃의 중세 한자음은 ‘내’ (乃 새 내<유합-송광사본〉)이다. 그런데 이두에서 矣徒를 ‘의니<유서〉’, 矣徒等を ‘의니등<전률〉’ 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徒는 일찍부터 ‘니 > 내’ 로 읽혔음을 알 수 있다. 유창균(1991:158, 209)에서도 고구려 한자음 乃의 聲母는 n-, 韻母는 - ㅛ -로 추정하고, - ㅛ - 는 중세국어의 - ㅛ - [ㅛ]에 대응하는 것이라 하였다(신라한자음도 같다.). 또 巫歌 등에서 ‘삼내(三徒)’ 등으로 실현되는 것으로 보아 一徒·二徒·三徒의 一·二·三은 한자음 ‘일·이·삼’으로 읽을 수 있다. 그러나 처음에는 고유어 ‘훈(一 훈 일<백련 21〉)·두(二 두 이<신증-나손본〉)·세(三 석 삼<백련 27〉)’ 등 혼독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一徒는 ‘훈니’, 二徒는 ‘두니’, 三徒는 ‘세니’로 음독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徒(니 > 내)는 고구려 지명에 나타나는 內·奴·惱(모두 壤의 뜻)⁴⁴⁾와 신라어에 나타나는 內·腦(世 또는 地의 뜻)⁴⁵⁾ 등에 대응되는 것이다. 徒[니]의 일차적인 뜻은 ‘무리’이고, 그 후에 파생된 뜻인 ‘무리지어 사는 사람들’을 서로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⁴⁶⁾ 양주동(1960:40-41)에서도 地方·部落·土地의 뜻으로 쓰

42) 射矢卜地 良乙那所居 日第一都 高乙那所居 日第二都 夫乙那所居 日第三都 <高麗史>(권57, 지리2)

43) 初高乙那·良乙那·夫乙那兄弟三人 分處其地名 其所居 日徒(高氏世系錄曰 一人射矢卜地 高所居 日第一徒 漢字山北 一徒里 良所居 日第二徒 漢字右翼之南山房里 夫所居 日第三徒 漢字左翼之南山土里 … 今之州城内 分三部 日一徒 日二徒 日三徒 徒字疑是都字之誤 而方言稱 徒日乃 似是其時所稱也) <南宮博物>(誌蹟)

44) 槐壤郡 本高句麗 仍斤內郡, 荒壤郡 本高句麗 骨衣奴郡, (木壤郡 一云 金惱 <三國史記>(권 37, 지리)

45) 赫居世王 蓋嚮言也 或作弗矩內王 言光明理世也 <三國遺事>(권1)

46) 辰韓…相呼皆 爲徒 有似秦人 <三國志>(권30, 魏書, 東夷傳)

辰韓…相呼 爲徒 有似秦語 故或名之 爲秦韓 <後漢書>(권85, 東夷列傳)

이때의 徒는 중국어인데, 이런 기사를 무시하는 견해도 있고, 이른 시기에 고대중국어에서의 차용어가 행해진 것으로 해석하는 견해(이기문, 1967)도 있다. 한편 徒가 집단의 뜻으로 쓰인 것은 다음과 같이 『삼국유사』에도 인용되고 있다.

後漢書云 辰韓耆老自言 秦之亡人 來適韓國 而馬韓割東界地以與之 相呼爲徒 類似秦語 故或名之爲秦韓 有十二小國 各萬戶稱國/후한서에 이르기를, “진한의 늙은이들이 스스로 말하기를, ‘진나라에서 망명한 사람이 한국에 와서 살았는데, 마한의 동쪽 땅을 나누어 주고서, 서로 부르기를 徒[니]라 하였다. 진나라 말과 비슷하므로, 혹은 이름을 秦韓이라 하였다. 열 두 작은 부족이 살았는데, 각기 萬戶로써 나라를 일컬었다.” <三國遺事>(권1, 진한)

였다고 했다. 徒(너) > 내가 都로도 표기된 것은 고려시대 이전에 이미 지명이 한자음 '도'로 바뀐 것을 상정할 수 있다. 이는 경덕왕 때 지명이 한자화한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2) 道老里[도로리], 道老老(도로로) > 道路里[도로리마을] > 道南洞(도남동)

道南은 옛날 '돌로로·도로로' 또는 '돌로리·도로리'라고 불렸다. 민간에서는 주로 '돌로리'라고 한다. 원래는 '도로리' 또는 '도로로'였는데, 민간에서 '돌로리' 또는 '돌로로'로 음이 변한 것으로 보인다. 『탐라순력도』에 道老里, 『탐라지도』에 道老里村, 『제주삼읍도총지도』에 道老老村, 『탐라방영총람』에 道老里, 『제주읍지』 등에 道路里, 『삼군호구가간총책』(1904)에 道南[도남]으로 표기하였다. 마을에 남아있는 善政碑 등에도 道老, 道老里 등으로 표기되어 있다. 道老里와 道路里는 '도로리'의 음가자 표기이다. 道老老는 '도로로'의 음가자 표기이다. 민간에서 '돌로리'라고 하는데, '돌'이 정상적인 음상이라면 말음 '리'가 표기에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처음부터 '도로리' 또는 '도로로'라는 음상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그 뜻은 확실하지 않다. 나중에 셋째 음절 표기인 老 또는 里를 생략하여 道老 또는 道路로 표기하였다. '도로리'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道老·道路의 표기를 道南으로 바꾸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3) 大獨浦·大瓮浦·大瀆浦[한독잇개], 伐浪浦·伐郎浦[벌랑개·벌렁개], 修近浦·修浦[닷근개], 大川外里[한내밭마을] > 大獨浦里[한독잇개마을] > 大獨里[한독이마을] > 龍潭洞(용담동)

龍潭의 지명은 龍頭(용머리)와 龍淵(용못) 또는 翠屏潭(취병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 龍潭 지역의 옛 마을에 '한독기, 버렁(개), 다끄내, 한내밭' 등이 있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伐郎浦, 『남사록』에 大獨浦, 龍湫, 翠屏潭, 『탐라지』에 伐浪浦, 大瓮浦, 龍頭, 龍湫, 『탐라순력도』에 大瀆浦, 大川外里, 伐郎浦, 修近浦, 翠屏潭, 『탐라지도』에 大瀆浦, 伐浪浦, 修浦, 大川外里, 龍頭, 翠屏潭, 『탐라방영총람』에 大獨浦里, 『제주삼읍도총지도』에 大瀆浦, 大瀆村, 伐浪浦, 伐浪村, 修浦, 修浦村, 龍頭, 門水村, 大川里, 翠屏潭, 『제주읍지』에 伐浪浦, 大瓮浦, 龍頭, 『제주삼읍전도』에 大獨里, 大瀆浦, 伐浪浦, 龍頭, 修近浦, 龍淵, 『제주지도』에 大獨里, 東城洞, 修近洞, 龍淵, 『삼군호구가간총책』에 龍潭으로 표기되었다. 大瓮·大瀆·大獨·大獨은 모두 '한독이'의 차자 표기이다. 大는 '한'(大水 한물<두해-중, 1:58)의 훈독자 표기이고, 瓮(독 爲瓮<훈민-원, 해례:26)은 '독'의 훈가자 표기이고, 獨은 '독'의 음가자 표기이다. 獨은 獨의 약자로, 역시 '독'의 음가자 표기이다. '독'은 '덕'의 변음으로, '돌 언덕·영덕'의 뜻이다. '한독'에 명사형성접사 '-이'가 결합하여 '한독이'가 된 것이고, 발음상 '한독기'가 된 것이다. 곧 '큰 돌 언덕' 또는 '한내(大川) 하류에 있는 '돌 언덕'의 뜻이다. '한두기[漢頭]'는 '한내'의 머리의 뜻이라는 설(진성기, 1975:34; 오성찬, 1992:198)은 민간에서의 한자 표기를 한자 훈으로 해석한 것으로, 잘못된 것이다. 민간에서 '한두기·한데기'라고도 하는데, 모두 '한독이'

의 변음이다. '한독이' 근처에 있는 개를 '한독잇개[大獨浦·大瓮浦]라고 부르고, 이 주위에 마을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한독잇개마을[大獨浦里]이라 하였다. 大獨浦里의 세 번째 글자인 浦를 생략하여 大獨里라 하다가 20세기 초부터 龍潭이라 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龍潭은 龍頭의 龍과 翠屏潭의 潭을 결합한 표기로 보인다. 大川外는 '한내밭' 혹은 '한내팻'의 차자 표기이다. '한내(大川)'는 마을을 가로질러 바다로 흘러가는 큰 내를 말하는데, 이 내 바깥 쪽에 형성된 마을이라는 뜻에서 '大川外里[한내밭마을]이라 하였다. 大川外리는 셋째 음 外를 생략하여 大川里[한내마을]라고도 했다. 행정상 '한독이'에 포함되었었다. 伐郎浦·伐浪浦는 모두 '벌랑개·벌렁개'의 음가자 표기이다. '벌랑개'는 '벵문내[屏門川·兵門川] 하류를 이른다. 민간에서는 '벌렁개' 또는 '버렁개', '부러릿개'라고도 부른다. 한자 표기 과정에서 달리 표기된 것에 불과하다. '벌랑' 또는 '벌렁'은 확실하지 않으나, 중세어 '벌다[列]의 명사형으로 보인다. 修浦·修近浦는 '닷근개'의 차자 표기이다. 마을 사람들이 浦口를 닦아서 만들었다는 데서 '닷근개'라 했으며, 그 주위에 형성된 마을을 '닷그내'라고 했다고 한다. 민간에서 부르는 '닷그내'는 '닷근개'의 변음으로 보인다. '개'의 어두음 'ㄱ'이 유성마찰음 'ㅇ'으로 변하여 '에'가 된 것이다. 오늘날의 龍淵[용소]은 옛 기록과 지도에 龍湫[용소]와 翠屏潭으로 표기되다가, 19세기 중후반에 龍淵으로 표기되기 시작했다. 龍湫와 龍淵은 '용소'의 혼독자 결합 표기(潭 소 담 水深處 爲潭 湫 소 추 龍所居<훈몽-초, 상:3>, 淵 소 연<신합, 상:5>, 龍潭 소 <역해, 상:7>)이다. 翠屏潭은 한자의 뜻 그대로 '푸른 병풍으로 둘러진 소'라는 뜻으로 붙여진 것이다. 현재 자연마을인 '한독이, 한내밭, 벌렁, 닷그내, 어영' 등을 포함하여 龍潭이라 한다.

(4) 巾入浦·健入浦[건들개] > 山之村[산지마을], 巾入村[건들개마을], 健入浦里[건들개마을] > 健入里 > 健入洞

健入洞의 옛 이름은 '건들개'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巾入浦, 『남사록』에 健入浦, 『탐라순력도』에 巾浦·健入浦, 『탐라지도』에 山之村, 巾入浦, 『제주삼읍도총지도』에 巾入村, 巾入浦, 『탐라방영총람』에 巾入里, 『제주읍지』에 健入浦里, 『제주삼읍전도』 등에 健入浦, 健入里 등으로 표기하였다. 健入浦·巾入浦는 '건들개'의 차자 표기이다. 巾과 健으로 표기된 것으로 보아, '건'의 음가자 표기로 보인다. 入은 전설과 관련지을 때 '들'의 혼가자 표기로 보인다. '건들'의 '-리'은 용언의 관형사형이다. 전설("건들개[健入浦]는 제주 동북 1리의 거리에 있다. '高乙那의 후손인 高厚·高淸 등이 신라에서부터 到泊하였는데, 族屬들이 이곳에 모여 맞이하였다.'고 전한다."『탐라지』)과 관련지어 볼 때, '건들'은 '건달(救濟)의 변음으로 보고, 신라에서 돌아온 고청과 고후를 그 족속들이 이곳에서 건져올렸다는 데서 붙여진 것으로 볼 수도 있고, '건'은 '큰[大]의 음가자,⁴⁷⁾ 入은 '들'의 혼독자로 보고 '큰,

47) 健의 표기가 '큰[大]의 뜻이라는 것은 『梁書』(新羅傳)에 "신라에서는 城을 健牟羅라고 한다."고 한 내용에서, 健牟羅를 '큰 모라'의 뜻으로 본 데서 기인한다.

들개'라는 뜻에서 붙여진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후자의 뜻으로 쓰였다면 巾과 健 대신 大로도 표기되었을 법한 데 확인되지 않는다. '건들개'는 나중에 이 주변에 형성된 마을을 지칭하기도 하였다. '건들개' 인근에 '산지물'이 있는데, 이 주변에 형성된 마을이라는 데서 山之村, 山低村·山底村이라고도 하였으나, 오늘날은 '건들개'에 통합되었다. '건들개'의 '건들'은 '건들바람'의 '건들', 곧 '건들바람'이 붙어온다는 데서 붙었다는 설(박용후, 1992:95)이 있는데, 이는 지나친 해독으로 보인다. 한편 고유어 이름이 '건들개'가 아니고 '건입개'라 주장하고, '건입'은 '큰 어귀'(건입동향토문화보존회, 1996:35) 또는 '큰 입'(건입동향토문화보존회, 1996:110)의 뜻이라는 설이 있다. 이 해독에서 몇 가지 생각해봐야 할 것이 있다. 왜 '큰'을 뜻하는 훈독자 표기인 大의 표기는 전혀 확인할 수 없는가? 巾과 健이 혼용되어 쓰였다는 것은 '건'이 '큰'이 뜻으로는 볼 수 없게 하는 것이 아닌가? 또 하나의 문제는 入의 해독이다. 이를 '어귀' 또는 '입'의 뜻이라면 왜 口라는 표기를 전혀 확인할 수 없는가 하는 것이다. 또한 고로들에게서 엄연히 확인할 수 있는 '건들개'의 음상을 전혀 무시하는 것도 의문이다. 그리고 실제 門 또는 '어귀', '입구'의 뜻으로 道(도)나 梁[도]이 쓰이고 있으므로(예문은 화북동과 오라동의 설명을 참고할 것.), 入이 '어귀'나 '입'의 뜻으로 쓰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 해독 역시 지나친 천착으로 보인다.

(5) 別刀岳(별도오름·베리오름) > 禾北洞

화북동은 화북1동의 '별도, 고늘'과 화북2동의 '거로, 부록, 황새왓' 등의 자연마을을 거느리고 있다. 別刀와 禾北이라는 표기를 문헌에서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別刀岳, 別刀川, 『남사록』에 別刀浦, 『탐라지』에 禾北岳, 禾北川, 禾北浦, 『탐라순력도』에 禾北, 別刀, 古老, 居老, 夫采, 『탐라순력도』에 別刀浦里, 禾北, 『탐라지도』에 別刀村, 古老浦, 夫采里, 居老村, 『제주삼읍도총지도』에 禾北鎭, 別刀村, 巨老村, 星梁浦, 古老浦, 夫采里, 『호남전도』(제주)에 禾北所, 別厲村, 夫藁里, 古老浦, 居老里, 『제주읍지』에 別刀里, 『제주지도』에 禾北鎭, 拱北里, 巨老洞, 夫老洞, 黃地坪, 1879~1907년의 成籍戶口帳 과 『삼군호구가간총책』(광무 8)에 拱北(里), 『속음청사』에 別島 등으로 표기하였다. 禾北이라는 표기는 1652년 편찬의 『탐라지』에 처음 보이며, 『속중실록』(3년 5월 계미)에도 보인다. 『탐라기년』에 의하면, 1678년에 목사 崔寬이 禾北鎭을 축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렇다면 禾北이라는 표기는 1650년대부터 사용되었고, 別刀라는 표기는 그 이전부터 쓰이기 시작하여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제주읍지』의 기록을 볼 때, 別刀는 구한말까지 행정명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다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까지 행정명을 拱北里라 하였다. 拱北里는 1908년에 다시 禾北으로 바뀌었고, 이것이 오늘에까지 이르러 행정명으로 쓰이고 있다. 이제 別刀와 禾北, 拱北의 어원에 대하여 살펴보자. 우선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別은 '뻬'의 음가자, 禾는 '뻬'의 훈가자, 刀는 '도'의 음가자, 北은 '뉘'의 훈독자이다. 別과 禾는 모두 神域을 뜻하는 '뉘'의

표기로, 別刀와 禾北은 '벌뒤'로 읽고 '神域의 뒤'라는 뜻이라는 것(이은상, 1937:143-144) 둘째, 칼로 단장을 끊는 듯하는 이별의 아픔을 뜻하는 데서 別刀라 했다는 것(제남신문, 78.8.31. 3면). 셋째, 제주도의 최북방에 꽃힌 마을이라는 데서 拱北이라 했다는 것(제남신문, 78.8.31. 3면). 넷째, 별도봉 동북 기슭 벼랑이 깎아지른 듯 가파라서, 마치 칼로 자른 듯하다는 데서 別刀라 했다는 것(화북동운영위원회, 1991:32). 또한 별도봉 북쪽 해안가 절벽이 깎아지른 듯 가파라서, 부락 발전에 해가 되므로, 흉사를 막는다는 뜻에서 칼 도(刀)자 3개를 쓴 別刀를 쓴 것(제남신문, 78.8.31. 3면). 다섯째, 이별을 하는 거루 또는 이별을 하는 나룻터라는 데서 別刀라 했다는 것(화북동운영위원회, 1991:32). 이외에도 여러 견강부회식 해석이 있다. 위의 어원 해석에 대한 평가는 다음 논의로 대신한다. 지금 禾北의 옛 표기는 別刀, 禾北, 拱北 등으로 나타나고, 민간에서 사용하는 고유어는 '벨도, 베리' 등이 쓰인다. 이들 한자 표기는 모두 하나의 고유한 음상을 한자로 차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본다. 벨은 '벨' (別 다닐 별<백련 2>, 굴힐 별<유합-나손본>)의 제주도방언 '벨'의 음가자 표기이다. 禾는 '벼(禾 쉬 화 穀之總名<훈몽-초, 하:2> 벼 화<동아한한대사전>)'의 제주도방언 '베'의 훈가자 표기(중성이 탈락한, 불안정한 표기), 星은 '별'의 제주도방언 '벨'의 훈가자 표기, 拱은 '널·폴(拱 폴명 ㄱ 줄 공<신합-나손본>, 폴명<금삼 3:4>)'의 훈가자 표기이다. 이 네 개의 한자는 모두 '벨' 정도의 음상을 표기한 것이다. 刀는 '도' (刀 갈 되<백련 75>) 또는 '되' (刀 升也 되<신자전>)의 음가자 표기, 北은 '뒤' (北 뒤 북<훈몽-초, 중:2>)의 훈가자 표기이다. 梁도 '도'의 훈가자 표기이다. 梁을 '도'로 읽은 것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⁴⁸⁾ 島도 '도'의 음가자이다. 그러므로 조선 후기까지 '도'의 음이 남아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민간에서 쓰이는 '베리'는 '벨도'가 변한 것으로 보인다. 別刀와 星梁, 別島는 '벨도', 禾北은 '벳뒤', 拱北은 '널뒤 > 받뒤' 정도의 음상 표기로, 모두 동일한 음상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자를 빌려 표기하는 과정에서 온전하게 표현하지 못한 것일 뿐이다. 만약 別刀와 禾北의 음상과 의미가 처음부터 같은 것이라면, 적어도 禾北鎭을 축성할 때까지만 해도 '벨도' 또는 '벳뒤' 정도의 음상이 남아 있었고, 새로운 鎭을 축성하면서 이름을 새로운 표기로 바꾼 것이 아닌가 한다. 한편 別刀와 禾北의 음상과 의미가 다른 것이라면(혹 같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別刀는 '벼로' (峭崖 벼로...懸崖 두절흔 벼로<한청 1:39>), 비레[崖], 비러[崖]의 한자 표기로 보인다.⁴⁹⁾ 특히 別厲村의 표기가 '베리' 정도의 음상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 한다. 이것은 別刀川은 '베릿내', 別

48) 廟檀梁 城門名 加羅語 謂門 爲梁云/廟檀梁은 성문 이름이다. 가라말로 門을 梁이라 한다. <삼국사기>(권44)

羅人方言 讀: 梁 爲道 故今或作 沙梁亦讀道/신라 사람의 사투리에 梁을 道(도)로 읽으므로, 이제 이르러서 더러는 (沙梁을) 沙梁이라 하며 梁도 道(도)로 읽는다. <삼국유사>(권1, 辰韓)

『삼국사기』(권44)와 『삼국유사』(권1, 진한)의 예문을 비교하여 보면, 梁은 '도'로 읽으며, 門의 뜻이라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門의 뜻으로 쓰이는 '도'는 가라말 또는 신라말임을 알 수 있다.

49) 박용후(1992:43)는 '베리오름'의 '베리'는 '벼랑'의 뜻이라고 했으나, 禾北은 이와 관련이 없다고 하였다.

刀浦는 '베릿내개', 別刀岳은 '베리오름'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더욱 그렇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설명했듯이 '베리'는 '벨도'의 변음으로 보인다. 지명의 한자 표기는 고유어를 완벽하게 나타낼 수 없다. 적어도 7-800년 전부터 마을이 형성되어 別刀라고 표기했다면 충분히 가능한 것이라고 본다.

화북동에는 5개의 자연마을이 있다. 『탐라순력도』에는 別刀, 別刀浦里, 古老, 居老, 夫朶, 『제주삼읍도총지도』에 別刀村, 巨老村, 古老浦, 田夫朶里, 星梁浦, 『제주군읍지』(『제주지도』)에 拱北里, 巨老洞, 夫老洞, 黃地坪 등으로 표기되어 있다. 이것으로 보면 別刀(또는 星梁), 古老, 居老(또는 巨老), 夫朶(또는 夫老) 등 4개의 자연마을은 적어도 14세기 이전에 이루어진 마을이고, 19세기 말에 黃地坪(오늘날은 黃沙坪(『속읍청사』)으로 많이 알려짐.)이라는 자연마을이 형성되었다. 古老는 '고로'의 음가자 표기이다. 민간에서 '곤올·곤홀·고놀' 등으로 불리워지고 있다. 민간의 음상을 고려하면, 한자 표기인 古老는 '고놀' 정도의 음상에서 말음 '르'는 표기에서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고놀'은 고유어로 보이나 그 뜻은 확실하지 않다. 古老村은 '고놀마을', 古老洞은 '고놀마을', 古老浦는 '고놀개'의 표기이다. 伐浪·罰浪으로 표기되는 곳이 있는데, 이는 '벌랑·버랑'의 음가자 표기이다. '벌랑·버랑'은 '벼랑'의 뜻으로 보인다. 居老是 巨老·巨路 등으로도 표기되는데, 민간에서도 '거로'로 불리고 있다. 居老와 巨老是 '거로'의 음가자 결합 표기로, 고유어로 보인다. 이는 근대국어에 보이는 '거르'(渡船 거르선<한청 12:20>)에 대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삼국사기』에도 나온다.⁵⁰⁾ 巨老是 『증보문헌비고』(권17)에 居老로도 표기되었다. 신태현(1958:39)은 巨老를 '거루'로 읽고 渡船場의 뜻으로 보았다. 송하진(1993:68-70)도 '거로'로 읽고, '거룻배'의 '거루'와 같은 것으로 海, 河를 뜻하는 고유어로 보았다. 화북동의 '거로'도 '베릿내'의 가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므로 '내를 건너는 곳'이란 뜻에서 이런 이름이 붙여진 것으로 보인다. 박용후(1992:155)는 땅 형국의 '거루'와 같다고 하여 붙인 것으로 보았다. 夫朶은 夫老, 富錄, 夫菓 등으로 표기되는데, 민간에서도 '부록'이라 한다. 夫朶과 夫老, 富錄 등은 모두 '부록'의 음가자 결합 표기로, 역시 고유어로 보이지만 그 뜻은 확실하지 않다. 黃地坪은 오늘날 黃蛇坪, 黃沙坪, 黃沙田 등으로 표기되고 민간에서는 '황새왓, 황수왓' 등으로 불린다. 坪과 田은 '들판' 또는 '밭'을 뜻하는 혼독자 표기로, 제주도방언 '왓'으로 불리고 있다. 뱀이 누운 형국과 같다는 데서 黃蛇라고 했다는 것은 민간어원으로 보인다. 특히 坪과 田을 붙인 것으로 보아 더욱 그렇다. 황토밭이 많았다는 데서 黃沙라고 했다는 말은 黃地의 표기에서도 수공이 가지만, 민간에서 '황새, 황수' 등으로 불리는 것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황새'는 黃의 음(음독자)과 茅를 뜻하는 고유어 '새'가 결합한 표기, 곧 '누런 새'의 표기로 볼 수도 있다. 아직 확실하지 않다. 화북동은 17세기에서 18세기 중후반까지 別刀里라 하다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까지 拱北里라 하였다. 1908년 경에 禾北里라 하였고, 1914년 행정구역 폐합 때 禾北이라 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50) 濟州縣 本巨老縣 景德王改名(삼국사기(권34, 지리지))

(6) 所訖浦·所佉浦[소홀개] > 所訖里[소홀개마을] > 三陽里 > 三陽洞

삼양동의 옛 마을 이름을 고지도와 고문헌을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남사록』에 所訖浦, 『탐라순력도』에 元堂浦, 所佉浦, 每敦地, 道連坪, 『탐라지도』에 元堂村, 所訖村, 每敦地村, 道連坪村, 黑磯, 『여지도』(『제주목』)에 鋤訖浦, 池久村, 可沙浦村, 每敦地村, 道連坪村, 『제주삼읍도총지도』에 鋤訖浦, 鋤訖村, 元堂村, 止久村, 每敦支村, 道連坪村, 可沙浦, 『제주읍지』에 所訖里, 道連坪里, 『제주삼읍전도』에 所訖浦, 所訖里, 道連里, 『제주지도』에 三陽里, 梅村洞, 道連里, 『삼군호구가간총책』에 三陽, 道連 등으로 표기하였다. 지금의 삼양1동 지역에는 예전에 元堂村[원당마을]과 所佉村·所訖村·鋤訖村·鋤訖村[서홀개마을]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元堂은 '원당'의 혼독자 결합 표기로, 원나라 奇皇后가 지었다고 전하는 元堂寺라는 절에서 기인한다. 곧 원당사가 있는 오름 밑에 형성된 마을이라는 데서 元堂村이라 하였다. 所佉浦·所訖浦·鋤訖浦·鋤訖浦는 모두 '서홀개'의 표기이다. 所佉·所訖·鋤訖·鋤訖[서홀개]은 모두 '개'를 뜻하는 浦가 생략된 표기이다. 지금 민간에서는 주로 '서홀개'(혹은 두 음절로 줄어든 '설개')라고 부른다. 『所磨洞 설멧골<용가 9:28>』의 표기와 중세국어 '서흐레 > 버흐레' [杷]의 한자 표기로 所訖羅 등으로 표기하는 것으로 볼 때, '서'의 표기에 所를 많이 썼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所佉浦·所訖浦는 '소홀개' 또는 '서홀개'로 읽을 수 있다. 所佉·所訖과 鋤訖·鋤訖은 모두 '서홀'의 음가자 결합 표기이다. 그 뜻은 확실하지 않다. 所佉村·所訖村·鋤訖村·鋤訖村[서홀개마을]은 모두 '개' [浦]의 표기가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읽을 때에는 이를 보충하여 읽어야 한다. 곧 '서홀개' 주변에 형성된 마을이라는 뜻에서 이런 이름이 붙여졌다. 小屹로도 표기되었다. 池久村·止久村으로 표기된 것은 '지구리마을'의 표기로 보인다. 민간에서는 '주구리마을'이라고도 한다. 곧 '지구릿내·주구릿내'에 인접해서 형성된 마을이라는 뜻이다. '지구리·주구리'은 '죽은 사람(죽은 이)이란 뜻이라고 하나, 민간어원으로 보인다. 민간에서 地骨里[지골리]로도 표기한다.

지금의 삼양2동 지역에는 可沙浦村[가물개마을]이 있었다. 민간에서 주로 '가물개'라고 하는데, 이는 '가물개'가 변한 말이다. 可는 '가'의 음가자 표기, 沙는 '모래'인 중세국어 '몰애'의 이전형 '물개'의 혼독자 표기, 浦는 '개'의 혼독자 표기이다. '모래'의 제주도방언은 '모살' 또는 '몰레' 등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물개'나 '몰애'의 후대형이라 할 수 있다. 可沙浦[가물개]는 '검은 모래가 있는 개'라는 뜻으로, 지금 삼양해수욕장이 있는 곳을 일컫는다. 실제로 검은 모래가 많이 쌓여 있고, 여름철에 여기서 모래짐질을 하면 신경통·피부병이 낫는다고 한다. 可沙浦村은 '가물개마을 > 가물개마을'의 표기로, '가물개 > 가물개' 주변에 형성된 마을이라는 뜻이다. 지금은 甘水洞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는 '가물'을 '감은물'로 인식한 것이고, '감은물'의 불완전한 표기가 甘과 水로 표기된 것이다. 이때 甘은 '감·검-'의 음가자 표기이고, 水는 '물개 > 물개'의 '물'을 '물' [水: 甘水泉, 가물세미]로 인식하여 표기한 것이다. 어쩌면 이곳에 '땅 속에서 솟아나는 물'이 있어서 그것을 인식하고 '가물개에 물

이 있는 마을'이라는 뜻에서 이런 표기를 썼는지도 모를 일이다.

지금의 삼양3동에는 黑硯[검은여·검은여]라는 표기도 나온다. 黑硯은 '검은여·검은여'의 표기이다. 黑은 '검·검-'에 관형사형이 붙은 '검은-·검은-'의 혼독자 표기, 硯은 '여울'의 제주도방언 '여'의 혼독자 표기이다. '여'는 물속에 바위나 모래 따위가 묻혀 있어서 썰물 때에는 바닷물 위에 드러나고 밀물 때에는 잠기는 곳을 가리키는 제주도방언이다. '검은여·검은여'는 '검게 보이는 여'의 뜻이다.

지금의 도련1동에는 道連坪村[도련드르마을]이 있었다. 道連은 '도련'의 음가자 표기로, 그 뜻은 확실하지 않다. 坪은 '드르(坪 드르 평 大野坪 通作平<훈몽-초, 상:2>)' 들'의 혼독자 표기, 村은 '마을'의 혼독자 표기이다. 민간에서는 '도련이드르·도련드르'라고 한다. '도련이·도련'은 사람 이름인지 확실하지 않다. 道連坪[도련드르]이 나중에는 坪이 생략되어 道連으로만 표기된다. 19세기 중후반 20세기 초까지 道連里라 하였다. 1914년 행정구역 폐합 때 옛 道連里 지역과 三陽里와 奉蓋里 각 일부를 통합하여 제주군 제주면 奉蓋里라 하였다. 계속 독립된 마을로 있다가, 1962년 1월 1일부터 행정상 삼양동에 통합(시조례 제73호, 1961.12. 28. 공포)되었다. 지금의 도련2동에는 每敦地村·每敦支村·梅村[민둔지마을]이 있었다. 민간에서는 주로 '맨둔지'라고 한다. '맨둔지'가 바른 음상이라면 '맨'의 발음 'ㄴ'은 표기에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곧 '민둔지' > '맨둔지'가 고유의 음상이라면 한자에 '맨'이라는 음을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음가자 每 또는 梅로 표기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매' 또는 '맨'의 무슨 뜻이나에 따라 제대로 표기한 것인지 불완전한 표기인지 가릴 수 있다. 만약 每·梅를 '맨'의 표기로 본다면 '순전하게 그것뿐인'의 뜻을 가진 중세국어의 접두사 '민-'의 표기로 볼 수 있다. '민등, 민물, 민밭, 민밭, 민손, 민술' 등에서 볼 수 있다. 민간에서 말하는 '민 > 맨'이 한자 표기 그대로 '미 > 매'의 표기라면 '드르'의 뜻을 가진 고유어 '미(野 미 야 郊外野<훈몽-초, 상:2>)'의 음가자 표기로 볼 수 있다. 후자는 다른 말과 결합한 예를 확인할 수 없다. 전자가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만, 어느 자료에서도 어두음 'ㄴ'을 반영한 표기를 확인할 수 없다. '둔지'는 특수한 형태의 들판이나 언덕, 동산 등을 뜻하는 말로 보인다. 아직 확실하지 않다. 梅村은 '민둔지'의 축약 표기이다.

三陽이라는 표기는 19세기 말부터 나타난다. 100여년 전 마을 사람 張鳳秀와 朴雲景 두 사람이 '서흥개 > 설개, 가물개 > 가물개, 민둔지 > 매촌' 등 세 곳을 합한 陽地라는 데서 三陽이라 했다고 전해진다.

(7) 泉味[세미], 細β刷[ㄴ새], 奉蓋岳[봉개오름], 無木乃[무드내] > 回泉里, 奉蓋里, 龍崗里 > 奉蓋洞
 奉蓋洞에는 回泉洞, 奉蓋洞, 龍崗洞 등 3개의 법정동과 '봉아름, 명도암, 세미, ㄴ새, 웃무드내' 등 5개의 자연마을이 있다. 『탐라순력도』에 泉味, 細β刷, 奉蓋岳, 孝友里, 無木乃, 『여지도』(『제주목』)에 泉味村, 細隱刷村, 孝友里, 奉蓋岳, 明道岩, 普門村, 上無木村, 『탐라지도』에 泉味村, 細β刷村, 奉

蓋岳里, 明道岩, 上無水川村, 「제주삼현도」에 泉味村, 細隱刷村, 孝友里, 普門村, 明道岳, 奉蓋岳, 上無等乃村, 「제주삼읍도총지도」에 泉味村, 細刷村, 奉蓋岳里, 明道岩, 上無水川村, 「탐라방영총람」에 細隱刷里, 下奉蓋岳里, 無等川里, 上奉蓋岳里, 泉味里, 「제주읍지」에 細刷里, 奉蓋岳里, 上無等川里, 泉味里, 「제주삼읍전도」에 細泉里, 奉蓋里, 上無里, 明道岩, 「제주지도」에 細泉里, 奉蓋里, 明道村, 龍崗里, 「삼군호구가간총책」에 回泉, 奉蓋, 龍岡 등으로 표기하였다.

奉蓋洞은 '봉개마을' 과 '명도암' 마을로 이루어져 있다. '봉개' 마을은 奉蓋岳[봉개오름] 주변에 형성된 마을을 뜻한다. '봉개' 은 봉가(奉家)의 성을 가진 사람이 살았던 곳이라는 데서 붙여졌다고 하나 확실하지 않다. '봉가' 의 제주도방언이 '봉개' 로 바뀔 수 있다. '명도암' 은 明道岩 金筍鎔 선생 일가가 이곳에 살았다는 데서, 그의 호를 따서 붙인 이름이라고 한다. 문헌에 따라 上奉蓋岳里[웃봉개오름마을]과 下奉蓋岳里[알봉개오름마을]로 표기되기도 하는데, 上奉蓋岳里는 '명도암' 마을을, 下奉蓋岳里는 '봉개' 마을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봉개' 와 '명도암' 마을은 행정상 1914년에 행정구역 폐합 때 奉蓋里라 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回泉洞은 '세미' 로 불리는 東回泉과 '마는새' 로 불리는 西回泉으로 이루어져 있다. '세미' 는 泉味로 표기되었다. 泉은 '심(泉 심 천<훈몽-초, 상:3>)' > 샘' 의 제주도방언 '세미' 의 혼독자 표기이고, 味는 '세미' 의 둘째 음절 '미' 의 음가자 표기이다. 泉味[세미]는 19세기 말까지 濟州牧 左面에 소속되었다가, '마는새' 와 통합하면서 제주군 中面에 소속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마는새' 는 細刷·細隱刷·細刷 등으로 표기된다. 細는 '마는-'(細 마는 세<백련 47>)에 관형사형어미가 붙은 '마는' 의 혼독자 표기, 隱은 관형사형어미 '-니' 의 음가자 표기이다. ㅍ·ㅂ은 隱의 부수 ㅂ 또는 ㅂ의 축약형인 ㅍ으로, 역시 관형사형어미 '-니' 의 표기이다. 刷은 오늘날 한자음이 '쇄' 이지만 중세국어에서 '刷 쇠작쇠 俗呼帽刷 靴刷 又刷箒所以刷器具者<훈몽-초, 중:7>' 로 나타난다. 혼과는 상관없는 '새' 또는 '세' 의 음가자 표기로 쓰였다. 마을을 지나는 내가 이 마을에서 가늘게 되어 흐른다는 데서 '사이[間]의 제주도방언 '새' 를 쓴다고도 하고, '마는새' [細茅]가 많이 난다는 데서 '새' 를 쓴다고도 했다. 또는 '세미' 의 첫음절 '세' 의 표기라는 사람도 있었다. 제주시 오등동 죽성 남쪽에 '마는새밭' 이라는 지명이 있는데, 이때의 '마는새' 도 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교롭게도 모두 인근에서 작은 골짜기가 지나고 있다. '세미' [泉味]와 '마는새' [細隱刷]는 19세기 말에 '마는' 을 뜻하는 細와 '세미' 를 뜻하는 泉을 합쳐 細泉里[마는세미마을]이라 하였다. 이전까지 泉味는 中面에 소속된 것이 아니라 濟州郡 新左面에 소속되었었다. 濟州郡 細泉里는 20세기 초에 다시 回泉里[도리세미마을·도래세미마을]로 바뀌었다.

龍崗洞은 옛날 '웃무드내' 라 불렸다. '웃무드내' 는 上無等川·上無水川·上無等乃·上無等·上無頭川 등으로 표기되었다. 上은 '웃(上 웃 상<신합, 상:2>)'의 혼독자 표기, 等은 '등' 에서 'ㅇ' 이 빠진 '드' 의 음가자 표기, 水은 水의 축약형 표기, 川은 '내' (川 내 천 衆流注海 爲川<훈몽-초, 상:2>)의 혼

독자 표기, 乃是 '내'의 음가자 표기이다. 頭는 '드'의 변음 '두'의 음가자 표기이다. 때로는 '내' [나]가 생략되어 上無等里로 표기되기도 하고, 等까지 생략되어 上無里로 표기되기도 하였다. 19세기 말에 濟州郡 龍崗里로 표기되고 20세기 초에 濟州郡 龍岡里로 표기되었다. 崗이 岡으로 바뀌었을 뿐인데, 崗은 岡[산등성이 강, 언덕 강]의 俗子이다. '웃무드내' 마을에 '놀용이' [飛龍]라는 언덕 또는 구룡이 있는데, 이를 한자로 표기한 것이 龍崗 또는 龍岡이다. 이는 '알무드내'와 구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8) 別羅花[다라꽃], 仁多羅[인다라], 三義壤[세미양], 良多時[간다시], 我羅好[아라호], 吾等生[오드성], 無水乃[무드내], 巨馬路[걸마로] > 我羅, 月坪, 寧坪, 梧登 > 我羅洞

我羅洞은 我羅1·2洞, 月坪洞, 寧坪洞, 梧登洞 등 5개의 법정동과 11개의 자연마을을 관할하고 있다. 『탐라순력도』에 別羅花, 仁多羅, 三義壤, 良多時, 我羅好, 吾等生, 無水乃, 巨馬路, 『탐라지도』에 別羅花里, 下無水川村, 訖南梁, 仁多羅村, 三義陽村, 巨馬路村, 我羅好村, 良多是村, 吾水生里, 『여지도』에 下無水乃村, 三義壤村, 我羅好村, 竹城村, 五水生里, 良多時村, 『제주삼현도』에 別羅花村, 巨馬老村, 三義壤村, 竹城村, 我羅好村, 良多時村, 五等生里, 『제주삼읍도총지도』에 別羅花里, 下無水川村, 訖木梁, 巨馬路村, 仁多羅村, 三義陽村, 我羅好村, 良多時村, 吾水生里, 『제주읍지』에 吾等生里, 我羅好里, 別羅花里, 下無等川里, 『호남전도』에 別羅花村, 巨馬老村, 三義壤村, 竹城村, 我羅好村, 良多時村, 五等生里, 『제주삼읍전도』에 下無里, 別羅里, 我羅里, 吾等里, 『제주읍지』에 我羅里, 梧登洞, 漢北里, 仁多洞, 寧南里, 看月洞, 柿木洞, 九如旨洞, 月坪洞, 寧坪里, 『삼군호구가간총책』에 月坪, 寧坪, 寧南, 我羅, 梧登 등으로 표기하였다.

아라1동에는 我羅好와 仁多羅라는 자연마을이 있다. 민간에서는 '아라위', '인다라·인다리'라고 부른다. '아라위'는 我羅好·我羅好 등으로 표기되었다. 我羅·我羅는 '아라'의 음가자 표기이다.

羅는 羅의 약체형 표기이다. 음가자 好의 표기로 보아 초성이든 종성이든 'ㅎ'음을 가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민간에서 부르는 '아라위'는 '아라호'의 변음으로 보인다. '아라호'는 '아라호'나 '아라호' 정도의 음상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전자보다도 후자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민간에서 '아라위'와 '아라호'음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라우호'는 중세국어의 '아라우·아라우호' [上下]에 음상이 대응하는 표기로 보인다. '호'는 지명 뒤에 붙는 특수한 접미사로, '마을'의 뜻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후대에는 好를 생략한 我羅로 표기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인다라'는 仁多羅로 표기된다. 이는 '인다라'의 음가자 표기로 보인다. '인다리'라고도 부르는데, '인다라'의 변음으로 보인다. 그 뜻은 확실하지 않다. 羅가 생략된 仁多로 표기되기도 한다. '다라왓', '다라꽃' 등의 지명과 연관된 것으로 본다면, '다라'라는 어휘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인+다라'의 구성으로 볼 수 있다. '다라'는 坪의 뜻으로 보인다. '아라라'는 17세기에는 행정상 我羅好里, 18세기 말부터 我羅里라 하고, 1962년 행정상

'걸머리, 간드락, 영평동, 월평동' 등을 거느리는 행정동이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아라2동에는 '걸머리, 간드락' 등의 자연마을이 있었다. '걸머리'는 𪎐馬路·𪎐𪎐路·巨馬路·𪎐馬·巨馬老 등으로 표기되었다. 𪎐은 '걸'의 음가자 표기로, 巨는 '거'의 음가자, 乙은 말음 'ㄹ'의 음가자 표기이다. 巨는 '걸'의 불완전한 표기인 '거'의 음가자 표기이다. '걸'은 '개천' 또는 '개울'의 뜻인 '갈' (渠 𪎐 거<천자-광 32>)을 이른다. 馬는 '말'에서 'ㅁ'만 반영한 음가자 표기, 𪎐는 음이 'ㅁ'이지만 'ㅁ'의 음가자 표기, 路와 老는 '로'와 유사음 'ㄹ'의 음가자 표기이다. 馬路·馬老·𪎐路는 'ㄹ로 > ㄹ르' (산 따위가 등성이 진 곳)의 음가자 표기이다. '걸ㄹ로'는 개울이 있는 마루의 뜻이다. 오늘날은 '걸머리'로 음이 변했다. 𪎐馬路·𪎐𪎐路 등은 '걸ㄹ로'를 비교적 정확히 표기한 것이고, 巨馬路·巨馬老나 巨馬는 '걸'의 말음 'ㄹ'과 'ㄹ로'의 말음 'ㄹ'를 표기에 반영하지 않은 불완전한 표기이다. '간드락'은 看月落·看月·間多落·間月 등으로 표기되었다. '간드락' 정도의 음상을 가졌고, '간다락, 간드락' 등은 변음으로 보인다. 看과 間은 '간'의 음가자 표기, 月은 '뭉' 또는 'ㄷ'의 훈가자 표기, 落은 '락'의 음가자 표기로 보인다. '걸ㄹ로'와 '간드락'은 일찍부터 행정상 我羅好里 > 我羅里 > 我羅洞에 속했다.

'다라곶·다라곶'은 지금 月坪 마을의 옛 이름이다. 別羅花·別 𪎐花 등으로 표기되었다. 別은 '다라-'의 음가자 표기, 羅는 '라'의 음가자 표기, 花는 '꽃(花 𪎐 화<백련 1>·꽃(빛 𪎐 爲梨花<훈민-원, 해례:18>))의 훈가자 표기로, 꽃·나무·덩굴 등이 어우러진 수풀의 뜻이다. '以藪 爲高之(藪를 '고지'라 한다.)' 『탐라지』(風俗), '金寧藪 藪諺作花(김령곶:藪는 방언으로 花라 한다.)' 『신증동국여지승람』(권38, 제주목)과 '方言 稱藪 曰花(방언으로 藪를 花라 한다.)' 『남환박물』(誌地) 등의 기록으로 볼 때, 花는 두 음절 '고지' 또는 한 음절 '꽃'으로 읽을 수 있다. 別羅花·別 𪎐花는 '다라+ㅅ(사잇소리)+꽃'의 구성이며, 발음상 '다라곶'이 된다. '다라곶'은 이의 변음이다. '다라'를 '高'의 뜻을 가진 고구려어 達과 관련시킨다면, '높은 숲' 정도의 뜻이 된다. 그러나 아라1동에 있는 '인다라'와 아라2동에 있는 '다라곶' 등의 '다라'도 같은 뜻이라고 한다면 '인다라'와 같은 것은 정상적인 어구성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앞에서 우리는 '다라'가 坪의 뜻으로 추정하였다. '다라곶'은 17세기에 別羅花里, 18세기 중후반에 別羅里라 하다가, 19세기 말부터 月坪으로 바꾸었다. 月은 '다라'를 '月'로 상징하여 붙인 것이고, 坪은 '곶'을 '드르 > 들'로 상징하여 붙인 것으로 보인다.

'가시나물·가시남물'과 '알무드내'는 지금 寧坪 마을에 있는 자연마을의 옛 이름이다. '가시나물'은 訶南·加吡南·訶木·加吡木·加時·加南物·加時羅勿 등으로 표기되었다. 이는 '갯남물 > 가시남물'의 표기로 보인다. 곧 '갯남 > 가시남(가시나무) + 물 > 물[水]'의 구성으로 보인다. '가시나물' 마을은 17,8세기에 행정상 '알무드내'에 속했다. 19세기 말부터 행정상 寧坪에 소속되면서, 오늘날은 '영평'의 웃동네라는 데서 寧坪 上洞이라 한다.

'알무드내'는 下無等川, 下無水川, 下無等乃, 下無水乃, 下無 등으로 표기되었다. 下는 '알'의 훈독

자 표기, 無는 '무'의 음가자 표기, 等은 한자음이 '등'이지만 '드'의 음가자 표기, 赤은 等の 약체자 표기로, '드'의 음가자 표기, 川은 '내'의 혼독자 표기, 乃는 '내'의 음가자 표기이다. 셋째 음절과 넷째 음절인 等·赤과 川·乃가 생략되어 下無로 표기되기도 하였다. 19세기 말에 '알무드내'는 한자 寧坪으로 표기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지금은 '영평'의 알동네라는 데서 寧坪 下洞이라 한다.

梧登洞은 '오드싱, ㄴ다시, 대갓' 등의 자연마을이 있었다. '오드싱'은 呑等生·呑赤生·五等生·五赤生·呑等·梧登 등으로 표기되었다. 呑와 五, 梧는 '오'의 음가자 표기이고, 等은 음이 '등'이지만 '드' 또는 'ㄷ'로 표기되는 음가자이고, 赤은 等の 생략형으로, 等과 같은 표기이다. 登도 '등' 또는 '드'의 음가자 표기이다. 生은 '생' 또는 변음 '싱'의 음가자 표기이다. 후대에는 주로 生을 생략하여 표기되었다. 민간에서는 '오드싱, 오드싱, 오드싱이, 오드싱이' 등으로 부른다. 그 뜻은 확실하지 않다. 'ㄴ다시'는 良多時·良多是·並多時·並多·加多時·加多柴 등으로 표기되었다. 良은 오늘날 한자음이 '간'이지만 '곤'의 음가자 표기, 민간의 'ㄴ다시'를 고려하면 '간' 또는 '곤'에서 변한 것이 '가' 또는 'ㄴ'인 것으로 보인다. 並은 '뽕-'(並 낱을 병<신합-나손본>)의 혼가자 표기로, 역시 민간에서 'ㄴ'로 변했다. 加는 '가' 또는 'ㄴ'의 음가자 표기이다. 多는 '다'의 음가자 표기, 時와 是, 柴는 모두 '시'의 음가자 표기이다. 민간에서는 '가다시, ㄴ다시'로 부른다. 그 뜻은 확실하지 않다. 지금은 마을이 없어졌다. 1834년(순조34)에 목사 한응호가 오동동 'ㄴ다시'에 南學堂을 세워 서민교육에 힘썼는데, 지금은 '남학당터'라는 지명만 남아 있고, 주변은 밭으로 변했다. 가끔 기왓조각이 나온다고 한다. 'ㄴ다시'는 두 성바지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 마을을 이룩했다는 데서 이런 이름이 붙여졌다고 한다. '대갓'은 竹城으로 표기되었다. 竹은 '대'의 혼독자 표기, 城은 '갓'의 혼독자 표기이다. 민간에서는 '대갓'보다도 한자 이름 '죽성'으로 많이 알려졌다. 마을이 城처럼 둘러싸인 대나무 숲에 있었다는 데서 이런 이름이 붙여졌다고 한다. 19세기 말에 오동동 'ㄴ다시'와 '대갓' 등을 합쳐 漢北里라 하였다. 마을 서쪽을 흐르는 '한내' 윗쪽에 있는 마을이라는 데서 이런 이름을 붙였다가 나중에 오동동에 통합되었다. '오드싱'은 17세기에 呑等生里, 19세기 중후반에 呑等里라 하다가 19세기 말에 呑等を 梧登으로 바꾸어 표기하였다.

(9) 呑羅好[오라호], 道內山[도내미] > 呑羅好村[오라호마을], 道內山里[도내미마을] / 井室岩里[정실암마을] > 呑羅里 > 呑羅洞

呑羅洞은 呑羅1·2·3洞의 법정동과 5개의 자연마을을 거느리고 있다. 「탐라순력도」에 道內山, 呑羅好, 「여지도」에 道內山, 五羅好村, 「탐라지도」에 呑羅好村, 道內山里, 「제주삼읍도총지도」에 呑羅好村, 道內山里, 井室岩, 月郎窟, 「탐라방영총람」에 呑羅好里, 井實岩里, 「제주읍지」에 呑羅好里, 井室岩里, 「제주지도」에 呑羅里, 井實洞, 「속음청사」에 呑那威·呑羅威, 「삼군호구가가총책」에 呑羅로 표기하였다. 呑羅洞은 옛날 '오라위'라 하였다. '오라위'는 呑羅好·五羅好로 표기되었다. 呑와 五는 '오'

의 음가자 표기, 羅는 '라'의 음가자 표기, 𪛗는 羅의 축약형으로, '라'의 음가자 표기, 好는 한자음이 '호'이지만 '우·웃·웅[上]의 음가자 표기로 보인다. 지명 뒤에 붙는 특수한 접미사로, '마을'의 뜻으로 쓰인다. 威는 '우'의 변음 '위'의 음가자 표기이다. 吾那威·吾羅威는 '오라위'의 음가자 결합 표기이다. '오라동'은 17세기에 吾羅好里, 19세기 말에 吾羅里, 1955년에 吾羅洞이라 하였다. 正實은 오라동의 한 법정동이다. 옛날에는 '도내미'라 하였다. 민간에서는 '도노미'로 많이 알려졌다. '도내미'는 道內山으로 표기하였다. 道는 '도'의 음가자 표기로, 제주도방언 '도'(입구 또는 어귀)를 뜻한다. '도'는 신라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⁵¹⁾ 內는 '내'의 음가자 표기이다. 민간에서는 유사음 '노'로 변하였다. 山은 '뫼'의 제주도방언 '미'의 훈가자 표기이다. '내미'는 민간에서 '노미'로 변하였는데, 이는 표준어 '넘-'[越]에 명사형성접사 '-이'가 붙은 '너미'의 변음으로 보인다. 곧 道內山은 '도내미' > '도노미'의 표기로, '도를 넘는 곳'이란 뜻이다. 마을 남쪽에 목장으로 출입하는 井室 峯梁[정실바윗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었다. 이 곳을 '동도노미'라고도 하는데, 이는 서쪽의 '서도노미'(애월읍 어도리)에 상대하는 말이다. '서도노미'에도 윗쪽에 光南梁이 있다. '정실'이라는 표기는 마을 남쪽에 있는 井室峯·井實峯이라는 우물에 있는 바위라는 데에서 연유한다. 지금 이 우물 근처에는 '도노밧당'이 있다. '정실암'은 민간에서 '정수암'이라고도 부른다. 애초에는 마을 이름을 道內山[도내미] > '도노미'라 하다가 18세기 경부터 '정실암'이라는 우물과 바위를 주 상징으로 내세워, '정실암마을'이라 부르고, 나중에는 峯을 생략하고 한자도 바뀌어 井實로 굳어져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정실'은 19세기 말까지 독립된 자연마을로 존재하다가 20세기 초에는 吾羅里에 통합되었다.

(10) 延洞·蓮洞[넛골·넛굴, 道好路[돌호로·도호로] > 蓮洞里 > 蓮洞

蓮洞은 옛날 '넛골·넛굴'과 '돌호로'라는 자연마을이 있었다. 『탐라순력도』에 延洞, 道好路, 『탐라지도』에 延洞村, 道好村, 『제주삼읍도총지도』에 道好老村, 延洞村, 『제주읍지』 등에 蓮洞里로 표기하였다. 蓮洞은 옛날 '넛골·넛굴'이라고 했다. 延洞은 '넛골'의 표기이다. 延은 '끌다, 이끌다'의 훈을 가진 한자로, '잇다, 이어 가다'의 중세국어 '넛-'의 훈독자 표기, 洞은 '골'의 훈독자 표기이다. 延洞

51) 沙梁部(梁讀云道 或作 涿亦音道)/사도부(梁은 '도'(道)라고 읽는다. 혹은 涿자로도 쓰는데 역시 음이 '도'(道)이다.) <一國遺事>(卷 第一, 新羅始祖 赫居世王) // 旃檀梁 城門名 加羅語 謂門 爲梁云/旃檀梁은 성문 이름이다. 가라말로 門을 梁이라 한다.<삼국사기>(권44) 羅人方言 讀涿音 爲道 故今或作 沙梁亦讀道/신라 사람의 사투리에 涿을 道(도)로 읽으므로, 이제 이르러서 더러는(沙涿을) 沙梁이라 쓰며 梁도 道(도)로 읽는다.<삼국유사>(권1, 辰韓)

梁 涿 梁 水橋也 又水脈也 又石絕木 爲梁<훈몽-초, 상:2>

『삼국사기』(권44)와 『삼국유사』(권1, 진한)의 예문을 비교하여 보면, 梁은 '도'로 읽으며, 門의 뜻이라 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門의 뜻으로 쓰이는 '도'는 가라말 또는 신라말임을 알 수 있다.

은 18세기 중반 이후에 延을 蓮으로 고쳐 蓮洞으로 바꾸었다. 이때부터 '연동'이라는 지명의 뜻을 연꽃에 비기어 설명하기 시작했다. 오늘날은 蓮洞으로 굳어졌다. '돌호로'는 18세기 중반까지 독자적인 자연마을로 발전하였으나, 18세기 중반 이후부터 행정상 연동리에 소속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옛 지도 등에 道好路·道好老·道好 등으로 표기하였고, 민간에서는 '돌호로' 또는 '리'이 탈락한 '도호로'로 부른다. 道는 '돌'의 불완전한 음가자 표기, 好는 '호'의 음가자 표기, 路와 老는 '로'의 음가자 표기이다. 道好의 한자 뜻에 순응하여 '교통이 편리한 곳'이라 했다고 하나 민간어원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서쪽에 큰 바위가 있었다는 데서 '돌호로'라 했다고 하는데, 확실하지 않다.

(11) 老兄[노형], 月郎花[ㄷ랑꽃], 廣坪[넙은드르], 伊生·利生[이생] > 老衡洞, 海安洞

老衡洞은 老衡洞과 海安洞 등 2개의 법정동을 거느리고 있으며, '원노형, ㄷ랑꽃, 넙은드르, 해안, 이생이' 등 5개의 자연마을이 있다. 『탐라순력도』에 老兄, 月郎, 廣野, 海安, 伊生里, 『탐라지도』에 老兄村, 月郎花, 廣坪村, 海安村, 伊生村, 『제주삼읍도총지도』에 老兄村, 月朗花村, 廣坪村, 海安村, 伊生村, 『탐라방영총람』에 老兄里, 伊生里, 『제주읍지』에 老衡里, 伊生里, 『제주삼읍전도』에 老兄里, 利生里, 『제주지도』에 老兄里, 月山里, 海安里, 『삼군호구가간총책』에 老衡, 海安으로 표기하였다. 老兄·老衡은 '노형'의 음가자 결합 표기이다. 그 뜻은 확실하지 않다. 민간에서는 행정명인 '노형동'과 구분하기 위해서 '원노형(元-)'이라 부르고 있다. '도랑꽃'은 月郎花·月朗花·月郎 등으로 표기되었다. 月은 '달' 또는 'ㄷ'의 음가자 표기, 郎과 朗은 '랑'의 음가자 표기, 花는 '꽃'의 훈가자 표기로, 藪의 뜻이다(아라동 月羅花 설명을 참조할 것). 月郎花·月朗花는 'ㄷ랑꽃'의 표기이고, 月郎은 花[꽃]가 생략된 'ㄷ랑'의 표기이다. 현지인들은 '도랑꽃, 다랑꽃' 등으로 부르는데, 모두 'ㄷ랑꽃'의 변음이다. 'ㄷ랑'은 '작은 내'를 뜻하는 고유어 '도랑'에 대응하는 것이다. 곧 '작은 내가 흐르는 숲'이란 뜻이다. '넙은드르'는 廣野·廣坪으로 표기되었다. 廣은 '넙-'(廣 너블 광<천자-광>)에 관형사형어미가 붙은 '넙은'의 훈독자 표기, 野와 坪은 '드르'(夜 드르 야<천자-석, 27), 坪 드르 평 大野[坪]<훈몽-초, 상:2>)의 훈독자 표기이다. '넙은 들판'이라는 뜻이다. '이생이'는 伊生·利生 등으로 표기되었고, '이승이, 이성이' 등으로도 부른다. 19세기 중반까지도 독립된 자연마을이었으나, 19세기 말에는 그 아래쪽에 있는 '해안' 마을에 통합된 것으로 보인다. 마을 위쪽에는 목장으로 통하는 伊生梁[이생도]가 있었다. 그 뜻은 확실하지 않다. '해안'은 海安으로 표기되었다. 민간에서는 '기눈·계눈'이라고도 한다. 옛날에 蟹眼[기눈]이라 했다가 海安이라고 했다고 하나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謎題로 남겨둔다. 적어도 18세기부터 독립된 자연마을로 존속해오다가, 1962년 행정구역상 노형동에 통합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월산' 마을은 19세기 중반에 마을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月山으로 표기되었는데, 지형이 달같이 생겼다는 데서 이런 이름을 붙인 것이라고 한다.

(12) 都近川[도근내], 修正·水淨·水淨[수정] > 內都近川里[안도근내마을], 外都近川里[밖도근내마을] > 外都洞, 內都洞

‘도근내’는 ‘내(川)’의 이름이면서, 이 내의 하류에 형성되어 있는 마을 이름으로도 쓰인다. 『익재난고』에 都近川, 『태종실록』에 修正寺, 『신증동국여지승람』에 都近川, 水精川, 朝貢川, 都近浦·都近川浦, 水精寺, 『탐라순력도』에 水淨, 都近川浦, 水精寺, 『제주삼읍도총지도』 등에 水淨村, 外都近川, 內都近川, 都近川浦, 『탐라방영총람』에 內都近川里, 外都近川里, 水淨里, 『제주읍지』에 內都近川里, 外都近川里, 『제주삼읍전도』에 外都里, 內都, 都近浦, 『제주군읍지』에 外都里, 內都里, 朝貢川, 水精川, 都近川, 獨近浦, 『삼군호구가간총책』에 內都, 外都로 표기하였다. 都近川은 ‘도근내 > 도근내’의 표기이다. ‘도근’의 뜻은 확실하지 않으나, 문법상 관형사형으로 보인다. 박용후(1992:117,151)는 고문헌의 기록에 의해 ‘도근내’는 朝貢川[도공내 > 도근내]의 변음을 다른 한자로 표기한 것에 불과하다고 했으나, ‘도근내’와 ‘조공내’의 어원은 다른 것이다. ‘조공내’는 고려시대에 원나라에 조공할 때, ‘도근내’를 이용했기 때문에 생긴, ‘도근내’의 별칭이다. ‘수정내’도 고려시대 때 ‘도근내’ 주변에 있었던 ‘수정사’와 수정사 주변에 있었던 ‘수정마을’과 관계된 이름으로, 역시 ‘도근내’의 별칭이다. 배우리(1994:2권.355)는 ‘도근내’를 ‘독근내 > 도근내 > 도근내’로 변화한 것으로 보고, ‘독’은 ‘돌’[石]의 뜻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도근내’를 달리 ‘도감내’라고 하는데, 이도 ‘독근내 > 도근내 > 도근내 > 도갓내 > 도간내 > 도감내’로 변한 것이라 하였다. 이를 고려하면, 『제주군읍지』에 나타나는 獨近浦[독근개]의 ‘독’도 ‘돌’의 뜻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독(명사) + 近(?) + 내(명사)’의 구성을 합리적으로 설명되어야 한다. 현재로서는 미제로 남겨둔다.

水淨村은 ‘수정마을’의 표기이다. ‘수정마을’은 고려 때 있었던 ‘수정사’라는 절 주변에 형성된 마을이라는 데서 붙여진 것이다. 18세기 후반에 행정상 ‘밖도근내마을’에 통합되었다. ‘도근내’ 하류를 중심으로 바깥쪽에 형성된 마을을 外都近川里[밖도근내마을], 안쪽에 형성된 마을을 內都近川里[안도근내마을]이라 하였다. 19세기 중후반에 都近川[도근내]의 ‘근’과 ‘내’를 생략하여 外都里와 內都리로 표기하였다. 1962년 동계 실시에 따라 행정상 외도동 관할이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13) 坪代[벵딤] > 都坪代里[도벵딤마을] > 都坪里 > 都坪洞

외도동 ‘도평동’의 옛 이름은 ‘벵딤’이다. 『탐라순력도』 등에 坪代, 『탐라방영총람』 등에 都坪代里, 『제주삼읍전도』에 都坪里, 『제주군읍지』에 虎塘里, 『삼군호구가간총책』에 都坪으로 표기하였다. 坪代는 ‘벵딤’의 표기이다. ‘벵딤’은 ‘넓은 벌판’을 뜻하는 제주도방언이다. 18세기 중반에 나타나는 都坪代는 ‘도벵딤’의 표기로, ‘도’는 ‘도근내’를 뜻한다. 곧 ‘도근내’ 주변에 있는 ‘벵딤’라는 데서 붙여진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구좌읍 ‘벵딤’(지금의 평대리)와 구별하기 위한 것이다. 19세기 중반에는 都坪代의 代를 표기에서 생략하여 都坪으로 표기하기 시작하였다. 19세기 후반 한때 虎塘里라 했다가 20세

기 초에 다시 都坪이라 하여 오늘에까지 이르고 있다. 1962년부터 법정상 외도동 관할이 되었다.

(14) ㅍㅍ弄·ㅍㅍ弄(오도릉), 可沙浦[가물개], 白浦[백개] > 梨湖里 > 梨湖洞

梨湖洞에는 '오도릉, 백개, 가물개' 등이 자연마을이 있다. 『탐라순력도』에 ㅍㅍ弄, 可沙浦, 『탐라지도』에 ㅍㅍ弄里, 白浦串, 可沙村, 可沙浦, 『제주삼읍도총지도』에 ㅍㅍ弄里, 可沙村, 可沙村, 可沙浦, 『제주삼읍전도』에 可沙浦, 白浦, 『제주지도』에 ㅍ道村, 白浦洞, 可沙洞으로 표기하였다. 이호1동에는 속칭 '백개'와 '가물개(현재 '감은모살'로 많이 알려짐.)'이라는 자연마을이 있었다. '백개'는 白浦로 표기되었다. '白'은 '백'의 혼독자인지, 음가자인지 확실하지 않다. 浦는 '개'의 혼독자 표기이다. 白이 혼을 강조했다면 '흰개' 정도의 음상을 반영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민간에서는 '백개'라는 음상만 확인할 수 있다. 주변에 흰 돌과 흰 모살이 많았다는 데서 그렇게 불렀다고 하는데, 바로 서쪽 '감은모살'이 있기 때문에 흰 모살이 많았다면 '흰모살' 정도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白은 혼독자가 아닌 음가자 표기로 본다. '감은모살'은 玄沙 또는 黑沙로 표기된다. 玄과 黑은 '감·검-'에 관형사형어미가 붙은 '감은'의 혼독자 표기, 沙는 '모래'의 제주도방언 '모살'의 혼독자 표기이다. 그러나 '감은모살'이라 하고 한자 표기로 玄沙와 黑沙라 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옛 지도에는 可沙浦, 可沙村, 可沙村의 표기로만 나타나기 때문이다. 可는 '감·검-'에 관형사형어미가 붙은 '감은'의 불완전한 음가자 표기, 沙는 '모래'의 제주도방언 '모살'의 앞선 형인 '물개'의 혼독자 표기이다. 浦는 '개'의 혼독자 표기로, 마을 이름으로 쓰일 때는 생략되기도 한다. '가물개'는 지금 잊혀진 지명으로, 이호2동 '오도릉' 서쪽에 '섯가물개'라는 지명에서 '가물개'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 특히 『제주삼읍도총지도』에 이 지역을 可沙村이라 표기하였는데, 이는 '옛가물개마을'의 한자 표기이다. 주변의 비석에 上可水(웃가물개), 西可物(섯가물개) 등의 표기도 그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 당시 이미 마을은 쇠락했던 것으로 보인다. '가물개'는 '감은 물개'의 뜻으로 하나의 어휘로 합쳐지면서 관형사형어미는 물론 어두음절의 말음 'ㅍ'도 탈락한 것이다. 나중에 '가물개'로 변하였다. '감은모살' 또는 이것을 한역한 玄沙洞이라는 표기는 그리 오래되지 않은 것이다. '모살' 역시 '물개'의 후대형임을 알 수 있다. '오도릉 > 오도릉'이라 하는 마을은 ㅍㅍ弄·ㅍㅍ弄·ㅍ道 등으로 표기되었다. ㅍ는 '오'의 음가자 표기, 弄은 '돌' 또는 말음 'ㄹ'이 탈락한 'ㄷ'의 혼가자 표기, 弄은 弄의 생략형 표기, 道는 '도'의 음가자 표기, 弄은 '릉'의 음가자 표기이다. 민간에서는 '오도릉, 오도릉' 등으로 부른다. 그 뜻은 확실하지 않다. ㅍ道는 一貫之理하는 선비가 많은 마을이라는 데서 붙여진 것이라고 하나, 이것은 ㅍ道라는 한자를 그대로 해석한 것에 불과할 뿐, ㅍㅍ弄·ㅍㅍ弄(오도릉)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므로 이런 해석은 민간어원설에 불과하다. 梨湖洞은 20세기 초까지도 제주군 도두리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1914년에 행정구역 개편 때 중면 道頭里의 일부를 제주면 梨湖里라 하여 분리되었다. 梨湖라는 이름은 '백개'를 가리키기 위한 '흰 과일배'라는 뜻으로 梨, 浦를 湖로 바꾼 것이라는 설, '백개'의

白을梨, '덕지논'을湖로빠꾼것이라는설 등이 있으나확실하지 않다.

(15) 道道里[도도리], 道圓·道頭里[도두리] > 道頭洞

道頭洞에는 '도두리, 다위, 몰래물, 홀캐' 등의 자연마을이 있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道道里浦, 道道里岳, 『탐라순력도』에 道道浦, 泥乙浦, 多好, 『여지도』에 道道村, 道圓浦, 泥浦村, 多好村, 『탐라지도』에 道道村, 多好村, 泥浦村, 『제주삼읍도총지도』에 道道村, 泥浦村, 『제주읍지』에 道頭里, 『제주지도』에 道頭里, 多好洞, 沙水洞, 『속음청사』에 塗頭里, 『삼군호구가간총책』에 道頭로 표기하였다. 道頭는 道道里·道道·道頭·道圓·塗頭里 등으로 표기되었다. 민간에서 '도도리, 도두리'라고 부른다. 道와 塗는 '도'의 음가자 표기, 道里는 '도리'의 음가자 표기, 頭里는 '두리'의 음가자 표기이다. 道道里는 '도도리'의 표기이다. 道道는 里가 생략된 표기이다. 道頭는 '도두리'에서 '리'를 표기에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道圓은 '도두리'의 표기이다. 圓은 '도리·두리'의 혼독자 표기이다. '도도리' 또는 '도두리'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분석할 수 있다. 하나는 동사어간 또는 동사어간에 관형사형어미가 붙은 형태이다. 곧 중세국어의 '도드룩하다(峰)' 또는 '도돌-(循)'에 대응하는 뜻이다.⁵²⁾ 김종철(1995:54)에서 '도돌오름은 도도룩이 도드라진 모습'에서 붙여졌다고 하였다. 제주도방언에도 '도도룩하게 내밀거나 드러나다'의 뜻인 '도드룩하다'가 쓰인다. 두 번째는 '도+도리(두리)'로 분석할 수 있다. '도리(두리)'는 '돌리(돌레)'라고도 하는데, '둥글다(圓)'의 뜻이다. 제주도방언의 '도리방석·돌레방석, 돌레떡, 도레물(廻水)과 '돌레박'의 '도리·돌레, 도레, 돌레'가 중세국어 '두리(圓 두리 원 <천자-광 35>), 돌에(而, 輪), 두레(量), 돌에 > 도래(圓)' 등에 대응하는 것이다. 전자보다 후자가 語構成에 합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道頭는 예전에 島頭(섬머리)라고 했다는 데서 '섬의 머리' 마을이라는 뜻(김봉현, 1988:130), '한길의 머리'라는 뜻(박용후, 1992:159), '도+돌(石)' 혹은 '돌은(숫아난)'의 뜻(배우리, 1994:2권, 287)에서 붙여졌다고 하나, 모두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한자 표기 道道里는 '도도리'의 음가자 표기, 道道는 '리(리)'가 탈락한 것, 道頭는 道道의 변음을 반영한 표기, 道圓의 道는 음가자, 圓은 '도리·두리'의 혼가자 표기이다. 현재는 道頭로 통일되었다.

일찍부터 독립된 자연마을로 발전하였다. 20세기 초까지 지금 이호동 부분도 제주군 도두리에서 관할하였다. 그러다가 1914년 행정구역 폐합 때 도두리 일부(지금의 이호동 지역)는 제주군 제주면 이호리라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제주군 제주면 도두리라 하였다. 옛날 '도두리' 지역은 지금 도두1동이 되었고, '다위, 몰래물, 홀캐' 등의 자연부락은 법정구역상 도두2동이 되었다.

민간에서는 '다위'라고 하는데, 한자 표기 多好를 고려하면 음상이 '다호'임을 알 수 있다. 多好는 '다호'의 음가자 결합 표기이다. '다'의 뜻은 확실하지 않다. 好는 吾羅好, 我羅好의 好와 같은 것으로

52) 사롬 돈너 시냇 窟이 모다 도드룩한 ㅅ 窟을 프러(取千步峯泥 사롬 돈너 시냇 窟이 모다 도드룩한 ㅅ 窟)(구간 3:55)

『濟會誌 村頭는 머리 도드러리로다(濟會誌 村頭循述)』(두해-초, 16:62)

보인다. '호'는 '훙·우' [上]의 뜻으로, 제주도 지역의 특수한 어휘로 볼 수 있다. 대개 지명 뒤에 사용되어 '마을'의 뜻으로 쓰이는 것으로 보인다. 옛 '다위' 지역은 제주국제공항이 들어서서, 이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新里마을로 이주하여 살고 있다. 茶湖(『속음청사』)는 '다호'의 음가자 표기라고 할 수 있다.

'홀캐'는 泥乙浦·泥浦로 표기되었다. 泥는 '흙·홀'(泥 즌홀 니<유합-철장사본>, 즌홀 니<유합-영장사본>, 泥饅 홀손<동해, 상:17>)의 혼독자 표기, 乙을 '홀'의 발음 '리'의 음가자 표기이다. 泥乙은 '홀'의 표기임을 알 수 있다. 浦는 '개'의 혼독자 표기이다. 泥乙浦·泥浦는 '홀캐'의 혼독자의 결합 표기이다. '몰래물'은 沙水로 표기되었다. 沙는 '모래'의 제주도방언 '모살'의 앞선 형인 '몰래'의 혼독자 표기이다. 水는 '물'의 혼독자 표기이다. 沙水는 '몰래물'의 표기로, 모래밭에서 나는 물이란 뜻이고, 주변에 마을이 형성됐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여졌다. 과거 '몰래물' 지역은 지금 제주국제공항에 소속되었다. 이 지역에 살던 사람이 '홀캐' 지역으로 이주하면서 '새몰래물' [新沙水洞]마을을 형성하였다. 이에 대응하는 지명으로 '옛몰래물' 지역을 舊沙水洞이라 한다.

2) 서귀포시(12개 행정동, 22개 법정동)

(1) 加內 / 加來[더내 / 더래] > 江汀[ㄹ롬중] > 江汀(강정)

『중종실록』에 加內浦, 『신증동국여지승람』에 加內大川·加內小川, 『탐라지도』 등에 大加內川, 小加內川, 1858년의 호구단자에 加內[더내] 등으로 기록되어 있다. 『탐라지』에 大加來川, 小加來川, 1858년의 호구단자에 加來里로 기록되어 있다. 1697년의 別給文記에 江汀, 『탐라순력도』와 『탐라지도』 등에 江汀村, 江汀浦, 『제주읍지』에 江汀里로 기록되어 있다. 이상의 기록을 볼 때, 加內 / 加來가 江汀보다 앞선 표기임을 알 수 있다. 그러면 加內/加來의 음상과 의미는 무엇인가? 江汀의 음상과 의미는 무엇인가? 한자음 그대로 '가네 > 가내 / 가리 > 가래', 또는 '강정'으로 읽으면 되는가? 진성기(1975:119)에서 江汀은 물이 많이 나는 마을이라는 데서 붙여진 이름이라 하였다. 김봉현(1988:287-288)에서 加來[더래], 加內는 江汀의 옛 이름이고, 江汀은 강정천 유역의 평야에 이루어진 마을이라는 데서 붙여졌다고 하였다. 박용후(1992:169)에서 江汀은 加來川 서쪽 강가에 접한 마을이라는 데서 붙여졌다고 하였다. 오성찬(1992:149)에서 江汀은 냇가에 위치한 데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였다. 加內와 加來는 모두 같은 음상을 반영한 표기로 보인다. 加는 '더'의 혼가자로 볼 수도 있고, 가(또는 유사음 'ㄹ')의 음가자로 볼 수도 있다. 內는 중세국어 한자음이 內(內 안 니<훈몽-초, 하:15>)이고, 來는 중세국어 한자음이 來(來 올 리<백련 23>)이지만, 이 둘은 동일한 음상을 나타낸 음가자 표기로 보인다. 가능한 두 가지 해석을 보면 다음과 같다. 하나의 해석은 加內 / 加來를 '더내 > 더내 / 더러 > 더래'의 표기로 보는 것이다. 그러면 加內川과 加來川을 '더넛내'와 '더랫내', 加內浦와 加來浦는 '더

넷개'와 '더랫개' 정도의 음상을 반영한 것으로 보아야 하나, 이런 음상은 현지인들을 통해서 확인하기 어렵다. 다만 강정동 웃동네 동쪽 넷가에 있는 동네를 '더넷동네' 또는 '더닛동네'로 불리는 것을 볼 때, 이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또 하나의 해석은 加內 / 加來를 가니 > 가내 / 가리 > 가래'의 음가자 표기로 보는 것이다. 이때 '가니/가리'는 중세국어 '가르/가롤 [派]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가르'는 '몫가르 > 물가래 > 물가리 > 물가래 > 물가리 > 물갈래'⁵³⁾와 같은 변화를 거친다. 곧 加內 / 加來는 '가리'의 음가자 표기이며, '가리'는 오늘날의 '물 갈래[강물이 갈려서 흘러내리는 가닥]'의 '갈래'의 옛말로 보는 것이다. 내[川] 주위에 마을이 형성되면서, 마을 이름도 加內 / 加來로 불렸다. 이름 加內川 / 加來川은 '가릿개 > 갈랫개'의 표기, 大加內浦 / 大加來浦는 '한가릿내 > 큰갈랫내'의 표기, 小加內浦 / 大加來浦는 '아끈가릿내 > 작은갈랫내'의 표기, 加內浦 / 加來浦는 '가릿개 > 갈랫개'의 표기로 보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음상도 현지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없다. 그러므로 加內 / 加來는 '가니 / 가리'의 음가자 표기라기 보다는 '더니 > 더내'의 한자 표기로 보아야 할 것 같다. 加來를 '더래'로 읽은 것은 김봉현(1988:288)에서 처음 보이고, 오창명(1996:34-35)에서 더 자세하게 논의하였다. 그러나 '더니 > 더내'의 뜻은 분명하지 않다. 加內 / 加來가 江汀이란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한 것은 고문서 자료 등의 표기를 고려할 때, 늦어도 17세기 후반 이전부터 쓰였다. 그러나 加內 / 加來라는 마을 이름은 19세기까지도 쓰였다. '강'을 뜻하는 한자 江(江 ㄱ롬 강 俗謂川之大者 皆曰江 又水名 <훈몽-초, 상:2>, 江 江海江西人呼 강 <사해-중, 하:40>)과 '몫 > 물 > 汀 물 > <신합, 상:6>) > 물 > 물가'를 뜻하는 汀이 결합한 표기이다. 곧 강 가(加內川)에 자리잡은 마을이라는 데서 붙여진 것으로 보인다. 江汀은 'ㄱ롬 ㄱ > 강 >'의 한자 표기인데, 나중에 한자음 '강정'으로 굳어져서 오늘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江亭(『속음청사』)은 江汀의 잘못된 표기이다.

(2) 大浦村[큰개마을] > 大浦里 > 大浦洞

大浦洞의 옛 이름은 '큰개'이다. 『탐라순력도』에 大浦, 『제주삼읍도총지도』 등에 大浦村, 『제주읍지』에 大浦里, 『제주삼읍전도』에 大坪里, 大浦, 『제주지도』에 大浦里로 표기하였다. 大浦는 '큰개'의 혼독자 표기이다. '큰개' 가까이에서 형성된 마을이라는 데서 붙여졌다. 19세기 중후반에 大坪리라 하였는데, 이는 오늘날의 大浦 마을과 月坪 마을을 아울러 일컫는 이름으로 보인다. 19세기 후반에 다시 독립된 大浦 마을로 분리되었다. 1914년 행정구역 폐합 때 옛 大浦里의 일부(이때 일부는 廻水里에 포함됨.)를 제주군 좌면 大浦리라 하였다. 1982년 중문면이 서귀포시에 포함되면서, 행정상 중문동에 속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53) 派 몫가르 패 水支流 <훈몽-초, 상:3>, 派 물가래 패 <신합, 하:59>, 木派 물가리 <동해, 상:8>, 河汊 물스ㄱ래 <한청 1:44>, 派 물가리 파 <왜어, 상:9>

(3) 石宋村[돌송이] > 石宋里 > 道順洞

道順洞의 옛 이름은 '돌송이'이다. 『탐라순력도』에 石宋, 『탐라지도』 등에 石宋村, 『제주읍지』에 石宋里, 19세기의 고문서와 주변의 비석에 石宋員, 『제주삼읍전도』 등에 道順里로 표기하였다. 민간에서는 '돌송이, 돌생이, 돌송이' 등으로 부른다. 石宋과 石宋員은 모두 '돌송이'의 표기이다. 石은 '돌'의 혼독자 표기이다. 石은 '돌'의 음독자 표기로, 한국한자이다. 말음 '이'는 명사에 붙는 접사이므로, 표기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石宋·石宋員[돌송이]는 '돌+송이'로 분석된다. '송이'는 지역에 따라 '송'이라고도 한다. '화산재가 굳어서 돌맹이같이 잘게 부서진 돌덩이'를 뜻하는 제주도방언이다. 곧 이 지역이 '돌로 된 송이'가 많다는 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石宋員의 員은 '곳'(員 곳 : 도리 出在處 見 公私文簿<新字典>)으로 읽히며, 오늘날 地境 정도의 뜻으로 쓰인다. '돌송이'의 한자 표기인 石宋·石宋員의 표기가 좀 천박하기 때문에, 19세기 중후반에 이르러서 부드러운 이름인 한자 道順으로 바뀌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82년 서귀포시 月坪洞으로 바뀌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4) 法還浦[법환잇개], 法汗浦[법한이잇개] > 法汗村[법한이마을] > 法還里

『남사록』에 法還浦, 『탐라순력도』에 法汗浦, 『탐라지도』 등에 法汗村, 法汗浦, 『제주지도』에 法還里, 『제주삼읍전도』에 法還浦, 法還里로 표기하였다. 法還은 '법환이'의 음가자 표기, 法汗은 '법한이'의 음가자 표기이다. '법환이, 법한이'의 뜻은 확실하지 않다.

(5) 甫涯木浦[볼레낭개] > 甫木里[볼레낭개마을] > 甫木洞

甫木洞의 옛 이름은 '볼레낭개'이다. 『남사록』에 甫涯木浦, 『탐라순력도』에 甫木浦, 『탐라지도』에 甫木村, 甫木浦, 『제주삼읍도총지도』에 甫南村, 甫木浦, 『제주읍지』에 甫木里로 표기하였다. 보목동은 일찍부터 '볼레낭·볼레남'(보리수나무)의 많은 '개'라는 데서 민간에서는 '볼레낭개' 또는 '볼레남개'라 불려왔다. 甫涯木浦는 '볼레낭개·볼레남개'의 표기이다. 甫는 '보'의 음가자 표기로, '볼'의 말음 '리'이 표기에 반영되지 않았다. 涯는 '애'의 음가자 표기로, 유사음 '레'의 표기이다. 木은 '낭' 또는 '남'의 혼독자 표기이다. '낭·남'은 '나무'를 뜻하는 제주도방언이다. 浦는 '개'의 혼독자 표기이다. 표준어 '보리수나무'는 근대국어에서 '보리슈남·보류슈남'(拘奈子 보리슈<물보, 목과>, 子大如小杏核 有四路者 봄 보리슈 子細如小麥 核不堅者 가을 보리슈<물명 4:8>, 보류슈남<교사조 766>)로 나타나는데, 제주도방언에서는 '볼레낭·볼레남'으로 실현된다. 甫木浦도 '볼레낭개·볼레남개'의 표기로, 둘째 음절 '레'를 표기에서 생략한 것이다. 甫木村과 甫木里도 '볼레낭개마을' 또는 '볼레남개마을'의 차자 표기로, 둘째 음절 '레'를 생략하여 표기한 것에 불과하다. 甫涯木浦는 첫째 음절의 말음 '리'이 표기에 반영되지 않았을 뿐이지 '볼레낭개·볼레남개'를 비교적 완전하게 차자로 표기한 것이다. 주변의 비석에선 甫涯木은 本乃木, 本來木, 本內南, 本乃南 등으로도 표기되는데, 모두 '본레

남[본래남]의 차자 표기에 불과하다. 甫木浦와 甫木里는 지명의 두 글자화에 따라 둘째 음절 '레'를 표기에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볼레낭개·볼레남개'가 한자 표기 甫木里로 쓰이면서 민간에서는 한자어의 음상을 반영하여 '볼목리'라 부르기도 한다.

(6) 막은다리[塞達] > 穢達洞

穢達洞은 예래동에 속한다. 穢達의 옛 이름은 '막은다리, 막은골'로 불린다. 『신증동국여지승람』 등에 塞達川, 『제주삼읍도총지도』 등에 塞達村, 『제주읍지』와 19세기의 고문서 등에 塞達里, 『제주삼읍전도』 등에 穢達里로 표기하였다. 塞達은 '막은다리'의 표기이다. 塞은 '막은(塞 마글 식<유합-나손본>)'의 혼독자 표기이고, 達은 '다리'의 음가자 표기이다. 塞達[막은다리의 塞은 19세기에 말에 한자 穢(穢 추슈 식<유합-나손본>)]으로 바뀌었다. 결국 穢達은 '막은다리'를 표기한 것이 아니고, 塞達을 바꾸어 표기한 것에 불과하다. 이때부터 '막은다리'는 穢達로 표기되었고, 오늘에까지 이르고 있다. '막은다리'의 '다리'는 '높은 곳' 혹은 '산'을 뜻하는 고구려어 達⁵⁴⁾에 대응되는 것으로 보인다. '막은다리'[塞達]는 원래 '막은다리내'[塞達川]에 연유하며, 내 주위에 마을이 형성되어, '막은다리' 또는 '막은골'이라고도 불렸다.

(7) 西歸浦, 豐德[풍덕?] > 西歸浦

서귀포는 일찍부터 西歸 또는 西歸浦로 표기되었다. 문헌에 따라 歸는 약자인 皈 또는 故로도 표기되었다. 西歸의 어원에 대해서는 미상이다. 이제까지 西市過此설과 연관시켜 논의하기도 했지만, 이는 하나의 說에 불과할 뿐이다. 정방폭포의 암벽에 새겨져 있다는 西市過此를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본 사람도 없다. 西市 일행이 한라산에서 不老草를 캐고 서쪽으로 돌아갔다는 데서 西歸라고 했다는 것은 한자의 뜻에 맞추어 누군가가 조작한 것으로 보인다. 일찍부터 한자화하여 표기하고, 고유어의 음상도 잃어버려서 그 어원을 밝히기가 매우 어렵다. 『탐라순력도』에 西歸浦, 西歸(鎭), 旧西(旧西歸), 『제주읍지』 등에 西歸里, 『정의지도』에 西歸鎭, 豐德里, 『삼군호구기간총책』에 豐德으로 표기하였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서귀포가 豐德里로 표기되었는데, '풍덕'의 음가자인지 아니면 혼독자로 쓰여 '덕이 많은 곳'이라는 뜻에서 붙인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

(8) 羔屯[염둔] > 瀛南洞

瀛南洞은 大川洞에 속한다. 옛 이름은 '염둔, 염둔'이라 한다. 영남동은 18세기의 고지도와 고문헌

54) 高城郡 本高句麗 達忽, 土山縣 本高句麗 息達, 高木根縣 高句麗 達斬<삼국사기>(권35)

高城과 達忽, 土山과 息達, 高木根과 達斬과의 대비에서 高와 達, 山과 達과의 대응을 확인할 수 있다. 고대일본어의 'take' (高), 'take' (嶺)와도 비교된다.

에 나타나지 않다가 19세기 말의 고지도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이 당시에 새로 만들어진 지명이다. 그 이전에는 '염둔[羔屯]으로 나온다. 『탐라지』 등에 羔屯, 『제주삼읍도총지도』에 羔屯村으로 표기하였다. 그러나 『제주읍지』에는 江汀里와 道順里만 나오는 것으로 보아, 이 당시에 행정상으로는 江汀里에 속했던 것으로 보인다. 羔屯은 '염둔·염둔'의 차자 표기로, 원래 果園이 있었다. 羔는 '염' (羔 염 고 羊 염 양<천자-광 9)>의 혼독자 표기로, '염쇼' > '염쇼'를 뜻하는 고유어이다. 屯은 '여럿이 모여 있는 곳'을 뜻하는 한국한자이다. '염둔'은 옛날 염소들을 모아두는 곳을 뜻한다. '염둔'은 19세기 말에 瀛南里라 하였다. 瀛南(영남)은 한라산을 일컫는 瀛洲山의 瀛과 남쪽을 뜻하는 南을 결합하여 만든 새로운 이름이다. 옛날 '염둔[羔屯], 내팻[龍興洞], 종북이왓[月山洞], 서치마르, 활오름[弓山洞], 틀남밭[機木洞]' 등으로 불리던 중산간 마을을 합쳐서 瀛南里라 하다가, 1981년 서귀읍이 시로 승격하면서 행정상 大川洞에 포함되었다.

(9) 延來[연래], 猓來[예래] > 猓來縣[예래현] > 猓來村[예래마을] > 上猓來里[웃예래리], 下猓來里[알예래리], 城山里[자스름] > 猓來洞[上猓洞, 下猓洞]

猓來洞의 옛 이름은 '연리'이다. '연리'의 현실음은 '열리'이다. 한자 표기는 猓來(縣.村), 延來 등으로 나타난다. 『탐라지』에 충렬왕 26년(1300)에 猓來縣이 설치되었다는 기록이 있으므로, 그 이전에 마을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濟州行兵都統使贊成事崔瑩等牒』(1375)에 延來, 『신증동국여지승람』에 猓來縣, 『탐라순력도』에 猓來, 『탐라지도』 등에 猓來村, 『제주지도』에 上猓來里, 下猓來里, 城山里, 『제주삼읍전도』에 上猓, 下猓, 『대정군지도』에 上猓里, 下猓里, 新猓里, 城山岳, 『제주지도』에 上猓里, 下猓里, 新猓里, 『삼군호구가간총책』에 上猓, 下猓로 표기하였다. 猓來보다 延來가 *연래 > *열래 > 연리'의 음상을 비교적 가깝게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연리 > 열리'의 뜻은 확실하지 않다. 延來는 '연래'의 음가자 표기이다. 延은 '연'의 음가자 표기, 來는 '래'의 음가자 표기이다. 민간에서 주로 '연리[연래]'라고 하는데, 이 표기와 음상이 매우 가깝다. 猓來는 '예래'의 음가자 표기이다. 猓는 '연'의 변음 '엘'의 '예'를 표기한 음가자로 보인다. 애초에는 '연래' 정도의 음상을 지녔고, '연래'는 둘째 음절 초성 'ㄹ'의 영향으로 '열래', 이것이 후대에 '연리 > 열리'로 변한 것으로 보인다. 그 뜻은 확실하지 않다. 한편 '웃열리(상예동)의 '보리술' 북쪽에 '존좌동(尊坐洞)'이라는 마을이 있다. 이 마을은 옛날 '존잣벵디'로 불리던 곳이다. 『탐라지도』와 『해동지도』(『제주삼현도』) 등에 '꺾[𪛗] 峯坪代'로 표기되어 있다. 꺾[𪛗] 峯坪代는 '존잣벵디 > 존자벵디'의 표기이다. 꺾는 '쇼 > 소' 또는 '쵸 > 조'로 읽히는 한자인데, 여기서는 '쵸 > 조'의 음가자 표기로 쓰였다. 𪛗은 隱의 부수 冫의 약체자로, 'ㄴ' 표기로 쓰인 음가자이다. 峯는 '자'의 음가자 표기, 坪代는 '평대'이지만, 제주도방언 '벵디'의 표기이다.

55) 심훈 지위에 나뉠 뜨른 염의 갓오솔 주늬다(苦寒贈我靑羔笠)(두해-중, 19:26)

召[峇峇代는 곧 '존자벵디'를 일컫는다. 그런데 오늘날은 '존자'를 한자 尊坐로 고치고 '목사가 순행할 때 쉬던 곳'(한글학회, 1986:495)이라고 설명하지만, 이는 민간어원설에 불과하다. 上猊來와 下猊來는 '웃예래, 알예래'의 표기이고, 여기서 다시 둘째 음절 '래'가 생략되어 上猊, 下猊로 표기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연리'는 18세기에 上猊와 下猊로 나뉘고, 19세기 말에는 上猊, 下猊, 新猊의 세 마을로 나뉘었다가, 20세기 초에 다시 上猊, 下猊 두 마을로 나뉘어진다. 1981년 중문면이 서귀포시에 통합되면서 猊來洞으로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10) 牛屯[쇄둔·쇄돈] > 上孝敦里[웃쇄둔마을], 中孝敦里[중쇄둔마을], 下孝敦里[알쇄둔마을] > 新孝里, 下孝里, 上孝里 > 孝敦洞

孝敦洞의 옛 이름은 '쇄둔' 또는 '쇄돈'이다. 『자영록』에 上·下牛屯, 『탐라순력도』에 牛屯[쇄둔], 『탐라지도』 등에 上牛屯村, 下牛屯村, 『여지도』에 牛屯村, 下牛屯村, 『제주읍지』에 上孝敦里, 中孝敦里, 下孝敦里, 『제주삼읍전도』에 新孝里, 上孝里, 中孝里, 下孝里, 『삼군호구가간총책』에 上孝, 中孝, 新孝, 下孝, 18세기 고문서에 牛屯里乙內員 등으로 표기하였다. 민간에서는 '쇄둔·쇄돈, 웃쇄둔, 알쇄둔' 등으로 부른다. 牛屯은 '쇄둔' 또는 '쇄돈'의 표기이다. 牛는 '소'의 제주도방언 '쇄'의 혼독자 표기이다. 屯은 '둔'의 음가자 표기로, '여럿이 모여서 이룬 떼'를 일컫는 말이다. 곧 '쇄' [牛]를 모아서 두었던 곳이라는 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쇄둔'은 '쇄돈'이라고도 하는데, 나중에 한자 孝敦으로 바꾸어 표기하면서, 孝敦으로 굳어졌다. 孝敦의 한자음은 '효돈'이지만, '효'의 제주도방언은 '소'이므로, '효돈'은 '소돈' 혹은 '쇄둔'의 음가자 표기이다. 牛屯을 孝敦으로 바꾸어 표기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오늘날까지도 민간에서 '쇄둔·쇄돈'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牛屯이 당시 음상을 정확하게 반영한 표기라 할 수 있다. 18세기 고문서에 나오는 牛屯里乙內員은 '쇄둔마을 안 곳'의 차차 표기이다. 牛屯은 '쇄둔'의 표기, 里乙은 '마을'의 표기이다. 里는 '마을'의 혼독자 표기이고, 乙은 '마을'의 둘째 음절 말음 '리'의 표기이다. 丙은 '마을 안'의 뜻이고, 員은 '곳'(員 곳: 도리 出在處 見公私文簿(新字典))으로 읽히는 한국한자로, 오늘날의 地境 정도의 뜻에 해당하는 것이다. '쇄둔'은 17세기에 이미 큰 마을로 형성되었다. 그래서 원래의 '쇄둔'은 '上牛屯'[웃쇄둔]이라 하였고, 그 밑에 다시 마을이 번성하여 '下牛屯'[알쇄둔]이라 하였다. 후에 '웃쇄둔'과 '알쇄둔' 사이에 다시 마을이 번성하여 中牛屯[중쇄둔]이 형성되었다. 그러다가 19세기 말에 다시 新牛屯[새쇄둔]이 형성되었다. 나중에 '웃쇄둔'은 上孝敦, '중쇄둔'은 中孝, '알쇄둔'은 下孝敦, '새쇄둔'은 新孝敦으로 표기하였다. 점차 지명의 2음절로 표기되면서 셋째 음절 '둔' 또는 '돈'을 생략하여 上孝, 中孝, 下孝, 新孝로 표기하기도 하고, 上孝敦, 中孝敦, 下孝敦, 新孝敦에서 접두사 上, 中, 下, 新을 없애고 아울러서 孝敦이라 하기도 하였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옛 中孝里와 上孝里 일부(상효리 나머지 일부는 하례리로 편입됨.)가 上孝里, 옛 下孝里와 新孝里的 각 일부가 下孝里, 下孝里와 新孝里的 각 일부가 新孝리로 통합되었

다. 이 세 마을 체계가 계속 이어지다가, 1981년 서귀읍이 시로 승격하면서, 上孝는 靈泉洞 소속이 되고, 新孝와 下孝는 孝敦洞으로 통합되었다.

(11) 月坪[돌벙딤] > 月坪洞

月坪洞의 옛 이름은 '돌벙딤'이다. 月坪은 18세기 이전의 고지도에는 나오지 않고, 19세기 말의 지도에 나오는 것으로 보아, 이 당시에 형성된 마을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전에는 大浦里와 下院里에 속했던 것으로 보인다. 『제주삼읍전도』에 大坪里, 『제주지도』 등에 月坪里, 『삼군호구가간총책』에 月坪으로 표기하였다. 민간에서는 '돌벙딤·돌벙디'라고 부른다. 月坪은 '돌벙딤'의 차자 표기이다. 月은 '돌'의 훈독자 표기이다. 坪은 '넓은 벌판'을 뜻하는 제주도방언 '벙딤·벙디'의 음가자 표기로, 둘째 음절 '딤·디'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았다. '벙딤'는 한자 坪塗 또는 坪代로 표기되기도 하는데, 이는 '벙딤'의 음가자 표기라 할 수 있다. 마을의 형세가 '돌'[月]과 같은 坪塗를 이룬다는 데서 '돌벙딤'라 하였고, 이를 한자로 표기한 것이 月坪이라고 전해진다. 19세기 중후반에 大坪里라 하였는데, 이는 오늘날의 大浦 마을과 月坪 마을을 아울러 일컫는 이름으로 보인다. 만약 이때의 大坪의 坪이 지금 月坪을 지칭하는 것이라면 이 당시부터 月坪 마을이 커지기 시작했고, 19세기 후반부터 독립된 月坪 마을로 분리되었다고 할 수 있다.

(12) 中文村[중문마을] > 中文里 > 東文里, 上文里, 中文里 > 中文里 > 中文洞

『탐라순력도』에 中文, 18세기 초의 고문서에 中文里, 『탐라지도』에 中文村, 『제주읍지』에 中文里, 『대정군지도』에 仲文里, 仲文浦, 仲文院, 『제주지도』에 東文里, 上文里, 中文里, 道文里, 『대정군지도』에 上文里, 中文里, 東中文里, 『삼군호구가간총책』에 上文, 東中文, 中文으로 기록하였다. 中文은 '중문'의 음가자 표기로, 그 뜻은 확실하지 않다. 中文이라는 표기는 19세기 중엽까지 쓰였는데, 19세기 중후반에 仲文里로도 쓰였다.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까지는 中文里가 커지면서 上文里, 中文里, 東中文里로 나뉘기도 하였다. 1914년 행정구역 폐합 때 옛 上文里와 中文里를 통합하여 中文里라 하였다.

(13) 土坪[튀평] > 吐坪里 > 吐坪洞

『탐라순력도』에 土坪, 『탐라지도』에 水近代坪代, 『제주삼읍도총지도』에 土坪村, 『제주지도』 등에 吐坪里로 표기하였다. 민간에서는 '뚫드르'라고 불린다. 土와 ㅌ는 오늘날 음이 '토'이지만 '뚫'의 음가자 표기, 坪은 '벙딤' 또는 '드르'의 음가자 표기이다. '뚫'은 '돼지'의 제주도방언이고, '벙딤'는 '벌판' 또는 '들판'을 뜻하는 제주도방언이다. '드르'는 '들'의 고형이다. 『탐라지도』의 '수근대벙딤'의 표기로 보아, 이 일대가 '벙딤'였음을 알 수 있다. 猪野村, 猪坪里라고 표기한 것은 '뚫드르'의 차자 표

기이다.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옛 '토평리'와 '동흥리'의 각 일부를 통합하여 吐坪里라 하였다.

(14) 岳洞[오름골] > 下院里 > 河源里 > 河源洞

『탐라순력도』에 岳洞, 『탐라지도』 등에 岳洞村, 『제주읍지』에 下院里, 『제주삼읍전도』에 下院里, [제주지도]에 河源里, 法河, 『삼군호구가간총책』에 河源으로 표기하였다. 1914년 옛 중면 河源里 일부(다른 일부는 월평리에 포함됨.)를 河源里라 하였다. 河源에는 고려시대부터 조선 초기까지 법화사라는 큰 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절터만 남아 있다. 이 法華寺에는 行客이 머무는 院이 있었다(『남사록』). 예전에는 屈玉岳(> 龜岳 > 窟山峰 > 屈山峰) 가까이 있는 마을이라는 데서 岳洞 혹은 岳洞村이라고 했다. 岳洞은 말 그대로 '오름골'의 표기이다. 18세기 중엽부터 下院里라 했는데, 이는 院 아랫마을이라는 데서 붙여진 것으로 보인다. 下院은 19세기 중엽에 河源으로 한자 표기가 바뀌었다.

(15) 好斤磊 · 好近磊[호근머들 · 호근마을] > 好近水村[호근물마을] > 好近里 > 好近里, 西好里 > 호근동, 서호동

『남사록』에 好斤磊里, 『탐라순력도』에 好近磊, 『탐라지도』 등에 好近村, 『제주삼읍도총지도』에 好近水村, 『제주읍지』 등에 好近里, 『제주지도』에 好近里, 新好里, 『정의군읍지』에는 新好近里, 舊好近里, 『삼군호구가간총책』에 好近으로 나타난다. 1892년 씨족 간의 다툼으로 好近 · 西好里가 분리되기 시작했다고 알려지고 있으나, 20세기 초까지도 행정상 好近으로 쓰다가, 1900년대 중후반에 행정상 호근과 서호로 분리된 것으로 보인다. 好斤과 好近은 '호근'의 음가자 표기로 보이는데, 그 뜻은 확실하지 않다. 磊는 돌무더기가 있는 곳이란 뜻의 제주도방언 '머들'의 훈독자 표기이다. 水는 '물' > '물'의 훈가자 표기로, '마을'이 줄어든 '물'의 변음을 반영한, 훈가자 표기로 보인다. 지금도 민간에서도 '호근물'이라고 한다. 1914년 옛 호근리와 서호리를 각각 재편하여 호근리와 서호리로 나누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16) 烘爐縣[홍로현] > 烘爐里 · 烘爐村[홍로마을] > 東烘爐里[동홍로마을], 西烘爐里[서홍로마을] > 東烘里[동홍마을], 西烘里[서홍마을] > 동 · 서홍리

『신증동국여지승람』에 烘爐縣, 『남사록』에 烘爐里, 『지영록』에 烘爐, 『탐라순력도』에 烘爐, 『탐라지도』 등에 烘爐村, 『제주지도』에 東烘爐里, 西烘爐里, 『제주삼읍전도』에 東烘里, 西烘里로 표기하였다. 烘爐와 烘爐, 烘爐는 '홍로'의 표기이다. 일찍부터 한자화하였기 때문에 烘(烘 불뿔 홍<훈몽)과 爐(爐화로 로<신합)가 훈독자로 쓰인 것인지 음가자로 쓰인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 민간에서 '홍리'라 부르는데, '홍로'의 변음이다. 爐는 爐의 속자이다. 18세기 중후반에 東烘爐里과 西烘爐里가 행정상 나뉘었고, 19세기 경에 爐자가 빠져 東烘里, 西烘里라 하였다. 1914년 행정구역 폐합 때 옛 東烘里, 西烘

里, 吐坪里의 각 일부를 통합하여 東烘里, 옛 西烘里, 東烘里의 각 일부를 통합하여 西烘里라 하였다. 서귀포시 승격 이후에 東烘洞과 西烘洞이 되었다.

(17) 東海所 > 東海村 > 道文理[돌레물믈음] > 廻水里 > 廻水洞

『탐라순력도』에 東海所, 『제주삼읍도총지도』에 東海, 東海村, 『대정군지도』에 道文理, 『삼군호구가간총책』에 道文로 기록하였다. 1914년 행정구역 폐합 때에 옛 廻水里와 大浦里의 일부를 통합하여 廻水里라 하였다. 민간에서는 주로 '도래물'이라고 한다. 『조선왕조실록』에 東海의 기록과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나타나는 東海防護所의 기록으로 볼 때, 1510년에 '더내' (지금의 '강정')에 있었던 '동해' 방호소를 지금의 '회수' 지경으로 옮겼음을 알 수 있다. '회수'는 1510년에 '더내' [加內]에 있었던 동해방호소가 지금의 회수 지경으로 옮기면서 마을이 더 커진 것으로 보인다. 道文은 '도래물'의 음가자 표기로, 나중에 혼독자 표기인 廻水로 바꾸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도래물'은 '돌아서 흐르는 물'이라는 뜻이다.

3) 복제주군

(1) 翰林邑

① 大林[한술] > 大林里[한술믈음], 大屹里[한홀믈음] > 翰林里

翰林의 표기는 19세기 말 자료에 처음 나타난다. 『제주지도』와 『삼군호구가간총책』 등에 翰林(里)으로 표기한 이후, 현재 마을 이름은 물론 행정단위인 읍 이름으로도 쓰고 있다. 원래 한림은 大林里의 한 마을이었는데, 1884년(甲申) 대림리에서 분리되었다. 실제로 『제주군읍지』 이전 자료에는 大林의 표기만 나온다. 『탐라순력도』에 大林, 『제주지도』에 大林村, 『탐라방영총람』에 大屹里, 『제주읍지』에 大林里, 『제주삼읍전도』에 大林, 『제주지도』에 翰林里, 『삼군호구가간총책』에 翰林으로 표기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당시 이 동네는 '참나무'와 '굴무기나무' (느티나무) 등이 무성하게 숲을 이룬 마을로, '한술' 또는 '한술믈음'이라 했다고 한다. 大林은 '한술' > '한수풀'의 한자 차용 표기이다. 중세국어의 '한물(大水)' <두해-중, 1:58>, 한비(大雨) <용가 8:18, 67.>, 한설날(大歲日) <분문 13>, 한여홀(大灘) <용가 5:27> 등에 보이는 '한'은 '큰(大)'의 뜻을 가진 고유어이다. '술'은 '수풀'의 뜻을 가진 제주도방언이다. 후대에는 '수풀' > 수풀(林 수풀 립 <훈몽-초, 상:3> <신합, 상:5>)이라고도 하였다. 그러므로 大林은 '한술' > '한수풀'의 訓借 표기이다. 한편 翰林의 翰은 고유어 '한(大)'의 음가자 표기이고, 林은 '술'의 혼독자 표기이다. 大林에서 마을이 분리되면서 다른 차차 翰林으로 표기한 것이다. 大屹은 '한홀'의 표

기이다. 大는 '한'의 혼독자 표기, 屹은 '숲이 우거진 동산이나 언덕' 따위를 이르는 '홀'의 음가자 표기이다. '한홀'도 '한수풀'의 뜻이다. 18세기 말경에 大林에서 翰林이 분리되었다.

'강구리' [江龜里]는 원래 '한림리'에 속했었으나, '가마귀빌레'와 '강구못' 일대를 '강구리'라 하여 분리되었다.

② 石淺縣[돌여현?] > 歸德里[돌덕마을]

『고려사』(지리2)에 “熙宗 7年(1211)에 탐라현의 石淺村을 歸德縣으로 고쳤다(熙宗七年 以縣之石淺村 爲歸德縣).”는 기록으로 보아, 탐라국 시대부터 마을이 이루어진, 유서 깊은 마을이다. 나중에 里制가 시행되면서 歸德里로 바뀌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 등에 歸德浦, 『탐라순력도』 등에 故德浦, 『탐라지도』 등에 故德里, 卜德浦, 『제주삼읍전도』에 歸德里, 福德浦, 『삼군호구가간총책』에 歸德으로 표기하였다. 歸德縣은 1211년 이전에 石淺縣이었다. 石淺과 歸德이 대응되는 어휘라면, 石과 歸, 淺과 德이 대응됨을 알 수 있다. 石의 혼 '돌' (石 돌 석<훈몽-초, 상:2>)과 歸의 혼 '도라가-' (歸 도라갈 귀<유합-송광사본>)의 '돌'이 대응된다. 공교롭게도 '돌덕개' 동북쪽의 바다 가운데에 있는 외딴 섬을 '돌섬' 또는 한자로 回島라고 표기한다. 回島는 바로 '돌섬'의 표기이다. 이때의 '돌'도 石이 뜻일뿐, 回의 뜻은 아니다. 그러나 淺과 德의 대응관계는 불투명하다. 德은 '바위 너설'을 뜻하는 '덕'으로 보인다. 淺은 '널- > 열- > 알-'의 혼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는 '여홀', 곧 제주도 방언의 '여'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 구명해야 할 것이다. 歸德 바닷가의 표기로 歸德浦와 卜德浦·福德浦가 나타난다. 歸德浦는 '돌덕개'의 표기이고, 卜德浦·福德浦는 '복덕개'의 표기이다. 민간에도 '복덕개, 복덕동산'이라는 지명이 있다. '복덕'의 뜻은 확실하지 않으나, '덕'은 바닷가의 '바위 너설'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歸德과 福德의 관계도 더 구명되어야 한다.

③ 新興里

신흥리는 원래 한림읍 歸德里에 속했던 마을이었는데, 자연마을인 '마홀왓(또는 몰왓)'과 '한다리 > 한다리' 지경을 통합하여 새로 흥성한 마을이라는 데서 新興里라 했다고 한다.

④ 潛水浦[즈물개] > 潛水浦里[즈물개마을] > 洙源里·洙原里

洙源리의 옛 이름은 '즈물개'이다. 『탐라순력도』에 潛水浦, 『탐라지도』 등에 潛水村, 潛水浦, 『탐라방영총람』에 潛水里, 『제주지도』에 潛水浦里, 『제주지도』에 潛水里, 『삼군호구가간총책』에 洙源으로 표기하였다. 潛水浦는 '즈물개 > 즈물개'의 표기이다. 潛은 '잠' (潛 잠길 잠<신합, 하:4>)의 혼독자 표기, 水는 '물 > 물'의 혼독자 표기, 浦는 '개'의 혼독자 표기이다. '잠+물'은 '즈물'로 바뀌고 '개'의 어두음은 앞 음절 '리'의 영향으로 격음화하여 '즈물개'로 부른다. 이 마을에 '물질'하는 潛女가 많았

다는 데서 '즈물개'로 불렸다고 한다. 그러나 潛水[즈물]는 바다 속에 '잠긴 물'의 뜻으로 보인다. 곧 밀물 때에는 바닷물에 잠기고, 썰물 때에는 드러나는 우물이라는 뜻으로 보인다. 이를 한역화한 표기가 潛水浦이다. '즈물개' 주변에 마을이 형성되었으므로 潛水浦里라 했다. 셋째 음절 '개' [浦]가 생략 표기되어 潛水村 또는 潛水里라고도 했다. 이 마을은 潛嫂들이 사고를 많이 당하자(?) 1900년대 초에 洙源里로 마을 이름을 고쳐 불렸다고 한다. 나중에 源과 原을 혼동하여 쓰는 경우가 생겨, 지금도 洙源里(『제주도지』, 1권:559) 또는 洙原里(내무부, 1996)라 하고 있다.

⑤ 翰洙里

翰洙里는 1953년 북제주군의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翰林里의 일부와 洙源里의 일부를 통합하여 만든 행정마을이다. 마을 위치가 한림과 수원의 중간에 있으므로, 翰林의 翰과 洙源의 洙를 결합하여 翰洙里라 하였다.

⑥ 大林[한술], 立石[선돌] > 大林里[한술마을], 立石里[선돌마을] > 大林里

『탐라순력도』에 大林, 立石, 牛池浦, 『제주지도』에 大林村, 立石村, 馬頭浦, 『탐라방영총람』에 大屹里, 『제주읍지』 등에 大林里, 『삼군호구가간총책』에 大林으로 표기하였다. 大林은 '한술'의 표기이다. '한술'은 '한수풀'이라고도 하는데, '수풀'은 '술'의 후대음이다. 大는 '한'(大雨 한비<용가 8:18.67.>)의 혼독자 표기, 林은 '수풀'(林 스플 림<훈몽-초, 상:3>)의 제주도방언 '술'의 혼독자 표기이다. 大屹은 '한홀'의 표기이다. 屹은 '홀'의 음가자 표기로, 숲이 우거진 언덕이나 동산 따위를 일컫는 제주도방언이다. '한술'과 '한홀'은 같은 뜻을 알 수 있다. 立石은 '선돌'의 혼독자 결합 표기이다. 立은 '서-'[立]에 관형사형어미 '-니'이 붙은 '선'의 혼독자 표기, 石은 '돌'의 혼독자 표기이다. 민간에서는 '궁돌'이라고 부르는데, '궁돌'은 오늘날의 '고인돌'과 같이 큰 돌을 뜻하는 말이다. 18세기 초와 중반의 고지도에 大林村과 立石村이 보이지만, 『탐라방영총람』과 『제주지도』에는 大屹과 大林만 나타나므로, 18세기 중후반에는 두 마을이 행정상 한 마을로 합쳐졌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다가 19세기 말에 '한술' 지역은 翰林으로 표기되고, '궁돌' 지역은 大林으로 표기된다. 이때부터 '궁돌' 지역을 大林이라 한 것으로 보이고, 이때의 大林은 한자음 '대림'으로 읽었던 것으로 보인다.

⑦ 召 貴林·召隱貴林[존귀술] > 召 貴林里·召隱貴林里[존귀술마을] > 召貴林里[존귀술마을] > 上大里

상대리의 옛 이름은 '존귀술'이다. 민간에서는 '종구실'이라 한다. 『탐라순력도』에 召 貴林, 『탐라지도』 등에 召 貴林村, 『탐라방영총람』에 召貴林里, 『제주읍지』에 召隱貴林里, 『제주삼읍전도』 등에

上大里, 『삼군호구가간총책』에 上大로 표기하였다. 召 P 貴林 · 召隱貴林은 '존귀술'의 표기이다. 민간에서는 '종구술' 또는 '종귀실'이라고 하는데, 이들은 '존귀술'의 음이 변한 것이다. 召는 음이 '쇼' > '소'로 쓰이는 경우와 '조(召 召 囊也 대초 見醫方 召史 조이 良家妻 又寡婦 見吏讀(新字典)) > '조'로 쓰이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는 '조' > '조'의 음가자 표기로 쓰였다. 隱은 '은'의 말음 'ㄴ'의 음가자 표기로, '존'의 말음 'ㄴ'의 표기이다. P은 隱은 부수 ㄹ의 축약형으로, '존'의 말음 'ㄴ'의 음가자 표기이다. 구결 표기에 쓰이는 글자이다. 貴는 '귀'의 음가자 표기이다. 林은 '수ㅎ > 숲' 또는 '수플 > 숲'의 제주도방언 '술'의 혼독자 표기이다. 첫째 음절의 말음 '-ㄴ' 표기는 표기에 반영되지 않아, 召貴林으로도 표기되었다. 19세기 중후반에 '존귀술'은 上大리로 표기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上大는 上大林 곧 '웃한술'의 한자 표기에서 林을 표기에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뜻은 大林 위에 있는 마을이라는 데서 上大라 한 것이다.

⑧ 明月鎮(명월진), 明月浦(명월개) > 晩里 · 晩早(느지리 · 느조리) > 明月里, 東明里, 上明里

『중종실록』에 明月浦, 『탐라지』에 晩里, 『탐라순력도』에 明月, 水流川村, 鎮近, 牛屯村, 晩早望, 『제주삼읍도총지도』에 明月鎮, 水流川村, 牛屯村, 鎮近村, 『제주읍지』에 水流川里, 牛屯屯里, 『제주삼읍전도』에 明月鎮, 東明里, 西明里, 孝洞里, 『제주지도』에 西明, 東明, 上明, 晩照烽, 仁洞里, 『삼군호구가간총책』에 東明, 西明, 上明, 仁洞 등으로 표기하였다.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東明里, 明月里, 上明里라 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東明里는 옛날 '수룻내마을[水流川里], 진근이[鎮近], 라는 자연마을이 있었다. 水流川村과 水流川里는 '수룻내마을'의 표기이다. 18세기 후반까지도 독립된 행정마을이었으나, 19세기 중후반에 孝洞里, 1800년대 말에서 20세기 초반까지 仁洞里라 하다가 東明里에 통합되었다. 鎮近은 '진근(이)'의 음독자 표기이다. 鎮은 明月鎮을 뜻하고, 近은 '명월진 가까이 있는 마을'이라는 뜻에서 붙여졌다. 19세기 중반에 '명월진'의 동쪽에 있는 마을이라는 데서 東明里라 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上明里는 옛날 '느지리' 또는 '느조리'라는 자연마을이었다. '느지리'는 晩里, 晩早 · 晩照 등으로 표기하였다. 晩은 '늦'의 혼가자 표기, 早와 照는 '조'의 음가자 표기, 里는 '리'의 음가자 표기이다. '느지리' 또는 '느조리'라 부른 것은 '느지리오름' 또는 '느조리오름' 가까이에 있는 마을이라는 데서 붙여졌다. 19세기 중반에 명월진의 위쪽에 있는 마을이라는 데서 上明里라 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明月里는 옛 '명월진'의 중심지로, 19세기 중후반에서 1900년대 초반까지 西明月里라 하였다. 1910년경에 西를 빼고 明月이라 하였다.

⑨ 今勿岳里[금물오름마을], 黑岳村[검은오름마을] > 今岳里

『중종실록』에 今勿岳里, 『탐라순력도』에 黑岳村, 黑岳, 皮文, 皮文岳, 『제주삼읍도총지도』에 黑岳, 黑岳村, 皮文岳, 皮文村, 『제주읍지』에 今勿岳里, 『삼군호구가간총책』에 今岳으로 표기하였다. 1914년

옛 今岳里를 今岳里라 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今勿岳里는 '금물오름'의 표기이다. 今勿은 '금물'의 음가자 표기로, 중세국어의 '거믄'[黑]에 대응하는 표기이다. 岳은 '오름'의 훈독자 표기, 里는 '마을' > 茅 > 茅 > 茅의 훈독자 표기이다. 今岳里은 今勿岳里의 둘째 음절 勿이 표기에서 생략된 것이다. 黑岳村은 '검은오름'의 표기이다. 黑은 '검은'의 훈독자 표기이다. 今勿岳里와 대응하는 것이므로, 黑岳村도 '검은오름마을'로 읽을 수 있다. 皮文岳은 '갓글오름' 또는 '갓그리오름'의 표기이다. 皮는 '갓' (皮 갓 피 牛口皮<훈몽-초, 하:5>)의 훈가자 표기, 文은 '글' (文 글월 문<신합>)의 훈가자 표기로, '갓글-' [例의 둘째 음절 '글'의 음가자 표기로 쓰였다. 岳은 '오름'의 훈독자 표기이다. 거꾸로 된 오름이라는 뜻이다. 이 오름 주변에 형성된 마을을 皮文村이라 했다. 皮文村은 皮文岳村<갓글오름마을·갓그리오름마을>에서 岳이 생략된 것이다. 18세기 중반까지 독립된 마을을 형성했으나, 18세기 말부터 '금물오름마을'에 통합된 것으로 보인다.

⑩ 月林里

月林里는 1935년 제주군의 행정구역 변경으로 당시 한림면의 上明里 일부와 한경면의 楮岾里 일부를 갈라서 만든 마을이다. 明月의 月과 翰林의 林을 따서 月林이라 했다고 한다.

⑪ 獨浦·瀆浦·瓮浦[독개], 德浦[덕개] > 甕浦里

『속중실록』과 『신증동국여지승람』 등에 獨浦, 『남사록』에 瀆浦, 『탐라지』에 瓮浦, 『제주읍지』 등에 獨浦里, 『삼군호구가간총책』에 德浦로 표기하였다. 獨浦·瓮浦 또는 德浦로 표기된 '독개'는 1910년 경에 瓮浦里로 표기되고,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옛 瓮浦里를 瓮浦里라 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瓮을 甕으로 쓰기도 한다. 獨浦·瀆浦·瓮浦는 모두 '독개'의 표기이다. 獨과 瀆은 '독'의 음가자 표기, 瓮은 '독' (독 爲甕<훈민-원, 해례:26>)의 훈가자 표기, 浦는 '개'의 훈독자 표기이다. '독'은 甕·瓮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바위 너설'을 뜻하는 제주도방언 '덕'의 변음으로 보인다. 곧 바위 너설로 이루어진 개라는 뜻이다. 민간에서 '돌개, 돌코지'라고도 하는 것으로 보아, '돌' [石]의 변음 표기인 '독'의 음가자 표기로 볼 수도 있다. 의미는 같다. 德浦는 '덕개'의 표기이다. 德은 '덕'의 음가자 표기로, '바위 너설'을 뜻하는 말이다.

⑫ 俠才·夾財[협재] > 設재 > 挾才里

『신증동국여지승람』 등에 財巖, 小夾財, 『탐라순력도』에 俠才, 俠才浦, 『제주읍지』에 俠才里, 財巖, 小財, 『제주지도』에 挾才里, 『삼군호구가간총책』에 挾才, 1914년에 옛 挾才里를 挾才里라 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俠才浦는 '협재개' > '設재개'의 표기이다. 俠才는 夾財, 挾才 등으로 표기되는데, '협재'의 음가자 표기이다. 그 뜻은 확실하지 않다. 민간에서는 '협재개'의 어두음 'ㅎ'은 'ㅅ'으로 구개음화

하여 '섭재개'로 실현된다. '협재개' 주변에 형성된 마을을 '협재마을'이라 한다. 財巖·財岩은 협재리에 있는 바위로, '재바위'로 불렸던 것을 한자로 財巖으로 표기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小夾財의 표기도 보이는데, 이는 '좁은 협재바위'의 표기이다. 小財는 小夾財의 중간음 夾을 생략한 표기로, 역시 '좁은 협재바위'의 표기이다. 결국 '재바위'는 '협재바위'라고도 했는데, 줄여서 '재바위'라고 한 것으로 보인다. 한자 夾과 俠, 挾은 모두 '끼다'는 훈을 가진 한자인데, 오늘날 민간에서 혼독자로 쓰인 예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일단 음가자 '협'으로 읽는다. 俠才는 19세기 중후반에 挾才로 표기되면서, 오늘에까지 이르고 있다.

⑬ 飛揚島·飛陽島·飛楊島[비양섬] > 飛揚里

『명종실록』과 『신증동국여지승람』 등에 飛揚島, 『탐라순력도』에 飛陽, 『탐라지도』에 飛陽島, 『제주삼읍도총지도』에 飛揚島, 『제주읍지』에 飛楊島, 『속음청사』에 別良島, 飛良島, 『삼군호구가간총책』에 飛揚島로 표기하였다. 비양도는 민간에서 '비영섬, 대섬, 비량도, 죽도' 등으로 불리고 있다. 일찍부터 飛揚과 飛陽, 飛楊이 혼용되어 표기되었다. 단순히 음가자로 쓰인 것인가 혼가자로 쓰인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 민간에서 '비영섬'이라 하고, 『속음청사』의 別良島, 飛良島의 표기로 보아, 飛揚과 飛陽, 飛楊, 別良, 飛良은 음가자로 쓰인 것으로 보고, '비영섬 / 비양섬' 또는 '비령섬 / 비량섬' 정도로 읽기로 한다. 비양도를 '대섬', 곧 竹島라 하기도 하는데, 이는 『탐라지』(제주목, 산천)의 "飛揚島:…多箭竹[비양도]는… 살대가 많다."라는 기록에 근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 비양도에 '대섬'이라고 할 만큼 살대[箭竹]가 많지 않고, 옛 지도에도 竹島라는 표기를 확인할 수 없다. 혹 한경면의 遮歸島를 竹島라 했었는데, 이를 '비양도'로 잘못 본 결과가 아닌가 한다.

⑭ 盞令浦·排翰浦·排令浦[베령잇개·베령이] > 金陵里

『신증동국여지승람』 등에 盞令浦, 『탐라지』에 排翰浦, 『지영록』에 拜翰窟, 『탐라순력도』에 盞令浦, 排翰窟, 『제주삼읍도총지도』에 排令浦, 排令村, 『삼군호구가간총책』에 杯令으로 표기하였다. 1910년 경에 金陵리로 표기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盞令·排令·排翰·杯令은 모두 '배령'의 음가자 표기이지만, 민간에서 '버령이·베령이'라 하는 것으로 보아 '베령이'의 음가자 표기라 할 수 있다. 盞와 排, 杯 등은 모두 '배'의 유사음 '베' 또는 '버'의 음가자 표기, 令과 翰은 '령'의 유사음 '렝'의 음가자 표기이다. '베령이·버령이'는 '벌레' [虫]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1900년대 초반까지 행정상 '베령이'라는 독립된 마을로 있다가, 金陵리로 명칭을 변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한자 金陵은 마을 안에 있는 '금동산'이라는 이름에서 따온 것으로 보인다.

⑮ 감은질 > 月畝里

『삼군호구가간총책』에 月畝,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옛 월령리를 月畝里라 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제주읍지』(1899)에는 나타나지 않고, 1904년의 『삼군호구가간총책』에 月畝이라는 표기가 처음 나온다. 이전에는 '널개마을'에 속해서, 속칭으로 '감은질[가문질]'이라고 했었다. 곧 '검은 길'이란 뜻이다. '가문질'은 1900년대 초반에 한자 표기로 月畝이라 하였다. 지형이 반달형이라서 月畝이라 했다고 하나, 한자 표기 月을 중시한 해석으로 보인다. 畝는 '반달' 모양의 지형과는 상관이 없는 한자로 보이므로, 이러한 해석은 민간어원설로 보인다.

(2) 애월읍

① 涯月縣[애월현] > 涯月里

『태종실록』(16년 5월 정유)에 涯月縣, 『탐라순력도』 등에 涯月里, 涯月浦로 표기하였다. 涯月浦는 '애월개'의 표기이다. 오래전부터 涯月로 써왔고, 민간에서도 '애월[涯月], 애월코지[涯月串]'라 하기 때문에, 혼독자로 쓰였는지 음가자로 쓰였는지 알 길이 없다. 굳이 혼으로 이해한다면 涯月은 'ㄹ돌' 정도의 표기로 보인다. 'ㄹ'은 '해안가'라는 뜻이다. 제주도방언 '갯ㄹ, ㄹ디' 등에서 'ㄹ'을 확인할 수 있다. '돌'은 月의 뜻인지 확실하지 않다. 涯月里는 '애월개' 주변에 형성된 마을이라는 데서 붙여졌다.

② 郭支縣[곽지현] > 郭支里[곽지마을]

『태종실록』에 郭支縣, 『세종실록』(지리지)에 郭山, 『신증동국여지승람』 등에 郭支岳, 『탐라순력도』에 郭支浦, 郭岳, 『탐라지도』 등에 郭岳, 郭支里, 郭支浦, 『제주지도』 등에 郭支里, 郭支岳, 『삼군호구가간총책』에 郭支로 표기하였다. 郭支岳은 '곽지오름'의 표기이다. 郭支는 '곽지'의 음가자 표기이다. 岳은 '오름'의 혼독자 표기이다. '곽지'는 일찍부터 한자음으로 굳어졌기 때문에, 그 뜻이 확실하지 않다. 郭支岳은 둘째 음절 支가 생략되어, 郭岳 또는 岳을 山으로 고쳐 郭山으로 표기되기도 하였다. 郭岳은 '곽오름'의 표기로, 첫째 음절 '곽'의 발음 'ㄱ'이 발음에서 탈락하여 '과오름'이라고도 한다. 郭山도 '곽오름 > 과오름'의 표기라 할 수 있다. 郭支浦는 '곽지개'의 표기이다. '곽오름 > 과오름' 또는 '곽지오름', '곽지개' 주변에 형성된 마을이라서 郭支里라고 하였다. '곽지'의 뜻은 확실하지 않다.

③ 毛瑟浦[모슬개] > 錦城里

『탐라지도』 등에 毛瑟浦, 毛瑟村, 『탐라방영총람』과 『제주읍지』에 毛瑟浦里, 『제주읍지』에 錦城里, 『삼군호구가간총책』에 錦城으로 표기하였다. 毛瑟浦는 '모슬개'의 표기이다. 毛瑟은 '모래'의 제주도

방언 '모슬' 또는 '모살'의 음가자 표기이다. 浦는 '개'의 혼독자 표기이다. '모슬개' 주변에 형성된 마을이라는 데서 毛瑟浦里라 하였다. 「제주삼읍전도」에 郭支里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18세기 초중반에는 행정상 郭支里에 통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19세기 말(1894년 좌시우 훈장의 주장에 의해 관지리에서 분리되었다고 함)에 錦城里로 이름을 바꾸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錦城의 뜻은 한자 錦官城의 준말인 錦城의 표기로, 비단과 같이 아름다운 마을이라는 데서 붙여진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

④ 道內山里[도내미마을] > 於道內山里[어도내미마을] > 於道里 > 鳳城里

「탐라지」에 道內, 「한라장축」에 道內山, 道內望, 「탐라지도」 등에 道內山里, 「탐라방영총람」에 於道內山里, 「제주읍지」에 於道內里, 「제주삼읍전도」에 於道里, 道內烽, 「제주지도」에 於道里, 於道烽, 「삼군호구가간총책」에 於道로 표기하였다. 1914년에 옛 어도리를 於道里라 하였으나, 1953년 3월 鳳城里로 고쳐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道內山은 '도내미'의 표기이다. 道는 '도'의 음가자 표기로, '입구, 어귀'를 뜻하는 제주도방언, 內는 '남+이'의 연철음인 '내미'의 불완전한, 음가자 표기, 山은 '뒹'의 제주도방언 '미'의 혼독자 표기이다. '도내미'는 '도를 넘는 곳'의 뜻이다. 道內山 주변에 있는 마을이라는 데서 道內山里라 하였다. 18세기 중반에 於道內山里라 하였다. 이는 '어름비'를 뜻하는 '어'와 '도내미'를 결합한 형태로 보인다. 곧 '어름비' 가까이 있는 '도내미'라는 뜻이다. 이는 제주시 정실마을의 옛 이름인 '도내미' > 도노미(혹은 '동도노미')와 구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於道內山里는 山을 생략하여 於道內里라 표기하기도 하고, 內와 山을 생략하여 於道里라 하기도 하였다. 19세기부터 於道里라 표기하였다. 그런데 민간에서 於道里라는 마을 이름 때문에 마을에 좋지 않은 일이 많이 생긴다고 하여, 1953년 경부터 '어도리'를 鳳城里라 바꾸어 부르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鳳城은 한자의 뜻 그대로 마을에 있는 '도내미' > 도노미'라는 산이 봉황이 성을 두른 것과 같다는 데서 붙인 것이라 한다. '봉성리'가 공식 행정명으로 불리기 시작한 것은 1993년 4월 1일부터다. '도내미'는 제주시 '도내미'(정실마을)와 비교된다. 제주시 '도내미'를 '동도내미'라 하고 애월읍 '도내미'를 '서도내미'라 부른다. 이로 보아 '도내'는 '도(입구)를 넘는 마을'이라는 뜻에서 붙여진 것으로 보인다.

⑤ 氷非 · 於音非[어름비], 富面 · 夫面[부면 · 부면이], 道內山[도내미] > 於音里

於音의 옛 이름은 '어름비 · 어림비 · 어림빌레'이다. 「濟州行兵都統使贊成事崔瑩等牒」(1375)에 氷非, 「탐라지」에 富面, 「지영록」에 氷非村, 「탐라순력도」에 於音非, 「남환박물」(誌文)에 靛音飛面, 「탐라지도」 등에 於音非里, 夫面村, 「탐라방영총람」에 於音非里, 夫面里, 「제주읍지」에 夫面里, 於音非里, 「제주삼읍전도」에 於音里, 夫面里, 「제주읍지」에 於音里, 夫面洞, 「삼군호구가간총책」에 於音으로 표기하였다. 氷非는 '어름비'의 차자 표기이다. 氷은 '어름(어름 爲氷<훈민-원, 해례:25>, 氷 어름 빙<훈몽-초, 상:1>)'의 혼가자 표기이다. 非는 '비'의 음가자 표기이다. 於音非는 '어름비'의 음가자 표기

이고, 靛音飛는 '예름비'의 음가자 표기이다. 현지인들이 '어림비·어린비·어림빌레·어린빌레'라고 부르는 것으로 보아, '비'는 '빌레'의 약음자로, '땅에 넓적하게 묻혀진 너럭바위'의 뜻을 알 수 있다. '어름·어림·어린'은 동사의 명사형이거나 관형사형일 가능성이 있으나, 그 형태와 뜻이 확실하지 않다. 지금의 於音은 於音非(어름비)의 표기에서 非(비)를 줄인 것(19세기 중반)으로, 현재 마을 이름의 한자 표기로 쓰고 있다. 富面·夫面은 '부면' 또는 '부면이'의 음가자 표기이다. '부면' 또는 '부면이'의 뜻은 확실하지 않다. 현재 어음1·2리로 나뉘어져 있다. 어음1리는 옛 '부면이' 지역, 어음2리는 옛 '어름비' 지역이다.

⑥ 納邑[납읍] > 納邑里

『탐라순력도』에 納邑, 『탐라지도』 納邑村, 『제주읍지』 등에 納邑里, 『삼군호구가간총책』에 納邑으로 표기하였다. 納邑은 '납읍'의 음가자 표기로 보인다. '납읍'의 뜻은 확실하지 않다. 민간에서 '곽납, 과납'이라고 불렀는데, 이는 '곽'은 郭岳[과오름]의 郭과 관련된 것이고, '납'은 納邑의 納과 관련된 것이다. 혹자는 '과오름' 남쪽에 있는 마을이라는 데서 郭南이라 하다가 郭納이라 하였고 나중에 納邑으로 바뀐 것이라고도 하나 확실하지 않다.

⑦ 加樂[더럭] > 上加樂里[웃더럭마을], 下加樂里[알더럭마을] > 上·下加里

『탐라순력도』에 加樂, 『제주삼읍도총지도』 등에 上加樂村, 下加樂村, 『탐라방영총람』 등에 上加樂里, 下加樂里, 『제주삼읍전도』에 上加里, 下加里, 『삼군호구가간총책』에 下加, 上加로 표기하였다. 加樂은 '더럭'의 표기이다. 加는 '더'(加 더홀 가<유합-송광사본)의 훈가자 표기, 樂은 '락'의 유사음 '럭'의 음가자 표기이다. '더럭'은 고유어로 보이는데, 그 뜻은 확실하지 않다.

⑧ 𠄎莊·嚴莊[엄쟁이] > 新嚴(신엄)·中嚴(중엄)·舊嚴(구엄)

嚴莊은 18세기 중반 이전에 이미 新嚴莊里, 中嚴莊里, 舊嚴莊里로 분리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탐라순력도』에 𠄎莊浦, 『탐라지도』에 𠄎莊里, 𠄎莊浦, 『제주삼읍도총지도』에 新𠄎莊里, 𠄎莊里, 𠄎莊浦, 『탐라방영총람』 등에 新嚴莊里, 中嚴莊里, 舊嚴莊里, 『제주삼읍전도』 등에 舊嚴里, 中嚴里, 新嚴里, 『삼군호구가간총책』에 舊嚴, 中嚴, 新嚴으로 표기하였다. 𠄎莊과 嚴莊은 '엄장'이지만, 민간에서 부르는 '엄쟁이'의 한자 표기이다. '엄쟁이'의 음가자 표기로 보이는데, '엄쟁이'의 뜻은 확실하지 않다. 𠄎은 嚴의 윗부분을 생획(省劃:자획을 생략함.)한 글자이다. 한글학회(1986:422)에는 '영장(낭떠러지)'이었다는 데서 '엄장이'라고 했다고 하나, 억측으로 보인다. 옛날 소금밭이 있었다는 데서 鹽藏 伊라 했다가 '엄쟁이'로 변했다는 것이 통설이나,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⑨ 高內縣[고내현] > 高內里

『태종실록』에 高內縣, 『신증동국여지승람』에 高內岳, 『탐라순력도』에 高內浦, 高內望, 『제주읍지』 등에 高內里, 『삼군호구가간총책』에 高內로 표기하였다. 高內는 일찍부터 한자화하였지만, ‘고내’의 음가자 표기로 보인다. 그 뜻은 확실하지 않다.

⑩ 新巖里[새엄쟁이마을] > 龍興里

龍興里는 원래 신엄리에 속했던 ‘용머물’ 일대의 마을로, 1953년에 新巖里로부터 분리, 독립하여, 龍興里라 하였다. 龍興은 한자의 뜻 그대로 ‘용이 흥한다.’는 뜻에서 붙여진 것이다.

⑪ 貴日縣[귀일현] > 下 · 上貴里

『태종실록』(16년 5월 정유)에 貴日縣, 『신증동국여지승람』에 貴日村, 『탐라순력도』에 貴日, 君浪浦, 『탐라지도』에 貴日里, 貴日浦, 君郎村, 君浪浦, 『제주삼읍도총지도』에 上貴日里, 貴日浦, 君浪村, 君浪浦, 『제주읍지』에 上貴日里, 下貴日里, 『제주삼읍전도』에 上貴里, 下貴里, 貴日浦, 軍浪浦, 『제주지도』에 下貴里, 上貴里, 君浪浦, 『삼군호구가간총책』에 下貴, 上貴로 표기하였다. 貴日은 ‘귀일’로 읽어왔고, 민간에서도 ‘귀일’이라고 한다. 일찍부터 한자화했기 때문에 혼독자인지 음가자인지 확실하지 않다. 음가자로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그 뜻은 확실하지 않다. 옛 귀일리 지역은 上貴日[웃귀일]이라 하다가 19세기 중반 경부터 日을 생략하여 上貴라 하고 있다. 君浪浦와 君郎浦 · 軍浪浦은 모두 ‘군랭잇개’의 표기이다. ‘군랭이’의 뜻은 확실하지 않다. ‘군랭잇개’ 주변에 형성된 마을을 ‘군랭이’ 또는 ‘군랭이 마을’이라 했다. ‘군랭이’ 지역은 18세기 중반부터 下貴日에 포함되었다. 19세기 중반 경부터 日을 생략하여 下貴라고 했다. ‘알귀일’은 크게 ‘귀일개’ 주변과 ‘군랭잇개’ 주변으로 나뉜다. 1963년 행정상 下貴의 일부분을 분리하여 東貴里(‘군랭잇개’ 주변)라고 하였다.

⑫ 缸波頭里[항바두리 · 항파두리] > 古城里

『신증동국여지승람』에 缸波頭 古城, 貴日村, 缸波頭里, 『탐라지』에 缸坡城, 『탐라순력도』에 古城, 土城, 『탐라지도』 등에 缸破村, 『제주읍지』에 古城里, 『제주지도』에 上城, 古城里, 『삼군호구가간총책』에 古城으로 표기하였다. 缸波頭里는 ‘항바두리’ 또는 ‘항파두리’의 음가자 표기이다. 민간에서는 ‘항바두리’ 또는 ‘항바도리’라고 한다. ‘항파두리’는 한자 표기를 의식한 음상이다. 缸波頭는 ‘항바두리’의 넷째 음절 ‘리’가 표기에서 생략한 것이고, 缸坡城은 ‘항바두리성’에서 ‘두리’를 표기에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古城은 ‘항바두리 옛성[缸波頭古城]’에서 ‘항바두리’를 표기에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缸破村[항바성]은 ‘항바두리 옛성’에서 ‘두리’와 ‘옛’을 표기에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적어도 18세기 중반까지는 행정상 貴日村에 속해 있었다가, 18세기 중후반에 古城里가 분리되었다. 한자의 뜻 그대로

로 '항바두리 옛성' 주변에 형성된 마을이라는 데서 古城이라 하였다. '항바두리'의 뜻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다. 김봉현(1988:139)는 '항바+두리(도리:洞)'로 분석하고, 박용후(1992:177)는 '항(缸)+바두리(땅벌)'을 뜻하는 옛말 '바두리'의 옛말'로 분석하였다. 후자의 견해는 억측이라 할 수 있다.

⑬ 水山岳[물매·물미] > 水山里

『신증동국여지승람』에 水山岳, 『탐라지』에 水山, 『탐라순력도』에 水山, 水山望, 『탐라지도』 등에 水山村, 水山峰, 『제주읍지』에 水山里, 『삼군호구가간총책』에 水山으로 표기하였다. 水山은 '물매·물미'의 표기이다. 水는 '물 > 물'의 혼독자 표기, 山은 '뫼'의 제주도방언 '매·미'의 혼독자 표기이다. 곧 물이 있는 오름이라는 데서 水山이라고 했고, 水山 주변에 형성된 마을이라는 데서 水山里라 하였다.

⑭ 光靈·光舍[광령], 有信洞[이신굴] > 光舍里

『탐라지』에 光靈, 『탐라순력도』에 光舍, 有信洞, 『탐라지도』 등에 光舍村, 有信洞里, 『제주읍지』에 光舍里, 有信洞里, 『제주삼읍전도』에 西光里, 東光里, 『제주지도』에 光舍里, 有信洞, 『삼군호구가간총책』에 光舍으로 표기하였다. 光靈과 光舍은 모두 '광령'의 음가자 표기이다. 그 뜻은 확실하지 않다. 有信洞은 '이신굴'의 표기이다. 有은 '이시'(有 이실 유<신합, 상:7)의 '이'의 혼가자 표기, 信은 '이신'에 관형사형어미가 붙은 '이신'의 둘째 음절 '신'의 음가자 표기, 洞은 '굴'(洞 굴 동<백련-동 21) 또는 '굴'의 변음인 제주도방언 '굴'의 혼독자 표기이다. 민간에서는 '이승굴, 이승굴'이라 한다. 19세기 말에 한때 '광령리'를 東光里, '이신굴'을 西光里라 하였다. '동광령리'라는 뜻으로 東光里, '서광령리'라 하여 西光里라 했다가, 20세기 초에 통합하여 '광령리'라 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⑮ 牛路村·牛叱里[쉐질마을] > 新德里 > 召吉里

『탐라순력도』에 牛路, 『탐라지도』 등에 牛路村, 『탐라방영총람』에 牛叱里, 『제주읍지』에 牛路里, 『제주삼읍전도』에 新德里, 『제주지도』에 召吉里, 『삼군호구가간총책』에 召吉로 표기하였다. 1914년 옛 石吉里(石吉里的 召를 石으로 잘못 표기한 것으로 보임.)를 召吉里라 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牛路·牛叱은 모두 '쉐질'의 표기이다. 牛는 '소'의 제주도방언 '쉐'의 혼독자 표기, 路는 '길'의 제주도방언 '질'의 혼독자 표기, 叱은 '질'의 제주도방언 '질'의 음가자 표기(叱은 '쉐시'의 말음 '시' 표기로 볼 수도 있음.)이다. '쉐질' 주변에 형성된 마을이라는 데서 '쉐질마을'이라고 했다. '쉐질마을'은 19세기 중후반 한때 新德里[새덕마을]라 하였다가, 19세기 말에 다시 '쉐질'의 표준어 '소길'의 음가자 표기로 召吉로 표기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⑩ 長田[장밭] > 長田里

『탐라순력도』에 長田, 『제주삼읍도총지도』 등에 長田村, 『제주읍지』 등에 長田里로 표기하였다. 長田은 '장밭'의 표기이다. 長은 '장'의 음독자 표기, 田은 '밭'의 제주도방언 '밭'이 혼독자 표기이다. 곧 '긴 밭'이라는 뜻이다.

⑪ 今勿德[금물데기], 流水岩[흐리물바위] > 今德里, 黑德村[검은데기마을], 流水岩村[흐리물바위마을] > 今德里 > 流水岩里

『탐라순력도』에 今勿德, 流水岩, 可文岳, 『탐라지도』에 今勿德村, 流水岩村, 感恩岳, 『제주삼읍도총지도』에 黑德村, 流水岩村, 黑德岳, 『탐라방영총람』에 舊今勿德, 新今勿德里, 『전라남북도여지도』에 感恩德村, 流水岩村, 感恩岳, 『제주읍지』에 今勿德里, 『제주삼읍전도』에 今德里, 流水岩, 『제주군읍지』에 今德里, 流水洞, 『속음청사』에 西村 流水菴. 『삼군호구가간총책』에 今德으로 표기하였다. 今勿은 '금물'의 음가자로, '검음'[黑]의 뜻, 德은 '덕'의 음가자 표기로, '바위 언덕'의 뜻, 可文과 感恩은 '감은'의 음가자 표기, 黑은 '검은' 또는 '감은'의 혼독자 표기, 流는 '흐리'의 혼독자 표기, 水는 '물' > '물'의 혼독자 표기, 岩은 '바위'의 혼독자 표기이다. 今德은 今勿德에서 勿을 표기에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1914년 행정구역 폐합 때 '흐리물'과 '검은데기'를 행정상 今德里라 하였다. 이 이름은 1995년 12월까지 행정상으로 쓰였다. 그러다가 1996년 1월 1일부터 '금덕리'를 流水岩里라 개명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3) 구좌읍

① 細 P 花[ㄴ눈꽃] > 細花里

細花는 민간에서 'ㄴ눈꽃'이라 한다. 『탐라순력도』에 細花, 『탐라지도』에 細花村, 『제주삼읍도총지도』에 細 P 花村, 『탐라방영총람』 등에 細花里로 표기하였다. 細 P 花里와 細花里는 'ㄴ눈꽃마을'의 표기이다. 細 P와 細의 표기는 관형사형어미가 붙은 'ㄴ눈 > ㄴ눈' (細 ㄴ눈 세<백련 29>)의 표기이다.

P은 관형사형어미 'ㄴ'의 표기이다. P은 隱의 부수 ㄹ의 약자로, 흔히 생략되어 표기된다. 'ㄴ눈'의 뜻은 무엇인가? 'ㄴ눈 > ㄴ눈'의 뜻이 실제 細의 뜻인지 확실하지 않다. 현지인들과 기존의 연구자(박용후, 1992:85)들은 細의 뜻이라 하였다. 花는 '수풀'을 뜻하는 중세국어와 제주도방언 '꽃'(빛 꽃 爲 梨花<훈민-원, 해례:18>)의 음가자 표기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권38, 제주목, 산천)에 "수풀은 방언으로 '꽃'이라 한다(藪 諺作花).", 『남환박물』(지지에)에 "방언으로 수풀은 '꽃'이라 한다(方言稱藪曰花)."고 하는 등, 여러 문헌에 '꽃'의 음가자 표기로 花가 쓰였음을 알 수 있다.

② 無注浦(무주애) > 月汀(월정)

月汀의 옛 이름은 '무주애'이다. 『탐라순력도』 등에 無注浦, 『탐라지도』 등에 無注村, 『제주읍지』 등에 無注浦里, 『제주삼읍전도』에 에 無注里, 『제주지도』에 武州里, 『삼군호구가간총책』에 武州, 일제시대의 자료에 月汀 등으로 표기하였다. 無注浦를 현지인들은 '무주애'라고 한다. '무주'의 뜻은 확실하지 않다. '애'는 '개(浦)'의 어두자음 'ㄱ'이 유성음화한 것이다. '무주외'라고도 하는데, '외'는 '개'애(浦)의 변음이다. 처음에는 한자로 無注浦(里)라고 하다가 浦를 빼고 無注(里, 村)로 불렀다. 그후 1800년대 말부터 武州로 표기하다가, 일제시대에 月汀이라 하였다. 月汀은 한학자가 마을의 지형이 반달과 같고, 바닷가에 접해 있다는 데서 月과 汀을 합하여 만든 것이라고 한다.

③ 於等浦·魚登浦(어등개) > 魚登浦里·於等浦里[어등개마을] > 杏源里(행원리)

杏源의 옛 이름은 '어등개'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 등에 於等浦, 『탐라지』 등에 魚登浦, 『탐라지도』에 魚登浦里, 『탐라방영총람』에 魚木浦里, 『제주읍지』에 於等浦里, 『제주삼읍도총지도』 등에 魚登里, 『제주지도』에 杏源里로 표기하였다. 於等浦·魚登浦·魚木浦는 '어등개'의 한자 표기인데, 於等·魚登·魚木은 '어등'의 음가자 표기이다. 木은 等的 약체자이다. '어등'은 '어드본' > 어둔(暗)의 변음, 또는 '얻은' [得]의 변음 등으로 볼 수 있지만, 확실하지 않다. '어등개'에서 '개(浦)'가 떨어져서 '어등리(魚登里)'라 하다가, 1800년대 말에 杏源으로 변하였다. 杏源의 뜻도 확실하지 않다.

④ 猫有·怪伊·猫伊[괘이] > 漢東里

漢東의 옛 이름은 '괘이'다. 『탐라지』에 猫有, 『탐라순력도』에 怪伊, 『남한박물』(지과)에 猫伊, 『탐라지도』 등에 猫村, 猫藪, 『탐라방영총람』에 怪伊里, 『제주읍지』에 怪里, 『제주삼읍전도』에 槐里, 『제주군읍지』에 上槐伊, 槐伊里, 『삼군호구가간총책』에 漢東으로 표기하였다.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옛 漢東里와 옛 坪岱里 일부를 통합하여 漢東里라 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猫有·猫伊와 怪伊·槐伊는 모두 '고양이' [猫]의 제주도방언인 '괘' 또는 '괘이'의 음가자 표기이다. 猫는 '괴(猫 괴 묘<훈몽-초, 상:10)>'고양이'의 제주도방언 '괘' 또는 '괘이'의 혼독자 표기이다. 有는 '이시(有 이실 유<신합, 상:7)의 '이'의 혼가자 표기로, '괘이'의 둘째 음절 '이'를 표기한 것이다. 怪와 槐의 한자음은 '괴'이지만, 제주도방언 '괘'를 표기한 것이고, 伊는 '괘이'의 '이' 음가자 표기이다. 현지인들도 '괘이, 알괘·알괘이[下-], 웃괘·웃괘이[上-]'라고 한다. '괘이'는 지세가 고양이처럼 생겼다는 데서 붙여졌다고 한다. 猫藪는 '괘숲' 또는 '괘이숲'의 표기이다. 藪는 '숲'의 제주도방언 '술'의 혼독자 표기이다. '괘이'에 있는 숲이라는 뜻이다. 猫村은 '괘마을' 또는 '괘이마을'의 표기이다. 猫+村으로 된 혼독자 표기이고, 둘째 음절 有[이] 또는 伊[이]가 생략되어 표기된 것이다. 怪里[괘이마을]·槐里[괘이마을]는 怪伊里·槐伊里[괘이마을]에서 둘째 음절 伊[이]를 생략한 표기이다. '괘' 또는 '괘이'는 19세

기 말에 '웃괘이'와 '알괘이'로 나뉘었다. 上槐伊는 '웃괘이'의 표기이다. '괘이'는 1900년대 초에 漢東으로 바뀌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마을 이름을 '괘이'라고 한 것은 마을 위쪽에 고양이 형상을 한 돌 동산('괘동산·괘이동산')이 있는데, 이 동산 가까이(아래쪽)에 형성된 마을이라는 데서 붙여졌다고 한다. 漢東이라는 이름은 '괘이마을'이라 했을 때 마을에 헛불이 날아오는 등의 天災가 자주 일어나자, 이 마을을 지나던 李秉輝 牧使가 헛불을 끄기 위해서 물이 필요하므로 漢(漢 한슈 한<천자-석 24))을 쓰고, 漢擎山의 동쪽에 있는 마을이라는 데서 東을 합쳐 만든 것이라고 한다.

⑤ 坪代[벙딤] > 坪岱[벙딤] > 坪岱里[벙딤]

坪岱는 민간에서 '벙딤'라고 한다. 『탐라순력도』에 坪代, 『탐라지도』 등에 坪代村, 坪代里, 『제주삼읍전도』에 坪岱里, 『삼군호구가간총책』에 坪岱로 표기하였다. 1914년에 옛 坪岱里의 일부를 坪岱里라 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일제시대의 자료에 坪岱로 표기하였다. 坪代와 坪岱·坪岱는 모두 '벙딤·벙딤'의 표기이다. 坪은 음이 '평'이지만, 제주도방언 '벙딤'의 '벙'의 음독자 표기이다. 岱는 음이 '대'이지만 제주도방언 '딤'의 음독자 표기이다. 代와 岱도 '딤'의 음가자 표기이다. '벙딤·벙딤'는 '돌과 잡풀이 있는 널따란 들판'을 뜻하는 제주도방언이다. '벙딤'의 한자 표기는 坪代→坪岱→坪岱로 변화하였다. 일제시대부터 坪岱로 쓰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⑥ 松堂[솔당] > 松堂里

민간에서는 '소남당, 손당, 송당'이라고 부른다. 『지영록』에 松堂里, 『탐라순력도』에 松堂, 『제주삼읍도총지도』 등에 松堂里, 『제주지도』 등에 上松堂里, 下松堂, 『삼군호구가간총책』에 松堂으로 표기하였다. 松堂은 *소남당·소남당, *솔당'의 혼독자 표기로 보인다. 松은 '솔' 또는 제주도방언 '소남·소남'의 혼독자 표기, 堂은 '당'의 음가자 표기이다. 곧 '당오름'의 소나무 밭에 당이 있는데, 그 당을 '솔당'이라 하고, 주변 언덕을 '손당마르(-늪)'라고 하는데, 이 주변에 형성된 마을이라는 데서 붙여졌다고 한다. 19세기 중후반에 '웃송당'과 '알송당'으로 나뉘기도 했다. 下松堂은 '알손당·알송당'의 표기이다. '손당'은 '솔당'의 변음으로 보인다.

⑦ 道衣灘浦[도의여개], 敦義嶼浦[돈의여개], 別防村[벨방마을] > 上·下道衣里[알·웃도의여마을] > 上·下道里

현지인들은 '도의여' 또는 '도려'라고 한다. 『중종실록』과 『신증동국여지승람』에 道衣灘浦, 『신증동국여지승람』에 別防城, 別房, 『탐라지』에 敦義嶼浦, 敦義嶼, 『지영록』에 道衣灘, 『탐라순력도』에 下道衣灘里, 上道衣, 下道衣, 別防, 別防浦, 『탐라지도』에 敦義里, 別防, 別防村, 別防浦, 『제주삼읍도총지도』에 別防浦, 別防鎮, 別防村, 上道衣灘里, 『탐라방영총람』에 上道衣里, 下道衣里, 『제주읍지』에 下

道衣里, 下道衣里, 敦義嶼浦, 「제주삼읍전도」에 上道里, 下道里, 別防里, 別防鎮, 別防浦, 「제주지도」에 上道里, 下道里, 別防鎮, 「삼군호구가간총책」에 上道, 下道 등으로 표기하였다. 道衣灘은 '도의여'의 표기이다. 道衣는 '도의'의 음가자 표기이다. 灘은 '여홀(灘 여홀 탄 瀨也 卽水中沙處<훈몽-초, 상:2>)>여울'의 제주도방언 '여'의 혼독자 표기이다. '도의'의 뜻은 확실하지 않다. 道義灘浦는 '도의여개'의 표기로, '도의여'에 있는 개를 말한다. 敦義嶼浦도 '돈의여개'의 표기이다. 敦義는 '돈의'의 음가자 표기이다. 敦義의 음상은 '돈의'이나, '도의'와 같은 것으로 보인다. 嶼는 훈이 '섬(嶼 섬 서<훈몽-초, 상:2>)>섬'이지만, 해저로부터 솟은 암반 따위를 일컫는 '여'의 뜻으로도 쓰인다. '도의여' 또는 '돈의여'는 지금 '하도' 동쪽 바닷가에 있는 '토끼섬' 일대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토끼섬' 가까이 있는 개를 敦義嶼浦라 한다. '도의여개'는 1512년 別防鎮이 들어선 이후 주로 別防浦(벨방개)로 불렸다. '도의여마을'이 커지면서 上·下로 나뉘어 上道衣灘·下道衣灘으로 불렸었다. '여·여홀'의 뜻인 灘을 생략하여 上道衣·下道衣라 하다가, 다시 衣자도 생략하여 上道·下道라 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알도의여마을'은 1512년 別防城이 설치된 이후 別防村이라고도 하였다. 18세기 중반에는 '웃도의'와 '알도의'로 나뉘었다가, 19세기 중후반에 한때 '웃도의, 알도의, 벨방마을' 등 세 마을로 나뉘기도 했다. 20세기 초에 다시 행정상 上道와 下道로 나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⑧ 종다리 > 終達里

終達은 19세기 초까지 旌義縣에 소속되었다가, 19세기 말부터 濟州縣에 소속되고, 그 후에 구좌읍에 소속되었다. 終達은 '종다리'의 음가자 표기이다. 「탐라순력도」에 終達浦, 「탐라지도」 등에 終達村, 終達浦, 「제주읍지」에 終達里, 新達里, 「제주삼읍전도」에 終達里, 終達浦, 「속음청사」에 宗達里, 「삼군호구가간총책」에 終達 등으로 표기하였다. 終達과 宗達은 '종달'의 음가자 표기이다. 민간에서는 '종다리'라고 부른다. 終達(종다리)은 '맨끝에 있는 땅(박용후, 1992:82), '제주목의 동쪽 끝 마을(진성기, 1960:76 ; 오성찬, 1992:70), 지미봉이 종처럼 생겼고, 그 인근에 형성된 마을(한글학회, 1986: 권16.411)'이라는 설 등이 있으나, 신빙성이 없다. 그 이유는 終達이 적어도 18세기 말까지는 제주목 소속이 아니라 旌義縣 소속이었다는 것, 종달리에 있는 지미봉의 표기는 地尾峰·指尾峰(山) 등으로 표기되고, 終達과 표기상 차이가 있다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終達은 '종다리개(終達浦)에 이웃한 마을이라는 데서 붙여졌다. '종다리'의 뜻은 확실하지 않다.

⑨ 金寧縣(김령현) > 金寧里 > 東·西金寧里

金寧은 고려시대에 金寧縣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일찍부터 마을이 형성된 곳이다. 金寧의 한자 표기를 고려시대부터 金寧浦, 金寧(縣, 里, 村) 등으로 표기되어 오늘에까지 이르고 있다. 「증중실록」에 金寧浦, 「신증동국여지승람」에 金寧藪, 「탐라순력도」 등에 金寧里로 표기하였다. 일부에서 金寧을 '금

령'으로 읽는 경우가 있는데, 古老들과 巫歌 등에서 '짐령개, 짐령'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 '김령'의 구개음화된 음 '짐령'으로 읽었던 것으로 보인다. 金寧은 1914년 행정구역 폐합 때 東·西 金寧里로 분리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⑩ 邊幕里[ㄹ막ㅁ을] > 東福里(동북리)

東福의 옛 이름은 'ㄹ막'이다. 민간에서는 '굴막'이라고 부른다. 『탐라순력도』에 過 幕浦, 『제주삼읍도총지도』에 過 幕村, 過 幕浦, 『제주삼읍전도』에 邊幕里, 邊幕浦, 『제주군읍지』에 邊幕里, 『삼군호구가간총책』에 東福으로 표기되었다. 過 幕과 邊幕·邊幕은 모두 'ㄹ막'의 표기이다. 過과 邊은 邊의 약체자로, 'ㄹ'(邊 ㄹ 변 又邊塞<훈몽-초, 중:4>)의 혼독자 표기, 幕은 '막'(幕 자실 막 在上口幕<훈몽-초, 중:7>, 幕 ㄷ 막<유합-칠장사본>))의 음독자 표기이다. 'ㄹ막ㅁ을'은 'ㄹ막개' 가까이 형성되어 있는 마을이라는 데서 'ㄹ막' > '굴막'이라 하였다. 그 뜻은 확실하지 않으나, 바닷가(邊) 근처에 막(幕)을 짓고 살았다는 데서 연유했다고 한다. 東福의 표기는 20세기 초부터 쓰여, 오늘에까지 이르고 있는데, 원래의 이름에서 벗어난 것이다.

⑪ 今勿·今勿屹·今勿訖[금물홀] > 덕세미 > 德泉里

德泉의 옛 이름은 '금물홀'이었다. 『탐라순력도』에 今勿屹, 『탐라지도』 등에 今勿訖村, 『탐라방영총람』에 今勿屹里, 『제주삼읍전도』에 德泉里로 표기하였다. 민간에서는 '금물홀'로 불린다. '검은숲(검은 숲)'이라는 지명도 있다. 今勿屹·今勿屹·今勿訖은 모두 '그물홀' 또는 '금물홀'의 음상을 반영한 표기이다. '금물홀'은 민간에서 2음절인 '검홀' 또는 '금홀'로 불리고 있다. 今勿[금물]은 중세국어 '거물' [黑]에 대응하는 음가자 표기이다. 현대어 '검은'에 해당하는 것이다. 屹과 訖·屹은 모두 '홀'의 음가자 표기이다. '홀'은 '숲'과 같은 뜻으로 쓰인다. '홀'을 '습지'의 뜻(한글학회, 1986:415; 김종철, 1995:1권.98)으로 보거나 '검물홀'의 준말 '금홀'의 '금'은 거문고의 뜻(오성찬, 1992:64)으로 보는 것은 모두 민간어원설에 불과하다. '금물홀' 마을은 『제주읍지』에 나오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당시에 행정상 송당리에 속했던 것으로 보인다. 19세기 중반에 '금물홀'은 德泉里로 표기된다. 德泉은 고유어 '덕세미'의 혼독자 결합 표기이다. '덕'은 '바위 너설'을 뜻하는 말이고, '세미'는 '샘'의 제주 방언이다.

(4) 朝天邑

① 朝天館里 > 朝天里

朝天里는 朝天館이 설치된 이후 朝天이라 하고, 이전에는 咸德縣에 속했던 것으로 보인다. 朝天관은

고려 공민왕 23년(1374)에 절제사 李沃과 조선 선조 32년(1599)에 목사 성윤문 등이 여러 번 중수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탐라지」). 그러므로 '조천관'은 적어도 14세기 초에 건립된 것으로 보인다. 『세종실록』(21년 윤2월 임오)에 朝天, 『신증동국여지승람』에 朝天館, 朝天館浦, 『탐라지』에 朝天, 朝天城, 朝天館, 朝天浦, 朝天所, 『탐라순력도』에 朝天, 朝天館浦, 『탐라지도』 등에 朝天館, 朝天館里, 『제주읍지』에 朝天里, 『제주군읍지』에 朝天鎮, 朝天里로 표기하였다.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옛 朝天里의 일부(일부는 新興里에 분리됨.)를 朝天里라 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朝天은 '조천'의 음독자 결합 표기이다. 朝天은 『탐라지』(제주목, 방호소)의 내용과 같이 '육지로 나가는 사람들이 순한 바람을 기다리는 곳'이라는 데서 붙인 것으로 보인다.

② 新村縣 > 新村里

新村里는 고려 때에 新村縣으로 불리던, 유서 깊은 마을이다. 『태종실록』(16년 5월 정유) 등에 新村縣, 『탐라지』에 新村, 『탐라순력도』에 新村浦, 『제주읍지』에 新村里, 『삼군호구가간총책』에 新村으로 표기하였다. 일찍부터 新村으로 한자화하였다. 한자의 뜻 그대로 '새마을' > '새마을'을 한자화한 것으로 보인다.

③ 倭浦[옛개] > 新興里

新興里는 옛날부터 '옛개'라 불리던 지역이다. 新興里 앞바다를 일찍부터 倭浦[옛개]라 하였다. 『탐라순력도』 등에 倭浦, 『탐라지도』에 倭浦, 倭浦村, 『제주삼읍전도』 등에 古浦로 표기하였다. 倭浦는 '옛개'의 표기이다. 倭는 '왜'의 표기로, 말음 'ㅍ'은 표기에 반영되지 않았다. 倭는 '왜'의 음독자로 쓰인 것인지 음가자로 쓰인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 음독자보다 음가자로 쓰인 것으로 보인다. 浦는 '개'의 혼독자 표기이다. 19세기 중후반에 와서 '옛개'를 '옛개'로 인식하고 한자로 古浦라 표기한 적도 있는데, '옛개'가 '옛개'가 된 것은 민간에서 변한 음상으로 보인다. 18세기 초까지도 倭浦村[옛개 마을]을 확인할 수 있는데, 『탐라방영총람』과 『제주읍지』 등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이때 이미 행정상 咸德나 朝天館里에 통합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가 1914년에 조천리 일부와 함덕리 일부를 분리, 통합하여 新興里라 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新興里는 한자의 뜻 그대로 '새로 일어나는 마을' 또는 '새로 흥한 마을'의 뜻으로 붙인 것으로 보인다.

④ 大佉·大屹·大訖[한홀] > 大屹里

『탐라순력도』에 大佉, 『제주삼읍도총지도』 등에 大訖村, 『탐라방영총람』에 大屹里, 『제주읍지』에 大訖里, 『삼군호구가간총책』에 大屹로 표기하였다. 민간에서는 '한홀'이라고 한다. 大佉·大訖·大屹은 모두 '한홀'의 표기이다. 大는 '크다'는 뜻의 고유어 '한'의 혼독자 표기이다. 佉과 訖·屹은 모두

‘홀’의 음가자 표기이다. ‘홀’은 ‘숲’ 또는 바위와 잡풀 따위로 이루어진, 크고 넓은 들판을 뜻하는 말이다. 19세기 중반부터 한자 大屹로 표기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大屹里라 하였다.

⑤ 臥乎山[누온미] > 臥山里

『탐라순력도』에 臥乎山, 『제주삼읍도총지도』 등에 臥乎山里, 『제주삼읍전도』에 臥山里로 표기하였다. 민간에서는 ‘눈미·눈메’라고 한다. 臥乎山은 ‘누온미·누온메’의 표기이다. 臥는 ‘눕-’ (臥 누을 와<유합-칠장사본>)의 혼독자 표기, 乎는 ‘온’ (乎 온 호<천자-광>)의 훈가자 표기이다. ‘누온’은 동사 어간 ‘눕-’에 관형사형어미가 붙은 ‘누븐 > 누온’이다. 山은 ‘되’의 제주도방언 ‘미·메’의 혼독자 표기이다. ‘누온미·누온메’는 나중에 ‘눈미·눈메’로 음상이 변한다. ‘누운 산’의 뜻이다. ‘누온미’ 주변에 형성된 마을이 臥乎山里[누온미마을]이다. 臥乎山里[누온미마을]은 18세기에 乎를 생략하여 臥山里로 표기하였다. 1914년에 臥山里 일부(일부는 先屹里에 포함됨.)를 분리하여 臥山里라 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⑥ 臥乎屹[누온홀] > 臥屹里

『탐라지도』 등에 臥乎屹村, 『탐라방영총람』에 臥乎屹, 『제주읍지』에 臥乎屹里, 『제주지도』에 臥屹里로 표기하였다. 민간에서는 ‘눈홀·논홀’이라고 한다. 臥乎屹·臥乎屹은 ‘누온홀’의 표기이다. 臥는 ‘눕-’의 혼독자 표기이다. 乎는 ‘눕-’에 관형사형어미가 붙은 ‘누븐 > 누온’의 ‘온’의 훈가자 표기이다. 屹과 屹은 ‘홀’의 음가자 표기로, 돌과 잡풀 등으로 이루어진, 산에 있는 들판 따위를 일컫는 제주도방언이다. ‘누온홀’은 ‘누운 홀’의 뜻이다. ‘누온홀’은 민간에서 ‘눈홀, 논홀’로 음상이 변하였다. ‘눈홀’은 ‘논홀’이 변한 것이다. ‘누온홀’ 주변에 형성된 마을을 臥乎屹里·臥乎屹里라 한다. 臥乎屹里·臥乎屹里는 19세기 경에 乎를 생략하여 臥屹里라 하였다. 1914년에 옛 臥屹里를 臥屹里라 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⑦ 橋來[ㄸ리] > 橋來里

『세종실록』에 橋來里, 『지영록』에 橋來村, 『탐라순력도』에 橋來, 『탐라방영총람』 등에 橋來里, 『삼군호구기간총책』에 橋來로 표기하였다. 민간에서는 ‘ㄸ리’라고 한다. 橋來는 ‘ㄸ리 > ㄸ리’의 표기이다. 橋는 ‘ㄸ리’의 어두음 ‘ㄸ’ (ㄸ리 爲橋<훈민-원, 해례:25>)의 훈가자 표기이다. 來는 ‘리’ (來 올 리 <백련-동 23>)의 음가자 표기이다. 橋來는 ‘ㄸ리’의 표기이다. 민간에서 ‘ㄸ리’라 하고 옛부터 ‘다리’가 많았다는 데서 붙여졌다고 하나, 한자 표기를 고려할 때 來가 ‘리’의 표기로 쓰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ㄸ리’의 음상을 고려하면, 중세어 ‘ㄸ래 > ㄸ리[ㄸ]’ 또는 ‘돌애 > ㄸ래[靺]’도 연상할 수

있다. 전자는 열매 '다래' 요, 후자는 '말다래' 를 뜻한다. 좀더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⑧ 咸德浦[함덕개] > 咸德縣 > 咸德里

咸德里는 고려 때 咸德縣으로 불리던, 유서 깊은 마을이다. 『고려사』에 咸德浦, 『신증동국여지승람』에 咸德浦, 『탐라지도』에 咸德里, 咸德浦, 『제주삼읍도총지도』에 咸德里, 江臨浦, 『제주삼읍전도』에 咸德里, 咸德浦, 『삼군호구가간총책』에 咸德으로 표기하였다. 1914년 옛 咸德里의 일부(곧 新興里로 분리된 지역을 제외한 곳)를 咸德里라 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咸德은 일찍부터 한자화하였다. 그러므로 咸과 德이 음독자인지 음가자인지 확실하지 않으나, 음가자 표기로 보인다. 咸은 '함'의 음가자 표기인데, 그 뜻은 확실하지 않다. 다만 뒷 음절 '덕'을 수식하는 관형어 또는 접두사로 보인다. 德은 '덕'의 음가자로, '바위 너설'을 뜻하는 말로 보인다. 한편 함덕 앞바다는 '함덕개'로 불리고 咸德浦로 표기되어 왔다. 그러나 19세기 중반 『제주삼읍도총지도』에 江臨浦[강림개]로 표기되었다. 민간에서도 '강림개'로 불린다. 이를 '강영개, 강녕개' 등으로 잘못 발화하거나 잘못 표기함은 물론 잘못 설명하고 있기도 하다(한국지명총람, 1986:453 ; 박용후, 1992:145 ; 오성찬, 1992:117). '강림개'는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보이는 江臨寺(강림사: 지금은 터만 남아 있다.)와도 관련이 있다. 江臨은 한자의 뜻 그대로 '강에 임하다'의 뜻으로 보인다. 여기서 江은 橙從川(등종내:오늘날의 지도에는 橋來川으로 표기되어 있다.)를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내[川]가 흘러 '함덕개'로 흘러간다. 이 내와 함덕개가 만나는 곳에 옛날 石橋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민간에서 함덕리 바닷가를 '드릿개'라고 부르는데, 이때의 '드리'는 이 '돌다리'를 가리키는 것이다.

⑨ 北浦[뒷개] > 北浦村[뒷개마을] > 北村[뒷개마을] > 北村里

北村里의 옛 이름은 '뒷개'이다. 北村은 원래 北浦·北叱浦에 인접하여 형성된 마을이라는 데서 붙여졌다. 『신증동국여지승람』 등에 北浦, 『남사록』에 北叱浦, 『탐라지도』 등에 北浦村, 『제주읍지』에 北浦里, 『제주군읍지』(『제주지도』)에 北村里, 『삼군호구가간총책』에 北村으로 표기하였다. 北浦와 北叱浦의 北·北叱(北 뒤 북<훈몽-초, 중:2>)은 훈 '뒤'에 사잇소리가 덧붙은 '뒷'의 혼독자 표기이고, 浦(浦 개 보<훈몽-초, 상:3>)는 '개'의 혼독자 표기이다. 곧 '뒷개'의 혼독자 표기이다. 北浦는 '개'이름이면서 마을 이름으로도 사용되다가, 마을의 뜻으로 쓰이는 村(村 마을 촌<백련-동 38>), 村 촌 촌(類合)과 里(里 마을 리<훈몽-초, 중:5>), 里 마을 리<백련26>)가 붙었다. 그후 北浦里보다 北浦村이 우세하게 쓰이다가, 浦가 떨어져서 北村으로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뒷개'는 말 그대로 마을 뒤 또는 북쪽에 있는 개 라는 뜻이다.

⑩ 先佉·先屹·先訖[선홀] > 先屹里

『탐라지』 등에 先佷, 『남환박물』(지과)에 先訖, 『탐라방영총람』에 上先訖里, 『제주읍지』에 先訖里, 『제주지도』에 上善屹里, 下善屹里, 『삼군호구가간총책』에 先屹로 표기하였다. 先佷·先屹·先訖은 '선홀'의 표기이다. 先은 '선'의 음가자 표기로, '서-'[立]에 '-니'이 덧붙은 관형사형으로 보인다. 佷과 屹·訖 등은 모두 '홀'의 음가자 표기로, 돌무더기와 잡풀이 우거진 곳을 뜻하는 제주도방언이다.

(5) 翰京面

① 新昌里

新昌里는 한경면의 행정·문화의 중심지로, 한경면사무소의 소재지이다. 1909년까지 濟州牧 頭毛里에 속했는데, 1910년부터 頭毛里에서 新昌里를 분리하였다. 新昌은 한자 뜻 그대로 '새로 창성한 마을'의 뜻이다. 1914년에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濟州郡 舊右面 新昌里라 하고, 1935년 翰林面 신창리, 1956년 한경면 신창리가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② 頭毛浦[두모개] > 頭毛里[두모리]

『남사록』 등에 頭毛浦, 『제주읍지』에 頭毛里, 『제주삼읍전도』에 頭毛里로 표기하였다. '두모'는 일찍부터 頭毛로 표기되었는데, 이는 '두모' 또는 '두무' 정도의 음상을 반영한 음가자 표기로 보인다. 그 뜻은 확실하지 않다. 몇몇 사람이 구좌읍 종달리는 섬의 꼬리에 비기고 頭毛는 섬의 머리에 비겨, 頭毛라 했다고 하는데, 민간어원설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국립지리원(1987:239)에서도 그런 해석은 한자에 의한 견강부회한 것이라고 하였다. 혹 이 '두모'가 한라산의 옛 이름에 나타나는 頭毛와 음상과 뜻이 같은 것이 아닌가 한다. 더 논의해볼 일이다.

③ 今滕里

今滕里는 19세기 말까지 頭毛里에 속했다가, 마을의 바닷가에 떠오르는 시체의 처리 문제로 마을이 분리되었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제주지도』에 頭毛里만 나오고, 1904년의 『삼군호구가간총책』에 今滕으로 표기되었다. 그러므로 20세기 초에 頭毛里의 일부가 今滕으로 命名된 것이다. 1914년에 옛 今滕里를 今滕里라 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今滕은 나중에 다시 今藤으로 바뀌었다. 今滕·今藤은 '금등'의 표기이다. 그 뜻은 확실하지 않다.

④ 造乎水·造乎勿[조호물], 龍先達里[용선다리] > 造水里

『탐라순력도』에 造乎水, 造乎勿, 『남환박물』(지과)에 龍先達里, 『탐라지도』 등에 造乎勿村, 龍先達村, 『탐라방영총람』에 新造乎水里, 舊造乎水里, 龍先里, 『제주읍지』에 造乎水里, 『제주지도』에 造水里

로 표기하였다. 주변의 묘 비석 등에 潮好水里, 造好水 등으로 표기되었다. 造乎水和 造乎勿은 '조흔물 > 좋은 물' 또는 '좋은물 > 좋은 물'의 표기이다. 新造乎水是 '새조흔물 > 새 좋은 물', 舊造乎水是 '옛조흔물 > 옛 좋은 물'의 표기이다. 潮乎水도 '조흔물 > 좋은 물'의 표기이다. 造와 潮는 '조' 또는 '좋-' [好]의 음가자 표기, 乎은 '온'의 음가자 또는 앞 음절의 'ㅎ'이 연철된 '흔'의 음가자 표기, 水는 '물 > 물'의 혼독자 표기, 勿은 '물 > 물'의 음가자 표기이다. 新은 '새', 舊는 '옛'의 혼독자 표기이다. 造水는 造乎水에서 둘째 음절 '온' 또는 '흔'을 생략한 표기이다. 龍先達里는 '용선다리'의 표기이다. 龍은 '용'의 혼독자 표기, 先은 음이 '선'이지만, '사- > 서-' [立]에 관형사형어미 '-ㄴ'이 붙은 '산 > 선' [立]의 음가자 표기, 達은 '달'의 음가자 표기, 里는 '리'의 음가자 표기이다. '다리'는 '높은 곳'을 뜻하는 말이다. 곧 '용이 서 있는 다리'라는 뜻으로 '용선다리'라 하고, 이의 한자 표기가 龍先達 또는 龍先達里이다. 여기서 達 또는 達里의 표기를 생략한 것이 龍先이다.

⑤ 西思未[섯세미] > 樂泉里

樂泉里에는 원래 西泉味[섯세미]라 불리는 자연마을이 있었다. 18세기 중반까지 자연마을을 이루었으나, 18세기 말의 『제주읍지』(1780년경)에 造乎水(造水의 옛 표기)만 나오므로 이때는 행정상 造水에 속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가 19세기 말(1894년?)에 樂泉이란 이름이 쓰였다. 『제주삼읍도총지도』에 西思未村, 『탐라방영총람』에 西泉味里, 『제주지도』에 樂泉里, 『삼군호구가간총책』에 樂泉으로 표기하였다. 西思未는 '섯세미'의 표기이다. 西泉味도 '섯세미'의 표기이다. 西는 '서'의 혼독자 표기이다. 사잇소리 '시'은 표기에 반영되지 않았다. 思未는 '샘'을 뜻하는 제주도방언 '시미 > 세미' [泉]의 음가자 결합 표기이다. 泉味도 '시미 > 세미'의 표기이다. 泉은 '심 > 샘·샘'의 혼독자 표기이고, 味는 '시미 > 세미'의 둘째 음절 '미'의 음가자 표기이다. 곧 서쪽에 있는 '세미' 주변에 형성된 마을이라는 데서, 한자로 西思未村·西泉味村이라 표기하였다. 樂泉은 오늘날은 한자음 '낙천'으로 읽고 있지만, '요천'일 가능성이 있다. 곧 '좋은 샘'의 한자 표기가 樂泉이고, 이것은 '좋은 샘'이 있는 마을이라는 데서 붙여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樂泉里는 19세기 말부터 이 이름으로 쓰이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⑥ 淸水里

淸水里는 樂泉 동쪽, 造水 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19세기 중반 이전의 고지도와 고문헌에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전까지는 행정상 楸旨里에 속했던 것으로 보인다. 『제주삼읍전도』와 『제주지도』 등에 淸水里, 『삼군호구가간총책』에 淸水로 표기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淸水는 한자의 뜻 그대로 '맑고 깨끗한 물'이라는 데서 붙여진 것으로 보인다.

⑦ 堂旨 · 楮旨[닥므르] > 楮旨里

楮旨里的 옛 이름은 '닥므르'이다. 『탐라순력도』에 堂旨, 『탐라지도』 등에 楮旨村, 楮旨岳, 『제주읍지』에 楮旨里, 『삼군호구가간총책』에 楮旨로 표기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堂旨는 '닥므르'의 표기이다. 堂은 '당'의 음가자 표기인데, '닥'의 말음 'ㄱ'이 둘째 음절 초성의 'ㄹ'를 만나 비음화한 현실음 '당'이고, 이 현실음을 한자로 표기한 것이 堂이다. 旨는 '므르(旨 므르 지<신합, 하:59)> > 므르'의 훈가자 표기이다. 楮旨도 '닥므르'의 표기이다. 楮는 '닥'(닥 爲楮<훈민-원, 해례:26), 楮 닥 더 葉有瓣而皮斑 曰楮<훈몽-초, 상:5>)의 훈가자 표기이다. 旨는 '므르 > 므르'의 훈가자 표기이다. '닥므르'의 '닥'의 뜻이 '닥나무'의 뜻인지 '높은'의 뜻인지 확실하지 않다. 전자의 견해에는 석주명(1947), 한글학회(1986:462), 박용후(1992) 등이 있고, 후자의 견해는 현평효(1972, 1990), 배우리(1994:221~227) 등이 있다. 필자는 후자의 견해를 따른다. 곧 '높은 언덕' 정도의 뜻을 가진 것이 '닥므르'로 보인다. 이의 한자 표기가 堂旨와 楮旨로 나타난 것이다.

⑧ 板乙浦 · 板浦[널개] > 板浦

板浦의 옛 이름은 '널개'다. 『중종실록』(5년 7월 갑자)에 板乙浦, 『신증동국여지승람』에 板乙浦岳, 板浦, 『탐라순력도』에 板浦, 板浦岳, 『제주읍지』에 板浦里, 『삼군호구가간총책』에 板浦로 표기되었다. 板乙浦와 板浦는 '널개'의 표기이다. 板은 '널'(널 爲板<훈민-원, 해례:25), 板 널 판<훈몽-초, 중:8>)의 훈독자 표기이다. 乙은 '널'의 말음 'ㄹ'의 음가자 표기이다. 浦는 '개'의 훈독자 표기이다. '널개'는 널[板]과 같이 넓은 개[浦]라는 데서 붙여졌다.

⑨ 漢原里

漢原은 신창리의 위쪽에 있는 마을이다. 1961년 10월 북제주군 자치제의 실시에 따라 板浦里的 일부를 갈라서 漢原里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1986:466)과 『지방행정구역요람』(1993, 1996), 『제주도도로망도』 등의 지도에는 漢原으로 표기하였는데, 『한국지명요람』(1982), 『제주도토속지명사전』(1992:131) 등에서 漢源으로 잘못 표기하고 있다.

⑩ 龍淵[용못] > 龍塘里

『여지도』(제주목)에 龍淵으로 표기되었다. 19세기 말 이전에는 頭毛里에 속했으나, 19세기 말부터 龍水里에 속했다. 1953년에 龍水里에 속했던 龍塘里가 분리되면서 독립된 마을이 되었다. 龍塘은 한자의 뜻 그대로 '용못'이라는 데서 붙여졌다.

⑪ 遮歸縣[차귀현] > 堂山里[당산마을] > 唐山里 > 高山里

『태종실록』(16년 5월 정유)에 遮歸縣, 『중종실록』에 遮歸浦, 『신증동국여지승람』에 遮歸岳, 遮歸浦, 『탐라지』에 遮歸岳, 堂山, 『탐라순력도』에 遮改, 高山, 堂山, 『제주삼읍도총지도』등에 遮改所, 遮改坪, 代, 高山, 堂山, 『제주삼읍전도』에 遮歸鎮, 蛇鬼浦, 高山, 堂山烽, 『제주지도』에 唐山里, 唐山, 『대정군지도』에 遮歸岳, 遮歸浦, 『삼군호구가간총책』에 高山으로 표기하였다. 遮歸는 '차귀'의 음가자 표기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권38, 대정현, 사묘)의 “城隍祠 一名遮歸堂 俗祀蛇鬼…遮歸字 卽蛇鬼字之誤…(성황사는 일명 '차귀당'이라고 한다. 세속에서 뱀귀신을 제사지낸다.…遮歸라는 글자는 곧 蛇歸라는 글자의 잘못이다.…)”라는 기록과 『탐라지』(사묘)에 “城隍祠 一名遮歸堂 俗祀蛇鬼…遮歸二字 其實蛇鬼字音之訛也(성황사는 일명 '차귀당'이라 한다.…遮歸 두 글자는 사실 蛇鬼자 음의 잘못이다.)”라는 기록을 고려하면, 遮歸는 蛇鬼를 다르게 표기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차귀마을'은 遮歸堂 주변에 형성된 마을이라는 데서 붙여진 것이다. 遮歸浦는 '차귀개'의 표기, 蛇鬼浦는 '사귀개'의 표기이다. '차귀마을'은 18세기 후반에 행정상 대정현 '뽕개' 마을에 속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태는 19세기 중반까지 계속되었다. 19세기 후반에는 대정현 소속에서 제주목 소속으로 바뀌고, 이름도 唐山里('堂山里'를 잘못 표기한 것으로 보임)로 바뀐다. 20세기 초에는 唐山里가 高山리로 바뀌고, 1914년 행정구역 폐합 때 제주군 고산리가 되었다. 이 고산리라는 이름이 오늘에까지 이르고 있다. 唐山里는 '차귀오름'의 다른 이름인 '당산' 주변에 있는 마을이라는 데서, 高山리는 '고산' 주변에 있는 마을이라는 데서 붙여진 것이다.

⑫ 龍淵[용못] > 龍水里

『신증동국여지승람』에 瓦浦, 犯叱浦, 『탐라지』에 瓦浦, 友浦, 『탐라지도』에 軍令浦, 牛頭浦, 『여지도』에 龍淵, 『제주삼읍전도』에 軍令浦, 地沙浦, 『제주지도』에 龍水里, 『삼군호구가간총책』에 龍水로 표기하였다. 瓦浦는 '지삿개'의 혼독자 결합 표기이다. 瓦는 '기와'의 제주도방언 '지새·지사'의 혼독자 표기, 浦는 '개'의 혼독자 표기이다. 地沙浦는 '지삿개'의 표기이다. 地沙는 '기와'의 제주도방언 '지새·지사'의 음가자 표기이다. 사잇소리 'ㅅ'은 표기에 반영되지 않았다. 민간에서도 '지삿개'라고 부른다. 기와를 구웠던 곳이라는 데서 붙여졌다고 하나 확실하지 않다. 犯叱浦는 '벗개'의 표기이다. 犯은 '범'에서 '버'를 빌린 음가자 표기, 叱은 '벗'의 말음 'ㅅ'의 음가자 표기, 浦는 '개'의 혼독자 표기이다. 友浦는 '벗개'의 표기이다. 友는 '벗'의 훈가자 표기이다. 軍令浦는 '군영개'의 표기이다. 軍令은 '군영'의 음가자 표기이다. 민간에서도 '군영개'라고 부른다. '군량개' 또는 軍糧浦(군량개)라고 부르고, '군량'을 날랐던 포구라 하는 사람이 있으나, 단순한 민간어원설에 불과하다. 龍淵은 '용못'의 혼독자 표기이다. 龍은 '용'의 혼독자, 淵은 '못'의 혼독자 표기이다. 민간에서는 한자로 龍塘, 한글로 '용당'이라고 부르는데, 龍塘도 '용못'의 한자 표기에 불과하다. 원래 頭毛里에 속했었으

나, 19세기 말에 행정상 독립된 마을이 되면서 한자로 龍水里라 하였다. 龍水는 '용물'이라는 데서 붙인 것으로 보인다. 1953년에 龍水里에 속했던 龍塘里가 독립된 행정마을로 분리되었다.

⑬ 山陽里

1956년 이전까지는 한림면 淸水里에 속해 있었으나, 이 해에 북제주군 한림면을 분리하여 한림읍과 한경면을 설치할 때 자연마을인 '수룡이' [水龍洞]와 '여귀못' [蓮花洞], '우골동(牛骨洞)' 등을 청수리에서 분리시켜 山陽里라 하였다. 山陽은 한자 표기의 뜻 그대로 '산의 남쪽'이라는 뜻인지 확실하지 않다. 공교롭게도 山陽里 바로 북동쪽에 '새신오름' [오늘날의 지도에는 新西岳으로 표기되어 있다.]이 누워 있다.

(7) 牛島[쇄섬] > 牛島面

1899년 「제주지도」까지도 牛島로 표기되었다. 1900년 경에 演坪이라 개칭(고봉주 편, 『향토지』)하였다고 전해지는데, 1907년의 『삼군호구가간총책』에 演坪으로 표기하였다. 1986년 4월 1일 演坪出張所가 구좌읍 우도면으로 승격되었다. 옛 지도와 문헌 등에 '牛島[쇄섬]'로 표기되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제주목에 속한 섬으로 나온다. 『南溟小乘』(1577)과 『남환박물』(誌島)에서 '쇄섬(牛島)은 ... 형세가 소가 누워 있는 것과 같다(牛島...形如臥牛)'고 하였다. 현지인들도 '쇄섬'이라고 하므로, 牛島는 '쇄섬 > 쇠섬'의 혼독자 표기라 할 수 있다.

① 演坪里

牛島의 다른 이름으로 演坪이란 이름은 1900년대 초부터 나타난다. 이 섬에 이주해 와서 살던 사람들이 '쇄섬 [牛島]이란 말이 귀에 거슬려 '물에 뜬 두둑'이라는 뜻에서 演坪이라 개칭하였다고 전해진다(고태주 편, 『향토지』). 『삼군호구가간총책』(1904)에서부터 구좌면 演坪里란 표기가 보인다. 1914년 제주군 구좌면 연평리라 하고, 1946년 북제주군 구좌면 연평리라 하였다. 1963년 12월에 演坪出張所가 설치되고, 1986년 4월 1일 연평출장소가 구좌읍 牛島面으로 승격되면서, 행정상으로 써온 演坪이란 이름은 사라졌다.

② 한나리 > 天津里

天津里는 우도 서남쪽에 있는 마을로, 서북쪽의 '서천진동'과 동남쪽의 '동천진동' 등 2개의 자연마을을 거느리고 있다. 천진동은 성산포와 연결하는 포구가 있는 마을이다. 원래 이름은 '하나리 / 하누리' 또는 '큰누리 / 큰나리'라고 했는데, 이 속칭을 한자 표기로 天津이라 표기했다고 한다. 곧 '한+

나리[津] 또는 '큰+나리[津]'의 뜻인데, '한나리'의 현실음이 '하늘' 또는 '하늘'로 인식하고 훈가자인 天을 써서 天津이라 한 것이다. 한편 하늘이 내려주신 동네라는 데서 天津洞이라 했다고도 하나, 민간어원설로 보인다.

③ 뒷바당, 비양섬[飛陽島] > 照日里

照日里는 우도 동쪽에 있는 마을로, 남쪽의 迎日洞과 북쪽의 飛揚洞 등 2개의 자연마을을 거느리고 있다. 迎日洞은 우도 동쪽 속칭 '뒷바당' 가까이 있는 마을을 일컫는다. '뒷바당'이 있는 마을이라는 데서 한자 표기로 後海洞이라 하였는데, 마을에 凶事가 잦은 것이 마을 이름 때문이라 하고, 1970년 경에 '해를 맞이하는 마을'이라는 데서 迎日洞이라 했다고 한다. 飛陽洞은 동북쪽의 飛陽島[또는 飛揚島]가 가까이 있는 마을로, 飛陽島에서 바라보는 해 뜨는 광경이 수평선에서 해가 날아오르는 것 같다는 데서 飛陽이라 했다고 한다. '비양도'는 「탐라지도」 등에 飛陽島, 「제주삼읍도총지도」 등에 竹島로 표기되어 있다. 迎日洞과 飛陽洞이 모두 해[日]와 관련이 있어서 '해가 비추는 마을'이라는 데서 照日里라 했다고 한다.

④ 돈홀래, 朱郁浦[주옥개], 예물 > 五峰里

五峰里는 우도 북쪽에 있는 마을로, 중앙부 남쪽의 周興洞, 서쪽의 錢屹洞, 중앙의 삼양동, 동쪽의 上古水洞과 下古水洞 등 5개의 자연마을을 거느리고 있다. 周興洞(또는 週興洞)은 「탐라지도」와 「제주삼읍도총지도」 등에 보이는 朱郁浦[주옥개]의 변음을 반영한 새로운 한자 표기로 보인다. '주옥'은 어떤 물체가 머리 따위를 내민 상태를 형용한 제주도방언이다. 곧 바다쪽으로 내민 상태에 있는 개라는 뜻으로 보인다. 錢屹洞은 '돈홀래'의 표기인데, 민간에서는 '돈놀래' 또는 '돈올래', '돈늘래'라고 한다. '돈'의 훈가자로 錢, '홀'의 변음 '놀' 또는 '올'의 훈가자로 屹이 차자되었다. '돈'은 '둔덕'의 뜻, '홀'은 '숲'의 뜻으로, '둔덕의 숲으로 된 마을'이라는 뜻이다. 원래 '돈홀래' 정도의 음상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古水洞은 속칭 '예물동' 또는 '왜물동'의 한자 표기이다. '예물'의 '예'는 '왜' [倭]의 변음으로, 古는 '예'의 훈가자 표기이고, 水는 '물' > '물'의 훈독자 표기이다. 上古水洞은 '웃예물동', 下古水洞은 '알예물동'의 한자 표기이다. '예물동' 앞바다는 「탐라지도」와 「제주삼읍도총지도」 등에 獨津浦[독진개]로 표기되어 있다. 자연마을 5개동을 합쳐서 마을을 이름은 물론 우도의 북쪽 끝 봉우리에 있으므로, 五峰里라 하였다고 한다.

⑤ 우목개 · 우목개 > 西光里

西光里는 우도 중앙부에 있는 마을로, 中央洞과 서남쪽의 上牛目洞, 서북쪽의 下牛目洞 등 3개의 자연마을을 거느리고 있다. 中央洞은 섬의 가운데에 있는 마을이라는 데서 붙여졌다고 한다. 上牛目洞은

‘웃우목개’, 下牛目洞은 ‘알우목개’의 표기로 보인다. 민간에서는 ‘우목개’ 또는 ‘우목개’라고 부른다. ‘우목’ 또는 ‘우목’은 ‘우뭇가사리(牛毛菜 我東有稱牛毛菜者 狀類鯉草 而五色備具 亦作海凍 우뭇가사리<물명 3:28>)의 어두음 ‘우뭇’의 변이형이라는 설(우도지편찬위, 1996:104), ‘쇠머리오름’에서 바라보니 소의 눈과 같다는 데서 牛目이라 했다는 설(진성기, 1975:74 ; 부영성, 1986:164 ; 한글학회, 1986:419), 지형이 움푹하게 들어갔다는 데서 ‘우목’ 또는 ‘우목’이라 했다는 설 등이 있다. 이 지역은 일찍부터 ‘우뭇가사리’ 채취가 활발하다. 그래서 牛目を ‘우목’ 또는 ‘우목’의 음가자 표기로 보며, ‘우목개’는, ‘우뭇가사리’가 많이 나는 개[浦]라고 했다는 설과 소의 눈과 같다는 데서 牛目이라 했다는 설은 논리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우뭇가사리’는 제주도방언으로 ‘우미’라고 하는데, ‘우목’과는 음상에서 거리가 있고, 둘째 ‘우목동’은 ‘쇠머리오름’과는 반대쪽에 있으므로 ‘소의 눈’의 牛目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필자는 ‘우목’은 ‘오목하다·우목하다’의 변음으로, 지형이 우뭇하다는 데서 ‘우목개·우목개’라고 하고, ‘우목개’가 가까이 있는 마을이라는 데서 ‘우목동’이라 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탐라지도」와 「제주삼읍도총지도」 등에 보이는 曲分浦(굽은개)와도 통하는 것이다. 曲分은 ‘굽은’의 연철음 ‘구분’의 표기이다. ‘굽은개’는 ‘구부러진 개’라는 뜻이다.

4) 남제주군

(1) 대정읍

① 毛瑟浦·摹瑟浦[모슬개·모살개] > 上摹瑟浦[웃모슬개·웃모살개], 下摹瑟浦[알모슬개·알모살개] > 上摹里, 下摹里

摹瑟浦의 옛 이름은 ‘모슬개’다. 『중종실록』에 毛瑟浦, 『신증동국여지승람』에 毛瑟岳, 毛瑟浦, 『탐라순력도』에 毛瑟浦·摹瑟浦, 摹瑟村, 『제주읍지』에 下摹瑟里, 上摹瑟浦里, 『제주삼읍전도』에 上摹里, 下摹里로 표기하였다. 毛瑟浦·摹瑟浦는 ‘모살개’의 표기이다. ‘모살개’는 ‘모살개·모슬개’라고도 부른다. ‘모살·모슬’은 摹瑟·毛瑟이라는 한자 표기 이후에, 한자음에 견인된 음상으로 볼 수 있다. 摹瑟·毛瑟은 ‘모살’의 음가자 결합 표기로, ‘모살’은 ‘모래’의 제주도방언이다. ‘살’의 한자음이 없기 때문에 유사한 음을 가진 瑟이 차차된 것이다. 浦는 ‘개’의 혼독자 표기이다. 上摹瑟浦는 ‘웃모살개’, 上摹瑟은 ‘웃모살’, 下摹瑟은 ‘알모살’의 표기이다. 摹瑟浦에서 ‘개[浦]가 생략되어 摹瑟[모살]이라 하다가, 다시 ‘살[瑟]이 표기에서 생략되어 上摹, 下摹로 표기하기 시작하여 오늘에까지 이르고 있다. ‘모살개’는 원래 ‘모살(모래)이 많은 ‘개’라는 데서 붙여진 이름이고, 이 주변에 마을이 형성되면서 마을 이름으로도 쓰이기 시작한 것이다.

② 東城, 西城 > 東城, 保城 > 仁城 · 安城, 保城

仁城 · 安城 · 保城은 대정현에 형성되었던 마을이다. 『탐라순력도』에는 大靜縣城 동문 주변 마을을 邑外村, 『탐라지도』에는 대정현성 서문 주변 마을을 邑村, 『제주삼읍도총지도』에는 대정현성 서문 주변 마을을 邑外村이라 표기한 것으로 보아, 현성 주변에 마을이 형성되어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제주읍지』에 東城里, 西城里, 『제주삼읍전도』에 東城里, 保城里, 『대정군읍지』에 安城里, 仁城里, 保城里로 표기하였다. 城은 大靜縣城을 뜻하고, 東城은 東門 주변에 형성된 마을, 西城은 西門 주변에 형성된 마을이다. 19세기 말에 西城은 保城으로 바뀌고, 東城은 다시 북쪽 지역을 安城, 남쪽 지역을 仁城이라 하여 나누었다. 保城은 성을 지키고 보호한다는 뜻, 安城도 성을 편안하게 한다는 뜻, 仁城의 仁은 인자하다는 뜻으로 쓰였다.

③ 日課 · 日果[날왜], 東日果[동날왜], 西林村[서림마을] > 日果里, 東日里

日果리는 옛날에 '날왜' 라고 했는데, 나중에 '날왜'는 '웃날왜, 알날왜'로 나뉘고, '알날왜'는 다시 '동날왜, 서날왜'로 나뉘었다. 이들은 19세기 말까지 행정상 '날왜[日果 · 日課]'에 속했다가, 19세기 중엽에 '웃날왜' [오늘날 대정읍 新坪里]와 '알날왜' [日課里]가 분리되고, 20세기 초에 '알날왜'의 동쪽인 '동날왜'를 東日果, 서쪽인 '서날왜'는 日課로 분리되었다. 그후 東日果는 果를 생략하여 東日이라 하였다. 『탐라지』에 日課里, 西林浦, 『탐라순력도』에 日果, [탐라지도]에 日課村, 西林村, 『제주삼읍도총지도』 등에 日果村, 西林村, 西林浦, 亂德浦, 亂德村, 『제주읍지』에 日果里, 日果丘, 『제주삼읍전도』에 日果里, 西林浦, 『제주지도』에 日果里, 『대정군지도』에 日課里, 『삼군호구가간총책』에 日果, 東日果, 1914년에 日果里, 東日里로 표기되어 있다. '날왜'는 원래 '난드르왜'로 불렸다고 한다. '난'은 '나간' [出]의 뜻이고, '드르'는 '들 · 들판' [野 · 坪], '왜'는 '무주왜' (구좌읍 월정리의 옛 이름)의 '왜'와 같이 마을을 일컫는 지명접미사로 보인다. '난드르왜'가 '난들왜 > 날왜'로 변한 것(김종철, 1995:1권, 199~200)이라는 것이다. '날'의 훈가자로 日(日 날 일 <신합-나손본>)이 차차되었다. 果 또는 課는 원래 '과' 또는 유사음 '괘, 괴'의 음가자 표기이다. '괘'의 어두음 '기'은 선행 말음 '리'의 영향으로 유성음 'ㅇ'으로 변하여 '왜'가 된 것이다. 이는 '개'가 '애'로 변한 예와 같은데, '괘 > 왜'도 '浦'의 뜻이 아난가 한다. 西林浦는 '서림개', 西林村은 '서림개마을'의 표기이다. 西林은 '서림'의 음가자 표기로, 그 뜻은 확실하지 않다. 亂德浦는 '난덕개', 亂德村은 '난덕개마을'의 표기이다. 亂德은 '난덕'의 음가자 표기이다. '덕'의 바닷가의 '바위너설'을 뜻하는 제주도방언이다. '난'은 '덕'은 수식하는 말로, 그 뜻은 확실하지 않다.

④ 加乙波知島[덜바디섬] · 加波島[더바섬] · 盖波島[더바섬] > 加波里 · 加波島

加波里는 가파도에 있는 섬마을을 일컫는다. '황개'와 '모시리'라는 2개의 자연마을이 있다. 『중중

실록』에 加乙波知島, 『신증동국여지승람』에 加波島, 『탐라지』에 蓋波島, 『탐라순력도』에 蓋波嶋, 『제주삼읍전도』에 加波島으로 표기하였다. 민간에서 '더위섬', '더프섬(김봉현, 1988:373)' 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加는 '더'의 훈가자, 波는 오늘날 한자음이 '파'이지만 유사음 '바'의 음가자, 知는 '디'지'의 음가자 표기로 보인다. 加乙波知島은 '덜바디섬' 정도의 음상을 반영한 표기로 보인다. 그 뜻은 확실하지 않다. 加波島은 加乙波知島에서 乙과 知가 반영되지 않은 표기이다. 蓋波島의 蓋는 蓋의 속자로, '덩- > 덮-'의 훈가자 표기로 보인다. 말음 '비'은 둘째 음절 초성을 재반영한 것이다. '더위섬'은 '덜바디섬'('덮어진 섬')이 변한 것으로 보인다. '비'은 유성음 사이에서 '빙'으로 변하기 때문에 민간의 '더위섬'의 설명도 가능해진다. 한글학회(1986:367)에 '가파리'*(가오리)처럼 생겼다는 데서 '가파섬'이라 했다고 하였으나, 억측으로 보인다.

⑤ 麼羅島·摩蘿島·摩蘿嶋·麻羅島·摩羅島[마라섬] > 馬羅島·馬羅里

마라리는 우리 나라 최남단에 있는 섬인 마라도에 있는 마을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麼羅島, 『탐라지』에 摩蘿島, 『탐라순력도』에 摩蘿嶋, 『제주삼읍도총지도』 등에 麻羅島, 『제주삼읍전도』 등에 摩羅島 등으로 표기하였다. 麼羅島·摩蘿島·摩蘿嶋·麻羅島·摩羅島 등은 '마라섬 > 마라섬'의 표기로 보인다. '마라'의 뜻은 확실하지 않다. '마라섬'이 馬羅島로 표기된 것은 19세기 이전의 기록에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세기인 일제시대부터인 것으로 보인다.

⑥ 新坪里

新坪리는 19세기 중엽까지 '날왜'에 속했다가, '웃날왜' 지역이 新坪里라 하여 분리되었다. 『제주삼읍전도』와 『대정군지도』 등에 新坪里, 『삼군호구가간총책』에 新坪으로 표기되었다. 1914년 제주군 新坪里가 된 이후, 현재 대정읍 新坪리로 이어져 오고 있다. '날왜'는 '난드르왜'가 줄어든 말이라고 한다. 신평리는 '날왜'의 위쪽에 있는 마을이라는 데서 '웃날왜'라 했다가, '셋드르'라는 뜻에서 新坪이라 하여 '날왜'에서 분리되었다. 新坪은 '셋드르'의 한자 표기로, 新은 '사이'의 뜻인 '새'에 사이시옷이 붙은 '셋'의 훈가자 표기, '드르'는 '너르레[넓을 들]', '난드르[나간 들]'의 '드르'의 훈독자 표기이다. 新坪의 坪은 坪(坪 드르 大野日坪 通作平<훈몽-초, 상:2>)과 통하는 것이다.

⑦ 구석밭 > 九億里

九億里는 원래 안성리에 속했고, 당시 속칭 '구석밭'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56) 한글학회 편 의 『우리말큰사전』에 '가파리'는 '가오리'의 제주방언이라 하였으나, 석주명(1947), 현평효(1986), 박용후(1988), 제주도(1995) 등에 표준어 '가오리'의 제주방언으로 '개오리'와 '가오리'만 등재되어 있다. 어떤 자료를 근거로 하여 '가파리'가 '가오리'의 제주방언으로 등재되었는지 알 수 없다.

따라 옛 安城里의 일부를 九億里라 하여 독립된 마을이 되었다. 속칭 '구석밭'을 한자로 九億里라 표기한 것이라고 하나, '석'과 億은 음상의 차이가 크다. '구석밭'을 한자로 표기하는 과정에서 '석'을 億으로 표기한 것으로 보인다.

⑧ 頓浦里[뽕개마을] > 武陵里

「제주삼읍전도」와 「대정군지도」 등에 武陵里로 표기되었다. 1914년에 옛 武陵里를 武陵里라 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세기 중반 이전에는 頓浦里에 속했다가, 19세기 중후반에 '뽕개'가 桃源里와 武陵里로 분리되면서 행정상 독립된 마을이 되었다. 武陵과 桃源은 중국의 고사인 武陵桃源에서 따온 것으로 보인다.

⑨ 敦浦·頓浦[뽕개] > 桃源里 > 新桃里

「탐라지도」와 「제주삼읍도총지도」 등에 敦浦, 「제주지도」에 頓浦里, 「제주삼읍전도」와 「대정군지도」 등에 桃源里로 표기되었다.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옛 桃源里와 順昌里['성창동네']를 통합하여 新桃里라 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敦浦와 頓浦는 '돈개'이지만, 민간에서 '뽕개'라 하므로 제주도방언 '뽕개'의 표기라 할 수 있다. 敦과 頓은 '돈'이지만 제주도방언 '뽕'의 음가자 표기이다.

'뽕개'의 뜻은 확실하지 않다. 18세기 말에 頓浦里[뽕개마을]로 표기했으나, 19세기 중후반에 '뽕개마을'은 桃源里와 武陵里로 분리하였다. 이는 仙境 또는 別天地의 뜻인, 중국의 고사 武陵桃源에서 따온 것으로 보인다. 1914년에 옛 桃源里 지역과 '성창동네'인 順昌里를 통합하여 新桃里라 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⑩ 永樂里

「제주삼읍전도」와 「대정군지도」 등에 永樂里로 표기되었다. 永樂은 '영락'의 음독자 표기로 보인다. 19세기 중반에 법정 마을이 되었다.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옛 永樂里를 永樂里라 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2) 南元畵

① 西衣貴[서옷귀]·新衣[새옷귀] > 南元里

南元이라는 공식 명칭은 1899년의 「대정군읍지」(「대정군지도」)와 1904년의 「삼군호구가간총책」에 보이지 않다가, 1914년 행정구역을 폐합할 때에 처음 나타난다. 1917년의 「신구대조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명칭일람」에 南元리는 옛 南元里와 西衣里(西衣貴里)를 통합한 것이라 하였다. 「탐라지도」에 西衣

貴, 『제주읍지』 등에 西衣貴里, 『정의군읍지』에 西衣里, 西衣貴里, 『삼군호구가간총책』에 西衣, 新衣로 표기되었다. 『삼군호구가간총책』에 보이는 新衣는 新衣貴[새옷귀]에서 貴를 생략한 표기로, 새로 형성된 '옷귀' 마을이라는 뜻인데, 이것이 오늘날 南元 마을을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 南元이란 이름은 옛날에 西衣貴에 院(원)이 있었는데, 院 남쪽에 형성된 마을이라는 데서 南院이라 하고, 다시 院을 元으로 고쳐 南元(남쪽의 으뜸 마을)으로 한 것이다. 지금 西衣貴 지역은 남원2리라 하고, 바닷가에 가까운 新衣 지역은 남원1리가 되었다.

② 伐浦[벌개] > 保閑里 > 泰興里

태흥리의 옛 이름은 '벌개'이다. 『남사록』에 伐浦, 『탐라순력도』와 『제주삼읍도총지도』 등에 伐浦, 『제주읍지』 등에 保閑里, 『정의군읍지』에 東保閑里, 西保閑里, 『삼군호구가간총책』에 保閑, 東保, 1914년에 保閑里와 東保里를 통합하여 泰興里라 하였다. 민간에서는 '벌개' 또는 '폴개'라고 부른다. 伐浦는 '벌개'의 표기인데, 민간에서 부르는 '벌개' 또는 '폴개'를 고려하면, '벌개'의 표기로 볼 수 있다. '벌'의 한자음이 없기 때문에 평음인 伐을 차차하여 '벌'을 표기한 것이다. '벌'은 '뺨'의 제주도방언이라고 한다. 곧 '뺨이 많은 개'라는 데서 붙여졌다고 한다. 保閑이라는 표기는 18세기 후반부터 보이기 시작하는데, 保閑이 단순히 '보한'의 음가자 표기인지, 伐浦를 달리 표기한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 20세기 말에 保閑은 保閑(또는 西保閑)과 東保(또는 東保閑)로 분리되었다가, 1914년에 泰興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통합되었다. 泰興은 한자의 뜻 그대로 마을이 '크게 흥하라'는 뜻에서 붙여진 것이다.

③ 火等枝[부등지] > 火赤村[부등마을] > 火等里 > 漢南里

漢南리는 속칭 '부등개'라고 한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火等枝, 火等枝川, 『탐라지』에 不等之川, 『탐라순력도』에 夫赤, 『제주삼읍도총지도』 등에 火赤川, 火赤村, 『제주삼읍전도』에 火等川, 火等村, 『제주읍지』에 火等里, 火等川, 『제주삼읍전도』와 『대정군읍지』 등에 漢南里, 1914년에 옛 漢南里와 衣貴里 일부를 통합하여 漢南里라 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火等枝와 不等之는 모두 '부등지'의 표기이다. 火는 '벌' (火 불 화<훈몽-초, 하:15>)의 훈가자 표기, 不은 '불' (不 안독 불<백련-동 6>)의 음가자 표기, 等은 '등'의 음가자 표기, 赤은 等의 약체자 표기, 枝와 之는 '지'의 음가자 표기이다. '불등'은 자음동화(ㄷ 앞에서 ㄹ 탈락)에 의해 '부등'으로 나타난다. '부등지'는 민간에서 음운변화하여 '부등개'로 나타났다. '부등개'를 잘못 이해하여 '개[浦]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박용후, 1992:99). 『신증동국여지승람』에 火等枝, 火等枝川을 고려할 때 '부등지'는 원래 '오류'이나 언덕을 뜻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날 어떤 것을 지칭하는지 확실하지 않다. 火等과 火赤은 모두 '부등'의 표기로, '부등지'의 말음 '지'가 생략되어 표기된 것이다. 火는 훈 '불' > 불'에서 'ㄹ'이 탈락한 '브' > 부'의 훈가자 표

기, 火은 箒의 축약형으로, 구결과 이두에 많이 쓰이는 글자로, '등'의 음가자, 枝와 之는 '지'의 음가자 표기이다. 그러므로 火箒村·火木村은 '부등지막을', 火箒川·火木川은 '부등짓내'의 표기로, '지'를 표기에 반영하지 않은 것임을 알 수 있다. 19세기 말에 '부등지'는 한라산의 남쪽에 있는 마을이라는 뜻이 漢南里로 바뀌었다. 1914년에 의귀리의 일부를 통합하여 漢南里라 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④ 水望(물보라) > 水望里

水望里는 옛날 '물우리' 또는 '무라'라고 불렀다고 한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水望, 「탐라지」에 水望川, 「제주삼읍도총지도」 등에 水望村, 「제주읍지」에 水望里, 「제주삼읍전도」에 東水望, 水望里, 「정의군읍지」에 水望里, 「삼군호구가간총책」에 東水, 水望, 1914년에 水望里와 東中面の 安坐里(新興里 항 참조할 것) 각 일부를 통합하여 水望里라 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水望은 민간에서 '물우리' 또는 '무라'라고 부르는 것을 볼 때 '물보라 > 물보라 > 물우리' 정도의 음상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水는 '물 > 물'의 혼독자 표기, 望은 '보라-'(望 보랄 망<백련-동 80>)의 유사음 '보라'의 혼가자 표기이다. '물보라'의 둘째 음절의 초성 '보'는 중세국어의 '뵤'에 해당하는 것이다. '뵤'은 '리'과 모음 사이에서 'w'로 변했는데, '물보라'도 '물우라 > 물우리' 또는 '물보라 > 물라 > 무라' 정도로 음상이 변한 것으로 보인다. 현대국어 '물보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東水望은 '동물보라'의 표기, 東水는 東水望의 셋째 음절 望(보라)을 생략한 표기이다. 水望川은 '물보라내 > 물보라내'의 표기로, 지금은 주로 '산내'라고 부른다. '산내'는 '산(山)+내(川)의 뜻인지, '산(活)+내(川)의 뜻인지 확실하지 않다. 마을 위쪽에 '물영아리'라는 오름이 있는데, '산내'는 이 오름 서쪽에서 발원한다. 수망리는 19세기 중반에 東水望과 水望으로 나뉘기도 했으나, 1914년 행정구역 폐합시 다시 水望里로 통합되었다.

⑤ 衣貴(옷귀) > 衣貴里

衣貴里는 민간에서는 '옷귀'라고 한다. 「지영록」에 衣貴村, 「탐라순력도」에 衣貴, 「탐라지도」에 東衣貴, 西衣貴, 「제주삼읍도총지도」에 東衣貴村, 衣貴, 「제주읍지」에 東衣貴里, 西衣貴里, 「제주삼읍전도」에 衣貴里, 西衣貴里, 「정의군읍지」에 東衣里, 西衣里 또는 衣貴里, 東衣貴里, 西衣貴里, 「삼군호구가간총책」에 東衣, 新衣, 西衣, 1914년에 水望里, 東衣里, 衣貴里 각 일부를 통합하여 衣貴里라 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탐라지초본」에는 義貴라는 표기도 나온다. 衣貴는 '옷귀'의 표기이다. 衣는 '옷'의 혼가자 표기, 貴는 '귀'의 음가자 표기이다. 金萬鎰(1550-1632)의 獻馬로, 그의 후손이 御衣 한 벌을 받은 데서, '옷귀'라고 했다(오성찬, 1992)고 하나, 이는 민간어원설에 의한 美化한 표현으로 보인다. '옷귀'의 뜻은 확실하지 않다. '옷귀'는 민간에서 음운변화로 '옥기'가 되었다. 義貴는 衣貴의 衣를 달리 표기한 것에 불과하다. 17세기 초반에 東衣貴, 西衣貴로 나뉘고, 19세기 말-20세기 초에는 세 개의 마을로 나뉘었다가, 1914년에 東衣里의 일부가 新興里에, 西衣里가 南元里에 통합되고, 그 나머

지는 衣貴里로 통합되었다.

⑥ 溫川[ㄸ스내], 東衣[동옷귀], 安岳岳[안좌오름], 兎山 > 新興里

新興里는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溫川里, 그리고 東衣里, 安坐里, 兎山里의 각 일부를 통합하여 이루어진 마을이다. 곧 '새로 일어나는 마을'이라는 뜻이다. 「제주삼읍전도」와 「정의군읍지」에 溫川里 등으로 표기하였다. 溫川里는 모두 훈독자의 표기로 보면, 'ㄸ스내마을'의 표기이다. 溫은 'ㄸ스->ㄸ스-'(溫 ㄸ술 온<천자-광 12>)에 관형사형어미 '-니'이 붙은 'ㄸ스 > 도스'의 훈독자 표기, 川은 '내'의 훈독자 표기, 리는 '마을 > 마을'의 훈독자 표기이다. 민간에서는 '여우내'라고 부른다. '내'는 川과 대응하지만, '여우'와 溫의 대응 관계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 지 확실하지 않다. '여우내'의 '여우'를 '여우' [狐]와 관련시키는 경우가 많은데(진성기, 1975:102 ; 박용후, 1992:119), 음상에서 추정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⑦ 又尾[뽕미 > 뽕미] > 又美 > 爲美里

爲美里는 민간에서 '뽕미 > 뽕미'라고 부른다. 「남사록」과 「탐라순력도」 등에 又尾浦, 「제주삼읍도총지도」 등에 又尾浦, 又尾村, 「제주읍지」에 又尾里, 又尾浦, 「제주대정정의읍지」에 爲美, 「제주삼읍전도」에 又美浦, 又美里, 「정의군읍지」에 東爲美里, 西爲美里, 「삼군호구가간총책」에 東美, 新美, 爲美, 1914년에 爲美里 일부를 爲美里라 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又尾와 又美는 '뽕미 > 뽕미'의 표기이다. 又는 '뽕 > 뽕'의 유사음 '또(又 또우<신합-나손본)> > 또'의 훈가자 표기, 尾와 美는 '미'의 음가자 표기이다. '뽕미'의 뜻은 확실하지 않다. '또미'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한자 표기 又을 '또 > 또'로 읽은 것에 불과하다. 爲美는 '又美[뽕미]'의 又를 음 '우'로 읽고, 유사음을 가진 한자 爲로 바꾼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爲美는 한자음인 '위미'로 읽어야 한다. 爲美里는 19세기 말에 東爲美와 西爲美로 나뉘었다. 東爲美와 西爲美는 중간음인 爲를 생략하여 東美, 西美로 표기하기도 했다. 20세기 초에는 新美[새위미]가 갈려 세 마을이 되었다. 新美는 新爲美에서 爲가 생략 표기된 것이다. 1914년 행정구역 폐합 때 爲美里의 일부는 爲美里가 되고, 일부는 新禮里에 통합되었다.

⑧ 狐兒村[여스 마을?] > 狐村里[여스 마을] > 禮村, 梧旨[가마귀마르] > 新禮里, 下禮里

禮村은 고려시대에 狐兒縣이라 하다가 兒가 줄어 狐村이라고도 했다. 19세기 경에 禮村이라 하였고, 20세기 초에 新禮와 下禮로 나뉘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狐兒縣, 狐兒川, 狐村, 狐兒村, 「남사록」에 狐村浦, 「탐라지」와 「제주읍지」에 狐村里, 「탐라순력도」에 狐村浦, 狐村望, 「제주삼읍도총지도」에 狐村, 狐村烽, 狐村浦, 「제주삼읍전도」에 狐村烽, 狐村浦, 禮村里, 梧旨里, 「정의군읍지」에 上禮村里, 下禮村里, 狐村烽, 「삼군호구가간총책」에 禮村, 下禮, 1914년에 禮村里, 그리고 新禮里와 爲美里

각 일부를 통합하여 新禮里라 하고, 下禮里, 그리고 新禮里와 右面 上孝里의 각 일부를 통합하여 下禮里라 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狐兒縣은 오늘날 '호아현'이라는 한자음만 남아 있다. 당시에도 한자음인 '호아현'으로 불렸는지 알 수 없다. 둘째 음인 兒가 줄어서 狐村이라고도 했다. 민간에서 그 원래의 음상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狐兒의 한자 표기는 고유어 '여스' (> 여스 > 여으 > 여우)의 표기로 보인다. 狐는 '여스' (狐 系 今俗呼狐狸 여스<사해-중, 상:41)의 혼독자 표기, 兒는 '스' (兒 아히 스<백련-동 18)의 음가자 표기이다. 狐村[호촌]이라 하던 것을 19세기 중반에 狐를 禮로 고쳐 禮村이라고 하였다. 곧 '禮를 아는 마을', '禮가 있는 마을'이라는 뜻으로 바꾼 것이다. 이때 禮村 마을 남쪽 속칭 '가마귀마르'라는 지역에 사람이 살기 시작하면서 마을이 형성되었다. '가마귀마르'의 한자 표기가 烏旨里이다. 烏旨里는 「제주삼읍전도」에 梧旨里로 표기되었다. '까마귀'를 뜻하는 烏를 梧로 바꾸어 표기한 것이다. 19세기 말에는 과거 禮村里를 上禮村里라고 하고, '가마귀마르'[烏旨里·梧旨里]를 下禮村里라 칭하였다. 20세기 초반에는 禮村[또는 上禮村], 下禮, 新禮 등 세 개의 마을로 커졌으나, 1914년에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新禮里와 下禮里로 정리되었다.

(3) 성산읍

① 城山[성산] > 城山里

『신증동국여지승람』에 “城山…勢如巖腰 石壁削立 周布如屏…(‘성산’은…지세가 개미 허리와 같다. 석벽을 깎아 세워서 병풍과 같이 둘레를 두른 것 같다. …)”, 『탐라지』에 “城山…石壁削立 環如城子…(‘성산’은…석벽을 깎아 세워 두른 것이 城과 같다. …)”, 『남환박물』(지승)에 “城山…外面四壁如削…西巖有立石 如人如獸如屋如城…(‘성산’은…바깥 면 네 벽이 대패로 깎아 놓은 것 같고, …, 서쪽 바위에 선돌이 있는데, 사람 같기도 하고 짐승 같기도 하고 집 같기도 하고 城 같기도 하다. …)”, 『제주삼읍전도』에 城山, 城山里, 『정의군읍지』에 城山, 城山里로 표기되어 있다. 城山은 '성산'의 음독자 표기이다. 'жат메' 정도의 고유어로 불렸을 듯하나, 민간에서는 절대적으로 '성산'이라 한다. 산 모양이 城과 같다는 데서 불려진 것이다. 城山里가 행정상 독립된 마을로 인정받은 것은 18세기 중반의 일로 보인다. 그전에는 古城里에 속해 있었다.

② 五照乙浦[오졸개] > 吾照里

『신증동국여지승람』에 酉只浦, 『남사록』에 吾召浦, 『탐라지』에 五照浦, 『탐라순력도』에 五照浦·五照乙浦, 『제주삼읍도총지도』 등에 五照浦, 五照村, 『제주읍지』에 吾召里, 吾召浦, 『제주삼읍전도』와 『정의군읍지』 등에 吾照浦, 吾照里, 1914년 吾照里라 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酉只浦는 '유짓개'의 표기이다. '오졸개'라 칭하기 이전 이름이 아닌가 한다. '유지'의 뜻은 확실하지 않다. 吾召와 吾照·

五照는 모두 '오조'의 음가자 표기인데, '오조'는 '오졸'에서 둘째 음절의 말음 '리'를 표기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탐라순력도』에 보이는 五照乙浦(오졸개)로써 알 수 있다. 乙은 '졸'의 말음 '리'를 표기에 반영한 것이다. '오졸'의 뜻은 확실하지 않다. 五照里·呑照里는 五照浦里·呑照浦里·五照乙浦里(오졸개마을)에서 셋째 음절 '개' [浦]를 표기에서 생략한 것이다.

③ 力石浦[심돌개] > 力石乙里[심돌마을] > 始興里

始興里는 예전에 '심돌'이라 불렀다. 『탐라순력도』와 『제주삼읍도총지도』 등에 力石浦, 力石村, 『제주읍지』에 力石乙里, 『제주삼읍전도』에 力石浦, 力石里, 『정의군읍지』에 力石里, 新力石里, 『속음청사』에 力埃, 新力埃, 舊力埃, 『삼군호구가간총책』에 力石, 1914년에 始興里라 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力石浦와 力石浦·力石乙浦는 모두 '심돌개'의 표기이다. 力은 '힘' (力 힘뜰 녀, 힘 녀<신합, 하:32))의 제주도방언 '심'의 혼독자 표기, 石은 '돌'의 혼독자 표기, 乙과 石乙은 '돌'의 음독자 표기, 浦는 '개'의 혼독자 표기이다. 力埃은 '심돌'의 표기이다. 埃은 '돌'의 음가자 표기이다. 新力埃, 舊力埃은 각각 '새심돌', '묵은심돌'의 표기이다. 新은 '새'의 혼독자 표기이다. 舊는 '묵은'의 혼독자 표기이다. 力石里·力石里·力石乙里·力埃里는 '심돌마을'의 표기로, 力石浦里·力石浦里(심돌개마을)의 셋째 음절 '개' [浦]가 생략된 표기이다. 19세기 후반 한때 '심돌'과 '새심돌' 2개의 마을로 나뉘기도 했으나, 20세기 초에 다시 力石(심돌)로 통합되었다가, 그 이후에 始興里로 바꾸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始興은 문자 그대로 '비로소 興盛하는 마을'이라는 뜻이다.

④ 古城[옛성] > 古城里

古城里는 말 그대로 '옛성이 있었던 마을'을 뜻한다. 옛날 정의현성이 있었다. 『태종실록』에 정의현(지금의 성산읍 고성리)을 본읍으로 삼는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므로, 정의땅 중간 쪼인 西村, 眞舍(지금의 성읍), 兎山 중 한 곳에 읍성을 배치하는 것이 좋다는 정의현감 李貽의 呈文과 『세종실록』에 旌義城을 旌舍里(지금의 성읍)로 옮겼다는 기록을 볼 때, 1422년 12월 21일까지 지금의 고성리에 旌義縣城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縣城이 지금의 城邑里로 옮기면서, 이곳을 옛날 정의현성이 있었던 마을이라 해서 古旌義縣이라 했고, 여기에 古城이 남아 있으므로, 후세에 마을 이름까지도 古城이라 하였다. 『지명록』에 首山所, 『탐라순력도』에 舊首山 古城, 旧首, 『제주삼읍도총지도』 등에 古城, 古城村, 『제주읍지』에 古城里, 『제주삼읍전도』에 上古城, 下古城, 『정의군읍지』에 古城里로 표기하였다. 舊旌義縣은 '옛정의현'의 표기이다. 古城은 '옛성'의 혼독자 표기이다. 舊首山은 '옛마리메'의 표기이다. 오늘날의 '물미·물메'는 '마리메'가 줄어서 된 말이다. '마리'는 오늘날의 '머리'를 뜻하는 말이고, '메'는 '뫼'의 제주도방언이다. 고성리는 19세기 말에 '웃고성'과 '알고성'으로 나뉘기도 했지만, 20세기 초에 다시 고성리로 합쳐졌다.

⑤ 水山[물미·물메], 訖前村[홀앞마을], 花前村[꽃앞마을] > 水山里

『신증동국여지승람』에 水山, 小水山, 『탐라지』에 首山, 小首山, 首山城, 首山坪, 訖前村, 『탐라순력도』에 首山, 首山望, 旧首, 花前, 『탐라지도』에 首山村, 首山烽, 『제주삼읍도총지도』에 首山村, 首山烽, 水山鎭, 花前村, 『제주읍지』에 弓山里, 『제주삼읍전도』에 水山烽, 水山里, 水山鎭, 『정의군읍지』에 上水山里, 下水山里, 水山峰, 水山鎭, 『삼군호구가간총책』에 水月, 花南,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水山里와 城邑리의 일부를 통합하여 水山里라 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水山은 '물미 > 물메' 또는 '물메 > 물메'의 혼독자 결합 표기이다. 小水山은 '족은물미'의 표기이다. 水는 '물 > 물'의 혼독자 표기, 山은 '되'의 제주도방언 '미·메'의 혼독자 표기, 小은 '작은'은 제주도방언 '족은'의 혼독자 표기이다. 水山을 首山으로 표기한 경우가 많은데, 水를 단순히 首로 표기한 것인지, 首의 혼인 '마리 > 머리'의 혼독자로 쓰인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 민간에서 '물미, 물메'라는 음상만 남아 있으므로, 水山을 혼독자 결합 표기로 보고, 首는 水의 음가자 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上水山里는 '웃물미', 下水山은 '알물미'의 표기이다. 訖前은 '홀앞 > 홀앞' 또는 '홀앞 > 홀앞'의 표기이다. 訖은 '홀'의 음가자 표기로, '가시덤불 등으로 이루어진 언덕이나 동산 따위'의 지명을 가리키는 제주도방언이다. 前은 '앞(前 앞 전<백련-동 1>) > 앞'의 혼독자 표기이다. 花前은 '꽃앞 > 꽃앞'의 표기로, '숲 앞'이라는 뜻이다. 花는 '꽃(빛꽃 爲梨花<훈민-원, 해례:18>)의 음가자 표기로, '꽃'은 藪의 뜻이다. 花南도 '꽃앞 > 꽃앞'의 표기이다. 연철되어 발음하면 '고잡'이 된다. 이는 민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고잡'과 일치하는 것이다. 南은 '남(南 남녁 남, 앞 남<신합, 상:2>) > 앞'의 혼독자 표기이다. 花前과 花南은 모두 '꽃앞 > 꽃앞'의 표기이다. 訖前[홀앞 > 홀앞]과 花前·花南[꽃앞 > 꽃앞]은 모두 같은 뜻의 한자 표기로, '꽃' 곧 '숲의 앞'이라는 뜻의 한자 표기이다. 오늘날 수산2리의 옛 이름이다. 弓山은 '활미'의 표기이다. 弓은 '활(활 爲弓<훈민-원, 해례:21>)의 음가자 표기로, '활대오름[弓帶岳]'의 첫째 음을 딴 것으로 보인다. 山은 '되'의 제주도방언 '미·메'의 혼독자 표기이다. 弓山은 '활미'의 표기로, 弓帶岳의 첫 음절과 水山[물미]의 둘째 음절을 결합시킨 표기로 보인다. 곧 '활대오름'과 '물미' 일대를 일컫는 이름이다. 水月은 '물돌 > 므돌' 정도의 표기이다. 이는 水山[물미]의 첫 음절과 '돌리미'라는 오름의 첫 음절을 결합시킨 명칭으로 보인다. '물미'는 17세기부터 두 개의 마을로 이루어졌는데, 20세기 초에 水山里로 통합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⑥ 餘乙溫·與溫[열은이], 閱雲[열은이] > 溫坪里

온평리의 옛 이름은 '열은이' 또는 '열은이'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餘乙溫, 『남사록』에 與溫浦, 『탐라지』에 閱雲浦, 雞浦, 『탐라순력도』에 迎婚浦, 『제주삼읍도총지도』 등에 迎婚浦, 迎婚村, 『제주읍지』에 與溫里, 『제주삼읍전도』에 迎婚浦, 與溫里, 『정의군읍지』에 東溫平里, 西溫平里, 『속음청사』에 列雲浦,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溫平里와 新山里 일부를 통합하여 溫平里라 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토지대장에는 烈溫이라는 표기도 나온다. 민간에서는 주로 '열룬이' 라고 부른다. 餘乙溫은 '열온'의 음가자 표기이다. 餘는 '여'의 음가자 표기, 乙은 '열'의 말씀 '리'의 음가자 표기, 溫은 '온'의 음가자 표기이다. 與溫도 음이 '여온'이지만 '열온'의 표기로, 첫째 음절 '리'은 표기에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與는 '여'이지만, '열'의 음가자 표기이다. 閱雲과 列雲은 '열운'의 음가자 표기이다. 閱과 列은 '열'의 음가자 표기, 雲은 '운'의 음가자 표기이다. '열온'과 '열운'이 같은 음상을 나타낸다. '열온'과 '열운'은 동사 '열우- / 열오-'의 어간에 관형사형어미가 붙은 형태이다. 민간에서는 '열운이 / 열온이'라고 하는 데, 이는 '열운 / 열온'에 명사형성접사 '-이'가 붙은 것이다. '열우- / 열오-'는 開, 結의 뜻으로, 婚姻池 전설(삼성신화의 주인공 고·량·부가 '열운이' 바닷가인 '황로알 / 황루알'에 떠내려온 나무상자에서 나온 세 처녀와 혼인지에서 결혼하고 사냥과 농사를 시작했다는 전설)과 관련이 있다. 곧 '열운이 / 열온이'는 '연 곳' 또는 '맺은 곳(결혼한 곳)'의 뜻이다. 迎婚浦와 迎婚村이라는 표기는 한자의 뜻 그대로 (색시를) 맞이하여 결혼한 개 또는 마을'이라는 뜻이다. 19세기 중반까지 '열운이 / 열온이'는 주로 與溫里로 표기하다가, 19세기 후반에 溫平里로 고쳤다. 민간에서는 溫을 '따뜻하다'는 뜻, 平은 '평평하다' 또는 '坏的' 뜻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원래의 뜻과 음상과는 벌어진 이름이 돼버렸다. 19세기 말에 東溫平里, 西溫平里 2개의 마을로 나뉘었다가, 20세기 초에 溫平里로 통합되었다. 그 후 溫平里의 平의 坪으로 바뀌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오늘날은 溫坪里라 부르고 있다. 민간에서 부르는 '열룬이'는 '열운이'에서 첫 음절 '리'이 둘째 음절에 중첩된 것이다. '열누니' 등도 현실음을 반영한 것이다. 雞浦는 '닭개'의 표기이다. 민간에서는 '돌개, 달개'라고 하고 한자 표기로 月浦라고 한다. 그러나 「탐라지」의 한자 표기를 고려할 때, '닭개'에서 '돌개 > 달개'로 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닭개'는 온평리 '넙빌레' 동쪽에 있는 개를 일컫는다.

⑦ 末等浦·末ホ浦[근등개·그등개] > 新山里

신산리의 옛 이름은 '그등개' 또는 '그등애'이다. 「남사록」에 末等浦, 「탐라순력도」에 末等浦, 「탐라지도」에는 末等村, 末ホ浦, 「제주삼읍도총지도」에는 末等浦, 末ホ村, 「제주읍지」에 新山里, 「제주삼읍전도」에 末等浦, 末等烽, 新山里, 「정의군읍지」에 新山里,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新山里 일부 지역을 新山里라 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민간에서는 '그등애'라고도 부른다. 末等浦와 末ホ浦는 '근등개 > 그등애'의 표기이다. 末은 '글'(末은 그티라<석보 9:2>) > '곳'의 훈가자 표기, 等は '등'의 음가자 표기, ホ은 等的 축약 표기로, '등'의 음가자 표기, 浦는 '개'의 훈독자 표기이다. '글'은 둘째 음절 초성 'ㄷ'으로 인해, 8종성의 적용을 받아 '근'이 된다. '근등개'는 민간에서 '그등애'라고도 하는데, 첫 음절 '근'의 말씀 'ㄷ'이 탈락하고, '개'의 초성 'ㄱ'이 앞 자음 'ㅇ'이 영향으로 '애'로 변한 것이다. 결국 '개'의 'ㄱ'은 유성자음인 것이다. 末等村과 末ホ村은 '근등개마을 > 그등애마을'의 표기로, '개' [浦]는 표기에 반영되지 않았다. 18세기 후반에 '근등개 > 그등애'는 新山里로 바뀌어 오늘

에 이르고 있다. 新山里는 속칭 '신산·신산이, 신산마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新山의 뜻은 한자 표기 그대로 '새로운 산'이란 뜻인지 아니면 '신(神)이 선[立] 마을이라는 뜻인지 확실하지 않다. 보통 후자로 생각하고 있다.

⑧ 臥崗·臥江[와강] > 三達里

三達里는 속칭 '와갱이'와 '주어코지' 지역을 일컫는다. 『탐라순력도』에 臥崗, 分入浦, 『제주삼읍도총지도』 등에 臥江村, 分入浦, 『제주읍지』에 三達里, 『제주삼읍전도』 등에 三達里, 分入浦, 1914년에 옛 三達里와 옛 城邑里 일부를 통합하여 三達里라 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臥崗과 臥江은 '와강'의 음가자 표기이다. '와강'에 명사형성접사 '-이'가 붙으면, '와갱이'가 되고 '모음 역행동화'에 의해 민간에서 부르는 '와갱이'가 된다. '와갱이'는 18세기 말에 한자 三達里로 바뀌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와갱이'의 뜻은 확실하지 않다. 分入浦는 '분들개'의 표기이다. 分은 '분'의 음가자 표기, 入은 '들'의 혼독자 표기이다. '분들'의 뜻은 확실하지 않으나, 오늘날의 민간 지명에 '분들이'가 남아 있어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다. 18세기 후반부터 '와갱이'와 '분들개' 지역을 三達里라 했다.

⑨ 川尾[내깍] > 新豐里

『중종실록』(5년 9월 기사)에 川尾浦, 『제주삼읍도총지도』에 川尾場, 窟坪代, 『제주읍지』에 新楓里, 『정의군읍지』에 新豐里, 新坪里, 『삼군호구가간총책』에 新豐, 新坪,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城邑里와 新豐里 각 일부를 통합하여 新豐里라 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川尾는 '내깍'의 표기이다. 민간에서는 흔히 '내끼'라고 한다. 川은 '내'의 혼독자 표기로, '개룻내[介老川·蓋老川]를 이른다. 尾는 '꼬리(尾 꼬리 미<신합, 상:14)> 꼬리 또는 '곧<ᄃᆞ> 끝'을 뜻하는 제주도방언 '깍'의 혼독자 표기이다. 곧 川尾는 '내깍'의 표기인데, 민간에서는 주로 '내끼'라고 부른다. 특히 '내깍'에서도 위쪽에 있다는 데서 '웃내깍 > 웃내끼'라고 불렀다. 아래쪽에 있는 新川里와 下川里는 '알내깍 > 알내끼'라고 부른다. 川尾浦는 '내깍개'의 표기이다. 新楓은 한자음 '신풋'의 표기로 음가자 표기인지, 혼독자 표기인지, 아니면 '새싹'의 혼독자 표기(新은 새라<세훈민 2~3>, 싹 爲楓<훈민-원, 해례:26>)인지 확실하지 않다. 민간에서는 이에 대응되는 음상을 확인할 수 없다. 新楓은 19세기 중반에 新豐으로 바뀌고, 新豐은 다시 新豐과 新坪으로 나뉘었다. 新坪의 坪은 窟坪代[굴벵디]의 坪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新坪 역시 혼독자 표기[새벵디]인지 음가자 표기인지 확실하지 않다. 1900년대 초반까지도 新豐과 新坪이라는 마을이 있었는데, 1910년 경에 新坪은 新豐에 통합되었고, 1914년 城邑里와 新豐里 각 일부를 통합하여 新豐里라 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57) 아츨미 오매 몰랫 그티 나 돛기너 푸른 비치 柴門에 뭍넛다(朝來沒沙尾 碧色動柴門)<두해-초, 10:6>

⑩ 川尾[내깍] > 新川里

신천리의 옛 이름은 '내끼'이다. 『중종실록』에 川尾浦, 『제주삼읍도총지도』 등에 川尾浦, 川尾村, 川尾場, 『제주읍지』에 新川尾里, 『정의군읍지』에 新川里, 1914년 행정구역 폐합 때에 新川里와 下川里 일부를 통합하여 新川里라 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川尾는 '내깍'의 혼독자 결합 표기이다. '내의 끝'이라는 뜻이다. '내깍' 주변의 마을이 커지면서 新川尾[새내깍]와 下川尾[알내깍]으로 나뉘었다. '내깍'은 민간에서 주로 '내끼'라고 한다. 新川尾는 '새내깍 > 새내끼'의 표기이다. 후대에 尾가 생략되어 新川이라 표기하였다.

⑪ 亂禿村·難山里[난미마을] > 蘭山里

난산리의 옛 이름은 '난메·난미'이다. 『탐라지도』에 亂禿村, 『제주삼읍도총지도』에 亂毛村, 『제주읍지』에 難山里, 『제주삼읍전도』에 東蘭山里, 西蘭山里, 『정의군읍지』에 蘭山里, 1914년 행정구역 폐합 때 蘭山里와 城邑里 일부를 통합하여 蘭山里라 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민간에서는 '난피, 난미'라고 부른다. 亂禿村은 '난피마을 > 난미마을'의 표기이다. 亂은 '난'의 음가자 표기, 禿은 '미 > 미'(禿 뿔 독 俗呼禿廝 머리 뿔 늡<훈몽-초, 상:15>)의 음가자 표기, 村은 '마을'의 혼독자 표기이다. 亂毛村은 '난모마을'의 표기이다. 毛는 '모'의 음가자 표기이다. 難山里는 '난미마을'의 표기이다. 難은 '난'의 음가자 표기, 山은 '미'의 제주도방언 '미'의 음가자 표기, 里는 '마을 > 마을'의 혼독자 표기이다. 蘭山里도 '난미마을'의 표기이다. 蘭도 '난'의 음가자 표기이다. 亂禿과 難山·蘭山은 모두 '난미'의 표기이고, 亂毛도 '난모'이지만, '난미'의 다른 표기라 할 수 있다. 그 뜻은 확실하지 않다. '난미마을'은 18세기 중후반 한 때 東·西蘭山里로 나뉘었다가, 다시 '난미마을'로 통합되었다.

⑫ 新陽里[새희마을?], 山陽里[산희마을?] > 古城里 > 新陽里

新陽里는 18세기 후반까지 독립된 마을이었다가, 19세기 중반부터 古城里에 통합되었다. 그후 1951년에 속칭 '섭지코지'와 '방뒤편' 일대를 통합하여 '신양리'라 하여 분리하였다. 『남사록』에 挾財浦, 『탐라순력도』에 俠才浦, 『제주삼읍도총지도』에 俠才浦, 堂浦, 方頭, 方頭浦, 『제주읍지』에 新陽里, 山陽里, 俠子, 『제주삼읍전도』에 下古城里, 『정의군읍지』에 方頭浦, 古城里로 표기하였다. 挾財浦와 俠才浦는 '협재'의 표기이다. 挾財와 俠才는 '협재'의 음가자 표기로 보이는데, 그 뜻은 확실하지 않다. 俠子는 '협자'의 음가자 표기이다. '협재' 또는 '협자'라는 음상은 민간에서 '섭지'로 불리고 있다. 어두음 'ㅎ'이 'ㅅ'으로 구개음화된 것이다. 그래서 '섭지코지[-串]'라는 지명이 생겨났다. 堂浦는 '당개'이지만, '개'의 'ㄱ'의 격음화로 민간에서는 '당개'로 불리고 있다. 方頭는 '방두'의 음가자 표기이지만, 민간에서는 '방뒤'로 불리고 있다. '방뒤'는 '방뒤코지[-串]'를 이른다. '방뒤코지' 서쪽 개를 '방뒤편' [方頭浦]라 한다. 19세기 후반에 '새희가 뜨는 마을'이라는 뜻의 新陽里와 '산의 희 > 산

해'라는 뜻의 山陽里 등 2개의 마을이 있었는데, 19세기에는 新陽里, 山陽里라는 지명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때부터 新陽里와 山陽里는 古城里에 속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두 개의 마을을 '알고성[下古城]'이라고도 했다. 1933년 읍면제 실시에 따라 新陽里 2區라 칭하다가 1951년 4월에 '섬지코지' 일대와 '방뒹개' 일대를 통합하여 옛 이름인 新陽里라 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4) 安德面

① 犯叱川·友川[벗내], 洞水[골물] > 和順里

和順里는 옛날에 '벗내'라 불렀다. 『탐라순력도』에 犯浦, 『제주삼읍도총지도』에 犯川村, 犯川浦, 洞水村, 『제주읍지』에 犯川里, 洞水里, 『제주삼읍전도』 등에 和順里로 표기되어 있다. 주변의 비석에는 '벗내'의 현실음 '번내'를 攀川으로 표기하기도 하였다. 민간에서는 '벗내왓, 벗내, 벗넛골'이라 부른다. 犯川은 '벗내'의 표기이다. 犯의 한자어는 '범'이지만, '벗'의 불완전한 음가자 표기이다. 川은 '내'의 혼독자 표기이다. 村은 '마을'의 혼독자 표기, 浦는 '개'의 혼독자 표기이다. '벗내'의 '벗'의 말음 ㅈ[시]을 생략한 표기가 犯川[벗내]이다. 犯浦는 '벗넛개'의 표기로, '내' [川]의 표기를 생략한 것이다. '벗'은 동사 '벗-' [脫]의 어간형으로 보인다. 여기에 고유어 '내'가 붙은 것으로, '벗은 내'의 뜻으로 쓰인 것으로 보인다. '벗내' 주위에 마을이 형성되어 '벗내왓, 벗내마을'이 되었는데, 19세기 말에 和順里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이 당시에 犯川[벗내]라는 한자 이름이 좋지 않다고 하여, 和順으로 고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和順은 한학자들에 의해 지어진 새로운 이름으로, 원래의 '벗내'라는 지명과 아무 관계도 없는 것이다. '벗내왓'의 '왓'은 '밭' [田]을 뜻하는 말이다. 洞水는 '골물'의 표기이다. 洞은 '골' (洞 골 동<백련 21>)의 혼독자 표기이다. 여기서 '골'은 골짜기의 뜻으로, '벗내'를 이른다. 水는 '물' > 물의 혼독자 표기이다. 지금도 '골물동'이라고 부른다. '골물마을'은 18세기 후반까지만 해도 하나의 독립 마을로, 꽤 큰 마을이었으나, 19세기 중반에는 和順里에 통합된 것으로 보인다.

② 倉庫川[창고내] > 倉川里

倉川里는 '창고내'라 했다. 『탐라지도』에 倉庫川, 『제주삼읍도총지도』에 倉庫川村, 『제주읍지』에 倉川里로 표기된 이후 오늘에 이르고 있다. 倉庫川은 '창고내'의 표기이다. '창고'의 뜻은 확실하지 않다. 『신증동국여지승람』 등에 紺山川이라 하였고, 和順 지역에서는 犯川[벗내]라 하였다. 倉川은 '창고내'의 '고'를 생략한 표기이다.

③ 甘山·紺山·紺山[감산] > 紺山村·山村·甘山村[감산마을] > 甘山里

『세종실록』에 甘山, 『탐라지』 등에 紺山, 『탐라지도』에 紺山村, 『제주삼현도』에 紺山村, 『제주삼읍

도총지도」에 甘山村, 「제주읍지」에 柑山里, 「제주삼읍전도」에 甘山里, 「삼군호구가간총책」에 柑山, 1914년에 柑山里로 표기하였다. 甘山·紺山·柑山·泔山 등은 '감산'의 한자 표기이다. '감산'은 산 모양이 柑처럼 생겨서 붙였다는 것(진성기, 1975:128 ; 한글학회, 1986:386)은 민간어원에 불과하다. 민간에서 神山岳, 新山이라고도 부르는 것을 볼 때, '감'은 神聖한 곳을 뜻하는 '감·검'과 관련이 있는 것(현평효, 1990:35-36 ; 김종철, 1995:139-140)으로 볼 수도 있다. 어원에 대해서는 좀더 논의해야 할 과제로 남겨둔다.

④ 通泉·桶泉[통세미] > 上倉里

上倉이라는 이름은 1914년 행정구역 개정 때 새로 지은 이름이다. 그 이전에는 通泉里로 표기되었다. 「제주읍지」와 「제주삼읍전도」 등에 通泉里, 「삼군호구가간총책」에 桶泉으로 표기하고, 1914년에 上倉으로 바뀌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通泉·桶泉은 '통세미'의 표기이다. 通은 '통'의 음가자 표기, 桶은 '통'(桶 통 통 俗稱水桶<훈몽-초, 중:9>)의 음가자 표기, 泉은 '샘'의 제주도방언 '세미'의 훈독자 표기, 里는 '마을'의 훈독자 표기이다. '통'은 '물'이 고여 있는 못 따위를 일컫는 제주도방언이다. 곧 '통세미'는 '물통에서 솟아나는 샘'이라는 뜻인데, 이 주변에 마을이 형성되면서 通泉里라 부르게 된 것이다. 通泉은 지금도 '통천, 통천이'라고 한자음으로 부르는 사람도 있고, '통물'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 지금은 上倉里라 부르고 있다.

⑤ 金蠶浦·黑路浦[검은질개] > 今勿路里·黑路村[검은질마을], 沙溪[모살내] > 沙溪里

「탐라지」에 金蠶浦, 「탐라순력도」에 黑路浦, 「제주삼읍도총지도」 등에 黑路村, 暗林, 黑路浦, 「제주읍지」에 今勿路里, 「제주삼읍전도」에 沙溪里, 「대정군지도」에 東沙溪里, 沙溪里, 「삼군호구가간총책」에 沙溪로 기록되어 있다. 今勿路는 '검을질 > 검은질'의 표기이다. 今勿은 '검을(黑은 거믈 씨오<월석 1:22>), 黑 거믈 흑<훈몽-초, 중:14> > 검은'의 음가자 표기이다.⁵⁸⁾ 路는 '길'의 제주도방언 '질'의 훈독자 표기이다. 黑은 '거믈 > 검은'의 훈독자 표기이므로, 黑路로 '검은질'의 표기이다. 金蠶浦는 今路浦를 달리 표기한 것이다. 「탐라지도」와 「제주삼읍도총지도」에 暗林[어둔숲]이라는 표기는 '어두운 숲'이란 뜻으로, 이 일대에 나무가 우거져 어둡게 보였으므로 '검은질'이라 한 것으로 보인다. '검은질'은 18세기 중반 경에 '사계'와 '새당'으로 분리되었으나, '사계'리는 19세기 중반까지도 今勿路[검은질]로 불렸고, '새당'은 '새당'으로 불렸다. '새당'은 刷堂으로 표기하다가 18세기 중반쯤에 新堂으로 표기하였고, 今勿路[검은질]은 18세기 중반부터 沙溪里로 표기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⁵⁹⁾ 沙溪라

58) 今勿이 黑에 대응하는 것은 「三國史記」의 고구려 지명 표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黑壤郡 一云黃壤郡 本高句麗 今勿奴郡(삼국사기)(권35). 今勿奴과 黑壤과의 대비에서, 今勿과 黑의 대응을 확인할 수 있고, 今勿은 중세어 '거믈'[黑]과 일치함을 알 수 있다.

한 것은 현지 지명에 '모살개, 모살통' 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沙를 붙인 것으로 보이고, 溪는 마을 동쪽을 흐르는 '시내' (溪 시내 계 水注川 曰溪<훈몽-초, 상:2>)를 뜻하는 데서 붙인 것으로 보인다. '모살'은 '모래'의 제주도방언이다. 한편 『제주대정현사계리호적중초(1)』의 해제(p.1)에 보이는 “一邑稱此洞口沙溪也 謂其居人口沙溪人也 今所稱沙溪地名 欲罷不能者也(한 읍에서 이 고을을 일컬어 沙溪라 하고, 거기에 사는 사람을 沙溪人이라 하니, 지금 沙溪라 일컫는 지명을 없애려고 하지만 없앨 수가 없습니다.)”라는 기록을 보면, 沙溪라는 한자 이름은 그 이전부터 써 왔음을 알 수 있다.

⑥ 刷堂·新堂[새당] > 刷堂村[새당마을] > 德修里

「제주삼읍도총지도」에 刷堂村, 18세기 말의 고문서에 刷堂, 19세기 중반의 호적중초 등에 新堂, 「제주삼읍전도」 등에 德修里로 표기되었다. 이후 德修里는 그대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 刷堂은 오늘날 한 자음이 '쇄당'이다. 刷의 중세음은 '쇄(刷 쇠즈 쇠<훈몽-초, 중:7>) > 쇄'인데, 이 음상을 그대로 반영한 것인지는 의문이다. 堂은 '당'의 음독자 표기이다. 新은 '새'의 훈가자 표기, 堂은 '당'의 음독자 표기이다. 민간에서 주로 '새당'이라 하는 것을 보면, 刷堂은 중세음이 '쇄당'이지만, '새당'의 음상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고, 新堂은 '새당'의 한자 표기이다. '새당'의 뜻을 한자 표기 新堂에 연관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刷堂의 풀이에 문제가 있다. 만약 刷堂과 新堂 모두가 혼독자 표기로 쓰인 것이 라면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刷堂은 한자 뜻 그대로 '당을 쓸어버린 마을'을 뜻하고, 新堂은 그 후에 다시 '새로운 당을 만든 마을'의 뜻이 그것이다. 한 마을 이름이 1세기도 안되어 정반대의 이름으로 불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未詳으로 남겨둔다. '새당'은 19세기 중반에 한자 德修로 바뀐 이후, 그대로 오늘에 이어지고 있다. '새당' 마을은 '검은길마을'(今勿路里:지금의 사계리)에서 18세기 중반에 분리된 것으로 보인다. 1784년에 '검은길'이 아래쪽의 沙溪와 위쪽의 '새당'으로 분리되었다는 기록⁵⁹⁾이 있으나, 적어도 「제주삼읍도총지도」(1770년대)에 刷堂村이라 표기하였고, 1771년의 明文⁶⁰⁾에 刷堂의 표기가 나타나므로, 적어도 이전에 '새당' 마을이 있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⑦ 自丹里[즈단이], 光淸里[광청이] > 西廣, 東廣

東·西廣里는 원래 하나의 마을이었는데, 지금은 2개의 마을로 나누어졌다. 「탐라순력도」에 自丹里, 「제주삼읍도총지도」에 自丹村, 「제주읍지」에 自丹里, 「제주삼읍전도」에 光淸里, 「대정군지도」에 光淸里, 新淸里, 「삼군호구가간총책」에 東光淸, 光淸, 1914년에 東廣里·西廣里로 표기되어 있다. 自

59) 「제주대정현사계리호적중초(1)」(1996)의 해제(고창석) 참조.

60) 「제주대정현사계리호적중초(1)」(1996)의 해제(p.2)에 이용된 고문서의 기록.

61) 「사계리 능성구씨가와 그 문서」(고창석), 『탐라문화』 14호, p.71

丹里는 '즈단이' 또는 '즈단리'의 음가자 표기이다. 自는 '즈'(自 스스로 又從也<훈몽-초, 하:10>)의 음가자 표기, 丹은 '단'(丹 모란 단, 불글 단<신합-나손본>)의 음가자 표기, 里는 '리' 또는 유사음 '이'의 음가자 표기이다. 「한라장축」의 표기에는 「마을」을 뜻하는 村이나 里, 洞의 표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自丹里의 里는 셋째 음절 '리' 또는 '이'를 표기한 것으로 보인다. '즈단리'는 그 뜻이 확실하지 않다. 19세기 중기까지 '즈단이'라 하다가, 19세기 말에 光淸里로 바뀌었다. 민간에서는 아직도 '광청이' 또는 '광챙이'라고 부른다. 이 고유어로 일찍부터 있었던 지명인지, 새롭게 光淸으로 바꾸고 한자음 그대로 부르게 된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 한편 19세기 말에 新淸里(光淸里 서쪽에 있었음.)라는 마을이 새로 생겼고, 20세기 초반에는 東光淸里와 光靑里로 부르다가, 1914년 행정구역 폐합과 개정 때 '청'을 생략하여 東廣里, 西廣里로 고쳐 부르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光淸의 光이 1914년에 廣으로 바뀐 것도 특이하다. 이때 光이 廣으로 바뀐 것은 '광챙이오름'이라고도 부르는 '넙케오름' [廣仍邑·廣巨岳]의 '넙-' [廣-]에 연유한 것으로 보인다. '광청이, 광챙이'의 뜻도 확실하지 않다.

⑧ 廣坪[넙은드르] > 廣坪里

19세기 말 이전의 고지도나 고문헌에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19세기 말에 마을 이름으로 정착한 것으로 보인다. 「대정군지도」에는 廣坪里, 「삼군호구가간총책」에 廣坪으로 표기되어 있다. 1914년에 廣坪里라 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廣은 '넙-' (光 너블 광<천자-광 20>)에 관형사형어미가 붙은 '넙은'의 혼독자 표기, 坪은 '들'에 옛말인 '드르' (坪 드르 평 大野坪 通作平<훈몽-초, 상:2>)의 혼독자 표기이다. 일찍부터 '넙은드르'라 불리던 지역으로, 19세기 말에 마을이 형성되고, 한자 표기로 廣坪이라 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⑨ 上川[웃내] > 上川里

上川里는 19세기 중반 이전의 고지도에 나오지 않는 것으로 보아, 19세기 말에 새로 붙인 이름으로 보인다. 그 이전의 고지도에는 倉川里와 通泉里가 나온다. 「제주지도」와 「정의군지도」에 上川里, 「삼군호구가간총책」에 上川, 1914년에 上川里로 표기되어 있다. 上川은 '웃창고내' [上倉庫川]에서 '창고'를 줄인 '웃내'의 차자 표기이다. 上은 '우' 또는 '웃' (上 웃 상<신합, 상:2>)의 혼독자 표기, 川은 '내'의 혼독자 표기이다. 이때 '내'는 '창고내' [倉庫川]를 이른다. 곧 '창고내' 줄기 위쪽에 형성되어 있는 마을이라는 데서 붙인 것이다.

⑩ 大坪[난드르] > 大坪里

大坪里란 마을 이름이 생겨난 것은 1946년이라고 한다. 옛날에는 '열리(지금의 猊來里)'에 속했다

가, 150여년 전부터 倉川里에 속했다고 한다. 그러다가 1946년 大坪里가 분리되었다. 이 지역은 옛부터 속칭 '난드르'라 일컬었고, 그 앞바다는 '당개[唐浦]라 하였다. '난드르'는 '든드르'와의 대비에서 마을에서 나간 들[出坪]이라는 뜻이라고도 하고, '큰 드르'의 뜻이라고도 한다. 속칭 '난드르'를 '큰 들'로 인식하고 한자어 大坪으로 표기한 것이다. 예전에 '이두어시망'이 있었다. 『탐라순력도』에 伊斗於時望이라 표시되어 있다. 지금도 '돌라미[月羅峰] 동쪽에 있는 들을 '이두어시'라고 한다. 그 뜻은 확실하지 않다.

(5) 表善面

① 票先旨村[폐선마르마을] > 標立村·票先村[폐선마을] > 表善里

『탐라순력도』에 標立村, 堂浦, 『탐라지도』에 票先村, 『제주삼읍도총지도』에 票先旨村, 『제주읍지』에 表善里, 『제주삼읍전도』에 表善里, 『정의군읍지』에 左善里, 表善里, 白沙浦, 『삼국호구가간총책』에 左善, 表善으로 표기되었으나, 1910년에 左善은 表善에 통합되고, 1914년 행정 구역 폐합에 따라 옛 永南里와 表善里, 그리고 좌면 下川里의 일부를 통합하여 表善里라 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민간에서는 '폐선이, 표선이'라고 한다. 票先旨村은 '폐선마르마을'의 표기이다. 票는 '표'의 음가자 표기로, 標를 뜻한다. '표'의 제주도방언은 '폐적(표적)'의 경우와 같이 '폐'이다. 先은 '셔' > '서' [立]에 관형사형어미 '-니'이 붙은 '선'의 음가자 표기, 旨는 '마르 > 마르'(旨 마르 지<신합, 하:59)의 훈가자 표기, 村은 '마술(村 마술 촌<백련-동 38)) > 마을'의 훈독자 표기이다. 標立村은 '폐선마을'의 표기로, '폐선마르마을'의 '마르'가 표기에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立은 '셔' > '서'에 관형사형어미 '-니'이 붙은 '선' > '선'의 훈독자 표기이다. 票先村·表善里도 '폐선마을'의 표기로, 역시 '마르'가 표기에 반영되지 않았다. 表는 '표'의 제주도방언 '폐'의 음가자 표기, 里는 '마술 > 마을'의 훈독자 표기이다. 堂浦는 '당개'의 표기인데, 제주도방언의 격음화 경향에 따라 '당개'로 불린다. 표선리는 18세기 후반에 表善里로 나타나고, 19세기 중반에 先을 善으로 고쳐 表善里라 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18세기 후반에 보이는 左善은 '좌폐선' [左表善]의 줄임 표기로 보인다. 곧 '폐선' 왼쪽에 있는 마을이라는 뜻이다. 오늘날의 表善은 원래의 이름과는 거리가 있는 표기이다. 白沙浦는 '흰모살개'의 표기이다. 白은 '희-'에 관형사형어미 '-니'이 붙은 '흰'의 훈독자 표기, 沙는 '모래'의 제주도방언 '모살'의 훈독자 표기, 浦는 '개'의 훈독자 표기이다. 조사된 자료에서 '한모살'(한글학회, 1996:400; 오성찬, 1992:59; 박용후, 1992:124)로 잘못 조사, 정리되고 있다.

② 川尾[내깍] > 下川尾[알내깍] > 下川里

『중종실록』(5년 9월 기사)과 『탐라순력도』에 川尾浦, 『제주삼읍도총지도』 등에 川尾浦, 川尾村, 『제

주읍지』에 下川尾里, 『제주삼읍전도』에 川尾浦, 下川里, 『정의군읍지』에 下川리로 표기되어 있다.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下川里와 新豊里의 각 일부를 통합하여 下川里라 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川尾는 '내깍'의 표기이다. 川은 '내'의 혼독자 표기, 尾는 '글 > 끝'을 뜻하는 제주도방언 '깍'의 혼독자 표기이다. 민간에서는 주로 '내끼'라고 한다. '내깍'의 변이형이라 할 수 있다. 18세기 후반에 '웃내깍 > 웃내끼(지금의 新豊里)에 대응되는 '알내깍 > 알내끼'라 하여 한자 표기로 下川尾里라 하고, 19세기 중반에 尾를 생략하여 下川으로 표기하기 시작했다.

③ 眞舍里·썩솨里[진사마을], 弓山村[활미마을] > 城邑里

城邑리는 정의현성이 있었기 때문에 城邑이라 했다. 『태종실록』에 眞舍, 『세종실록』에 썩솨里, 『탐라순력도』에 旌義, 邑外村, 弓山村·弓山, 『제주삼읍도총지도』에 旌義縣, 弓山村, 『제주읍지』에 城邑里, 『제주삼읍전도』에 城邑里, 弓山村, 『정의군읍지』 등에 城邑里, 『제주지도』에 城邑村, 弓山리로 표기하였다. 1914년에 옛 城邑里 일부를 城邑里라 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眞舍里와 썩솨리는 '진사마을'의 표기이다. '진사'의 뜻은 확실하지 않다. 정의현성이 옮겨 오기 전 이름이다. 정의현성이 '진사마을'로 옮긴 이후에 정의성 주변 마을은 '정의골' 또는 '城邑, 邑外村, 진사마을' 등으로 불리다가 城邑이라 하였다. 城邑은 '성읍'의 음독자 표기이다. 弓山 또는 弓山村·弓山리는 '활미' 또는 '활미마을'의 한자 표기이다. 민간에서도 '활미'라고 부른다. 弓은 '활'의 혼독자 표기, 山은 '뫼'의 제주도방언 '미'의 혼독자 표기이다. 곧 '활미' 가까이에 형성된 마을이라는 데서 이런 이름이 붙여졌다. 오늘날 성읍2리의 옛 이름이다.

④ 加時岳里[가시오름마을], 安坐岳里[안좌오름마을] > 加時里

『신증동국여지승람』에 安佐岳, 『탐라지』에 安坐岳, 『탐라순력도』에 安坐岳, 椽岳, 『제주삼읍도총지도』에 可沙岳, 安坐岳村, 椽岳村, 『제주읍지』에 加時岳里, 安坐岳里, 『제주삼읍전도』에 加時里, 安坐里, 『정의군읍지』에 東加時岳里, 西加時岳里, 安坐里(安坐岳里), 『삼군호구가간총책』에 東加, 加時, 安坐로 표기되어 있다.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加時里와 安坐里 일부를 통합하여 加時里라 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安佐岳과 安坐岳은 '안좌오름'의 표기이다. 민간에서는 '안좌름, 안좌오름'이라고 한다. 安佐와 安坐는 '안좌'의 음가자 표기이다. 그 뜻은 확실하지 않다. '안좌오름' 주변에 형성된 마을을 '안좌오름마을'이라고 하여, 한자로 安坐岳村, 安坐岳里 또는 岳을 생략하여 安坐里라고 하였다. 1900년대 초까지도 독립된 마을이었으나, 그 후에 일부는 加時里에, 일부는 新興里에 통합되었다. 加時岳은 '가시오름'의 표기, 可沙岳은 '가시오름'의 표기이다. 민간에서는 '가시오름, 가세오름'이라고 한다. 오름 형세가 '가위'(제주도방언 'ㄱ세')와 같다는 데서 '가세오름'이라고 했다고 하나, 加時[가시]는 'ㄱ세'와는 음상에 차이가 있다. 그러나 可沙[가시]는 'ㄱ세'와 비슷한 음상이다. 현재로서

는 확실하지 않다. 가시리는 19세기 말에 東加時岳里, 西加時岳里로 나뉘었고, 1900년대 초에는 東加와 加時로 표기되었다. 東加는 東加時岳里에서 時와 岳이 생략 표기된 것이다. 加時は 西加時岳里를 이른다.

⑤ 細花[ㄹ는꽃], 敦內岳村[돈내오름마을] > 細花里

『남사록』에 所々老浦, 『탐라순력도』에 細花, 所馬浦, 『탐라지도』에 細花村, 所馬路浦, 『제주삼읍도총지도』와 『제주삼읍전도』 등에 敦內岳村, 所馬浦, 浦毛所川, 『제주읍지』에 細花里, 『제주삼읍전도』에 細花里, 加麻路浦, 『정의군읍지』에 東細花里, 西細花里로 표기되었다. 민간에서는 'ㄹ는꽃, 돈오름·도노름·도노오름·도내' 등으로 부른다. 細花는 'ㄹ는꽃'의 표기이다. 細는 'ㄹ는'의 훈가자 표기, 花는 '꽃' [藪]의 음가자 표기이다. 'ㄹ는'의 뜻은 확실하지 않다. 敦內岳은 '돈내오름'의 표기로, 敦은 '돈' 또는 '도'의 음가자 표기, 內는 '내'의 음가자 표기, 岳은 '오름'의 훈독자 표기이다. '도'는 길목이나 통로, 어귀를 뜻하는 제주도방언이고, '내'는 '남이' [越]의 불완전한, 음가자 표기이다. 곧 '도를 넘는 오름'의 뜻이다. 敦內岳村은 '돈내오름마을'의 표기로, '도노름' 주위에 형성된 마을이라는 뜻에서 붙여졌다고 본다. 18세기 말부터 행정명은 細花里로 표기되고, 19세기 말에는 東·西細花里로 나뉘었다가 다시 통합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所々老浦와 所馬路浦는 '바마룻개'의 표기이다. 所는 '바'의 훈가자 표기, 々와 馬는 '마'의 음가자 표기, 老와 路는 '로'의 음가자 표기, 浦는 '개'의 훈독자 표기이다. 所馬浦도 '바마룻개'의 표기로 셋째 음절이 표기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 '바마룻개'가 19세기 말 『제주삼읍전도』에 加麻路浦로 잘못 표기되면서 오늘날 加麻里란 이름의 원형이 되버렸다. '바마로'의 뜻은 확실하지 않다.

⑥ 兎山·兎山·土山[토산] > 兎山里

15세기 초에 東道 千戶所(1404년 이전), 東道 靜海鎮(1404년 이후)에 소속되어 兎山縣이라 불렀다. 『태종실록』에 兎山縣, 『탐라순력도』에 兎山浦, 兎山望, 『남환박물』(지적)에 土山里, 『제주삼읍도총지도』 등에 兎山村, 兎山浦, 兎山烽, 『제주읍지』 등에 兎山里, 『제주삼읍전도』에 吐山里로 표기되어 있다. 兎山·兎山·土山·吐山은 '토산'의 표기이다. 일찍부터 한자화한 이름이어서, 훈독자로 쓰인 것인지 음가자로 쓰인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

III. 결 론

지금까지 제주도의 오름 이름(山岳名)과 마을 이름(洞里名)을 언어학적으로 연구하였다. 연구의 초점은 고유한 음상을 찾아내고 그 음상에 대응되는 뜻은 무엇인가, 오늘날의 한자 표기가 원래의 음상과 뜻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과거의 음상 파악과 해독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 오늘날 살려 써야 할 고유한 이름은 무엇인가 등에 맞추었다.

연구 결과, 과거의 해독이 지나치게 민간어원과 전설에 의존했거나 차자 표기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확보하지 않은 채 한자 표기를 그대로 믿는 경향이 많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옛 지도나 옛 문헌에 나타나는 한자 표기에 쓰인 차자의 대부분은 한자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뜻과는 상관 없이 쓰이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므로 지명 표기에 쓰인 한자의 해독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더욱이 차자 표기 또는 이두 표기로 쓰인 한자 지명을 함부로 고유어화하는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함도 일깨워주었다.

지금까지 논의한 결과를 가지고, 민간어원에 의존하여 음상과 의미가 원래의 것과 상당히 멀어졌다고 생각되는 예, 음상이나 의미의 어느 한 쪽이 원래의 것과 멀어졌다고 생각되는 예 등을 정리하면서 이 글을 마치도록 한다(오름 이름의 경우는 잘못된, 오늘날 지도 표기의 예를 먼저 들고 재구한 음상과 뜻을 다음에 명시한다. 마을 이름의 경우는 오늘날 쓰는 잘못된, 행정 지명의 예나 민간의 설명을 먼저 들고 재구한 음상과 뜻을 다음에 명시한다.). 분량상의 제한으로 일부만 제시한다.

봉개동의 '개월오름, 犬月岳' → 表岳[글위리오름], 竝五里岳[굴오리오름], 竝岳[굴오리오름] : 表는 '글월 / 글위리'의 훈가자 표기, 竝五里는 '굴오리 > ㄱ오리'의 훈가자와 음가자의 결합 표기, 竝은 '꺾 > 꺾'의 훈가자 표기, '가오리' 닮은 오름

연동의 南朝峰 → 道內山岳[도내미오름], 木密岳[남짓은오름], 木琢岳·木啄岳[남쫓은오름] : 道는 '입구, 어귀'의 뜻을 가진 제주도방언 '도'의 음가자 표기, 內는 '남-'[越]의 '나'의 변음 '내'의 음가자 표기, 山은 '피'의 제주도방언 '미'의 혼독자 표기, 木은 '나무'의 제주도방언 '남 / 냥'의 혼독자 표기, 密은 '짓-'의 제주도방언 '짓-'의 혼독자 표기, 琢과 啄은 '쫓-'의 제주도방언 '쫓-'의 훈가자 표기, 岳은 '오름 > 오름'의 혼독자 표기. 1) '도'를 넘은 오름 2) 나무가 우거진 오름.

도두동의 道頭峰 → 道道里山[도도리메], 道道里岳[도도리오름], 道圓岳[도두리오름], 道頭岳[도두리오름] : 道는 '도' (?)의 음가자 표기, 道里와 圓, 頭 등은 '도리·두리'의 음가자 또는 혼독자 표기로, 圓의 뜻.

서홍리의 三梅峰 → 三每陽峰·三梅陽峰·三每讓峰[세미양오름] : 三每·三梅는 '삼'의 제주도방언 '세미'의 음가자 표기, 陽과 讓은 '양' (?)의 음가자 표기.

하원동의 拘山峰 → 居玉岳[거옥오름], 龜岳[거북오름], 龜山峰[구산오름], 窟山峰·屈山峰[굴산오름] : 居玉은 '거옥'의 음가자 표기, 龜는 '거북'의 혼독자 표기, 龜山·拘山과 窟山·屈山은 '구산' 또는 '굴산'의 음가자 표기.

하원동의 '거린사슴' → 𪛗岳[거린오름], 𪛗鹿岳[거린사슴오름] : 𪛗는 '거린'의 혼독자 표기, 鹿은 '사슴 > 사슴'의 혼가자 표기.

종달리의 地尾峰 → 只末山·指尾山·地尾山[지미메] : 只末·指尾·地尾는 '지미'의 음가자 표기, 山은 '뫼'의 제주도방언 '메'의 혼독자 표기.

세화리의 '다랑쉬, 月郎峰' → 多郎時岳·大朗秀岳·多浪秀岳·月朗秀岳[다랑수오름·다랑쉬오름] : 多郎·大朗·多浪·月朗은 '다랑' (?) 또는 'ㄷ랑' (?)의 음가자 표기, 時와 秀는 '수·쉬'의 음가자 표기로, 藪의 뜻.

명월리의 '개구리오름' → 皮文岳[갓글오름·갓그리오름] : 皮는 '갓 / 갓'의 혼가자 표기, 文은 '글'의 혼가자 표기. '거꾸로 누워 있는 오름'의 뜻.

대흘리의 '피꼬리오름' → 巨口里岳[것구리오름], 倒轉岳·倒顛岳·倒賞岳[것구리오름] : 巨口里는 '것구리' [倒]의 음가자 표기, 倒轉·倒顛·倒賞도 '것구리'의 혼독자 표기. 곧 '거꾸로 누워 있는 오름'이라는 뜻.

와흘리의 '기시네오름' → 文士乃岳[그스내오름 > 그스내오름], 叟川岳[그스내오름] : 文은 '글'의 유사음 '그'의 혼가자 표기, 士는 '스 > 스'의 음가자 표기, 乃是 '내' 또는 유사음 '네'의 음가자 표기, 叟는 '그스-'의 혼가자 표기, 川은 '내'의 혼가자 표기. '그스네'는 '고무래'의 방언으로, 오름이 '그스내'와 닮음.

수산리의 南攀峰 → 木邊岳·南花岳[남꽃오름] : 木은 '나무'의 제주도방언 '남 / 낭'의 혼독자 표기, 南은 '나무'의 방언 '남'의 음가자 표기. 邊은 중세한자음이 'ㅈ'인데, '숲'을 뜻하는 유사음 '꽃'의 혼가자 표기, 花는 '꽃'의 혼가자 표기.

사계리의 簞山 → 把古山[바고니메], 破軍山[바구니메], 簞山[바구니메] : 把古는 '바고니 > 바곤이 > 바구니'의 불완전한 음가자 표기, 破軍은 '바구니'의 불완전한 음가자 표기, 簞은 '바고니'의 혼독자 표기, 山은 '뫼'의 제주도방언 '메'의 혼독자 표기.

용담동의 '한독이[한도기]' 또는 '한택이[한데기]' → 大獨浦·大瓮浦·大瀆浦[한독잇개] > 大獨浦里[한독잇개마을] > 大獨里·大獨里[한독잇개마을] > 龍潭[용소] : 大는 '한'의 혼독자 표기, 獨·獨·瀆과 瓮은 '바위 언덕'을 뜻하는 '덕'의 변음 '독'의 음가자 또는 혼가자 표기, '이'는 명사형성접사로 표기에 반영하지 않음. 浦는 '개'의 혼독자 표기.

蓮洞 → 連洞[닛골·닛굴], 連洞村[닛골마을] > 蓮洞 : 連은 '닛-'의 혼가자 표기, 洞은 '골' 또는

제주도방언 '굴'의 혼독자 표기. 蓮은 連을 달리 표기한 것.

삼양동의 '설개' → 所訖浦·所佗浦(소홀개), 鋤訖浦·鋤訖浦(서홀개마을) > 所訖村(소홀개마을), 鋤訖村(서홀개마을) > 所訖里·所訖里(소홀개마을) > 三陽: 所와 鋤는 '소'와 '서'의 음가자 표기, 訖과 訖·佗는 '홀'의 음가자 표기, 浦는 '개'의 혼독자 표기, 村과 里는 '마을'의 혼독자 표기.

삼양동의 '가물개'와 이호동의 '가물개', '감은모살' [玄沙洞] → 可沙浦(가물개) > 可沙浦村(가물개마을) > 可沙村(가물개마을): 可는 '감은' [黑]의 불완전한, 혼독자 표기, 沙는 '모래'의 제주도방언 '모살'의 이전형인 *물개'의 혼독자 표기, 浦는 '개'의 혼독자 표기, 村은 '마을'의 혼독자 표기.

외도동의 '도평' → 坪代(벵디) > 都坪代里(도벵디마을) > 都坪里(도벵디마을): 都是 都近川의 머릿글자인 '도'의 음가자 표기, 坪代는 '평평한 들판' 등을 뜻하는 제주도방언 '벵디'의 음독자와 음가자의 결합 표기, 里는 '마을'의 혼독자 표기. 곧 '도근내' 가까이 있는 '벵디'라는 뜻.

한림읍 上大里 → 召隱貴林村·召 P 貴林村·召貴林村(존귀술마을) > 召隱貴林里, 召貴林里(존귀술마을) > 上大里(웃한술마을): 召는 '조' > '조'의 음가자 표기, 隱은 '은' 또는 '-니'의 음가자 표기, P 은 隱의 부수 卩의 생략자로, '-니'의 음가자 표기, 貴는 '귀'의 음가자 표기, 林은 '숲'의 제주도방언 '술'의 혼가자 표기, 村과 里는 '마을'의 혼독자 표기. 上은 '웃' 또는 '윗'의 혼독자 표기, 大는 '한'의 혼독자 표기.

한림읍 甕浦里 → 獨浦·瀆浦·瓮浦(독개) > 獨浦里(독개마을) > 德浦(덕개(마을)) > 瓮浦里(독개마을): 獨과 瀆은 '독'의 음가자 표기, 瓮과 甕은 '독'의 혼가자 표기, 德은 '덕'의 음가자 표기로, '독'과 '덕'은 '바위 언덕'을 뜻하는 고유어 '덕'임. 浦는 '개'의 혼독자 표기, 里는 '마을'의 혼독자 표기.

애월읍 鳳城里 → 道內山(도내미) > 道內山里(도내미마을) > 於道內山里(어도내미마을) > 於道里(어도마을) > 鳳城里(봉성리): 道는 '입구, 어귀'의 뜻을 가진 제주도방언 '도'의 음가자 표기, 內는 '남' [越]의 변음 '넵'의 음가자 표기, 山은 '뫼'의 제주도방언 '미'의 혼독자 표기. 명사형성접사 '-이'는 표기에서 생략. 於是 '어름비'의 어두음으로, '어도내미'는 '어름비' 가까이 있는 '도내미'라는 뜻. '도내미'는 '도를 넘는 곳'의 뜻.

애월읍 流水岩里 → 今勿德·黑德(금물덕이·검은덕이), 流水岩(흐리물바위) > 今勿德村·黑德村(금물덕이마을·검은덕이마을), 流水岩村(흐리물바위마을) > 今勿德里(금물덕이마을) > 今德里(금덕마을) > 流水岩里(흐리물바위마을): 今勿은 음이 '금물'이지만 유사음 '검을'의 음가자 표기, 黑은 '검은·검은'의 혼독자 표기, 流水는 '흐리물'의 혼독자 표기, 岩은 '바위'의 혼독자 표기. 1996년에 今德里가 流水岩里로 바뀜.

성산읍 蘭山里 → 亂禿村(난미마을), 難山里·蘭山里(난미마을): 亂과 難, 蘭은 '난'의 음가자 표기, 禿은 '미' > '미'의 혼가자 표기, 山은 '뫼'의 제주도방언 '미'의 혼독자 표기.

성산읍 溫坪里 → 餘乙溫(열은이), 與溫(열은이), 閱雲(열은이): 餘와 與는 '여'의 음가자 표기, 乙

은 말음 '리'의 음가자 표기, 餘乙과 閱은 '열'의 음가자 표기, 溫은 '온'의 음가자 표기, 雲은 '운'의 음가자 표기. 곧 '열운 곳 / 열온 곳'(맺은 곳)의 뜻.

〈참고문헌〉

- 김부식(1145), 『三國史記』地理志(『三國史記』 권34, 35, 36, 37 : 1512년 정덕본, 대제각 영인)
『高麗史』地理志(『高麗史』 권56, 57, 58)
『耽羅國主世紀』
『星主高氏家傳』
『高麗史』(권 57, 地理2)
『瀛州誌』(고려말~조선초?)
『朝鮮王朝實錄』(권151, 지리지)
李荇 외(1530), 『新增東國輿地勝覽』
『濟州風土錄』(김정, 『沖庵先生集』 권 4에 수록, 1520-21)
『南溟小乘』(임제, 『백호선생문집』(부록) 소수, 1577)
『南槎錄』(김상헌 편저, 1601-02)
『濟州風土記』(이건, 『葵窓集』 권 5에 수록, 1628-34)
『탐라지』(1653)
『知瀛錄』(李益泰, 1698)
『耽羅巡歷圖』(1702)
『南宮博物』(1704)
『耽羅地圖 并書』(1709)
『耽羅錄』(이형상)
『耽羅狀啓抄』(이형상, 『병와전서』 권10에 수록, 1715)
『耽羅防營總覽』
『濟州邑誌』(1789년 이전?)
『濟州大靜旌義邑誌』(1793년경)
『耽營啓錄』
『耽羅誌草本』
『濟州啓錄』
『耽羅錄』

- 「大東地志」
「輿圖備志」(김정호, 1851-56?)
「濟州郡邑誌」(1899)
「旌義郡邑誌」(1899)
「大靜郡邑誌」(1899)
「濟州郡各公土調査成冊」
「三郡戶口家間摺冊」(1904)
김윤식(1835-1922), 「續繪淸史」
越智唯七(1917), 「新舊對照朝鮮全道府郡面里洞名稱一覽」(태학사 영인)
「耽羅紀年」(김석익, 1918)
淡水契 편(1954), 「增補 耽羅誌」
고병오(1966), 「元大靜郡誌」.
「輿地圖」의 「全羅道」 지도(18세기 전기)
「濟州三邑都摺地圖」
「東國地圖」(19세기 초기)
「海東地圖」의 「濟州三縣圖」(18세기 중기)
「濟州三邑全圖1」
「濟州三邑全圖2」
「靑邱圖」
「大東輿地圖」의 「濟州圖」
「濟州郡邑誌」의 「濟州地圖」(1899)
「旌義郡邑誌」의 「旌義地圖」(1899)
「大靜郡邑誌」의 「大靜郡地圖」(1899)
일제시대의 「濟州島地圖」
국립지리원 5,000분의 1 지도 및 25,000분의 1 지도

강병륜(1990), 「忠淸北道の 地名語 研究」, 인하대 박사학위논문.

강영봉(1994ㄱ), 「제주의 언어 1」, 도서출판 제주문화.

강영봉(1994ㄴ), “제주 지방의 지명”, 『새국어생활』 4-1호, 국립국어연구원.

강영봉(1996), “제주시의 오름과 마을의 이름(1)”, 『제주시』 제4권 제1호.

강영봉(1997), 「제주의 언어 2」, 도서출판 제주문화.

- 건설부 국립지리원(1982), 『한국지명요람』.
- 건설부 국립지리원(1987), 『地名由來集』.
- 권상로(1961), 『韓國地名沿革考』, 동국문화사.
- 김기빈(1987), 『한국의 지명 유래』, 지식산업사.
- 김기빈(1989), 『한국지명의 신비』, 지식산업사.
- 김기빈(1996), 『역사와 지명』, 살림터.
- 김봉현(1960), 『濟州島歷史誌』, 대간 간행.
- 김봉현(1988), 『濟州島の地名考』, 국서간행회.
- 김수경(1989), 『고구려·백제·신라 언어 연구』, 평양출판사.
- 김종철(1994), 『오름나그네 1·2·3』, 도서출판 높은오름.
- 김태능(1964), 『耽羅의 呼稱에 대한 私考』, 『제주도』 13호.
- 김홍식(1979), 『濟州島地方의 地名에 대하여 - 특히 地名接尾辭를 중심으로』, 『논문집』 10집, 제주대.
- 김홍식(1985), 『濟州島地方의 地名語彙考(1)』, 『논문집』 20집, 제주대.
- 김홍식(1986), 『濟州島地方의 地名語彙考(2)』, 『논문집』 22집, 제주대.
- 남제주군(1996), 『남제주군 고유지명』.
- 남제주군(1996), 『통계연보』.
- 남풍현(1981), 『차자표기법연구』, 단국대출판부.
- 내무부(1979), 『地方行政區域發展史』.
- 내무부(1982), 『地方行政地名史』.
- 내무부(1993), 『地方行政區域要覽』.
- 박용후(1992), 『제주도 옛 땅이름 연구』, 도서출판 제주문화.
- 배우리(1994), 『우리 땅이름의 뿌리를 찾아서』(① 산·강·바위 편), 출판회사 토담.
- 배우리(1994), 『우리 땅이름의 뿌리를 찾아서』(② 마을·골짜기·들 편), 출판회사 토담.
- 북제주군(1996), 『제36회 통계연보』.
- 석주명(1947), 『濟州島方言集』, 서울신문사출판부.
- 송하진(1987), 『제주도의 고유 지명보편소에 대하여』, 『장태진박사 회갑기념 국어국문학논총』.
- 송하진(1993), 『삼국사기 지리지 지명의 국어학적 연구』, 동국대 박사학위논문.
- 신태현(1958), 『三國史記地理志의 研究』, 동국대 박사학위논문.
- 아세아문화사(1983), 한국지리지총서 『邑誌』 6(제주도).
- 양주동(1943), 『고가연구(증보판)』, 박문서관.
- 양주동(1963), 『국사고어휘차자원의고』, 『논문집』 1집, 명지대.

- 오성찬(1992), 『제주도토속지명사전』, 민음사.
- 오창명(1993), “제주도지명연구사”, 『돌과 바람의 역사』, 제주역사연구회.
- 오창명(1995), “朝鮮前期 吏讀의 國語史的 研究:古文書 자료를 중심으로”, 단국대 박사학위논문.
- 오창명(1996), “濟州島 地名 表記의 研究-조선 후기 고문서 자료를 중심으로”, 『탐라문화』 16집,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 오창명(1997), “地名의 借字 表記에 대한 解讀-제주지역 오름 이름의 語學的 分析을 중심으로”, 『탐라문화』 17집,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 유열(1983), 『세나라 시기의 리두에 대한 연구』,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유재영(1993), 『전북전래지명총람』, 민음사.
- 이영택(1986), 『한국의 지명』, 도서출판 태평양.
- 이은상(1937), 『耽羅紀行 漢拏山』, 조선일보 출판부.
- 제남신문(1978.8.31~80.6.16), “濟州의 鄉史(1회~185회)”.
- 제주도(1993), 『濟州道誌 1·2·3권』.
- 제주도(1995), 『濟州語辭典』.
-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1996), 『濟州의 옛地圖』.
- 제주시·제주문화원(1996), 『제주시 옛 地名』.
- 진성기(1975), 『南國의 地名由來』, 제주민속연구소.
- 최범훈(1980), “濟州島地名研究”, 『논문집』 8집, 경기대.
- 최범훈(1983), “濟州島 特殊地名에 대하여”, 『한국어계통론.훈민정음연구』, 집문당.
- 충청북도(1992), 『地方行政組織制度史』.
- 한글학회(1984), 『한국지명총람』 16(전남편 IV. 제주편).
- 한글학회(1991), 『한국땅이름사전』.
- 한글학회(1992), 『우리말큰사전』(4. 옛말과 이두), 어문각.
- 현용준(1980), 『濟州島巫俗資料事典』, 신구문화사.
- 현평효(1955, 1972), “탐라의 어의에 대하여”, 『제주도』 53호.
- 현평효(1985ㄱ), 『제주도방언연구』(자료편), 태학사.
- 현평효(1985ㄴ), 『제주도방언연구』(논고편), 이우출판사.
- 현평효(1989), “탐라 언어의 원류”, 『제우문화』 3호, 방송대 제주학회.
- 현평효(1990), “지명을 통해 본 耽羅言語의 源流”, 『제우문화』 4호, 방송대 제주학회.
- 高橋 亨(1957), “제주도명고”, 『조선학보』 9집.

〈마을지〉

- 가시리(1988), 『가시리지』.
강정마을회(1996), 『강정향토지』.
건입동향토문화보존회(1996), 『건입동지』.
광령1리(1990), 『광령약사』.
김만규(1991), 『조천읍지』.
김봉옥 편(1980), 『고내리지』.
김종근(1976), 『예래동지』.
김행옥 편(1984), 『증보 납읍향사』.
남군 신예1리(1988), 『예촌지』.
남원읍 하례2리(1994), 『학림지』.
노형지편찬위원회(1996), 『노형지』, 성심인쇄사.
박수양 편(1986), 『김령리향토지』.
부영성(1986), 『구좌읍지』, 태화인쇄사.
북제주군 구좌읍 한동리(1997), 『둔지오름』(한동리지).
상효1동 마을회(1994), 『상효리지』.
서귀포시 월평동(1992), 『월평마을』.
수산리원로회(1994), 『수산리지』.
신예1리(1994), 『공천포지』.
애월읍(1997), 『읍지』.
연화친목회(1986), 『연동향토사』.
온평리(1991), 『온평리지』.
용당리 향토지 편찬위원회(1991), 『용당리향토지』.
우도지편찬위원회(1996), 『牛島誌』.
위미신용협동조합(1991), 『위미리지』.
이성무(1996), 『불란지야 불싸지라』.
일과1리(1992), 『일과1리지-전통과 협동의 마을』.
재시조수리창조회(1985), 『향토지』.
제주대 박물관(1991), 『영평마을』.
조수리지편집위원회(1988), 『조수리향토사』.

종달리(1987), 『지미의 맥-종달리지』.

판포리 향토지 발간위원회(1995), 『판포리지』.

평대리지 편집위원회(1990), 『평대리 - 비자림 군락의 촌』.

향토지 편찬위원회(1993), 『고성리지』.

화북동운영위원회(1991), 『화북동향토지』.